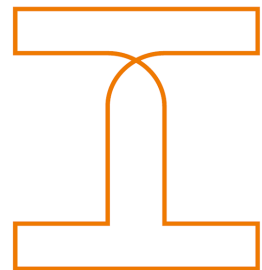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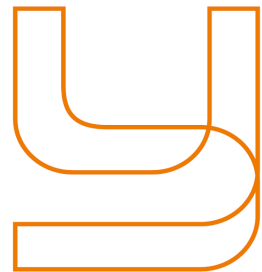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황세영

공동연구원 김남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남수(국토환경연구소·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최 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신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올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발전 목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시작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SDGs는 향후 15년 동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지속가능발전을 성취하기 위해 도달하여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에 걸맞는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삶의 질 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이 기존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보다 확장된 시각을 제공한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 관련 내용은 기존 교육 분야에서 건강, 여가, 고용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청소년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정도는 오히려 후퇴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복지, 건강, 참여·권리, 안전, 정책체계 차원에서 SDGs의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교육지원, 복지부문에 비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권리, 건강, 정책체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SDGs 관점을 기존 청소년 정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포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아일랜드와 독일이 정책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국가 지속가능성 실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향후 SDGs와 관련된 청소년 분야 국가 지표 개발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 15-24세 대상 인식조사 결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등에 대한 관심사를 확인하였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및 청년 활동 사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신 학계 및 현장, 정책 전문가, 청소년·청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구가 미래 지속가능발전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지원 정책을 고민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새로운 발전담론으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위하여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대상으로 하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미래세대로서 청소년 역량 강화 등,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DGs의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정책 과제 및 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SDGs 국내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SDG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조사는 만15-24세 청(소)년 986명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 대한 인식,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및 청년의 활동 및 참여에 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7개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미래세대, 청소년·청년 역량 강화, 청소년 삶의 질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새로운 발전담론으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을 위하여 미래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기존 청소년 정책 및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질을 진단하고, 향후 SDGs 달성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를 통하여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을 도출함. 이를 위해 SDGs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논의와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개념 및 연구의 한계를 검토함.
- 국내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을 분석함. 국가 및 지역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관련 부처의 정책 현황을 청소년 정책 영역에 따라 검토함. 또한 SDGs의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및 2013-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SDGs 국내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함.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청소년 정책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 SDG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점검하고자 국내외 현황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음. 또한 청소년·청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파악하고자 만15-24세 청소년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우리나라 청소년·청년이 지속가능발전에 주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에 대한 질적 조사를 실시함.
-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청소년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분야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콜로키움, 정책실무협의회 등을 실시함.

3. 주요결과

1) 지속가능발전 및 SDGs 관점에 따른 청소년 삶의 질 개념 도출

- 국제사회 지속가능발전 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삶의 질 지표 등을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은 기존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보다 확장된 시각을 제공함.
- 향후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지원함에 있어 기존 정책 영역보다 다양한 영역을 발굴해야 하며,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써야 함.

2)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은 기존 교육 분야에서 건강, 여가, 고용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는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등 여러 중앙부처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바에 기인함. 그러나 청소년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핵심 정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는 정도는 오히려 후퇴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청소년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복지, 건강, 참여·권리, 안전, 정책체계 차원에서 SDGs의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교육지원, 복지부문에 비하여 청소년 활동, 참여·권리, 건강, 정책체계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SDGs 관점을 기존 청소년 정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예컨대 미래세대로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의 영역과 주제가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음. 안전 부문의 경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해외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 아일랜드의 청소년·교육 정책의 경우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모두 청소년을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 보고 이에 필요한 역량 증진을 일관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청소년기본계획 설계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독일의 도시계획 정책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SDG 11 지속가능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4)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인식조사

- 국가 지속가능성 및 청소년 삶의 질 관련 기존 통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복지, 건강, 참여·권리, 안전, 환경 영역에서 SDGs와 관련된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질 현황을 살펴보았음. 이러한 현황 자료는 향후 SDGs 국가 지표 개발시 청소년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일방적인 경제 성장보다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냄. SDGs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노동권, 세대갈등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높았음. 한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 등 여러 사안에 있어 남녀간, 연령층 간 차이점이 발견되어 향후 관련된 청소년·청년 활동 개발에 참조할 필요가 있음.

5)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 청소년 활동 사례로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를 분석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활동을 통해 기여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활동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의 수준과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

- 청년 활동 사례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함.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청년 참여가 갖는 의미와 활동의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사회에서 청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4. 정책제언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 전략, 청소년 활동·참여 영역의 확대, 관련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제시하고,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SDGs와 청소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한 미래세대 청소년 삶의 질 제고”로 제안하였음.
- 이를 위해 1.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2.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3. 청소년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7개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음.
- 추진 일정은 단기, 중기, 중장기로 구분하였으며, 7개 과제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제안하였음.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내용	8
1)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개념 도출	8
2)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8
3) 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정책 사례 분석	8
4) 청소년 삶의 질 실태 2차 자료분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설문 조사	8
5)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9
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9
3. 연구방법	9
1) 문헌연구	9
2) 전문가 자문	10
3) 양적 조사	10
4) 질적 사례 조사	10
5) 기타 연구방법	10
6) 청소년정책 리포트 발간	11
II. 이론적 배경	13
1. 지속가능발전 및 SDGs 논의와 청소년	15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15
2)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서 청소년 역할 규정	30
2.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련성	36
1)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	36
2) 국내외 청소년 삶의 질 지표 현황	43

3)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개념 정립을 통한 본 연구의 접근	47
---	----

Ⅲ.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51

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53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현황	55
1) 헌법상의 미래세대 고려	55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현황	56
3)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현황	67
4)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정책 현황	81
5) 소결	95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석	96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문제점	96
2) 2013-2016년 청소년 시행계획에서의 SDGs 관련성 분석	102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종합적 고찰	140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결과 요약	144

Ⅳ.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147

1.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요	149
2. 국가별 정책 사례	150
1) 아일랜드의 청소년·교육 정책	150
2) 독일의 도시계획 정책	156

Ⅴ.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 분석 171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분석	173
1) 국가 지속가능성 실태	173

2) 청소년 삶의 질 실태	178
3) 소결	206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	209
1) 표본 설계	209
2) 조사 대상	213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214
3. 설문 조사 결과	223
1) 삶의 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223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224
3) SDGs에 대한 인식	233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이슈 관심 및 토래 영향력	237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역량 및 참여	249
6) 소결	257
VI.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분석	261
1. 사례 조사 개요	263
2.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264
1) 노원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	264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	276
VII. 정책제언	291
1.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비전	293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	293
2)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 및 전략	294
2. 정책 제언	296

참고 문헌	335
부 록	359
1. 조사지	361
Abstract	379

표 목차

〈표 II-1〉 영국과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비교	18
〈표 II-2〉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	20
〈표 II-3〉 MDGs와 SDGs의 차이점	21
〈표 II-4〉 SDGs 교육 분야 세부 목표 및 지표	25
〈표 II-5〉 SDGs 고용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27
〈표 II-6〉 SDGs 복지·보건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27
〈표 II-7〉 SDGs 참여·권리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28
〈표 II-8〉 SDGs 기타 분야 내용	30
〈표 II-9〉 의제 21(Agenda 21)의 청소년 관련 내용	31
〈표 II-10〉 유럽 연합의 삶의 질 지표와 OECD의 Better life index 조사 영역	38
〈표 II-11〉 국가별 삶의 질 측정 도구 사례	39
〈표 II-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SDGs 비교	44
〈표 II-13〉 국제 청소년 웰빙 지수, OECD 아동 복지 지표 및 홍콩 청소년 삶의 질 지표 비교	45
〈표 II-14〉 지속가능한 시애틀에 사용된 지표들	47
〈표 II-15〉 SDGs 관점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개념의 확장	48
〈표 III-1〉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54
〈표 III-2〉 미래세대 권리 보호를 위한 5가지 헌법적 접근	56
〈표 III-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57
〈표 III-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9
〈표 III-5〉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60
〈표 III-6〉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상의 이행과제 및 성과 지표 중 청소년 관련 내용	62
〈표 III-7〉 2015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향후 추진 계획 중 청소년 관련 내용	63
〈표 III-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중 건강·여가 분야 청소년 관련 내용	64

〈표 III-9〉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중 교육복지고용 분야 청소년 관련 내용	65
〈표 III-10〉 환경부 청소년 환경교육 사업현황	69
〈표 III-1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최근 사례	70
〈표 III-12〉 한국의 MAB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	72
〈표 III-1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시 및 SDGs 관련성	73
〈표 III-1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현황	74
〈표 III-15〉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76
〈표 III-16〉 청소년특별회의 불수용 과제 예시	77
〈표 III-17〉 부문별 정책기본계획과 산림복지와의 관련성	78
〈표 III-18〉 산림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79
〈표 III-19〉 2016년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80
〈표 III-20〉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치법규 현황	82
〈표 III-21〉 국내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청소년 대상 지표	85
〈표 III-22〉 수원시 '10대 행동의제' 중 지표에서 청소년 관련성	85
〈표 III-2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책임 있는 미래세대 '항목	86
〈표 III-24〉 지방의제 21 청소년 의제 작성 사례	87
〈표 III-25〉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91
〈표 III-26〉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청소년 참여	92
〈표 III-27〉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아동·청소년 의회 및 인권	93
〈표 III-28〉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청년 관련	94
〈표 III-29〉 국가 및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요약	95

〈표 III-3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영역 세부과제	98
〈표 III-3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 세부과제	99
〈표 III-3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영역 세부과제	100
〈표 III-3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 세부과제	101
〈표 III-3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세부과제	101
〈표 III-35〉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청소년 활동	103
〈표 III-36〉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교육 지원	104
〈표 III-37〉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건강	104
〈표 III-38〉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고용	105
〈표 III-39〉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안전	106
〈표 III-40〉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취약계층복지	107
〈표 III-41〉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참여·권리	107
〈표 III-42〉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108
〈표 III-43〉 청소년 정책 부문별, 연도별 예산 추이	109
〈표 III-44〉 청소년 활동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11
〈표 III-45〉 2016년 청소년 활동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	114
〈표 III-46〉 2016년 청소년 활동 부문 정책 사업 예시 (2)	116
〈표 III-47〉 2016년 청소년 활동 부문 정책 사업 예시 (3)	117
〈표 III-48〉 교육지원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18
〈표 III-49〉 2016년 교육지원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20
〈표 III-50〉 건강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21
〈표 III-51〉 2016년 건강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	124
〈표 III-52〉 2016년 건강 부문 정책 사업 예시 (2)	124
〈표 III-53〉 고용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26
〈표 III-54〉 2016년 고용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28

〈표 III-55〉 안전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29
〈표 III-56〉 2016년 안전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32
〈표 III-57〉 취약계층 복지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33
〈표 III-58〉 2016년 취약계층복지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35
〈표 III-59〉 참여권리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36
〈표 III-60〉 2016년 참여권리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38
〈표 III-61〉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139
〈표 III-62〉 2016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40
〈표 III-63〉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SDGs 관련 현황	145
〈표 IV-1〉 해외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개요	150
〈표 IV-2〉 아일랜드 2015-2020 국가청소년전략의 개요	152
〈표 IV-3〉 아일랜드 원조 개발교육 예산 현황	155
〈표 IV-4〉 지속가능한 청소년 참여 법적 제도적 기반	158
〈표 IV-5〉 독일 지자체 및 도시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여 방안들	159
〈표 IV-6〉 슈트트가르트 청소년 참여프로젝트 사례	163
〈표 IV-7〉 소코 기후 프로젝트 사례: 베를린 피토리우스 광장	165
〈표 V-1〉 2012-2014년 국가 지속가능성 사회분야 지표 평가 결과	174
〈표 V-2〉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의 국제 수준의 분석	176
〈표 V-3〉 SDGs 관련 선진국 현황 분석 결과 중 우리나라 현황	177
〈표 V-4〉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영역 및 관련 통계 항목	179
〈표 V-5〉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성 및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요약	208
〈표 V-6〉 시/도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분포	210
〈표 V-7〉 시/도별, 성별, 연령별, 집계구 표본 배분 결과	212
〈표 V-8〉 조사 참여자 기본사항	213
〈표 V-9〉 설문지 조사문항 전문가 검토 현황	214

〈표 V-10〉 청소년 지속가능발전 인식 조사 항목	215
〈표 V-11〉 지속가능발전 인식	217
〈표 V-1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218
〈표 V-13〉 지속가능발전 관련 관심이슈	219
〈표 V-14〉 지속가능발전관련 개인역량	221
〈표 V-15〉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222
〈표 V-16〉 삶의 만족도	223
〈표 V-17〉 좋은 삶, 양질의 삶 유지에 있어 환경 문제 관련 정도	224
〈표 V-18〉 지속가능발전 인식(1)-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225
〈표 V-19〉 지속가능발전 인식(5)-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228
〈표 V-20〉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체)	231
〈표 V-21〉 지속가능발전 인식 (상관계수)	232
〈표 V-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233
〈표 V-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상관계수)	234
〈표 V-2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235
〈표 V-25〉 사회이슈 관심(1)-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238
〈표 V-26〉 사회이슈 관심(2)-계층 간 불평등	238
〈표 V-27〉 사회이슈 관심(3)-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238
〈표 V-28〉 사회이슈 관심(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239
〈표 V-29〉 사회이슈 관심(5)-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239
〈표 V-30〉 사회이슈 관심(6)-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240
〈표 V-31〉 사회이슈 관심(7)-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240
〈표 V-32〉 사회이슈 관심(8)-남한과 북한의 갈등	240
〈표 V-33〉 사회이슈 관심(9)-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41

〈표 V-34〉 사회이슈 관심(10)-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241
〈표 V-35〉 사회이슈 관심 (전체)	242
〈표 V-36〉 사회이슈 관심 (상관계수)	243
〈표 V-37〉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1순위)	244
〈표 V-38〉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1+2+3순위)	245
〈표 V-39〉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246
〈표 V-40〉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	247
〈표 V-41〉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정도	248
〈표 V-42〉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1)-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249
〈표 V-43〉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2)-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249
〈표 V-44〉 지속가능발전 개인역량(3)-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250
〈표 V-45〉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4)-경제적 자립	250
〈표 V-46〉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5)-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251
〈표 V-47〉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6)-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251
〈표 V-48〉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252
〈표 V-49〉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 (상관계수)	252
〈표 V-50〉 참여의향(1)-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253
〈표 V-51〉 참여의향(2)-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253
〈표 V-52〉 참여의향(3)-지역의 생태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254
〈표 V-53〉 참여의향(4)-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254
〈표 V-54〉 참여의향(5)-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254
〈표 V-55〉 참여의향(6)-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년 대표로 참여	255
〈표 V-56〉 참여의향(7)-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255

〈표 V-57〉 참여의향(8)-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255
〈표 V-58〉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256
〈표 V-59〉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상관관계)	257
〈표 V-60〉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 결과 요약	258
〈표 VI-1〉 사례 조사의 범위 및 정책 관련성	264
〈표 VI-2〉 시작된 변화 '참여 기관 현황	267
〈표 VI-3〉 시작된 변화 '활동 사례	269
〈표 VI-4〉 시작된 변화 '연간 활동(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71
〈표 VI-5〉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구성	278
〈표 VI-6〉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주요사업	279
〈표 VII-1〉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제안	297
〈표 VII-2〉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300
〈표 VII-3〉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서울시 조례 예시)	302
〈표 VII-4〉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가(안)	306
〈표 VII-5〉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정책 성과지표(안)	308
〈표 VII-6〉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의 내용(안)	311
〈표 VII-7〉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활동 모형 예시	313
〈표 VII-8〉 청소년 활동 콘텐츠 예시	315
〈표 VII-9〉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19
〈표 VII-1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320
〈표 VII-11〉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기본지표 개정(안)	327
〈표 VII-12〉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 구성(안)	330
〈표 VII-13〉 청소년분야 ODA사업 아이템(안)	332
〈표 VII-14〉 청소년 국제협력활동 활성화 방안	334

그림 목차

【그림 II-1】 CSD 지표와 주제 간 연계	17
【그림 II-2】 지속가능발전시대 모자보건의 새로운 틀	24
【그림 II-3】 청소년 발달에 관한 세 개의 렌즈 접근법	34
【그림 II-4】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한 청소년 권한강화	35
【그림 II-5】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 웰빙의 밀접한 관계	40
【그림 II-6】 국민 삶의 질 측정 영역별 지표수	41
【그림 II-7】 인간 생태계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 삶의 질 구성 요소 개념 모델	42
【그림 II-8】 지속가능성, 환경, 경제, 및 사회(삶의 질 지표)의 관계	43
【그림 III-1】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분야별 현황(2011-2015년)	88
【그림 III-2】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인력 중 청소년 분야 비율(2011-2015년)	89
【그림 III-3】 청소년 정책 부문별 전체 예산 현황(2013-2016 통합 합계)	110
【그림 III-4】 청소년 정책 부문별 증감률 (2013년 대비 2016년)	110
【그림 III-5】 청소년 활동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12
【그림 III-6】 청소년 활동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13
【그림 III-7】 교육지원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18
【그림 III-8】 교육지원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19
【그림 III-9】 건강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22
【그림 III-10】 건강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23
【그림 III-11】 고용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27
【그림 III-12】 고용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27
【그림 III-13】 안전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30
【그림 III-14】 안전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31
【그림 III-15】 취약계층복지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34
【그림 III-16】 취약계층복지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34
【그림 III-17】 참여권리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36
【그림 III-18】 참여권리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137

【그림 Ⅲ-19】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139
【그림 Ⅲ-20】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시행계획 내용의 SDGs 관련 현황	143
【그림 Ⅳ-1】 상승 사다리 형태로 표현된 청소년 참여의 수준 및 분야	157
【그림 Ⅳ-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유형	160
【그림 Ⅳ-3】 벨베르트시의 어린이-청소년참여 프로젝트들	162
【그림 Ⅳ-4】 소코기후의 소재 및 관련 책자들	164
【그림 Ⅳ-5】 베를린시 어린이도시계획 사례	166
【그림 Ⅳ-6】 놀이지침계획 비전 및 목표	167
【그림 Ⅳ-7】 베를린 판코구의 놀이지침계획 도면	168
【그림 Ⅳ-8】 헤센주 인터넷	169
【그림 V-1】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174
【그림 V-2】 청소년 인구비율	175
【그림 V-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82
【그림 V-4】 2013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183
【그림 V-5】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183
【그림 V-6】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	184
【그림 V-7】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185
【그림 V-8】 장애청소년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186
【그림 V-9】 생애주기별 청소년 역량 지수(%)	187
【그림 V-10】 2015년 청소년활동 참여율(%)	188
【그림 V-11】 청소년 사망원인(%)	188
【그림 V-12】 흡연 및 음주율(%)	189
【그림 V-13】 운동 실천율(%)	189
【그림 V-14】 연도별 소아청소년 비만율(%)	190
【그림 V-15】 학교폭력 연도별 현황	191
【그림 V-16】 사이버불링 피해자 수	191

【그림 V-17】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192
【그림 V-18】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	192
【그림 V-19】 2014년 아버지/어머니와 대화시간(%)	193
【그림 V-20】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율(%)	193
【그림 V-21】 청소년 투표율(%)	194
【그림 V-22】 청소년 인권의식(%)	195
【그림 V-23】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195
【그림 V-24】 청소년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	196
【그림 V-25】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197
【그림 V-26】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명)	197
【그림 V-27】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198
【그림 V-28】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198
【그림 V-29】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	199
【그림 V-30】 청년 니트족 추계(천명)	199
【그림 V-31】 청년 비니트족 구성 비중 추이(%)	200
【그림 V-32】 연도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	200
【그림 V-33】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율(최저임금 이하) (%)	201
【그림 V-3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	201
【그림 V-35】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02
【그림 V-36】 2014년 아동학대 신고 현황(건)	202
【그림 V-3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203
【그림 V-38】 부모와 교사로부터 받은 신체적 체벌 경험(%)	203
【그림 V-39】 녹지접근성(m ²)	204
【그림 V-40】 향후 환경상황 전망(%)	205
【그림 V-4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연령대별)	206
【그림 V-42】 삶의 만족도(%)	223
【그림 V-43】 좋은 삶, 양질의 삶 유지에 있어 환경 문제 관련 정도(%)	224

【그림 V-44】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225
【그림 V-45】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226
【그림 V-46】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226
【그림 V-47】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227
【그림 V-48】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227
【그림 V-49】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228
【그림 V-50】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229
【그림 V-51】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229
【그림 V-5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230
【그림 V-53】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체)	232
【그림 V-5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234
【그림 V-55】 사회이슈 관심 (전체)	242
【그림 V-56】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243
【그림 V-57】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246
【그림 V-58】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	247
【그림 V-59】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248
【그림 V-60】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252
【그림 V-61】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256
【그림 VII-1】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	294
【그림 VII-2】 SDGs 시대 청소년정책의 비전 및 전략	295
【그림 VII-3】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국가정책-청소년정책의 추진	296
【그림 VII-4】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 추진 절차(안)	310
【그림 VII-5】 청소년 활동 콘텐츠 다각화 사업 추진 절차(안)	316
【그림 VII-6】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안)	318

【그림 Ⅶ-7】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의 다각화	319
【그림 Ⅶ-8】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통합정보망(안)	321
【그림 Ⅶ-9】 청소년친화적 도시계획 R&D 및 시범사업(안)	323
【그림 Ⅶ-10】 청소년 ODA 중장기 추진 절차(안)	332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 장 서 | 론¹⁾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6년은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새로운 목표아래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유엔은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이어 2016년부터 향후 15년 간 추진할 새로운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MDGs는 평화와 안보,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 등 인류가 당면한 포괄적인 과제를 담은 새천년선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MDGs의 범위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에 한정되었고, 더구나 빈곤을 좁은 의미의 사회개발 의제로만 다루고 있어 빈곤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제 및 환경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UN SG, 2013). MDGs 이후의 개발 의제에 대하여 2014년 유엔 종합보고서에서는 빈곤 종식뿐만 아니라 경제시스템을 변혁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등, 보다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발전 이 글로벌 위기에 직면한 인류사회의 미래 비전이자 정책 목표임을 확고히 하였다(UN SG, 2014).

지금까지는 글로벌,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목표 차원에서 SDGs 담론이 형성되었다면, 이제는 각 국가별로 지역적 맥락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 사회발전의 목표를 수립하며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모색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에 국내에서도 SDGs의 한국적 의미 해석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국회 UN SDGs 포럼이 창립되었으며, 2015년 10월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SDGs를 국내에

1) 이 장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서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시작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SDGs 국내 이행체계 구축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SDGs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국책연구기관 전문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SDGs의 한국적 함의 및 중점 분야를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환경부, 2016). 또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²⁾에서도 2015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에서 SDGs와 관련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주목하여 지방의제21의 역할을 논의한 바 있으며(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 이후 각 지역단위에서도 SDGs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분야에서는 SDGs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돕기 위한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으며, 월드비전, 세이브더칠드런 등 개발 NGO들은 SDGs를 국제사업에 적용하거나 기존 전략을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한재광, 2015).

2015년 9월 경실련이 주관한 간담회에서는 SDGs 17개 목표에 대하여 관련된 국내 실태 및 개선방향을 논의하였다. 제안된 내용 중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부적응자, 자발·비자발적 이탈자, 다문화가정, 탈북 청소년 등 교육 소외자들에 대한 교육 및 진로 지원(SDG 4), 청소년 및 청년층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및 고용지원정책 등(SDG 8), 청소년과 직접 관련된 사항들도 있다(경실련, 2015).

이처럼 SDGs의 이행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을 것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SDGs의 17개 목표³⁾ 가운데 SDG 4는 양질의 교육 보장을, SDG 8은 청년 일자리 보장을 다루고 있어 청소년 연령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목표라 할 수 있으며, 빈곤(SDG 1, 2), 건강 및 웰빙(SDG 3), 성 평등(SDG 5)과 같은 주제들은 청소년 연령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중요성과 현안을 다룰 수 있는 목표에 해당된다. 이에 비하여 산업 및 환경 영역에 걸쳐있는 나머지 목표들은 기존의 청소년 정책 틀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는 개념인 모든 사람이 깨끗한 환경을 누리면서 삶의 질을 보장받는 것으로서 환경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SDGs의 관점은 미래사회에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삶의 질, 안전, 권리 등을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재경·김동영·이정임·이양주·송미영·김희연·강상준·조한솔·주정현, 2013).

2) 1992년 유엔에서 리우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처음 제시된 이래 각 국가별로 민간 협력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의제21(local agenda 21)를 추진할 것이 권고되었다. 국내에서 지방의제21이 처음 추진된 것은 1996년이며,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러한 국내 추진기구 협의체이다(참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http://www.sdkorea.org>에서 2016년 2월 16일 인출).

3) 17개 목표의 세부 내용은 이후 연구내용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SDGs와 청소년 정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SDGs의 세부 목표 각각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내재된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위치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87년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WCED, 1987: 1)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은 청소년을 위한 사회발전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사회발전의 궤적에서 청소년이 갖는 역할을 새롭게 재정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개발프로그램(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에서는 최초의 청소년분야 전략인 「Youth Strategy 2014-2017」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한 인간의 '발전(Sustainable human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도전의 해결과 사회 혁신에 기여하는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상을 강조하였다(UNDP, 2014). 즉, 지속가능발전은 인간이 환경·경제·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확장해 나감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UNDP, 2014: 7).

최근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SDGs의 17개 목표 가운데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SDG 10),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 교육 기회 증진(SDG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SDG 16)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Action/2015, 2015.12.16)⁴⁾.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 형평성의 이슈와 연관되어 있으며, 반면 환경과 관련된 현안의 중요성 또는 대중적인 관심사는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볼 수도 있다. SDGs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정책비전을 수립하고 나아가 이행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더 나아가 미래 발전의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⁵⁾. 더구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곧 다가올 미래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SDGs를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틀로써 바라보며,

4) 출처: <https://www.facebook.com/actionkorea2015/>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5) 이와 관련된 조사로는 2007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수행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조사가 있다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2007).

청소년 삶의 질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 필요한 청소년 정책의 내용 또는 산물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이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2009년 조사 시작한 이래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청소년 자살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⁶⁾.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삶의 질 또는 행복 등을 여러 영역에 걸쳐 측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속가능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을 정의하고자 하는 접근은 고려되지 않았다. 우선 삶의 만족도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미치는 개인 및 환경요인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 연구들로는 박영신·박영균·김의철·한기혜(2011), 조성연·김혜원·김민(2011), 성은모·김군희(2013) 등이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주관적 인식이외에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건강' 등의 영역을 행복의 구성영역에 포함시키거나(박종일·박찬웅·서효정·염유식, 2010), '원리증진',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시켜 주관적 및 객관적 행복지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하정화·김정란·이혜주, 2011). 그 밖에 SDGs와 청소년 삶의 질을 연계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청소년 정책에서 SDGs 관점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김기현·강경균·김정숙·문호영·윤민중·좌동훈·황세영, 2015).

국제비교조사로는 국제청소년웰빙지수(Global Youth Wellbeing Index) 조사가 있으며, '시민 참여',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정보통신기술', '안전' 등 주로 삶의 질에 기여하는 환경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14년 3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시민 참여영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위권에 들었으며 종합순위 3위로 매우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각 영역에서 속한 주관적 인식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를 나타내어 객관적으로 우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⁷⁾. 국제청소년웰빙지수는 과거 MDGs의 세부목표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데 활용되었고, 청소년개발지수(Youth Development Index: YDI)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주로 기본적인 수준에서 사회적·경제적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⁸⁾. 반면 SDGs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대상으로 하며,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실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기본 틀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6) 출처: 한겨레 신문(2014.05.30), 연합뉴스 (2014.09.04).

7) 출처: 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http://www.youthindex.org/>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8) 출처: The Commonwealth, 청소년개발지수(Youth Development Index: YDI), <http://youthdevelopmentindex.org/views/faq.php/>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시각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확장된 관점에서의 이해를 통하여 국내 SDGs의 이행 검토 과정에서 청소년 분야 목표지수(target) 및 성과지수(indicators)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2월 SDGs 글로벌 지표가 확정되고, SDGs를 국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정책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야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SDGs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주체인 청소년 삶의 질과 미래세대로서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으로는 먼저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SDGs와 관련된 국제 사회의 논의와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기존의 개념 및 연구의 한계를 검토하였다. 둘째, SDGs의 관점에서 국내외 청소년 정책 현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에 있어서 청소년과 관련된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DGs의 종합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정책 과제 및 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SDGs 국내 이행과정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향후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셋째, SDG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에 대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청소년 통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SDGs의 여러 영역과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였다. 설문 조사는 만15-24세 청(소)년 986명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 대한 인식,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참여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질적 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및 청년의 활동 및 참여에 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SDGs 시대 청소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1)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개념 도출

본 연구에서는 SDGs와 청소년 정책을 연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지속가능발전전에 대한 논의 및 SDGs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과 접근 방식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및 SDGs와 관련된 유엔 문서, 삶의 질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을 고려한다는 것의 의미와 지속가능발전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2) 국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정책 현황 분석

본 연구의 초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분석 대상의 범위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사례 등을 포괄하였다.

3) 해외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정책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확장과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위해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4) 청소년 삶의 질 실태 2차 자료분석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 인식 설문 조사

이 연구에서는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청소년 통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SDGs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는 만15-24세 청소년 집단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령대는 유엔의 여러 문서 및 국제비교연구에서 주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youth) 집단에

해당되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만15-18세)과 청년(만19-24세) 집단을 비교·분석하였다.

5)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청소년·청년 활동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역량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았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사례를 선정하고, 면담, 문헌분석, 콜로키움 등 다양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활동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분석하였다.

6)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7개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SDGs과 관련된 유엔 문서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역사적 논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의제와 담론을 고찰하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및 삶의 질 관련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 삶의 질 실태 파악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검토함으로써 향후 SDGs 이행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 분야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전문가 자문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환경·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청소년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정책 현안, 설문 조사 문항 개발, SDGs와 청소년 정책의 연계방안 모색 등에 활용하였다.

3) 양적 조사

본 연구에서는 만15-24세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지속가능발전 인식 및 역량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설계는 가구표본조사로 이루어지며, 2016년 4월 현재 주민등록인구통계와 통계청 집계구를 표본 틀로 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으로 986명을 대상으로 표집된 가구들을 직접 방문하여 응답자와 대면하는 방식인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과제와 함께 통합조사의 형태로 실시되었다.

4) 질적 사례 조사

질적 조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청소년 및 청년의 활동 및 참여에 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5) 기타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간 현안 이해 및 소통을 통하여 SDGs와 청소년 정책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향후 SDGs 달성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의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콜로키움

본 연구에서는 SDGs의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고 공유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제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1차 콜로키움의 경우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의 프로그램(2016. 6. 11)으로 진행함으로써 학계 및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하였다. 2차 콜로키움은 2016년 9월 30일에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교육, 환경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내 청소년 정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여러 분야 간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모색하고자 정책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중앙부처로는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정책실행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경기도환경교육센터, 창원의제21추진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6) 청소년정책 리포트 발간

본 연구의 필요성과 쟁점 및 주요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NYPI 정책브리프를 연구성과물로 기 발간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리포트(vol. 76)는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발췌·요약한 것이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 및 SDGs 논의와
청소년
2.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련성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지속가능발전 및 SDGs 논의와 청소년⁹⁾

이 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SDGs와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삶의 질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존 청소년 정책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 삶의 질 개념에서 확장된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하고 모색할 수 있는 연구의 관점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를 개념과 지표, 그리고 청소년을 보는 시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삶의 질 개념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1)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지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어 국제 사회의 발전 목표로 설정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논의를 토대로 설정된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는 새로운 담론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심화는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환경 및 생태위기를 파생하였고, 이후 197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물질적 성장과 개발을 토대로 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에서는 「우리 공동의 미래」 보고서를

9)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김남수 박사(국토환경연구소)가 공동 집필하였음.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의 담론으로 제시하였다(WCED, 1987). 마침내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환경보존과 경제성장 사이의 균형을 전 인류의 미래를 위한 발전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원칙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 사회, 환경 모든 영역의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 미래세대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WCED, 1987: 45). 하지만 현 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어떻게 명확히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가 등을 둘러싼 논쟁을 감안하면 지속가능발전 혹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열린 개념으로서 사회 구성원 간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엔환경개발회의(WCED, 1987)에서 제안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같이 널리 알려져 있고 공유되고 있는 몇 가지 정의들은 그 원칙이나 방향을 정하는 데 일조하지만,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거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논의하는 지역과 시기를 반영하여 구체화된다. 가령,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경우 2000년 무렵 개발도상국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할 중요한 발전 영역과 목표를 설정한 것이라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6년 무렵 현재적 시점에서 2030년까지 인류가 최소한도로 도달해야 할 발전 목표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 지표(indicators)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정책으로 구현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가령,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UNCSD)는 1995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표(CSD indicators)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였다(DES, 2007). 이러한 지표 개정 작업은 지표가 지표로써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와 함께 지표를 통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지속적으로 확대 또는 진화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은 2001년에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2006년에 개정하였다(Adelle & Pallemarts, 2009).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기둥이라고 일컫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로 구분하지 않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핵심 주제를 먼저 설정했다.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차원적인 성격을 강조(UN, 2007: 15)”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지표 설정 결과 보고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각 주제 간 관계를 제시하면서 특정 지표 하나 당 하나의 주제 영역에 해당하기 보다는 여러 주제에 연결이 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UN, 2007). 예컨대, 안전한 식수 접근권을 가진 인구 라는

지표는 기본적으로 빈곤과 보건에 관련이 된다. 그러나 이는 또한 정부의 물 관련 시설 관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거버넌스와의 관련이 있다. 또한 담수는 물 자원 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경제 발전과도 관련이 있다.

	빈 곤	거 버 넌 스	건 강	교 육	인 구 통 계	자 연 재 해	대 기	토 지	해 안 · 바 다 · 연 안	담 수	생 물 다 양 성	경 제 개 발	근 로 별 경 제 파 트 너 십	소 비 와 생 산 패 턴
국제빈곤선 이하 생활 인구 퍼센트														
국제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국민소득점유율 최상위최하위 비율 (5분위)														
개선된 위생시설 사용인구 비율														

* 출처: UN CS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The Future We Want, Outcome document adopted at Rio+20. <http://www.un.org/en/sustainablefuture/> pp. 15-20.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그림 II -1】 CSD 지표와 주제 간 연계

또한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지표에는 차이가 있다. 영국과 독일의 지표를 비교해보면, <표 -1>와 같이 영국은 이른바 지속가능발전의 세 가지 기둥으로 알려진 사회, 환경, 경제 분야로 영역을 구분하였고, 각 영역에서 대표 지표를 설정하면서 각 영역 간 균형을 강조하였다.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국가 지표에도 해당된다. 반면에 독일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과 삶의 질 및 사회 통합 등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각 주제별로 사회, 환경, 경제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원 관리와 기후 보호, 부채 관리 및 교육 등을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래세대의 요구 충족을 저해하지 않고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이 반영됨으로써 미래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이 현재의 사안들을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고, 현재의 성인들과 동등하게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이해당사자로서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I -1 영국과 독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비교

영역	영국			독일			
	경제	사회	환경	세대 간 형평성	삶의 질	사회 통합	국제적 책임
대표 지표	경제적 번영, 장기 비고용 (실업), 빈곤, 지식, 기술	기대 건강 수명, 사회적 자본, 성인의 사회 이동(지위 변화), 주거공급	온실 가스 배출, 자연 자원 사용, 야생 동물, 물 사용	자원 보전, 기후 보호, 재생가능 에너지원, 토지 이용, 종 다양성, 정부 부채, 미래 경제 안정 제공, 혁신 교육과 훈련	경제적 역량, 이동, 농업, 대기 질, 보건과 영양, 범죄	고용, 가정 역할, 일과 생활의 균형 개선, 동등한 기회, 사회 내 동등한 기회 촉진, 외국인 통합	개발 협력, 시장 개방

* 출처: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3)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ement-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series/sustainable-development-indicatorsv/>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ESDN), NSDS: Perspectives for Germany (2002), <http://www.sd-network.eu/?k=country%20profiles&s=single%20country%20profile&country=Germany/>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우리나라 역시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지속가능발전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84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통하여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 정책과의 관련성은 3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SDGs의 주요 내용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1972년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비롯된 것을 감안하면

SDGs 관련 논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SDGs는 역사적으로 유엔이 주도해 온 논의와 의제가 집약된 결과라 볼 수 있다(김태균 외, 2015).

2016-2030년 개발의제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이름이 처음 제시된 것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Rio+20 회의에서 보고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문서에서이다(UN CSD, 2012). 이후 출범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공개작업반에 의하여 2014년 세부목표 17개와 169개 세부목표로 된 SDGs의 내용이 발표되었다(UN OWG, 2014). 2014년 12월 유엔 총회에 제출된 종합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한 변혁을 시대의 소명으로 제시하고, 존엄, 사람, 번영, 환경, 정의, 파트너십 등 6가지를 SDGs를 위한 필수요소로 제안하면서 SDGs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UN SG, 2014).

SDGs의 17개 목표는 사회발전, 경제개발, 환경의 영역에 걸쳐있으며, SDG 16과 SDG 17은 이행 기제에 해당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SDGs의 세부 내용은 <표 2>과 같다. SDGs를 부문별로 살펴보면¹⁰⁾ 우선 사회발전 부문은 MDGs와 유사하게 빈곤, 보건, 교육,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성평등과 같은 범 분야 이슈가 세부 목표에 걸쳐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발전 부문은 빈곤퇴치를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MDGs를 계승하고 있지만, 절대빈곤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박탈현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빈곤층을 원조 수혜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하며, 불평등 해소, 성장과 고용, 산업화, 지속가능성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부문의 경우 MDGs에서 다루지 못했던 에너지, 기후변화, 산림, 사막화, 토지 황폐화, 해양자원 및 오염 문제 등 세부 분야를 새롭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기후변화와 같이 각국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하여 공통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행기제에 대한 SDG 16과 17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 개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MDGs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화 방안까지는 제시되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김태균 외, 2015: 9-41).

10) 이 내용은 action/2015 Korea의 보고서 “유엔의 Post-2015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주요 내용과 의의”에서 요약·정리하였다.

표 II-2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내용

SDGs	부문	목표	주제
총괄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빈곤
부문별	사회발전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식량/농업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보건/건강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	교육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젠더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주거
	환경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물/위생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에너지
		13.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기후변화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해양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환경
	경제발전 목표 (1, 2, 17도 관련)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노동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경제
		10.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불평등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소비
이행기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거버넌스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 출처: 김태균 외(2015).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내용과 의의.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사이트 http://www.kofid.org/ko/post2015_goal.php/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SDGs의 방대한 목표 수는 MDGs를 계승하면서도 환경·경제·사회 영역을 통합성과 연관성을 강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국가 간 개발격차와 불평등의 심화,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 등 변화하는 국제환경을 반영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권율·이상미·송지혜·유애라, 2015: 3). 따라서 MDGs가 주로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SDGs는 선진국의 환경 문제, 계층 간 형평성 문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 문제 등, 선진국도 목표 달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표 II-3〉 참고).

표 II-3 MDGs와 SDGs의 차이점

구분	MDGs (2001-2015)	SDGs (2016-2030)
구성	8개 목표 + 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 + 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의료 등 사회 분야 중심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http://ncsd.go.kr/app/sub02/20.do>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이와 관련하여 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SDGs의 17개 목표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등 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이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 노력뿐 아니라 자국 내의 불평등 문제에도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선진국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담론도 형성되고 있다(Osborn, Cutter & Ullah, 2015; The Guardian (2015.09.25); Citiscope (2015.05.18)). 본 연구의 목적은 SDGs의 국내 이행방안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국내 청소년 실태 및 정책 현황을 주로 분석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ODA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조되는 등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 사안이므로, SDGs의 이행을 위한 청소년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7장 정책 제언에서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및 ODA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처럼 SDGs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각 국가별, 그룹별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한편, SDGs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SDGs가 추구하는 보편성과 포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목표가 분산되어 방향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포용성은 지나치게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김태균 외, 2015: 26).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와 국제사회과학위원회(International Social Science Council: ISSC)가 공통 발간한 검토 보고서에서는 SDGs에서 불평등, 부적절한 소비문제, 제도적 구조 및 역량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장벽이 언급되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전략과 방법 등 구체적인 “변화의 서사(narrative of change)”가 미약함을 지적하였다(ICSU & ISSC, 2015: 8).

SDGs의 후속 논의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SDGs의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이행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둘째, SDGs를 실제로 이행할 것을(action-oriented)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수준에서의 적용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SDGs 자체는 글로벌한 성격을 지닌 보편적인 담론이지만, 이행 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국가적 상황, 역량, 발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MDGs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통합과 영역 간 상호관련성을 통해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과제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Pisano, Lange, Berger & Hametner, 201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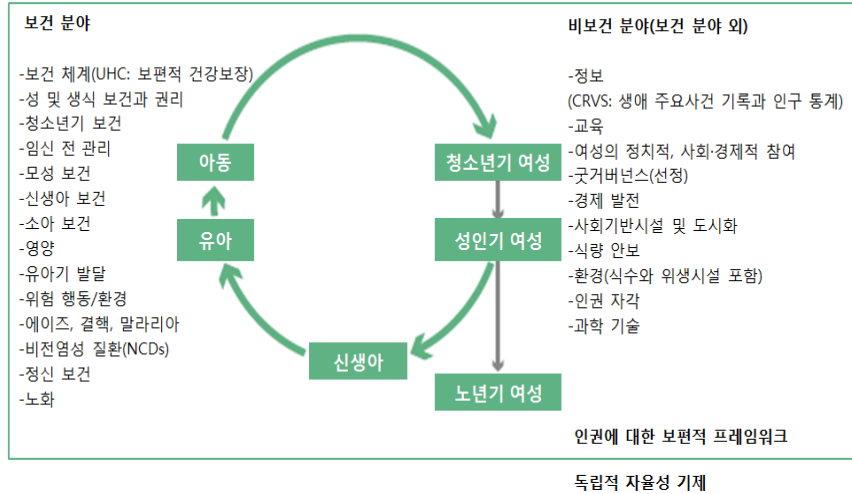
SDGs가 공표된 이후 여러 유엔 산하 기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내용을 확인 및 강조한 바 있다. 가령, UNDP는 빈곤(SDG 2), 교육(SDG 4), 성 평등(SDG 5), 양질의 일자리(SDG 8), 불평등 해소(SDG 10), 기후 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파트너십과 이행기제(SDG 17) 등을 청소년과 직접 관련성 있는 목표로 파악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통한 적극적인 이행을 표명하였다(UNDP, 2016). 유니세프의 경우에는 SDGs의 모든 목표에 걸쳐 아동의 웰빙 및 권리 향상과 관련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UNICEF, 2014). 빈곤(SDG 1, 2), 건강(SDG 3), 교육(SDG 4), 성 평등(SDG 5) 등 아동의 웰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표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물(SDG 6), 에너지(SDG 7), 일자리(SDG 8), 불평등(SDG 10), 도시(SDG 11), 기후변화(SDG 13),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SDG 16) 등의 목표 등은 아동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환경적인 여건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이외에도 혁신(SDG 9),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SDG 12), 해양 보존(SDG 14), 육상생태계 보호(SDG 15), 이행 수단(SDG 17)의 경우에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서 이행 과정에서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간주한다.

유네스코의 경우 주로 교육(SDG 4)과 관련된 사업을 통하여 SDGs에 기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UNESCO, 2015). SDG 4에서는 직접적으로 청소년을 언급하고(“청소년의 문해와 기초 산술능력을 성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세부 목표 4) 및 사회적 배려 계층의 교육 접근 보장(세부 목표 5), 인권, 양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세부 목표 7)을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육 목표에는 2001-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추진해 온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운동 이후의 글로벌 교육 의제 논의 역시 포함되었다(김진희 외, 2014).

SDGs에서 건강 및 보건 관련 목표는 청소년 집단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기존의 모자보건정책에서 진일보하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삶의 질 문제를 포괄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그룹 보고서를 통해 유엔의 「Every Woman, Every Child initiative」등 여성과 아동의 웰빙 증진을 위한 노력들이 SDGs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웰빙의 순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아이디어는 인권을 위한 보편적 틀(Universal framework for human rights)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iERG, 2014: 74).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틀의 특징은 첫째, 기존 모자보건증진의 개념은 출산, 산모, 신생아, 아동의 보건 및 영양(Reproductive, maternal, newborn, and child health: RMNCH)에서 확장하여 청소년기(adolescent)를 포함한다(RMNCAH). 둘째, 보건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루기 위하여 전통적인 보건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보, 교육, 참여,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포괄하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강조한다(iERG, 2014: 74).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여성 및 아동 보건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 제시



* 출처: IERG (2014). Every Woman, Every Child: A Post-2015 Vision. The third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Review Group on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p. 74.

【그림 II-2】 지속가능발전시대 모자보건의 새로운 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SDGs가 청소년 정책에 갖는 함의는 SDG 4 교육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여러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우선 SDGs 목표(goal) 및 세부목표(target)를 비롯하여 글로벌 지표(indicator)¹¹⁾를 중심으로 청소년(청년 포함)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3) SDGs 주제별 청소년 관련 내용

SDGs은 내용면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가 등 모든 '국가에서 달성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 SDGs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국가별 상황과 이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SDGs에 대한 국가적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한다.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목표(target) 및 글로벌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2016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는 IERG-SDGs 보고서 241개 지표를 글로벌 지표로서 제시하였다. 글로벌 지표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지표로 제시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각 국가별로 발전 수준과 현안에 맞게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국가 지표 틀 개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계청을 중심으로 글로벌지표 검토 및 국가지표 프레임워크 개발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통계청, 2016).

우선 SDG 4 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4.2), 기초 문해율과 수리력(4.6), 교육 ODA(4. b, c)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당면한 이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표 4>와 같다. 교육 지표의 경우 글로벌 지표 외에도 유네스코가 SDGs 교육 분야 이행을 위해 제시한 지표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대한 접근성 또는 기초 문해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교육권에 해당하는 목표들은 거의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의 교육의 역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교육 관련 세부 목표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우선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질의 학교교육,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등의 정책 이슈가 있다.

또한 4.7과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양식,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을 주요 이슈로 도출할 수 있다. 특히 4.7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세계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고위급회의와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한국 정부의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국내 및 국제적 확산에 대한 책무를 갖게 되었다(박수연·양혜경·장은정, 2015: 79).

표 II-4 SDGs 교육 분야 세부 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글로벌 지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생 교육 기회 증진	
4.1. 2030년까지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교육을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보장	•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수 • 무상 의무 교육 연한
4.3. 2030년까지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적당한 양질의 기술, 직업 그리고 고등교육에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	• 고등교육 취학률 • 15-24세의 기술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 청년/성인의 지난 12개월간 형식, 비형식 교육 및 훈련 참여율
4.4. 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기술적 혹은 직업적인 능력을 갖춘 청소년 및 성인의 수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	• 연령,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별 청년/성인의 교육 이수율

SDGs 세부목표	글로벌 지표
4.5. 2030년까지 교육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에게 모든 수준의 교육과 직업훈련에 동등한 접근 보장	- 여성/남성, 농어촌/도시, 하층/상층*, 장애, 분쟁 영향 등으로 세분화된 평등 지표* - 모국어가 수업 강의 언어가 아닌 초등학생의 비율 - 취약인구에게 교육 자원을 재분배하는 명확한 공식적 정책의 유무 - 학교 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과 재원 - 교육 분야 ODA 예산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함에 대한 공감을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키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	- 환경과학과 지구과학 주제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정해진 수준 이상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중학교에 다니는 15세 학생의 비율. 각 주제의 정확한 선택범위는 선택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설문이나 실험에 의해 결정됨(글로벌지표) - GCED 및 ESD의 국가 교육 정책, 교육과정, 교사교육, 학생 평가 포함 여부 - GCED와 ESD의 이슈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 - 환경 과학 및 지구과학 지식에 전문성을 보이는 15세 학생의 비율 -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국가적 적용
4.a. 아동, 장애 및 성인지적인 교육시설을 세우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인 효과적 학습 환경을 제공	-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자료가 있는 학교 비율* - 집단 따돌림, 체벌, 희롱, 폭력, 성차별, 학대 등을 경험한 학생 비율 - 학생, 관계자, 기관에 대한 공격 횟수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 141.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5). 유네스코 SDG 국제교육협력 포럼: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 주: *표시는 유네스코지표와 글로벌 지표에 모두 해당.

다음으로 <표 -5>에서와 같이 SDG 8은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에 대한 것으로 후기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성이 깊다. 우리나라는 최근 청년 실업 및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으로 정책적 요구가 매우 높으며, SDG 8에서 제시하는 청년 NEET 비율의 감소, 노동권 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표 II-5 SDGs 고용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지표
8. 모두를 위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과 여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 달성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 비율을 상당 수준으로 감소	•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나 실업상태인 15-24세 청년 비율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위해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증진	-
8.b. 2020년까지 청년실업에 대한 글로벌 전략수립 및 운영; 국제노동기구의 ILO Global Jobs Pact 이행	-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 14). pp. 144-145.

다음으로 SDGs에서 보건·복지 분야는 청소년 집단에 특수한 영역은 아니지만 생애주기별 정책 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 청소년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표 II-6>). 우선 SDG 1은 우리나라에서는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와 관련된다. 세부목표 1.5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계층 보호는 빈곤 문제에 대한 환경 복지의 관점을 요구하며,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주된 과제로 모색되어야 할 주제이다. SDG 2는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빈곤 아동 급식 지원과 식재료 안전성 등의 현안이 있다. SDG 3은 건강 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목표이며, 관련 우리나라 청소년 이슈로는 수면권, 정신건강 관리,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있다.

표 II-6 SDGs 복지·보건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지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개발하고, 기후와 관련된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	-
2. 기아의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상태 개선의 달성 및 지속가능 농업 강화	

SDGs 세부목표	지표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일 년 내내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부족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
3. 건강 및 웰빙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해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3만큼 감소시키고 정신건강 및 웰빙을 증진	자살 사망자 비율
3.5. 마약 및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을 포함한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 강화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목적을 포함한 성 그리고 임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임신보건을 국가전략 프로그램에 통합을 보장	-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 14), pp. 138~140.

다음으로 SDGs 가운데 참여·권리 분야로는 성 평등(SDG 5), 불평등(SDG 10), 폭력근절 및 사회참여(SDG 16) 등이 해당된다(〈표 II-7〉). 성 평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양성 평등 교육,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성 폭력 등의 이슈가 있다. 다음으로 SDG 10에서 국가 내 불평등의 이슈는 장애인, 아동, 이주민, 탈북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관련된다. SDG 16에서 우선 16.1과 16.2 폭력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문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16.7 참여적 정책 의사결정에는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정책 등이 관련된다.

표 II-7 SDGs 참여·권리 분야 세부목표 및 지표

SDGs 세부목표	지표
5. 양성평등 달성 그리고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강화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다른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사적 영역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	•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는 15세 이상의 소녀/여성 중에서 현재 또는 이전의 친분이 있는 파트너로부터 신체, 심리,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 지난 12개월 동안 15세 이상의 소녀/여성 중에서 친분이 없는 파트너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비율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SDGs 세부목표	지표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혹은 경제적 또는 기타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포용을 강화하고 증진	성별,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분류된 중간소득 50%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중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	- 최근 1년 사이 신체/심리/성적 학대를 경험한 인구의 비율 - 살고 있는 지역을 혼자 다니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최근 몇 달 동안 양육자로부터 체벌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1-17세 아동의 비율 - 성적 학대를 경험한 18-24세의 젊은 여성/남성의 비율
16.7. 모든 수준에서 공감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참여지향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의사결정을 보장	- 국가기여도 대비 공공기관(중앙, 지방의 입법, 행정, 사법기관) 내에서의 직위(성별, 연령, 장애여부) 비중 - 국가발전계획이나 빈곤감축정책에 젊은 인구의 다중욕구를 포함하는 나라의 비중

* 출처: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 14). pp. 142-152.

마지막으로 나머지 분야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표 8-8). 우선 SDG 6, 7, 11, 12, 13, 14, 15는 기후변화, 생태계, 에너지 등 환경사안으로, 이들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 역량을 기르고, 시민으로서 주요 환경 사안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SDG 11. 안전 및 지속가능 도시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와 개발과 거버넌스에 청소년의 역할과 활동 영역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DG 13 기후변화 관련 세부목표 가운데 13.3에서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과정 실시 및 기후변화 관련 지식의 향상 정도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소년 활동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SDG 17은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수단에 관한 것으로, 국내적으로는 청소년 정책이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지자체, NGO 등 여러 사회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는 청소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표 II-8 SDGs 기타 분야 내용

SDG 목표 및 세부목표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 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9. 혁신과 인프라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의 수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해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모두를 위해 안전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접근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공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적·통합적·지속가능한 정주 계획과 관리 확대	
11.7. 2030년까지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한 녹색 및 공공장소 제공(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양식 보장	
12.8.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보장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고취, 인구 및 제도 역량 개선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황폐화 중단 및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17. 이행수단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 14). pp. 143-155.

이처럼 SDGs의 세부목표와 지표가 제시되었지만, 국가별로 발전 수준과 정책 현안이 상이하므로 SDGs를 국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향후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지속가능발전 및 SDGs에서 청소년 역할 규정

1992년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채택된 의제 21(Agenda 21)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실천 당사자 그룹을 여성, 아동과 청소년, 원주민, 민간단체, 지방정부, 노동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민 등 9개 주요 그룹으로 설정하고, 각 그룹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목표, 정책 수단, 실행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 그룹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25장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표 II-9>와 같다.

이와 같은 의제의 내용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증진하고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앞으로 SDGs의 세부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견지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의제 21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3장에서 기술하기로 한다.

표 II-9 의제 21(Agenda 21)의 청소년 관련 내용

구분	내용
서문	25.1 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구성. 환경,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Agenda 21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함.
계획분야	A. 환경보호 및 경제 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증진 및 적극참여
정책방향	25.2 전 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그들은 지적이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덧붙여,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함.
	25.3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 - 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의 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제공 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종 조치 및 권고안이 제시되어 왔음. 이러한 쟁점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목표	25.4 각국은 청소년 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과 정부 간 대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Agenda 21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
	25.5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 50%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성별에 관계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5.6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함. 특히 전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25.7 UN 및 각국은 모든 UN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의 창출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 함.
	25.8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 퇴치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법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 등을 제공하여야 함.

구분	내용
정책수단	25.9 각국 정부는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1993년까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국제적, 국가적, 지방수준에서 남녀 청소년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청취 및 참여를 촉진시키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함. (b) 환경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 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c)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 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d) 모든 청소년들에게 어디서든 가능한 곳에서 대안적 학습구조(alternative learning structures)를 제공하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함. 교육은 청소년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커리큘럼에 환경인식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은 예컨대, 환경 scouting과 같은 실제적인 기술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방식을 실행케 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e)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안적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남녀 청년층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 (f)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 청소년층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awareness)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민간 청소년기구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설치함. 이러한 위원회는 최다수 관심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방식을 사용하여야 함. 전국 및 지방의 대중매체,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은 이 위원회를 지원하여야 함. (g)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트워크, 전국적 기구 및 민간 청소년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각 기관의 고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을 검토하도록 함. 프로젝트탐색, 설계, 실행, 사후관리(follow-up) 등에 청소년들이 개입되도록 함. (h) 1968, 1977, 1985, 1989년에 채택된 UN총회 결의안에 입각하여 국제적 회합 참가단에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킴.
	25.10 UN 및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는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각 기관의 청소년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프로그램간의 협력증진 방안을 모색함. (b) 현재 청소년의 현황 및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각국 정부, 청소년단체, 기타 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Agenda 21의 적용을 감시, 평가함. (c)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요구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청소년의 해'를 위한 UN신용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청소년대표와 협력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25.11 UNCED사무국은 이 Chapter의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국제 사회에서 보조금(grant) 또는 양여금(concession)형태로 조달되며 이는 연평균 (1993-2000년) 1백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이러한 추정액은 현재 단지 예산규모를 시사해 줄 뿐, 각국 정부에 의해 아직 검토된 사항이 아님. 실제 비용 및 non-concessional한 것을 포함한 재정액은 각국 정부가 실행하고자 결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에 따라 좌우될 것임.

* 출처: UNCED(1992), 의제 21 전문(국문 번역본), pp. 285-288.

http://unep.or.kr/sub/sub05_02.php?mNum=5&sNum=2&boardid=data2&mode=view&idx=8/ 2016년 5월 11일 인출.

의제 21(Agenda 21)의 36장에서는 1)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 2) 지속가능한 세계의 구축을 위하여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까지 교육과정 전반의 혁신, 3)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대중 인식 및 이해 증진, 4)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노동 인력의 훈련

등을 강조하였다¹²⁾. 이후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담(WSSD)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의 지정이 제안되고, 그 해 열린 제57차 유엔총회에서 2005-2014년을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UN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의 실행기간으로 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이라는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폭넓게 통용되었다(UNESCO, 2005).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출범된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중심으로 ESD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PCSD에서 유엔 ESD 10년 국가추진전략을 발표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공포되는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이선경 외, 2014: 13).

ESD의 영역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시민사회, 민간영역, 대중인식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과정과 학습을 포괄한다¹³⁾. 지속가능성이라는 쟁점은 환경, 경제, 사회·문화 사이의 관계 및 그 복잡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ESD에서 다루는 내용의 폭은 매우 넓다(Wals, 2009). 또한 여러 주제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기존에 있던 교육적 혁신과 접근을 확장하고 보다 통합적이고 실행 중심적이며,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교수 학습 방법을 요구한다(UNESCO, 2011: 3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이러한 특징으로 규정된 데에는 사회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른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지속가능발전 경로나 방법에 대해서 전달받거나 배우는 교육의 대상이기 보다는 지속가능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주도하는 주체가 되어야 우리 공동의 미래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청소년 역시 단순히 교육과 육성의 대상이기 보다는 참여와 의사 결정의 주체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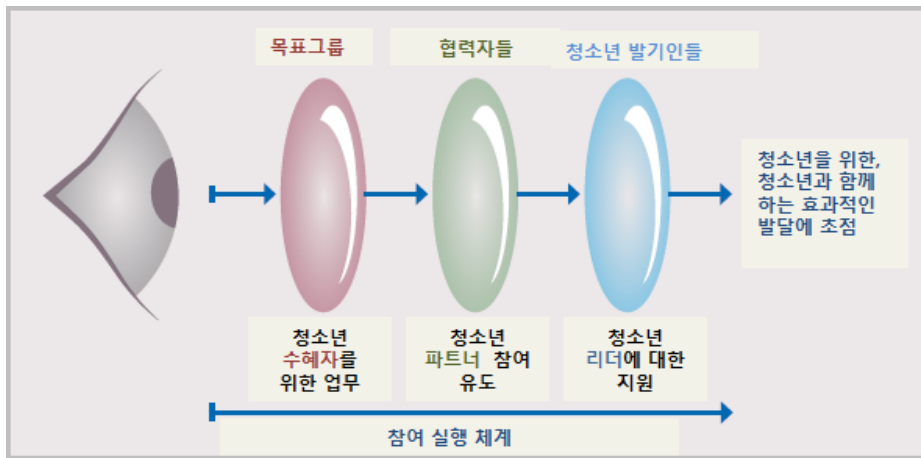
최근 SDGs 관련 논의에서 이러한 시각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엔 주요 그룹(UN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에서는 SDGs의 이행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기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하는 모든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SDGs의 주제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우선순위 과제로 청소년 권한강화, 참여, 역량강화, 교육, 고용, 기업가 정신, 성평등, 건강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빈곤, 이행 기제 등을 제시하였다(UN MGCY, 2015).

다른 유엔 기관 중에서 SDGs와 관련된 논의는 우선 유엔 개발프로그램(United Nations

12)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의제 21의 구성과 내용. <http://www.me.go.kr/home/file/readHtml.do?fileId=1709&fileSeq=2>에서 2016년 2월 16일 인출.

13) 예컨대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2005-2014) 기간에 대한 한국 보고서에서는 이를 포함한 10개 영역에서 ESD의 성과를 정리하고 있다(이선경 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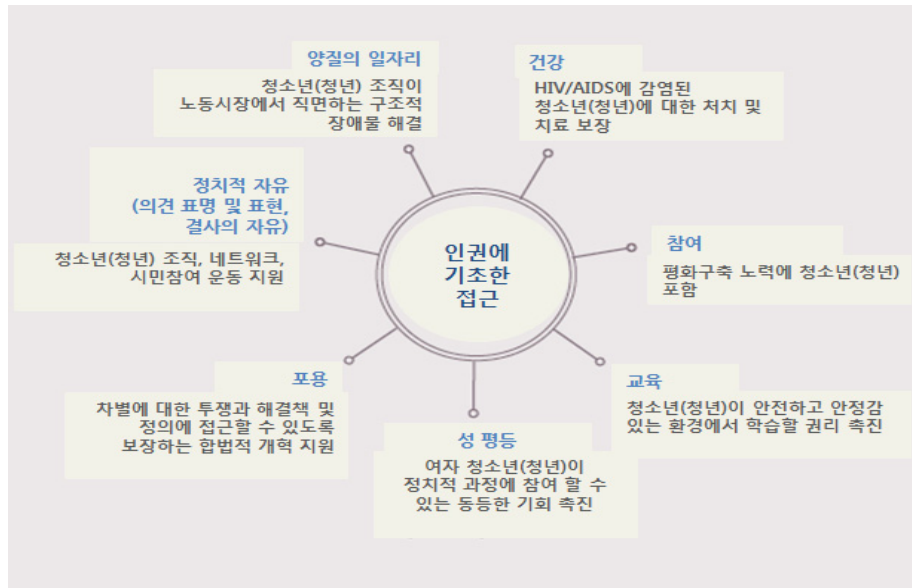
Development Programme: UNDP)의 「2014-2017년 청소년 전략(UNDP Youth Strategy 2014-2017)」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UNDP의 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이 지역사회개발 또는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단지 참여활동의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파트너와 실행의 주체적인 리더로서 볼 것을 강조한다.



* 출처: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p. 23.

【그림 II -3】 청소년 발달에 관한 세 개의 렌즈 접근법

또한 [그림 -4]에서와 같이 UNDP 전략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을 양질의 일자리, 건강, 참여, 교육, 성 평등, 포용, 정치적 자유 등 7가지 영역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들은 모두 SDGs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출처: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p. 26.

【그림 II -4】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한 청소년 권한강화

한편 1995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시작된 「세계 청소년 실행 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이하 UN WPAY)」은 유엔에 전 세계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별 조치와 국제적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구성하는 정책 틀을 제공한 바 있다(UN, 2010). UN WPAY는 15 가지의 우선 과제¹⁴⁾ 영역을 정하고 각 영역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5년, UN WPAY 20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는 우선 과제 영역들과 관련해서 그간의 UN WPAY이 이루어낸 성과를 검토하고, “2015년 이후 발전 의제의 모든 측면에서 청소년 사안들을 심도 깊게 고려” 할 것을 주문했다(Kutesa, 2015a: 3). 그 결과 WPAY 이행에 있어서 기아, 빈곤, 여가, 무장 갈등, 충분한 참여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폭력과 같은 과제들은 교육과 식량에 대한 보다 나은 접근권과 정보 기술을 통한 청소년 권한강화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2015년 이후 발전 의제를 이행할 때 청소년과 청소년 조직에 충분히 자문을 구하고,

14)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보건, 환경, 약물 남용, 법과 갈등 중인 청소년, 레저 시간 활동, 소녀와 젊은 여성들, 사회 생활 및 의사 결정에서 청소년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참여, 지구화,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 HIV/AIDS, 무장 갈등, 세대 간 쟁점 등.

그들의 적극적인 관여가 매우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특히 SDGs 이행에 있어서 유엔이 풀뿌리 조직의 관여를 지원해야 하고, 다양한 국가별 지역별 맥락 안에서 사안들에 접근하며, UN Major Group on Children and Youth(MGCY)과 International Coordination Meeting of Youth Organizations(ICMYO) 등 기존의 유엔 체제와 플랫폼을 통해서 SDGs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Kutesa, 2015b).

이상과 같이 유엔과 같이 국제적인 기구나 조직에서는 사회 발전에 있어서 청소년의 역할과 인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참여 기회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SDGs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직의 미션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과 연관을 짓고 있는데, 청소년은 여러 연령대로 구성된 정책적 대상 중 한 집단이기 보다는 이 목표를 주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주체로 상정되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삶의 질의 관련성¹⁵⁾

1)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정의

삶의 질 지표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삶의 질 측정 은 매우 논쟁적인 주제” (통계청, 2014: 12)로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대의 삶의 질에 대한 해석과 현황을 드러낸다. 삶의 질 지표가 논쟁적인 까닭은 측정 도구로서 신뢰성과 타당성과 관련된 배경도 있으나 상당 부분은 삶의 질 개념 자체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서 비롯된다. 양질의 삶(good quality of life, quality life)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과 집단마다 또는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그 의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양질의 삶 또는 삶의 질에 대한 해석과 측정은 또한 국가 단위에서나 시대 담론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유럽 연합 통계 시스템 위원회는 유럽 연합에 속한 나라들에 관한 여러 통계치를 제공하면서 삶의 질 지표에 관한 자료와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¹⁶⁾. 기존에 국가의 발전

15) 이 절은 김남수 박사(국토환경연구소)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음.

16) 출처: 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정도를 주로 GDP를 척도로 제시했다면, 사회, 경제, 환경 등 여러 영역의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담론이 등장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질을 규정하여 측정하며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지표를 개발하고, GDP를 보완하려면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요컨대, 유럽 연합이 삶의 질 지표를 강조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별 발전 정도를 기존에 경제와 사회의 발달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GDP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이 있다(Stiglitz, Sen & Fitoussi, 2009).

유럽 통계 시스템 위원회(European Statistical System Committee: ESSC)는 진보·웰빙·지속가능한 발전 측정에 관한 후원그룹(Sponsorship Group on Measuring Progress, Well-be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성하여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 개발을 하고자 했다. 유럽 연합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8+1 영역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내용을 수정 및 개선하고 있다. 8+1 영역은 웰빙을 측정하는 전체적인 틀로 볼 수 있으며, 각 영역들 간에는 상쇄효과(trade-off)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영역들을 낱낱이 보기 보다는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안하고 있다¹⁷⁾.

OECD 등도 「Better Life initiative: Measuring Well-being and Progress」와 같은 과제를 통하여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표 -10>에서와 같이 OECD Better Life Index는 OECD 국가의 삶의 질 지표를 제시하고 나라별로 각 지표의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제시 한다¹⁸⁾.

Strategy,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17) 출처: 위와 동일.

18) 출처: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표 II-10 유럽 연합의 삶의 질 지표와 OECD의 Better life index 조사 영역

유럽 연합 / 삶의 질 지표	OECD Better Life Index 영역
1. 물질적 생활 여건	1. 주택, 2. 소득
2. 생산 또는 주요 활동	3. 직업
3. 건강	8. 건강
4. 교육	5. 교육
5. 여가와 사회적 관계	11. 일과 생활의 균형, 4. 공동체
6. 경제적 안전과 신체적 안전	10. 안전
7. 거버넌스와 기본권	7. 시민참여
8.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	6. 환경
9. 삶의 전반에 대한 인식	9. 삶의 만족도

* 출처: 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유럽 연합과 OECD의 지표 구성 영역을 비교해보면 상당부분이 중복되며,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삶의 질의 영역을 가늠해볼 수 있다. 주관적인 영역과 객관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및 환경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각 영역별 지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비중의 차이는 있다. 가령, 유럽 연합의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의 영역은 “오염 또는 기타 환경 문제에 노출”을 의미하고, OECD Better Life Index의 경우 대기 오염과 수질을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¹⁹⁾. 현재 전 지구적으로 삶의 질 전반에 걸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의 문제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적 영역이나 경제적 영역의 지표는 전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형평성이나 빈부 격차 등과 같이 개인 간 비교나 전반적인 사회적 양상은 가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9) 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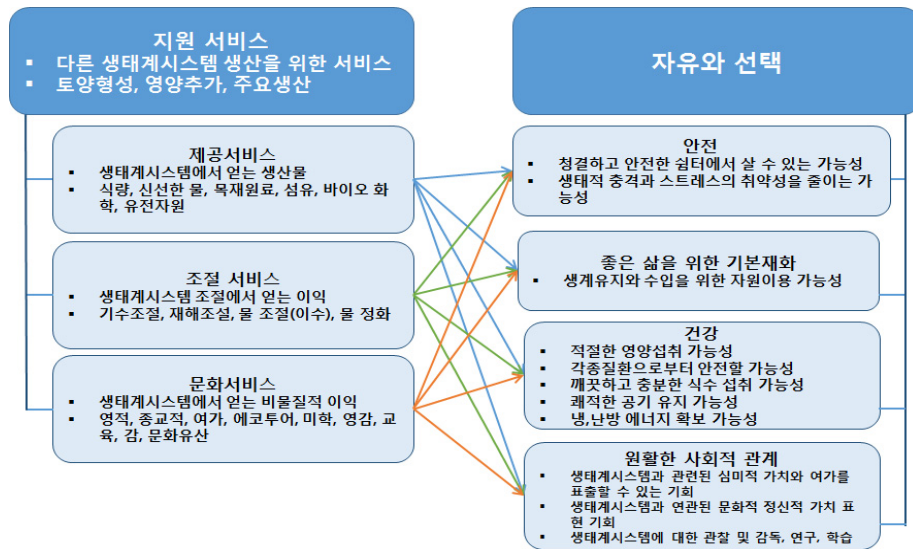
〈표 -11〉과 같이 국가별로 삶의 질 측정 도구를 살펴보면, 발전 정도(progress), 삶의 질(quality of life),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등의 중심의 개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지칭하는 용어의 차이만큼이나 지표를 구성하는 내용 또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나라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재를 파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목표로 설정하고 파악하는 지점들이 국가 운영 철학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탄의 경우, 국가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국민행복지수를 활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삶의 질 또는 웰빙과 관련하여 환경 또는 생태계와의 관련성을 크게 강조하거나 개인 차원의 웰빙이 아니라 지역, 국가, 또는 지구 전체 차원의 웰빙에 주목하는 지표가 개발되고 있다. 가령,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Where-to-be-born Index」는 삶의 질을 도시 또는 국가가 살만한 장소인지를 의미하는 적소성(Livability)으로 측정한다(The Economist, 2012). 이는 삶의 질 지표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물질적 웰빙(GDP per capita), 출생 시 기대 수명, 가족생활의 질(이혼율), 정치적 자유 상태, 일자리 보장(실업률), 기후(평균 기온이 14도와 편차, 연중 강수량이 30mm 이하인 개월 수), 개인의 신체적 안전(범죄와 테러), 지역 사회 생활의 질(소속 사회 조직), 거버넌스(부패 지수로 측정), 젠더 형평성(의회 여성 의석수로 측정) 등으로 측정한다(The Economist, 2012). 이러한 지표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보다 사회적 환경이 보다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 -11 국가별 삶의 질 측정 도구 사례

구분	영국	호주	일본	부탄	캐나다
프로젝트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Measures of Australia ' Progress (MAP)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Gross National Happiness (GNH)	Canadian Index of Well-being (CIW)
지표수	영역 10개, 주요지표 40개	(기존) 영역 3개, 주요차원 17개, 세부지표 100개 (향후) 영역 4개, 주제 26개, 요소 120개	영역 3개, 요소 12개(+2주제), 임시지표 132개	지수 1개, 영역 9개, 지표 33개, 세부지표 124개	영역 8개, 지표 64개

* 출처: 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박주연(2011). 국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통계청(2014).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2014. 6. 30). p. 9.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에서 제안한 새천년생태계측정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는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영역의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ecosystem service)라고 지칭하고,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 웰빙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다(UNEP, 2005). 생태계 서비스란 생태계가 인간의 삶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익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제안한 개념이다. [그림 -5]와 같이 생태계 서비스는 크게 지원 서비스, 제공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서비스 등으로 구분되며, 각 서비스는 인간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며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UNEP, 2005: 75).



* 출처: UNEP(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A Framework for Assessment, p. 78, Island Press.

【그림 II -5】 생태계 서비스와 인간 웰빙의 밀접한 관계

또 다른 지표인 The Happy Planet Index(HPI)는 개인의 삶의 질이 아니라 국가와 지구 전체의 삶의 질 또는 웰빙을 가늠하고자 한다(NEF, 2012). HPI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웰빙을 측정한다(NEF, 2012). HPI는 각 국가가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전달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기대 여명(life expectancy), 경험한 웰빙(experienced well-being),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으로 계산한다(NEF, 2012). 경험한 웰빙이 주관적인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면, 생태 발자국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지구에 남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하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토지 면적으로 제시된다(NEF, 2012). 따라서 HPI는 매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간들의 삶의 공동의 터전인 지구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된다(NEF,

2012). 2012년의 경우 151개 국가 가운데 HPI 전체 순위 1위는 코스타리카, 2위는 베트남, 3위는 콜롬비아가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63위로 나타났다(NEF, 2012: 25).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지난 2014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해 12개 영역 81종의 지표를 선정하고, 70 종의 지표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²⁰⁾. [그림 II-6]과 같이 지표 체계는 크게 물질 부문(4개 영역)과 비물질부문(8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물질 부문은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등으로, 비물질 부문은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의 지표는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 모두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 중 일부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종합하여 객관 지표는 57종, 주관지표는 24종으로, 삶의 질에 있어서 비물질적인 부문이 물질적인 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수용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부문/영역	지표수 (객관+주관)			공개
		객관	주관	
소득·소비·자산	8	6	2	8
고용·임금	6	5	1	6
사회복지	3	3	-	3
주거	5	4	1	4
물질부문	22	18	4	21
비물질부문	59	39	20	49
삶의 질 지표	81	57	24	70

비물질부문 세부 지표				
부문/영역	지표수 (객관+주관)	객관	주관	공개
건강	9	7	2	8
교육	9	7	2	9
문화·여가	6	4	2	6
가족·공동체	8	6	2	7
시민참여	8	2	6	3
안전	9	7	2	8
환경	8	6	2	8
주관적 웰빙	2	-	2	0

* 출처: 통계청(2014),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2014. 6. 30).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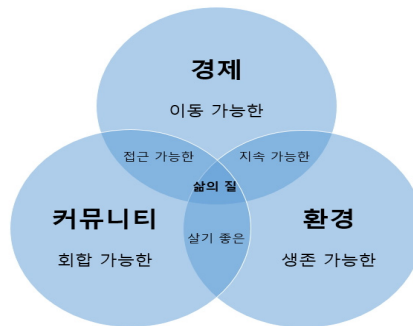
【그림 II-6】 국민 삶의 질 측정 영역별 지표수

특히 지표 선정 과정에서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은 세 분야의 통합과 세 분야 간 균형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 일정정도 반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환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통계청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삶의 질 개념과 그 지표는 상당히 논쟁적인 개념으로 추후 지속적인 논의와 진화가 예상된다.

이렇듯 삶의 질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삶의 질 개념은 객관적(사실적) 구성 요소와 주관적인(인식) 구성요소를 지닌 개인적이고 내면적 개념이지만, 개인의 삶의 질은 외적 요인들

20) 출처: 통계청 (2014),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2014. 6. 30). <http://qol.kostat.go.kr/> 2016년 1월 20일 인출.

(인공 및 자연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간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 접근으로는 Shafer et al.(2000)이 제안하는 생태적 관점이 있다. 인간 생태계는 개인과 사회, 가족,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질서, 문화, 인공 환경과 자연 환경 등과 같은 생물리학적(biophysical)이고 사회적인 요소들이 포함된다.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는 동역학적이고 상호적이다. 인간은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에 의존하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변형시킨다. 적소성은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며, 지속가능성은 물리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 사회와 환경과 삶의 질의 경제적 영역간의 상호 작용은 [그림 -7]과 같이 개념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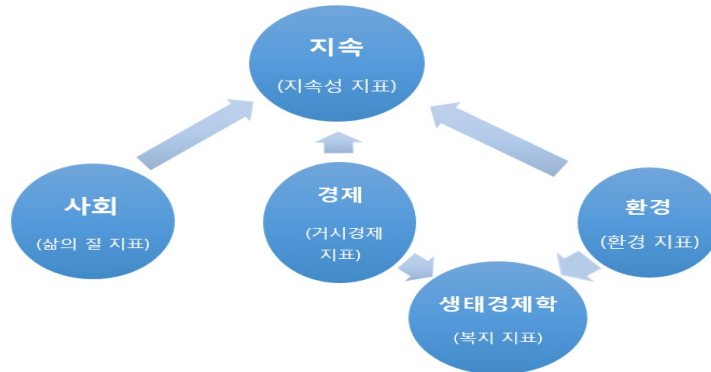
* 출처: Shafer, C. S., Koo Lee, B. & Turner, S. (2000). A tale of three greenway trails: user perceptions related to quality of life. Landscape Urban Plan, 49, p. 166.

【그림 II -7】 인간 생태계 관점에서 본 지역사회 삶의 질 구성 요소 개념 모델

[그림 -7] 전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의미한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체계가 그 사회의 현재와 미래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제공할 때 비로소 개인의 삶의 질이 확보되는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성은 삶의 질 이상의 포괄적인 개념이며, 한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역 간의 연계와 균형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다²¹⁾. 이렇게 볼 때 [그림 -8]과 같이 지속가능성은 삶의 질을 포함한 경제, 환경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21) 출처: Quora(201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life?.

<https://www.quora.com/What-is-the-relationship-between-sustainability-and-quality-of-life/> 에서 2016년 5월 25일 인출.



*출처: Pissourios, I. A. (2013). An interdisciplinary study on indicators: A comparative review of quality-of-life, macroeconomic, environmental, welfare and sustainability indicators, Ecological Indicators, 34, p. 421.

【그림 II-8】 지속가능성, 환경, 경제, 및 사회(삶의 질 지표)의 관계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의 질은 사회와 환경의 질과 결코 분리되거나 무관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이 단순히 사회의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성장의 추구만으로 양질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점과 관련되며, 경제적 성장으로 얻게 되는 물질적 풍요로움의 혜택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생태계에 끼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미래세대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삶의 질의 주관적 요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태도나 인식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까지도 포함된다.

2) 국내외 청소년 삶의 질 지표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 사회 지표를 개발하였다(장근영 외, 2013; 김지경 외, 2014; 성윤숙·홍성효, 2015). 가장 최근에 개발된 2015년 지표 구성을 영역별로 보면 관계, 주관적 웰빙, 건강, 교육, 안전, 활동, 참여, 환경, 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SDGs 영역으로 재구성하면 <표 -12>과 같이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의 경우 환경의 의미를 주로 적소성과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경제 영역의 경우 주로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것으로 생산 활동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위치를 상정하지는 않았다.

표 II-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와 SDGs 비교

영역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SDGs
총괄	없음	빈곤
사회발전	관계(10), 주관적 웰빙(3), 건강(12), 교육(6), 안전(10), 활동(10)	식량/농업, 보건/건강, 교육, 젠더, 주거
환경	환경(4)	물/위생,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 환경
경제발전	경제(7)	노동, 경제, 불평등, 소비
이행 기제	참여(6)	거버넌스, 이행수단, 글로벌 파트너십

* 출처: 성윤숙, 홍성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I: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UN OWG (Open Working Group)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주: 괄호는 해당 영역의 지표 수

외국의 청소년 삶의 질 지표를 비교해보면 <표 II-13> 과 같다. 우선 국제청소년재단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은 2014년 국제청소년웰빙지수(Global Youth Wellbeing Index)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로 국가별 순위를 매겨 발표한 바 있다. 국제 청소년 웰빙 지수는 시민 참여; 경제적 기회; 교육; 건강; 정보통신기술; 안전 등 모두 6개의 영역의 총 4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²²⁾. 청소년 웰빙 지수는 경제 성장이나 수입에 기반한 해석이 아니라, 다차원적이며 행태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아우르는 빈곤과 발전 척도에 바탕을 두고 개발되었는데, 특히나 인간발달지수(HDI), OECD Better Life Index, 및 Global Happiness Index의 영향을 받았다.

22) 출처: 국제청소년웰빙지수(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http://www.youthindex.org/>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영역	국제 청소년 웰빙 지수	OECD 아동 복지 지표	홍콩의 청소년 삶의 질 지표
경제	경제적 기회 (1인당 GDP, 경제 여건 및 경쟁력, 청소년 금융 기관 대출, 창업 활동 관여, 청소년 실업, NEET, 청소년 수입과 수입 기대)	물질적 웰빙 (사용가능한 수입, 빈곤층 가정 아동, 교육 기회)	경제 (현재 경제 여건 지수, 청소년 실업률, 발전 기회, 물질적 삶)
주거/환경	정보와 소통 기술(ICT)(전기 접근권, 라디오 보급률, ICT 수준, 디지털 족, 청소년 인터넷 의존도)	주거와 환경 (과밀, 빈곤 환경 여건)	생활환경 (생활환경 만족, 인프라 만족, 환경 질)
보건/안전	보건 (향상된 수명, 출생 시 기대 수명, HIV/AIDS 환자, 청소년 임신율, 청소년 흡연율, 청소년 사망 원인, 청소년 자해, 청소년 스트레스, 건강한 식단과 주거 우선순위)	보건과 안전 (저체중 출생, 유아사망률, 모유수유율, 백신접종률, 신체 활동, 사망률, 자살률) 위험 행동 (흡연, 음주, 출산)	신체적 건강 (청소년 입원 비율, 건강 상태, 운동 참여, 휴식) 청소년 범죄율, 약물 남용 행동, 폭력(괴롭힘) 등)
교육	안전과 안보 (글로벌 평화 지수, 인신매매, 글로벌 재난 위험경감 지수, 기본 권리, 청소년 폭력, 청소년 교통 사고율, 안전에 대한 청소년 관심)	학교생활의 질 (학교 폭력, 학교만족도)	교육 (교육 만족도, 공공 교육지출, 직업 교육 참여율)
	교육 (교육비 공공지출, 중등교육 등록률, 직업교육 참여율, 청소년 문해력, 학교생활 기대수준, 교육 만족도)	교육 복지 (평균 문해 점수, 문해 불평등, 청소년 NEET 비율)	
웰빙	-	-	사회 (여가 활동, 사회봉사 참여, 사회적 관계) 웰빙 (삶의 만족도, 정신 건강, 긍정적 사고, 자기 평가)
정책	시민 참여 (경제민주주의 지수, 청소년 정책 존재 여부, 자원활동 빈도, 의회 후보자 연령, 사회 내 가치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정부의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인식)	-	정책 (정부 수행 평가, 청소년 정책 만족도, 정책에 끼치는 영향 정도, 법의 집행)

* 출처: OECD(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p. 31.

CUHK(2015), CUHK Youth Quality of Life Index Report: Quality of Life of Youth in Hong Kong Slightly Declines in 2014/15, pp. 3-5.

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http://www.youthindex.org/>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따라서 청소년 삶의 질은 사람들의 건강과 교육, 일자리와 주택 등 일상생활, 정치 과정 참여, 사회 및 자연 환경, 개인과 사회의 안전 등에 달려있으며, 이러한 특징들을 측정하려면 주관적 데이터와 객관적 데이터 모두를 필요로 한다(Goldin, Patel & Perry, 2014: 17). 한편 홍콩의 중국 대학(CUHK, 2015)도 매년 홍콩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홍콩의 청소년 삶의 질 지표는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을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현재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중국대학(CUHK, 2015)의 지표의 경우 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이 지표의 주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심리적 웰빙과 관련하여 자기 평가가 포함되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OECD(2009)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주로 학교생활을 하는 청소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며, 심리적인 측면은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로 최소한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회 참여 등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콩중국대학의 지표와 OECD의 지표는 공통적으로 환경은 주로 주거, 생활환경 및 학교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국제청소년재단의 지표 구성은 다른 두 지표와 다르게 정보 소통 기술이 중요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두 지표가 학교를 강조하고 정치 참여나 경제 관련해서 다소 제한적인데 비하여, 국제청소년재단의 지표는 학교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필요한 실질적인 장치의 수준(quality of participation frameworks)” (Goldin, Patel & Perry, 2014: 16)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경제적 기회와 관련해도 금융 기관의 대출이나 창업 기회 등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청소년의 사회 내 역할에 대하여 보다 넓은 범위를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이미 청소년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밀접한 관계를 지표로 드러낸 사례도 있다. 선진적인 지역 의제 21로 잘 알려진 시애틀의 지속가능발전지표(Sustainable Seattle, 2004)에서는 청소년과 교육 이 대 영역 중 하나이며, 삶의 질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지표로 포함된다. 이 지표에서 삶의 질은 “우리가 이웃과, 일자리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는 이 장소가 어느 정도로 살만한 곳으로 매길 수 있는가? 더 나아졌는가? 더 나빠졌는가?” 등의 질문을 대표한다. 즉,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삶의 질은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표 II-14 지속가능한 시애틀에 사용된 지표들

영역	지표
환경	연어회귀율, 생태계 건강, 토양 침식, 공기 질, 보행자 및 자전거 친화 거리, 오픈스페이스, 불투수성 지역
인구와 자원	인구, 물 소비, 고형 폐기물과 재활용, 오염 방지, 지역 농장 생산, 자동차와 연료 소비, 재생가능/불가능에너지 이용
경제	개인수입달러당 에너지 입력, 고용율, 수입 분배, 헬스 케어와 지출, 기초 수요 지출 작업, 주택 구입 능력, 아동빈곤층, 입원실, 지역 사회 재투자.
청소년과 교육	고등학교 졸업, 교사들의 민족적 다양성, 예술 강의, 학교 자원 활동, 청소년 범죄, 지역 사회 서비스에 청소년 참여, 정의 속에서 형평성, 성인 문해
보건과 지역 사회	저체중아기 출산 비율, 아동을 위한 호흡기 치료 병원, 투표 참여, 도서관과 지역사회 중심 이용, 공공 예술 참여, 가드닝 활동, 이웃관계, 삶의 질 인식

* 출처: Sustainable Seattle(2004), Indicators of Sustainable Community, 연구자 재구성.

3)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개념 정립을 통한 본 연구의 접근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논의 속에 청소년 삶의 질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에서 보다 확장되고 통합된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러한 관점은 <표 II-15>에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삶의 질 개념은 현재적인 관점을 주로 반영하며, 공간적으로는 개인과 주변 집단 혹은 조금 더 나아가면 지역 사회를 주된 범위로 삼는다. 반면에 지속가능발전 및 SDGs는 상정하고 있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어지며, 여러 영역 간의 통합성이 강조된다. 즉, 시간적으로는 삶의 질 개념에 비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강조하며,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를 상정하며, 관련 주체들은 개인과 주변 집단 및 지역 사회 뿐 아니라 국제 사회 나아가 지구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사안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의 사안의 경우 개인들이 지금 당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할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자기 삶의 질을 지금부터 그 방향을 설정하고 만들어나간다는 의미에서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영역들은 현재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추진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청소년들의 미래의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을 따지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표 II-15 SDGs 관점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개념의 확장

구분	청소년의 삶의 질	
	일반적 관점	지속가능발전(또는 SDGs) 관점
청소년의 역할	정책의 수혜자	+ 정책의 파트너이자 리더
공간적 범위	개인과 주변 사회	+ 사회, 국가, 전 지구
시간적 범위	현재	+ 현재와 미래
주된 관심	사회적 영역	+ 사회, 환경, 경제 영역의 통합적 관점
주거·환경	오염 문제 해결, 쾌적한 주거 공간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자원 등의 문제
경제	소비	+ 생산
건강·여가	개인의 건강과 웰빙	+ 생태계와 지역 사회의 회복탄력성
주관적 요인	만족도, 정신적 안녕	+ 책임감, 시민의식, 연대감
교육	교육 접근권, 문해력 등	+ 참여와 리더를 위한 역량 강화와 권한 부여
사회	관계	+ 사회적 포용, 문화다양성 인정
정치	권리	+ 책임과 의무

또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주요 그룹으로 청소년의 역할이 강조되고, SDGs의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청소년은 정책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이자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경제와 정치와 문화적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미래 발전을 위한 주체로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삶의 질을 지속가능발전 또는 SDGs 달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소년 자신이 삶과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서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 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을 바라보면, 앞으로 SDGs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적 이행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역할은 이러한 확장된 의미에서의 청소년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요컨대, 청소년 정책은 현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이끄는 미래세대로서의 역량을 지원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제도 및 정책 틀 안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간주되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 청소년을 단순히 교육의 대상 또는 정책의 수혜자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청소년을 참여 주체로서 바라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참여 정책의 범위가 단순히 청소년 활동의 차원에서 그치는지 아니면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 청소년 정책에서 다루는 교육, 복지, 건강, 안전 등의 정책 영역들은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러나 생태계 악화, 전 지구적 기후 변화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은 현재의 청소년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참여 등을 강조하는 정책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3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정책 전반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또는 SDGs)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제 III 장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현황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석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결과
요약

제 III 장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²³⁾

1.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이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분석에서 난관은 무엇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 정책 인지를 정의하는 문제이다. 좁게 보면,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포함된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한정지을 수도 있고,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인 환경·경제·사회의 통합적인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그 주제를 넓힐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한다면 SDGs 17개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모든 청소년 정책으로 매우 폭넓게 바라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초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분석 대상의 범위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부처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사례 등을 포괄하였다.

우선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목표와 과제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성과들로 이행 상황이 점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개별 정책들이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으로서 상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을 위해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인 의제21의 사업 내용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정책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23) 이 장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SDG 4.7), 산림복지(SDG 3 웰빙), 청소년 참여(SDG 16.7 거버넌스), 청년 정책(SDG 8 고용) 등 SDGs의 주요 영역에서 청소년과 관련되어 강조되고 있는 주제에 해당되는 정책이 주로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 내용은 상당 부분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 이미 언급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이를 시행하는 부처와 지자체 차원의 고려사항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은 아니지만 국제기구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오랫동안 힘쓰고 있는 유네스코의 사업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현재의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전체 내용 및 2013-2016년 시행계획에 제출된 정책사업 전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책 이라고 통칭하는 정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어느 정도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13-2016년 시행계획 상의 정책 사업의 내용 및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SDGs의 국내 이행방안 모색을 위하여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처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일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우선 청소년 정책 영역을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건강, 참여·권리, 복지, 고용, 안전, 정책 체계 등 8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정책 층위에서 영역별 현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영역구분은 기존 청소년 정책 분석 연구(윤철경·박병식·김진호·강현주, 2012)와 2장에서 검토한 청소년 삶의 질 관련 문헌에서 설정한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들 8개 정책 영역에 대하여 SDGs관련 주제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SDGs 달성을 위한 국내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표 III -1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범위 및 방법

구분	분석 대상 및 초점	
분석 대상	국가 및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관련 정책 사례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 및 2013-2016년 정책사업
정책 초점	미래세대의 고려	현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분석 초점	청소년 관련 내용	SDGs 관련성
분석 결과 제시	- 청소년활동·교육지원(SDG 4) - 건강(SDG 3) - 참여·권리(SDG 16.7, 10)	- 복지(SDG 1, 2) - 안전(SDG 11) - 정책 체계(SDG 17)

2.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현황

1) 헌법상의 미래세대 고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사회·환경 문제에 대하여 세대 간의 형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미래세대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접근이 결정될 수 있다. 미래세대가 현재의 청소년을 의미하는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인류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발전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 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이다(서용석·홍정훈, 2014: 11). 결국 후손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그리고 지금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기반을 미래세대도 누릴 권한이 있다는 전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가마다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통해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근본적인 토대로 작용한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법적·제도적 근간이 되는 헌법상에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헌법 전문에 미래세대의 보호를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미래세대의 권익을 위하여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그 접근방식은 다양하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당장 현재 우선시 되는 사회문제 또는 이해관계에만 근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제 지속가능발전 논의에 입각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헌법 전문에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한다는 선언을 통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함께 고려하도록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서용석·홍정훈, 2014: 99,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표 III-2 미래세대 권리 보호를 위한 5가지 헌법적 접근

접근 방식	내용	국가
헌법 전문	▪ 헌법이나 헌장의 존재 이유의 일부로써 미래세대의 보호를 나타냄으로써 인류와 지구를 위한 헌신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암시적 또는 명시적인 인식	프랑스, 체코
보완적 접근	▪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 또는 헌법 원칙	안도라, 에콰도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책임적 접근	▪ 원칙적으로 필수적으로 국가와 정부기관이 미래세대의 권익을 인식하는 것	폴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실용적 접근	▪ 정부기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	벨기에,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브룬디, 쿠바, 독일, 스웨덴
포괄적 접근	▪ 국가 개발의 일환으로써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것	에스토니아, 폴란드, 스위스, 우크라이나

* 출처: 서용석, 홍정훈(201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p. 72.에서 재인용.

* 원출처: World Future Council, (2010), Intergenerational Justice Initiative: Laying the Foundations for Long-Term Wellbeing, http://www.worldfuturecouncil.org/fileadmin/user_upload/PDF/IntergenerationalJusticeInitiative_4_2_3_.pdf/ 에서 2016년 4월 25일 인출.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현황

지속가능발전법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의제 21 국가실천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0년에는 「새천년국가환경비전」이 선포되고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환경부, 2014: 4). 이후 2002년에는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 국가 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을 결의한 요하네스버그 공동이행계획에 우리나라도 합의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에 따라 2005년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한데 이어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다(환경부, 2014: 4). 이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법률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다시 말해, 국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10조 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행정계획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고, 이어 3항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령과 중·장기 행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였다. 여기에서 검토대상 중장기 행정계획은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71개 행정 계획에 이르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역시 이에 해당된다(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별표] [시행 2015.7.1.]).

표 III-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및 추진체계

구분	주요내용
법률	「지속가능발전법」
관련 계획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 수립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 2년마다 이행실적 평가
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소속: 환경부장관 - 구성: 위원장(1명, 민간) 등 50명 내외 ※ '16.6월 현재 제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중 (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25명, 정부위원 7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
위원회 기능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변경의 사전심의 - 이행계획의 협의·조정 - 국가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통보 등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 지속가능발전 지식·정보의 보급 등 - 교육·홍보, 국내외 협력 등 -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문
위원회 소속변화	'00년 대통령소속으로 출범 '10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전환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 14), p. 6.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청소년 정책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구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러한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²⁴⁾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2010년에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관 위원회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²⁵⁾. 2016년 현재 8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환경, 산업, 사회·건강, 국제협력 분과 등 네 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 및 건강, 환경성 질환, 독성관리 등 관련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사회·건강 분과와 관련성이 있다²⁶⁾.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청소년

이러한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1, 2, 3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표 4>와 같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공동번영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이 비전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1, 2차 계획까지는 주로 환경 분야에 이행과제들이 집중되었다면, 3차 계획에서는 SDGs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강·웰빙, 사회적 형평성, 도시, 포용적 성장 등 다양한 분야로 포괄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관계부처통합, 2016: 26).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2006년에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시스템으로 환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57). 경제, 사회, 환경 3개 분야에서 77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각 분야 전문가, 부문별 이해관계자, 정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선정되었고, 2007년 시범 평가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2년 단위의 평가 체계가 마련되었다(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57).

2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이후 지속가능기본계획으로 명칭 변경.

25) 이후 녹색성장위원회도 2013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되었다.

26)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위원회운영 규칙. <http://ncsd.go.kr/app/sub01/22.do>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표 III-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제3차 기본계획
비전	21세기 선진 국가: 경제·사회·환경 균형발전, 현세대·미래세대 공동번영	2030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일류 선도국가 구현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목표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	G20에 맞는 국가지속가능역량 확보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전략	자연자원, 사회통합, 경제발전, 기후변화 등 4대 전략	환경 및 자원, 기후변화, 사회적 형평성, 경제 및 산업구조 등 4대 전략	14개 전략
이행과제	4대 전략 관련 45개 과제 + 이행 기반 관련 3개 과제	25개	4대 전략 관련 46개 과제 + 이행 기반 관련 4개 과제
평가	이행계획 성과점검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중앙 추진계획 성과점검+국가지속가능성 평가, 이행성과 및 지속가능성 검증·보완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 출처: 대한민국(20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pp. 5-11.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분야별로 영역-항목-지표의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사회 분야는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 안전, 인구의 6개 영역, 환경 분야는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의 5개 영역, 경제 분야는 경제 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 2014). 이후 우리나라 상황의 변화,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 지표의 개정이 이루어져왔으며, 현재는 <표 -5>에서와 같이 84개 지표가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건강 관련 3개(13. 유소년 영양상태, 19. 유소년전염병 예방주사, 20. 비만율)와 교육 관련 3개(21. 고등학교 순졸업률,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3. 공교육비 지출)이다.

표 III-5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	영역	항목	지표
사회	1. 형평성	1-1 빈곤	1. 빈곤인구비율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3. 사회복지지출 4. 노동소득분배율 5. 실업률
		1-2 노동	6. 고용률 7. 근로시간 8.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9.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1-3 남녀평등	10.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11.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2. 관리직 여성 비율
	2. 건강	2-1 영양상태	13. 유소년 영양상태
		2-2 사망률	14. 영아 사망률 15. 자살 사망률
		2-3 수명	16. 기대여명
		2-4 식수	17.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2-5 건강관리	18.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19. 유소년전염병 예방주사 20. 비만율 (건강보험 보장률, 사회복지지출)
	3. 교육	3-1 교육수준	21. 고등학교 순졸업율(“중등”에서 문구변경)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3. 공교육비 지출
	4. 주택	4-1 생활환경	24.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25. 주택 수(인구 1천 명당) 26.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5. 재해·안전	5-1 범죄, 재해	27. 범죄발생률 28. 자연재해 피해 29. 사고(성)사망만인율
	6. 인구	6-1 인구변화	30. 인구 증가율 31. 인구 밀도 32. 고령인구비율
환경	1. 대기	1-1 기후변화	33. 온실가스 배출량 34.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35.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2 오존층	36. 오존층 파괴물질 소비량
		1-3 대기질	37.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2. 토지	2-1 농업	38. 농지면적 비율 39.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산물(문구 추가) 생산비율 40. 식량자급률 41. 화학비료 사용량 42. 농약사용량
		2-2 산림	43.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산림지역 비율”에서 문구변경) 44. 1인당 도시공원 면적 45. 목재 채벌 정도
		2-3 도시화	46. 도시화율 47. 수도권 인구 집중도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48. 연안오염도 49. 보호대상 해양생물종수 50. 해양보호구역 면적 51. 갯벌 면적 증감 (폐기물 해양 투기량)

분야	영역	항목	지표
		3-2 어업	52. <u>주요지표종(5종)의 자원량 변화</u> 53. <u>면허권 당 양식어업량(문구추가)</u> (수산자원량)
		4-1 수량	54. 취수율 55. 1인당 1일 물 <u>소비량</u> (“사용”에서 문구변화) 56. 물 재이용량
	4. 담수	4-2 수질	57. 4대강 수질오염도(“주요상수원”에서 문구변화) 58. 농어촌 하수도 보급률(문구추가)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59. 자연보호지역비율 60. 국가생물종 목록 수(문구추가) 61. 멸종위기종 수
경제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62. 국내총생산(GDP) 63. 1인당 GDP 64. 경제 성장률 65. GDP 대비 순 투자율 66. <u>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u> 67. 소비자 물가지수
		1-2. 무역	68.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69. 조세부담률 70.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
		1-4. 대외원조	71. GNI 대비 공적대외원조(ODA)비율
	2. 소비/생산	(물질소비)	(자원생산성)
		2-1. 에너지 사용	72. 1인당 에너지 소비량 73.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74. 에너지 원단위 (총에너지 공급량)
		2-2. 폐기물 관리	75. 생활 및 일반폐기물 발생량(“사업장”에서 문구변화) 76. 지정폐기물 발생량 77.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78. 폐기물 재활용률
		2-3. 교통	79.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80. 자전거 도로 총 연장 81. <u>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u> (자동차 사고 건수)
	3. 정보화 등	3-1. 정보 접근	82.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PC 보유 가구 비율)
		3-2. 정보 인프라	83. 온라인 신청가능 민원종류
		3-3. 과학기술	84. GDP 대비 R&D 지출 비율

* 밑줄 표시는 2014년 이후 변경·추가된 지표, 괄호 안은 삭제된 지표임.

* 출처: 환경부 (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p. 56-57.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pp. 58-60.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상에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2012년 국가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대한민국, 2012)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그룹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청소년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환경 친화적 청소년 활동 인프라 조성, 통합적 보편적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수행, 위기, 취약 청소년의 복지 지원 강화, 수련 활동 및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 환경 과학 분야 지원 강화 등, 기존 청소년 정책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역량을 키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2차 계획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는 성과 지표가 관리되었던 것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드림스타트 사업, 청소년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어린이용품 위해성 평가 등이다(대한민국, 2012: 44-45). 그런데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과제인 경우 실제 청소년 정책사업의 성과가 아닌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감과 같은 주관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정책의 직접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표 III-6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상의 이행과제 및 성과 지표 중 청소년 관련 내용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성과 지표	소관 부처
1-9. 지속가능발전교육·홍 보	1-9-1 지속가능발전 교육기반 구축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	교육부
3-1.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진	3-1-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설치지역 수	보건복지부
3-2.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개선	3-2-③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행복감	
3-4.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 생명 보호	3-4-1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 물질 비율	환경부

* 출처: 환경부(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 84.

이어 2014년 보고서에서도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예시로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부의 위기학생 상담 및 교육서비스 사업인 Wee센터의 설치, 여성가족부의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도입,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불법 판매업소 모니터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청소년 쉼터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해밀) 및 자립지원(두드림)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었다(환경부 2014: 41-42).

또한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토·도시의 통합성 강화 관련 이행과제의 실천 사업의 일부에 생태놀이터 조성, 생태놀이터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있어, 환경분야 정책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포함하여 당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에서 청소년과 관련하여 2015년 추진 계획으로 제출된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III-7 2015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향후 추진 계획 중 청소년 관련 내용

이행과제	세부 이행과제	추진 계획	소관 부처
1-1. 국토·도시의 통합성 강화 및 구조 구축	1-1-③ 도시 생태공간 확충 및 네트워크 강화	- 도시내 생태거점 공간인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7년까지 20개소, 생태놀이터 100개소 조성 - 효과적인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	환경부
3-1.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증진	3-1-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 드림스타트 운영 시군구를 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제고, 부처간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운영	보건복지부
3-2. 사회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	3-2-③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 Wee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및 상담 - 찾아가는 게임 문화교실 운영 확대 - 게임과몰입 실태조사 - 게임과몰입 홍보 및 연구	문화체육 관광부
	3-2-③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 청소년 수련시설 지속 확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 - 청소년자원봉사, 동아리 및 직업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중독예방을 위한 상설 인터넷치유학교 운영 - 흡연·음주 및 자살예방 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을 위한 연구추진	여성가족부

* 출처: 환경부(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p. 86-108.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하여 전보다 많은 이행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책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관계부처통합, 2016).

이러한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건강·여가 분야에서는 <표 Ⅲ-8>과 같이 생태공간 및 생태관광을 통한 청소년 여가활동 기회의 증대와 어린이 환경보건정책의 강화(2-3- 어린이 건강 증진)를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차 계획에서 포함되었던 세부이행과제 3-2-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이 삭제되어, 청소년 관련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표 Ⅲ-8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중 건강·여가 분야 청소년 관련 내용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지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1. 건강한 국토 환경	1-1 고품질 환경서비스 확보	1-1-② 도시 생태공간 확충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면적(m ³)	- 물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환경기초시설을 미래세대 교육체험의 장소로 조성	환경부 산림청
2. 통합된 안심 사회	2-2 지역간 격차 해소	2-2-③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국민 생태관광 참여율(%)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소규모 현장 체험형 생태수학여행 운영	환경부 문체부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3-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나트륨 일일 섭취량(mg)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계층별 맞춤형 섭취 저감화 교육 확대	식약처
		2-3-② 어린이 건강 증진	어린이 환경보건 코호트 참여 산모 수(명)	어린이 환경보건 조사 체계화	환경부
			어린이 아토피질환 환자 수(만명)	어린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	환경부
		2-3-④ 식품 안전성 및 식량안보 제고	HACCP 적용 비율	식품안전 신뢰제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품목 및 집유업·유가공업 대상으로 HACCP 의무적용 단계적 확대	식약처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산림휴양 및 치유 이용객(만명)	소외계층 대상 자연휴양림 숲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	산림청
			체류형 공원시설 조성 수(개소)	미래세대 전용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시설 네이처센터 조성	환경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pp. 35-99.

다음으로 교육·복지·고용 분야에서 우선 기존의 사회적 통합 관련 정책보다 다문화이해교육

확대와 양성평등 과제 등이 더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청년여성,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고용 정책은 이번 3차 계획에서 새롭게 이행과제로 제시된 것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10년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시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경우 2차 계획에서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기후변화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 등 학교 교육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표 III-9 제3차 지속가능발전 계획 중 교육·복지·고용 분야 청소년 관련 내용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지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2. 통합된 안심 사회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기초생활보장제 도 실태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강화: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정보 노출 없이 교육비 지원	복지부 교육부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특수학교(급) 학생 법적 정원 충족학급 비율(%)	-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 강화: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장애학생, 다문화가족 및 탈북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	여가부 교육부
		2-1-④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	남성대비 여성 임금 비율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 참여지원: 청년층 여성 경력 개발지원 확대, 청년여성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여가부
3. 포용적 혁신 경제	3-1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3-1-①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청년 고용률(%)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 기업가 정신 확산	고용부 기재부 미래부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청년 대상 강소기업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중기청
	3-2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	3-2-③ 친환경소비 실천 기반 확충	녹색제품 구매실적(억원)	- 친환경소비 실천률 향상: 학교 교육과 연계 강화 - 소비자 친화형 녹색제품 인증 확대: 어린이 용품 신규도입	환경부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지표	주요 내용	소관 부처
		3-2-④ 저탄소생활 확산	지역기후변화교육센터(개소)	• 대국민 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환경부
5.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1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ESD 프로그램 개발 건수	•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ESD 적용 및 확산	교육부
			산림교육 수혜 국민(만 명)	• 권역별 산림교육 센터, 유아 숲 체험원, 학교 숲 확충	산림청
			환경교육 수혜자(만 명)	• 중앙부처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광역단위 지역환경교 육센터 지정 확대	환경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pp. 64-158.

이처럼 2차 계획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세부 이행과제가 4개에 불과하였다면 3차 계획에서는 13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양한 정책 전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의 건강 증진 과제가 삭제되고, <표 9>에서처럼 2-1-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만 언급되는 등, 청소년 활동, 권리, 보호, 자립 등 청소년 전반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산림 휴양 정책 사례와 같이 환경 관련 부처에서 청소년층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향은 증가한 반면,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이 당면한 교육과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매우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SDGs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기후변화, 환경 관련 정책(SDG 13, 14, 15)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 정책의 시야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SDG 4.7), 청소년의 참여(16.7), 부처 간 정책 협조체계(SDG 17) 등 청소년 정책의 핵심적인 강조점이나 실질적인 정책 이행에 필요한 체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향후 SDGs의 국내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격하된 이래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이 추진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환경부와 산림청과 같이 국가 계획과 부처의 정책이 긴밀한 관계 속에 추진되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다른 경제 및 사회분야 부처의 경우 이러한 유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개별 부처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경우 대부분 미시적 지표이며,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시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와의 연관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온 바 있다(김종호, 2016;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87).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시 이행실적의 평가는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실적에 근거하므로, 원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과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는지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국가 지표, 성과 지표 간의 논리적 정합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SDGs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어떤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경우에도 현재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구조와 한계 속에서도 청소년정책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3)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현황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부처별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SDG 교육, 웰빙,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부처별 정책 고려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에 청소년 정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향후 SDG 다른 분야에의 청소년 정책 개발 및 부처 간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²⁷⁾.

(1)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및 참여 증진

SDGs와 청소년을 연결하는 핵심 주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라 할 수 있으며, SDGs 영역별로는 청소년 역량(4.7)과 참여(16.7)에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관련 정책은 주로 환경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7) 청년 일자리 정책의 경우 SDG 8 고용 영역과 관련성이 높으나 다음 절에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상의 고용 영역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2차 계획의 세부과제인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구축에 이어 3차 계획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성과는 교육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폭넓은 의미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교육부와 환경부를 통하여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이 이루어져 왔다²⁸⁾. 2008년에 제정된 환경교육진흥법은 환경부는 5년마다 국가 환경교육종합을 수립하고, 시·도 광역 지자체장은 지역별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학교 안팎에서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법률 제13173호, 2015.2.3., 일부개정〕).

환경부는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1-2015) 및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2016-2020년) 수립을 주도하고,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 영역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는 자유학기제 연계를 통한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환경부, 2015a).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사회환경교육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이외의 청소년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을 지칭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5년부터 사회환경교육지도사²⁹⁾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광덕산환경교육센터를 양성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환경부, 2015a: 38).

한편 지자체 내 시설과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 산하기관, 지역환경교육센터, 자연환경연수원 등 다양한 지역의 환경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환경부, 2015a: 32-33). 자연환경연수원은 전국적으로 자연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있으며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환경부, 2015b: 16). 9개 시설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로는 2007년에 개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있다.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의 환경교육 사업에서 청소년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28)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된다(Hesselink, van Kempen, & Wals, 2000).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교육적 시도를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정의하고, 환경교육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특정한 주제와 양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9) 유사 자격으로는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 숲해설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등이 있다.

사업명	목적	대상	현황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어린이에게 친환경 생활양식 확산·보급	유아, 초등학생	7개 권역에서 8대 배치·운영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신뢰할 수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제공	전 국민	다양한 주제의 304개 환경교육프로그램 발굴
국가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유아·초·중등교사, 환경교육기관·단체	국가수준 학교 사회 협력 환경교육 활성화 가이드북 '제작·배포 (2012. 10. 센터 지정)
지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의 활성화	-	5개 지자체에서 센터 6개 운영
기후변화교육센터	기후변화의 이해와 녹색생활 실천 참여	전 국민	17개 광역센터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출처 : 환경부(2015a). 함께 잘 사는 길 환경교육.

한편 학교 교육에서는 1995년에 중학교에서 환경 '교과'가 개설되고 1996년부터 고등학교에서 환경과학 (이후 2002년에는 생태와 환경 으로, 2009년에는 다시 환경과 녹색성장 으로 개편)을 개설하는 등 정규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2008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ESD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상황에서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학교 수는 감소 추세에 있는 등, 학교 안에서 환경교육 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환경부, 2015b: 8).

이러한 교과활동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교육시범학교 지정을 통하여 학교 전체의 정책과 문화에 친환경 및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하였다. 환경교육시범학교는 광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정되며, 1985년 당시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출발하여 2016년 현재까지 총 269개 학교에 이른다(환경부, 2015b: 18). 이러한 학교 전체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교육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있다(이선경 외 2014: 19).

한편 교육부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의제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SDG 4.7에도 직접 언급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담론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박수연 외, 2015).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시민교육의 확산 거점으로서 역할을 다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6a)³⁰⁾.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경우 2009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교육부와 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ESD의 확산에 기여해 왔다. 여러 사업 가운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제는 국내 ESD의 실천 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최근 3년 간 인증된 ESD 프로그램의 사례는 <표 III-11>과 같다. 이러한 ESD 프로그램의 주제로는 양성평등, 평화와 인권, 문화다양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빈곤 감소, 생물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등 여러 영역이 있으며, 이는 SDGs의 여러 세부 목표와도 일치하는 주제라 할 수 있다³¹⁾. 유네스코한국위원회 ESD 프로그램의 수행 주체를 보면 산림청, 의제 21,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을 아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1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최근 사례

기관 유형	연도	수행기관	공식프로젝트	주제
산림청	2015	국립수목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	생물다양성
	2015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가야산국립공원시민대학 (주민아카데미)	생물다양성
공공기관	2013	경기관광공사	DMZ 청소년리더 과정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생물다양성
	2015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내일을 꿈꾸는 사다리 '에너지투모로우'	환경과 에너지
의제21	2013	푸른광주21협의회	도시숲 미래, 앞산뒤산 네트워크	환경과 에너지, 생물다양성
	2014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30) 출처: 교육부, 2016 교육부 업무계획, <http://www.moe.go.kr/2016happymoe/sub01.jsp> 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31)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

http://www.unesco.or.kr/business/sub_01_02_ESD01.asp/ 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기관 유형	연도	수행기관	공식프로젝트	주제
지자체	2015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부산광역시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2015	시흥시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초·중· 고등학교	2013	경기 장곡고	SL프로젝트	환경과 에너지, 지역개발과 거버넌스
민간환경 교육기관	2013	세계자연보호기금 Earth Hour 한국사무소	Earth Hour 캠페인	환경과 에너지
	2014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프로젝트	생물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2015	노을공원 시민모임	평화의 씨앗	평화와 인권
사회적기업	2013	아름다운 커피	아름다운 커피, 공정무역교실 '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2014	안산시건축사회	안산지속가능건축문화제	환경과 에너지
민간 기타	2013	아시아 아프리카 희망기구	꿈꾸는 도서관 1촌 맺기	빈곤감소, 문화다양성
	2015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성인을 위한 기초문해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

* 출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http://www.unesco.or.kr/business/sub_01_02_ESD01.asp/ 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다수의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이 자연생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자연 보호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SDG 12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최근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보전지역(MAB: Man and the Biosphere Programme) 사업의 일환으로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국립수목원, 고창이 생물권보전지역(BR: Biosphere Reserve) 지정되어 있으며, 2015년 한국 MAB 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을 채택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델 지역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³²⁾. <표 -12>에서와 같이 생물권보전지역에서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단순히 자연·생태 환경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지역의 토착·전통 지혜의 전수와 문화적

32) 출처: MAB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mab.or.kr/main.php>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다양성을 보전하는데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으고 이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표 III-12 한국의 MAB전략과 행동계획(2016-2025)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

목표 3.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역량강화, 생물권보전지역 인지도 제고			
번호	실행과제	추진주체	파트너
3.1	지역 특성과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인식증진, 지역주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프로그램과 자료 개발 및 실행	MAB 한위, BR	유네스코 한위, 중앙부처
3.2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질 높은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행되도록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인증, 지역 교육청 협력 등 추진	BR	유네스코 한위, MAB 한위, 교육기관
3.3	생물권보전지역 내 유네스코학교 수를 늘리고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적극 지원	BR	유네스코 한위, 교육기관
3.4	토착·전통 지혜를 활용한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를 발굴 및 확산	BR, MAB 한위	지자체
3.5	한국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청년연구상 또는 청년활동상 공모, 지역 내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 개발 등,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차세대 전문인력 양성과 활동 적극 장려	MAB 한위, BR	교육기관, 유네스코 한위

* 출처: 정수정·심숙경·곽정란·김남수·한상희(2016), 생물권보전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방안 연구. 국립공원관리공단. pp. 3-4.

이러한 환경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정책은 SDGs 4.7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의 증진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SDGs의 이행을 위한 교육 분야의 중점 정책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교육활동 가운데는 학교에서의 환경 관련 수업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학습 유형이 있는가 하면, 사회 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과 같이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학습의 주제와 영역 역시 환경과 에너지와 같은 전통적인 환경교육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 유네스코 사례와 같이 빈곤, 지역사회 개발, 문화다양성, 국제협력 등 SDGs의 여러 영역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활동 및 참여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 주도적인 참여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SDG 4.7)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활동·참여 정책의 내용은 향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로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 <표 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방법을 살펴보면, SDGs 여러 영역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 활동은 SDG 교육 목표 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른 영역에서 청소년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표 13-13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시 및 SDGs 관련성

영역	프로그램	기관	SDGs 관련성
청소년 활동분야 가족인성 영역	세대친화형 마을을 디자인 하다 “세마디” : 세대친화형 마을 활동 및 모니터링	서대문구립 흥은 청소년 문화의집	지속가능도시(11), 참여(16.2)
청소년 활동 분야 과학환경 영역	환상의 교실: 환경분야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모색	(사)환경교육 센터	진로교육(4.4), 지속가능발전교육(4.7)
	자원재활용프로젝트 꿈꾸는 고물상 : 지역 내 또래 청소년들에게 업사이클링 전파	송파구립 마천청소년 수련관	지속가능발전교육(4.7)
	자연애크amp: 지역사회에서 환경 보존을 위한 목표 및 실행 계획 수립하여 실천	한국스카우트 연맹	지속가능발전 도시(11), 참여(16.7)
청소년 활동 분야 봉사 영역	청소년 감수성 나눔 무지개 프로젝트: 마을에서 배운 재능을 환원하고 문화공유	광명시청소년 수련관	지속가능발전교육(4.7)
	우리마을 리얼다큐 “황금동네 마음과 마음이 통(通)하다” : 동네에 관심을 갖고 봉사활동 기획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관	참여(16.7)
청소년 활동 분야 역사문화예술 영역	청소년이 만드는 마을 이야기 천따라 천천천 별빛따라 물빛따라: 마을 영상과 축제 만들기를 통한 마을 활성화에 기여	울산미디어 연대	참여(16.7)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포토보이스 활동을 통해 인도 청소년과 차별과 편견에 대해 표현	서울청소년문화 교류센터	문화다양성(4.7)

영역	프로그램	기관	SDGs 관련성
청소년 보호분야 건전매체 환경조성 영역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미디어를 부탁해! 미디어 없는 놀이 체험 트릿트릿 골목놀이'	한국지역사회교 육협의회	지속가능발전 도시(11.2)
청소년 참여분야 지역사회개발 개선 영역	그린एको 로드투어프로그램: 자전거투어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실시	청구고등학교 동아리	지속가능발전 도시(11.2), 참여(16.7)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5). 2015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례집.
<http://ycon.mogef.go.kr/hs/notice/pr/prView.do/> 에서 2016년 5월 16일 인출.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활동 인프라 구축, 지역 청소년활동 지원, 다양한 활동의 보급 등도 청소년 활동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표 -14>에서와 같이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현재 전국적으로 5곳이며, 2곳이 추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평창 수련원의 경우 기존의 대규모 인원 중심 프로그램의 경직성을 탈피하고자 자연체험활동과 청소년 역량 개발을 연계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수련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 모색하고 있다(이재영 외, 2015). 현재 건립 중인 2곳의 국립시설 모두 생태체험을 테마로 한다는 점에서 좋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14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현황

구분	활동 테마	현황 및 내용
국립중앙 청소년수련 원	종합형 수련활동, 지도자 연수	• 2001. 8. 15. 개원 •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청소년종합수련시설 • 대강당, 세미나실, 도예실, 민속관, 국제교류관, 야외공연장, 실내체육관 등의 활동시설 보유 • 취약계층청소년 대상 독립군체험캠프, 다문화청소년캠프 운영
국립평창 청소년수련 원	자연, 아웃도어 활동	• 1998. 11. 14. 개원 •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자연권 대표 수련시설 • 모험활동, 숲체험, 트레킹, 오리엔티어링 등 자연체험 및 아웃도어 활동 운영 • 개인·단체 이용가능 한 하늘담터(통나무집)'운영

구분	활동 테마	현황 및 내용
국립고흥 청소년우주 체험센터	천문우주, 우주과학	• 2010. 7. 9. 개원 •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우주과학 특화 체험시설 • 천체투영관, 천체관측소, 전파망원경 등 우주과학에 특화된 체험시설 보유
국립김제 청소년 농업생명 체험센터	농업생명	• 2013. 7. 1. 개원 • 전북 김제에 위치한 농업생명 특화 체험시설 • 농생명체험관, 농생명과학관, 전망대, 유리온실 등 보유 • 농업생명 체험활동, 농업생명 특성화 체험활동, 가족체험활동, 취약계층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지도자 연수활동, 청소년단체 및 기관협력활동 운영
국립영덕 청소년 해양환경 체험센터	해양환경	• 2013. 7. 1. 개원 • 경북 영덕에 위치한 해양환경 특화 체험시설 • 해양체험관, 바다목장 등 보유 • 해양과학, 해양안전, 수산과학, 해양문화 등의 체험프로그램 제공
국립청소년 생태안전 체험센터	수변생태 및 안전 체험	• 2016년 6월 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2호) • 부산 사하구 일대 부지 • 공사기간: 2017-2018년 • 주요시설: 운영본부, 생태·안전체험관, 생활관, 수림대광장, 수림대 및 카르서식지, 모험놀이시설 등 • 주요프로그램: 안전체험, 카누호수체험, 에코교육, 철새·습지수생, 동식물관찰, 낙동강 뱃길 탐사 등
국립청소년 산림생태 체험센터	산림생태체험	• 2016년 6월 건설공사기본계획고시(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3호) • 경북 봉화군 일대 부지 • 공사기간: 2017-2019년 • 주요시설: 지원센터, 산림생태체험관, 생활관, 포레스트어드벤처, 숲속오지체험장, 숲속에코캠핑장, 명상의 숲 등 • 주요 프로그램: 산림생태환경(과학탐구), 산림놀이(모험탐구), 산림문화(연극·영상·음악·미술) 등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6). 청소년 균형성장 플랫폼(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브로슈어).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2016).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브로슈어.
행정자치부(2016a).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2호,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행정자치부(2016b).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3호, 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고시.

한편 청소년 참여는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 강조된 이후 청소년 정책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국가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지원되는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여러 청소년 참여기구의 전국적인 현황은 <표 15>와 같다. 그러나 여러 기구들 간의 정체성 문제, 대표성 문제, 중장기 로드맵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최창욱·전명기, 2013).

표 III-15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청소년 참여기구	목적	법적근거	현황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	청소년기본법 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시범사업 시행(2004) - 매년 1회 회의 개최 (2005-2015, 총 11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적 참여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위원회 설치(1998) 17개 시도, 171개 시군구에서 188개소 설치·운영(2016)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하여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	- 위원회 구성(1999) 17개 시도에서 312개소 설치(2015)

* 출처: 청소년참여포털 <http://www.youth.go.kr/ywith/activity/commission/local.do/>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SDGs의 달성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사회의 변화를 담보하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추진 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총 388개 과제를 제안하였고, 이 가운데 344개가 수용되어 평균 수용률은 88.7%에 이른다(여성가족부, 2015a: 80). 물론 이러한 수치로 청소년의 정책 참여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불수용 과제의 예시를 <표 -16>과 같이 살펴 볼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안에 대하여 당장 해당 정책을 바꾸는 데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점 전환을 통하여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과제(연도)	소관부처	답변 및 현황
진로체험활동 터전에 대한 국가 인증제 실시(2013)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터전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인증제와 연동하여 인증 실시(불수용) • 청소년자원봉사터전 중 청소년진로체험 터전에 대한 인증 실시(불수용)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2009)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2005.8.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계획은 수용 곤란 •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출 경우 참정권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고등학생 다수가 선거권자로 편입됨으로써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 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국회에 청소년 특별위원회 설치(2010)	여성가족부	•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청소년정책분야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청소년특별위원회 '설치'는 불필요함 • 국제회의 등에서 결의한 청소년참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여 청소년정책에 반영
모니터링 결과반영 점검 강화(2014)	교육부	• 학생들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으로 학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함(불수용) - 안전관련 비전문가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학생 참여보장(2014)	교육부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참여의무화는 장기검토 필요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 2차 피해 가능성, 과도한 책임감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음

*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4),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모음집: 청소년특별회의가 걸은 10년, pp. 153-196.

청소년 활동·참여 정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청소년 역량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을 잇는 핵심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나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청소년 건강 증진 및 여가 확대

최근 삶의 질 차원에서 녹색 공간 및 휴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여러 지속가능발전 지표에서 녹색 공간이나 여가 시간을 주요 지표 중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을 위한 녹색 공간 및 휴양문화에 대한 정책은 필수적이며, 이는 SDG 3. 웰빙 및 환경분야 목표인 SDG 13-15와도 관련된다. 산림청에서는 2013년 「산림복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산림교육 및 치유 등을 포함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김재현 외, 2015). 이러한 정책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표 III-17>과 같이, 산림청은 산림복지를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사회보장정책, 양성평등정책,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 영역과의 관련성 하에 실현하고자 접근하고 있다. 이는 산림복지의 수혜자별로 구체적인 정책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역시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창의적 체험활동, 위기 청소년 대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활용, 산림분야 직업체험기회 제공, 인터넷 중독, 자살 고위험군, 학교폭력 가·피해자 대상 산림프로그램 제공, 숲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현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산림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표 III-17 부문별 정책기본계획과 산림복지와의 관련성

기본계획	정책과제	산림복지 관련성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15-2019	- 교육복지 내실화 - 문화여가 기반 조성	- 숲을 활용한 문화 인프라 확충 - 가족,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 프로그램 제공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 활동 강화 -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 직업체험활동 강화	- 숲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수련활동 제공 - 위기 청소년 대상 산림치유프로그램 제공 - 산림복지프로그램 인증(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 산림분야 직업체험기회 제공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2014-2018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체계화	저소득층, 취약계층, 인터넷 중독, 자살 고위험군, 학교폭력 가·피해자 대상 산림프로그램 제공

기본계획	정책과제	산림복지 관련성
2015년도 인성교육 강화 기본계획	• 인성교육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 확산	• 숲체험 중심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산림복지시설과 지역 학교와 협력 체계 구축 • 인성교육 우수 프로그램 인증

* 출처: 김재현 외 (2015). 산림복지시설 운영방안과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p. 83.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현재 산림청 산하 5곳의 산림복지시설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8>과 같다. 이러한 정책 사업은 산림청의 고유 정책에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III-18 산림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프로그램 현황

산림복지시설	시설 개원	미션과 비전	주요 운영 프로그램 및 내용
숲체원 (산림복지시설)	2007년	• 산림교육의 진흥으로 숲도 사람도 행복한 푸른 복지세상 실현 • 최고의 숲체험을 제공하는 국내 최고 산림교육 선도 기관	• 청소년학교 - 청소년 및 임원 체험활동 • 녹색자금 - 소외계층 숲 체험 프로그램 • 숲체원 가족 - 친구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칠곡나눔숲체원 (자연휴양림)	2015년	•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 산림체험·교육을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 및 산림가치 인식 제고	• 소외계층에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소외계층은 프로그램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무상이용토록 하여 산림복지 혜택 제공
청도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	추진중	• 행복한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영남권 거점 •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공간 확충 • 산림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콘텐츠 개발 • 학교·사회 산림교육의 지원체계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우울증, 인터넷 중독,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문제 해결
장성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	진행중	•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및 선진 산림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교육·관리·숙박시설 등을 갖춘 미래지향적 산림교육센터	• 미정

산림복지시설	시설 개원	미션과 비전	주요 운영 프로그램 및 내용
국립산림치유원 (산림치유단지)	2016년	산림치유와 관련된 체험, 연구 개발, 교육 등을 기능적·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 산업화까지 실현할 수 있는 산림치유의 거점공간	- 어린이, 청소년 등 학교 단체 대상 프로그램(숲 탐방) - 인터넷, 게임중독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전신 치유 프로그램(터칭, Touching)

* 출처: 김재현 외 (2015). 산림복지시설 운영방안과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pp. 17-61.

또한 산림청은 산림교육문화분야 연간계획을 통하여 학교 안팎에서의 산림교육 추진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 <표 Ⅲ-19>의 2016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자유학기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최근 정책 변화에 맞추어 산림교육을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Ⅲ-19 2016년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시행주체
학교 내 산림교육 기반 강화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교육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산림분야 진로체험 기회 제공	교육부
	산림교육 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추진	전북교육청(숲꿈학교)과 협업으로 산림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	
산림교육과 청소년 정책 연계	보호관찰청소년 숲교육 협력체계 강화	산림교육 확대, 숲교육 효과성 증진을 위한 성과분석, 프로그램 정례화	법무부
	방과후 아카데미	- 청소년정책과 연계한 숲 교육 추진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숲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한 신체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정책과 연계한 숲 교육 추진 -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 숲 교육 운영	여가부
소외계층, 가족단위 등 다양한 계층별 산림교육 확대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위기학생 대상으로 산림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청소년 사회문제 해소	산림부, 교육부, 코레일
	보호관찰 청소년 숲교육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숲교육으로 숲에서의 자아성찰 기회 제공, 숲을 통한 자아실현 계기 마련	산림청, 법무부, 녹색자금

세부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시행주체
숲으로 가자! ' 캠페인 추진 및 홍보		• 청소년박람회, 자유학기제박람회, 교육기부박람회, 산림박람회 개최 • 가족관계회복, 보호관찰 청소년 등 특수목적 프로그램 기획	

* 출처: 산림청(2016). 2016년도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pp. 1-8.

이처럼 산림복지분야는 SDGs 시대에 청소년의 웰빙 증진과 여가기회 확대라는 점에서 앞으로 청소년 정책의 틀 차원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SDGs 영역으로 볼 때, SDG 3. 청소년의 정신건강, SDG 4.7 환경교육, SDG 15.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 여러 주제에 걸쳐져 있다.

산림복지 정책의 큰 틀 상으로는 SDG 15가 가장 주요한 과제일 것이며, 청소년사업의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환경복지,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기후변화에 대한 역량 제고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산업 정책분야에서도 청소년을 수요자로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틀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정책 영역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4) 지자체 지속가능발전정책 현황

(1) 지방의제 21과 청소년

지방의제 21 현황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 국에서 지역차원의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 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UNCED, 1992).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2006년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구축에 기여하였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기구는 총 142개에 이르는 등, 지방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이 오랫동안 구축되었다(오수길·윤경효, 2016a).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폐지되는

등,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장기적 전략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동력을 상실하였다(김병완 외, 2016: 301)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III-20>에서와 같이 2016년 현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치법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총 48곳에 이르는 등 지방의 제 21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지방의 제21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반면 경기도 및 서울 도봉구 등 극히 소수의 지자체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는 최근 기존「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를 「저탄소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III-20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치법규 현황

자치단체 (광역시/기초)		종류	제/개정일	법규명
서울	서울시	조례	2015.05.14.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강동구	조례	2014.12.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도봉구	조례	2016.07.07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
	성동구	조례	2016.07.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경기	하남시	조례	2014.12.26.	하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평군	조례	2014.12.31.	가평군 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이천시	조례	2015.03.02.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안성시	조례	2015.06.30.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조례	2016.10.14.	의왕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조례	2015.12.30.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부천시	조례	2016.04.04.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조례	2016.05.17.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과천시	조례	2016.07.01.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흥시	조례	2016.07.07.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수원시	조례	2016.08.12.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3) 이러한 걸림돌 때문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콘트롤 타워 수립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현재 환경부 소속에서 대통령직속위원회로 격상하고, 녹색위와 지속위를 통합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발전법과 녹색성장법을 합쳐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4: 5-6). 이러한 법 개정 논의는 SDGs의 국내 추진을 위해서도 고려되고 있다(이윤 외, 2013).

자치단체 (광역/기초)	종류	제/개정일	법규명
인천	부평구	조례	2012.02.2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조례	2015.05.04.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구	조례	2016.05.17.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시	조례	2016.05.19.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	대전시	조례	2016.04.12. 대전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대구	대구시	훈령 [규정]	2015.12.30.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세종	세종시	조례	2015.09.30.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광주	광주시	조례	2016.10.01. 광주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광주시	훈령 [조례]	2015.12.24.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남구	훈령 [조례]	2016.10.17. 광주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울산	울주군	조례	2011.08.04. 울산광역시 울주군 UN-지속가능발전교육 울주 RCE 운영 조례
강원	화천군	조례	2012.08.13.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
	인제군	조례	2014.12.26. 사단법인 UN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RCE)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창군	조례	2015.01.30.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정선군	조례	2015.12.23. 정선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조례	2016.06.17.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릉시	조례	2016.11.16. 강릉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충북	진천군	조례	2015.07.21. 진천군 생겨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조례	2016.04.01.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남	충청남도	조례	2015.09.30.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2016.06.30.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아산시	조례	2016.09.19.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보령시	조례	2015.12.21.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서천군	조례	2016.03.10.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당진시	조례	2016.04.29.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태안군	조례	2016.05.13. 태안군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지원 조례
	논산시	조례	2016.09.20. 논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예산군	조례	2016.05.20.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조례	2016.06.01.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서산시	조례	2016.07.08.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홍성군	조례	2016.07.15.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청양군	조례	2016.08.10.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진천군	조례	2015.07.21. 진천군 생겨진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단체 (광역/기초)	종류	제/개정일	법규명
경남	창원시	조례	2007.04.30. 창원시 환경수도를 향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
	통영시	조례	2011.10.14.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5.05.06.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경상남도	규칙	2016.11.03.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전북	임실군	조례	2013.03.15.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주시	조례	2016.09.30.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전라북도	훈령 [규정]	2015.12.28.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전남	담양군	조례	2010.11.18.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2015.07.10.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조례	2015.02.26. 전라남도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주시	조례	2016.03.30.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1.elis.go.kr/>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OrdinAstSc.do?schType=0&menuId=9&dataCls=lsAstSc&query=%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20%EC%A1%B0%EB%A1%80&cpOfCd=&tabNo=10#/> 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의제21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 경기, 수원, 인천, 대전, 충남, 강릉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제와 의제 21 지표를 살펴보았다. <표 -21>에서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비교할 때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이 대상인 지표는 건강과 복지 등 좀 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으며, 특히 청소년 참여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III-21 국내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청소년 대상 지표

지자체	영역	지표
충남	건강안전	중고생 비만을
	건강안전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주의 사용군 사후조치율
	건강안전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율
경기	책임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복지(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존, 아동청소년 동아리 지원)
	책임 있는 미래세대	청소년 정책 참여
	교육의 질	교원 1인당 학생 수
서울	사회	평생 교육 참여율
	경제	청년 고용률
수원	에너지 자립고비	온실가스감축행동에 참여하는 그린리더 수(시민, 청소년)

* 출처: 고재경(2011). 2011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보고서. p. 25.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위원회(2012). 2012 수원시 지속가능보고서. p. 6.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충청남도청 지속가능발전 지표 <http://www.chungnam.net/>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의 기본계획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57478/>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지자체가 설정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수원 의제 21 추진 위원회가 설정한 지표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수원의제 21 추진 위원회는 2012년에 10대 행동 의제 하에 32개의 지표를 선정하였다. 위의 표와 같이 청소년을 직접 언급한 지표는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참여하는 그린리더 수(시민, 청소년) 1개다. 그런데, 다른 지표의 경우에도 선정 사유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2 수원시 10대 행동의제 '중 지표에서 청소년 관련성

수원 지속가능발전 지표	지표 선정 사유
1-3. 텃밭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도시농업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좋은 환경교육이 된다.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모으기 위해 지표로 선정하였다.
4-2. 매월 자전거대행진, 자전거교육 참가자 수	수원시와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매월 1회 자전거 대행진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숫자를 통해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수원시와 단체들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전거교육이 자전거이용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 지표로 선정하였다.

수원 지속가능발전 지표	지표 선정 사유
6-1. 이주민들의 유형별, 생애주기별 불편 및 차별 정도 개선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유형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세대별로 겪는 불편과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이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한다.
10-2. 정규직 일자리 개수(2017년까지 3만개 목표)	향후 3단지 입주가 되면 3만 명 이상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고색산업단지가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좋은 직장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는 정규직은 필수사항이라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 출처: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위원회(2012). 2012 수원시 지속가능보고서. pp. 5-9.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책임 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도 주목할 만한 영역이다(표 -23> 참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적 관점에서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역간의 통합적인 노력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세대라는 점에서 미래세대를 별도의 지표로 구성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표 III-2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책임 있는 미래세대 '항목'

영역	항목	지표
책임 있는 시민과 미래세대	시민참여 활성화	주민참여
		지방의제21 지원
		주민참여제도
	능력 있는 시민	자원봉사활동 참여
		주민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복지
	미래세대 배려	아동복지
		교육의 질
		미래세대 정책참여

* 출처: 고재경(2011). 2011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보고서. p. 46.

한편 2000년대 초반 지방의제21 추진기구가 확산될 당시에는 청소년 의제를 작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의제 작성 노력에는 청소년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라보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와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있다(이창언, 2002). 당시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 의제 작성 현황은 <표 -24>와 같다. 청소년 의제는 주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확보 등, 청소년 여가 시간 및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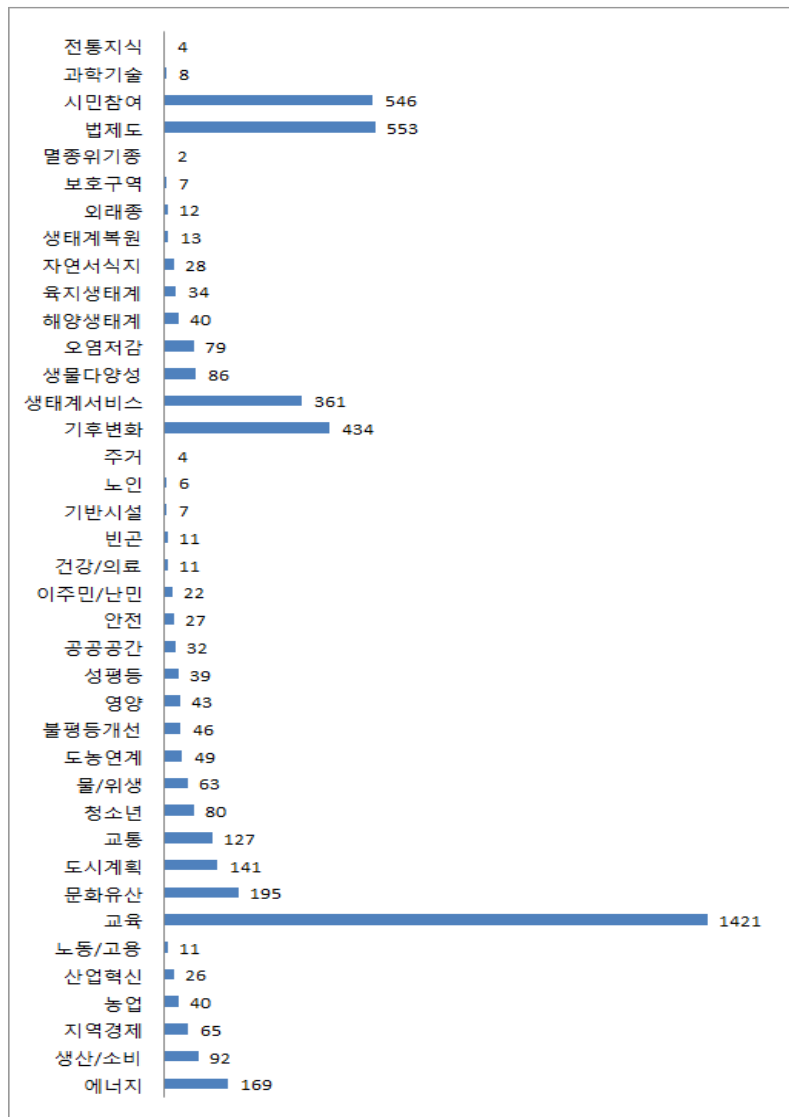
표 Ⅲ-24 지방의제 21 청소년 의제 작성 사례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청소년 의제 내용	관련 지표
부천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도시	청소년 공간 이용률
안양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교육문화를 조성	청소년쉼터 개수
구리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	문화예술공간 수
수원	학교 부적응 및 일탈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지원을 강화한다	중도탈락 학생 수
군포	청소년이 신나는 문화환경 만들기	청소년 건전 업소 수
포천	아동,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든다	청소년 이용 문화시설 수
안산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청소년 여가시간
경기도	지역사회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청소년을 위한 지역 정보망을 구축한다	문화공간 개방 수 정보망 네트워크 접속자수

* 출처 : 이창언(2002), 지방의제21과 청소년, 청소년의제, p. 4.

지자체 의제 21의 청소년 사업 현황

다음으로는 지자체 의제 21 추진기구를 통하여 실제 추진된 정책 사업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제 21 추진의 짧지 않은 역사에서 청소년이 당사자 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어렵다. 2015년 24개 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LCSD)에서 조사한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기간 중 24개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실천사업의 분야별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이 가운데 교육 사업은 1,421로 전체의 28.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범주인 청소년 사업은 80개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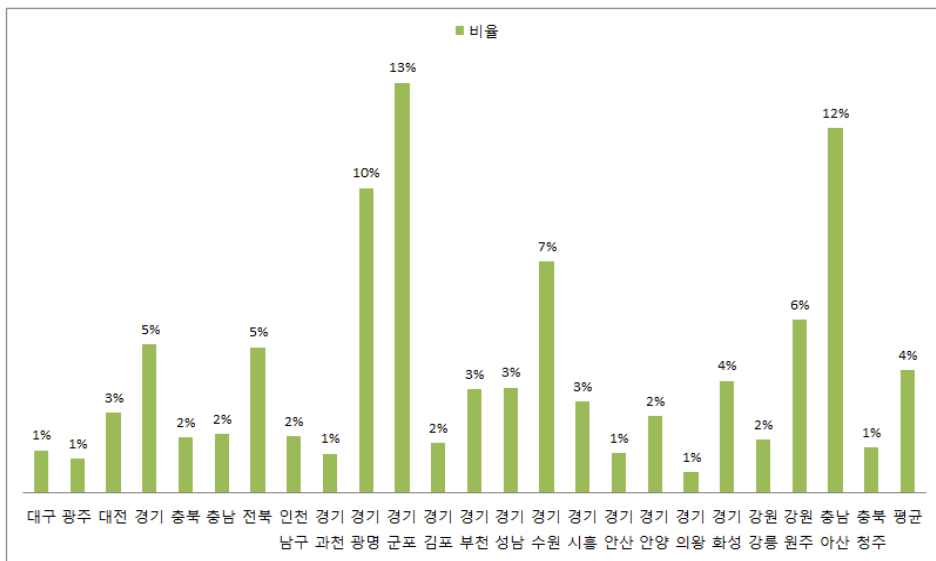
* 출처: 오수길·윤경호(2016a).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2011-2015. p. 36에서 연구자 재구성.

【그림 III-1】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분야별 현황(2011-2015년)

위 그래프에서 교육 영역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 영역과 청소년 영역에는 관점의 차이가 발견된다. 부천을 예로 들면, 교육 영역에는 초등학교교실사업,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기후변화에 대한 강연 등, 주로 청소년을 교육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청소년 영역의 경우, 청소년 모니터링,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의제작성, 학교 밖 청소년토론회, 청소년 100인 환경정책토론회, 청소년 그린리더양성을 위한 그린 컨설팅 등,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주체 혹은 미래사회의 리더로 보는 관점이 더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오수길 외 2016b: 19). 이처럼 두 사업 영역에 반영된 관점의 차이를 고려할 때,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청소년이 교육의 대상으로 참여하는 사업의 수는 많지만,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사업은 매우 적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지역의 거버넌스 참여 인적자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상위 4개 그룹은 시민단체, 기업/산업계, 지방정부, 과학기술계로 나타났다(오수길 외, 2016a). 반면 [그림 -2]와 같이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청소년의 참여도는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군포, 아산, 광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4%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오수길·윤경효(2016b).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지역보고서(부천). 연구자 재구성.

【그림 III-2】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인력 중 청소년 분야 비율(2011-2015년)

이 밖에도 전국 의제21 추진기구 협의체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에 선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관련된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2016년의 경우 지역이 학교다'- 지속가능발전청소년포럼 YESDO(원주), 청소년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대전 환경정책(대전), 지속가능발전도시,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위기 청소년의 안전, 건강, 역량강화(SHE project)(서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프로젝트 - 원도심 공동체 복원, 학교에서부터(전주) 등 다수의 청소년 사업이 수상하였다³⁴⁾. 이들 청소년 활동은 정책 참여, 건강, 안전, 도시 등 교육을 넘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또는 청소년 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기타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자체 정책 현황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 오면서 아동·청소년·청년을 주요 그룹으로 상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이 참여하는 정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아직까지 조례나 계획 등 제도상의 장치에 머물러있어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SDGs의 관점에서 여러 제도 및 정책 간 연계와 통합성을 고려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SDG 17 관련) 현재 구축되고 있는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제도는 지속가능발전 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지위를 강조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SDGs의 여러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SDGs 영역별로는 청소년 정책과 특히 관련성이 높은 SDG 4(교육), SDG 8(일자리), SDG 11(지속가능도시), SDG 16(참여) 등에 관련되는 지자체의 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또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의 경우 도시 전반의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적인 정의인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와 관련되며, SDGs의 전반적인 목표를 통합적으로 달성하는 것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니세프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34) 출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http://www.sdkorea.org/> 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실현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전 세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표 -25>와 같이 서울 성북구(2013)에 이어 전북 완주군(2016)에서 유니세프 인증절차를 마쳤고, 그 외에도 40개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표 III -25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관련 내용	관련 법규	지자체
아동(어린이) 친화도시	인증	서울 성북구, 전북 완주군
	조례	서울 강동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강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작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종로구, 경기 오산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광명시, 경기 안양시, 인천 서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계룡시, 충남 보령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영주시, 전북 전주시 등 28개
		인천 서구, 부산 금정구, 대전 유성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등 5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례	서울 송파구, 경기 부천시, 인천 남구, 부산시, 부산 사하구, 세종시, 울산 중구, 광주시, 광주 남구, 광주 서구,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등 12개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1.elis.go.kr/>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http://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다음으로 최근 도입되고 있는 지자체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청소년 분과와 청소년참여예산제 등도 참여적 거버넌스를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표 -26>과 같이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시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수원 등 5곳이며,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등 11곳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러한 참여제도는 향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정화·김찬동·이수미, 2015: 88). 이처럼 지자체 정책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SDG 11.2 참여적인 지속가능도시 조성 과 SDG 16.7 참여적 의사결정 보장에 직접 관련된다.

표 III-26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청소년 참여

지자체	추진 근거	관련 내용	추진현황
수원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08.12.]	청소년계획단 (초·중학생 100명)	2014년 진행
광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6.04.15.]	2030 광주기본계획 (시민 100명, 청소년 31명)	2016년 계획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03.30.]	시민계획단 (10대 20명, 20~30대 30명)	2015년 계획
울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06.30.]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 (미래세대 참여단 20명)	2015년 계획
대구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6.07.11.]	대구의 미래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대학생 토론회)	2015년 계획
서울 강동구	강동구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계획 [부구청장 방침 제441호 (교육지원과), 2016.3.31.]	강동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2016년 계획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2.07.18.]	2016년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2014 -2016년
서울 동작구	구청장 방침 제60호(교육문화과-220)	민주시민 역량강화 학생참여예산제 공모	2015년 진행
서울시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6.05.19.]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2016년 계획
수원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3.06.14.]	청소년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	2011 -2016년
시흥시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 2014.07.08.]	2016 주민참여 예산 한마당 (청년·청소년 제안사업 포함)	2016년
안양시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6.02.18.]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 발표회	2016년
인천 동구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제정 2011.10.20.]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5.04.13.]	청소년참여예산제	2013년
인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5.12.30.]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2016년 진행
아산시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5.10.26.]	청소년 참여예산제	2016년
군산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15.]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참여예산 학교	2016년 진행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1.elis.go.kr/>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주간경향(2014.04.0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id=201404011055571&code=113/>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지역과발전(2014). 수원, 대한민국 표준을 만든다.

광주드림(2015.12.28.),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uid=470151/>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부산광역시(2015). 시민계획단 구성·운영 계획.

경상일보(2015.07.30).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101/>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매일신문(2015.09.1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2038&yy=2015/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http://grasslog.net/archive/12264/>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뉴시스(2015.07.2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1_0013805107&cID=10809&pID=10800/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국제뉴스(2016.08.23).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988/>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국제뉴스(2016.10.15).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44/>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아주경제(2016.08.09). <http://www.ajunews.com/view/20160809104714835/>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아동·청소년의회 역시 미래세대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의사결정 역량 및 책임감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SDGs와 관련성이 깊다. <표 -27>에서와 같이 지자체 가운데 관련 조례에 의해 아동·청소년의회를 추진하는 곳은 서울시 등 11곳이다. 아동·청소년의회에서 논의하는 정책의 대상을 고려할 때, SDG 3(건강), SDG 4(교육), SDG 16(참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과 관련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 성북구 등 9곳으로,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 부천시 등 3곳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관련 기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조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미래세대 토서 역할과 의무에 대한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III -27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아동·청소년의회 및 인권

관련 내용	관련 법규	지자체
아동의회	x	서울 강동구
청소년의회	x	서울 동작구, 광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조례	서울시, 서울 성북구, 서울 강동구, 부산 금정구, 광주 남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경기 하남시, 경기 성남시, 경기 가평군, 충북 충주시 등 11개
	규칙	광주시
청소년 모의회의	x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남구

관련 내용	관련 법규	지자체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서울시, 경기 부천시
아동·여성 인권	조례	경남 창원시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서울 성북구, 경기도, 경기 성남시, 경기 안양시, 충남 아산시, 광주시, 강원 원주시, 전라남도, 전남 목포시 등 9개
청소년 근로자 인권	조례	경기 김포시, 충남 서산시(청년)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1.elis.go.kr>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성북구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2015), 2015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청년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청년 관련 정책 역시 SDG 8 청년 고용과 관련된다. <표 -28>와 같이 경기도 등 27개 지자체에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48개 지자체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개 지자체에서는 청년 창업 또는 취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이행 과제가 추가되고 2016년 현재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발의되는 등,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 및 정책은 앞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표 III-28 기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청년 관련

관련 내용	관련 법규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시흥시, 광주시, 광주 동구, 대구시,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서울 강동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성북구, 인천 남구, 경상남도, 경남 창원시, 전라남도, 전남 곡성군, 전남 여수시, 전남 장흥군, 전남 순천시, 전남 영광군, 충청남도, 충남 부여군, 충청북도, 충북 청주시, 제주도 등 27개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경기도, 경기 광명시, 경기 구리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안성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경기 이천시, 경기 평택시, 경기 하남시, 경기 부천시, 경기 수원시, 광주시,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대구시,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전시, 대전 서구, 부산시,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초구, 서울 중구, 인천 서구, 인천 부평구, 강원도, 강원 횡성군, 강원 고성군, 경상남도, 경남 김해시, 전라남도, 전남 광양시, 전남 나주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충청남도, 충남 아산시, 충남 천안시, 세종시, 전라북도, 전북 전주시, 제주도 등 48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경기도, 경기 광명시,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 광주시, 대전 서구 등 6개
청년 취업지원	조례	광주시, 대구시, 서울 서초구, 경상북도 등 4개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1.elis.go.kr/>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5) 소결

이상과 같이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9>와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표 29>에서와 같이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관련된 제도·정책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계획과 비교하여 특히 참여·권리 분야에서 진일보된 관점이 채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수정 논의에서 청소년과 미래세대를 키워드로 하는 지표 개발 논의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 참여·권리 정책에서도 현재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미래세대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관점은 채택되고 있지 않아, 향후 제도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 영역 가운데 안전 영역은 SDG 11. 지속가능도시 조성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도시계획에 청소년의 참여 등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이 영역은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관련성이 적어 향후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표 III-29 국가 및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정책 현황 요약

정책 영역 구분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책	지자체 의제21 및 관련 정책
교육	(국가 지표) 중등학교 순졸업율,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공교육비 지출 (2, 3차)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경기 지표) 교원1인당 학생 수 지방의제 정책사업 다수
건강	(국가 지표) 영양상태, 복지지출, 전염병 예방주사 (2차) 청소년 건강관리 (2, 3차) 어린이 건강 증진	(충남 지표) 중고생 비만율,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주의 사용군 사후조치율,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율
참여·권리	(여가부) 청소년활동·참여 정책	(경기 지표) 미래세대 정책 참여, 온실가스감축참여 그린리더 수 (경기도 지역) 청소년 의제 작성 지방의제 정책사업 (기타 지자체) 청소년 참여예산제 등
복지	(2차) 드림스타트, 방과후 돌봄서비스	(경기 지표) 청소년 복지

정책 영역 구분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정책	지자체 의제21 및 관련 정책
고용	(3차)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서울 지표) 청년 고용율
환경	(2, 3차) 생태휴식공간 조성,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산림청)	-
안전	-	-
정책 체계	국가 지표와 개별 과제 간의 괴리, 부처 간 협조체계 미약	의제에 청소년계의 참여 제한적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분석

청소년기본계획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 대상인 만큼 제6차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 및 SDGs의 원칙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전반적인 특징 및 시행계획 상의 정책사업(2013-2016) 분석을 통하여 현행 청소년 정책이 SDGs의 내용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특징 및 문제점

(1) 수립 방향 및 목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1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계획은 2013년에 시작되어 2017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제5차 계획은 “급변하는 청소년 관련 사회·경제적 환경을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2: 32). 그러나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 내용이 인구·가족·생활환경의 변화, 사회적 양극화, 다문화 사회 가속화,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청년 고용 불안 심화, 경제적 자립의 지연 등 주로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국한되어 있어, 지구환경 및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관계부처 합동, 2012: 14-17).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악화는 현재 청소년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제로서 미래세대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의 발생, 그로 인한 난민 문제, 그리고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지구를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제5차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 진단에 있어 청소년의 행복, 삶의 만족도, 역량, 가치관 등 척도상의 낮은 수치와 불균형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이 바람직한 청소년 상인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청소년 정책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향” (관계부처합동, 2012: 34) 한다고 했을 때, 지속가능발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이 무엇이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등, 정책의 틀을 결정짓는 핵심 개념들이 분명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즉, 사회발전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이를 추구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 간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제5차 계획의 다른 특징으로는 기존의 청소년 문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모든 청소년을 정책 수요자로 파악하고, 다양한 청소년 집단의 요구와 참여에 기초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으로써 정책의 포괄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청소년 정책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모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책기조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하겠다는 SDGs의 기본원칙과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조해 온 의제21, UNDP 등 국제 사회 담론과 일치되는 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이 정책 과제 및 정책 사업에 실제로 반영되어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2) 중점 과제 및 세부 과제의 내용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은 5대 영역 7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인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에 속하는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내용은 <표 -30>과 같다. SDGs의 관점에서 보면 해당 영역은 SDG 4 교육,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부목표 4.7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역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내용으로 볼 때 역량의 내용으로는 글로벌, 다문화, 인성, 민주시민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성교육을 제외하고는 SDGs 4.7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다. 문화예술, 체험, 자원봉사 등은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비형식 학습의 기회로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간주될 수 있다. 한편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에 대한 과제가 별도로 제시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한 청소년 간의 교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김기현 외, 2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 간의 교류 및 통일교육 등은 매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표 III-30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영역 세부과제

중점 과제	세부과제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①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② 청소년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③ 학교-지역사회 협력 등을 통한 체험활동 강화 ④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 ⑤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⑥ 청소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⑦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확산 추진
1-2.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①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② 다문화 프로젝트 추진 ③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④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⑤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이해 증진
1-3.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①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 체계 강화 ② 청소년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③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화 ④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40.

다음으로 두 번째 영역인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영역의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내용은 <표 III-31>과 같다. 3장에서 살펴본 청소년 참여기구 정책이 이에 포함되며, SDG 16.7 포용적인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는 SDG 3 웰빙의 증진과 관련되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과제의 경우 SDG 16.7과 관련되면서 동시에 10.2 아동 차별 금지와도 관련이 깊다.

중점 과제	세부과제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①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②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제 강화 ③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④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① 청소년 체력 강화 ②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③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지원 강화 ④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운영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①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이행 및 권리교육 강화 ②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 조성 ③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④ 미디어콘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⑤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 실시 및 문화조성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54.

다음으로 세 번째 영역인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 지원 영역의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의 내용은 <표 III-32>와 같다. SDGs의 관점에서 보면 SDG 2. 빈곤종식, 4. 교육 접근권, 8. 청년 고용 등의 목표에 걸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과제의 경우 소득·출신·장애와 무관하게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을 강조하는 SDG 4 교육과 특히 관련이 높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의 경우에도 사회보장(SDG 2)과 교육 및 역량 강화(SDG 4)라는 두 가지 목표에 걸쳐져 있다. MDGs에 이어 SDGs에서도 글로벌 지표로 제시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의 경우, 우리나라는 0.6%로 높다고 볼 수는 없다(여성가족부, 2016b). 그러나 2015년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 부적응 문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강조되는 만큼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청년)의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과제의 경우 SDG 4.4 직업능력개발과 SDG 8 청년일자리 확보와 관련된다. 진로체험의 경우 최근 자유학기가 시행되면서 학교교육에서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 전반의 경제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로, 최근 청소년정책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중점 과제	세부과제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①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②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③ 저소득·장애·농산어촌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④ 한부모 및 조손가정,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확대 ⑤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강화 ⑥ 정서적·행동적 장애 청소년 치료재활 서비스 지원 ⑦ 취약계층 맞벌이 가정 청소년 방과 후 지원 기능 강화
3-2.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 ②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③ 학업중단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④ 가출 청소년 가정복귀 등 보호 지원 ⑤ 소년원 출원 청소년 사회복귀 지원 강화 ⑥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예방 및 보호 지원 확대 ⑦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 ⑧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강화'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①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천 ②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③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④ 청소년(청년) 창업·취업 지원 ⑤ 청소년(청년) 주거 지원 ⑥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⑦ 네트워크 기반 작업훈련 도입 등 직업체험 환경 여건 강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66.

다음으로 네 번째 영역인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 III-33>과 같다. 여기서 환경은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 및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며, 자연 환경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 해당 과제들은 청소년을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해환경 및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과제들은 SDG 11 지속가능도시 조성에 관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청소년을 도시계획의 이해당사자나 주체로서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11.2에서 제시하는 포용적인 '관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일부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서 청소년 참여의 강조, 그리고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 강조 등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비교할 때, SDG 11에 대한 청소년기본계획 차원에서의 접근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건전한 매체 조성 및 관련된 과제의 경우 물리적 환경에 관한 목표인 SDG 11보다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목표인 SDG 3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영역 세부과제

중점 과제	세부과제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지역사회 아동 및 청소년 종합안전망 구축 ②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③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④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최소화 확대 추진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① 성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②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③ 아동 및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④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⑥ 비행 청소년 예방적·회복적 사법제도 구축 ⑦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및 홍보 강화 ⑧ 유해환경 접촉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 및 선도·보호 강화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인식제고	①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②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③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84.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내용은 <표 III-34>와 같다. SDG 17에서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이 부처를 초월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협력적이고 긴밀한 추진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는 이보다는 청소년 정책 '고유의 영역'에 대한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추진과제에 대하여 국가 차원, 중앙행정기관 차원,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 및 정책과 기존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와의 연계 등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III-34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영역 세부과제

중점 과제	세부과제
5-1.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①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평가 체계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③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전담공무원제 추진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①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②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③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중점 과제	세부과제
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①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②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③ 정책 분석·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 출처: 관계부처합동(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p. 96.

다음 절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과 SDGs와의 관련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과제 안에 포함된 정책 사업별로 SDGs 세부목표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자료의 분석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2) 2013-2016년 청소년 시행계획에서의 SDGs 관련성 분석

(1) 청소년 정책 영역별 SDGs 관련성

이 절에서는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에 제출된 전체 청소년 정책의 틀 안에서 SDGs와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시행계획의 정책사업을 영역별로 분류하고, 이를 SDGs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표 1>에서 청소년 정책 영역으로 제시한 7개 영역에서 청소년활동·교육 부문을 청소년 활동과 교육지원으로 나누고, 나머지 6개 영역은 그대로 활용하여 총 8개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SDG 4 교육 목표의 내용을 보면 청소년 활동과 학교교육과정 이수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되지만,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활동과 교육 지원은 부처 간 추진영역과 정책의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2개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각 영역 또는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 사업의 범주는 시행계획에 제출된 정책 사업의 내용을 주제에 따라 묶는 방식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에 따라 2013-2016년 4년 간 중앙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 사업을 분류하였다. 한 사업이 여러 영역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관련성이 높은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하나의 사업이 여러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하여 중복을 방지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청소년 정책 분류체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활동 부문은 SDG 4(청소년활동·교육지원)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부 영역으로는 진로 교육(4.4),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강화(4.7)에 관련되어 있다.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의

경우 친환경적 생활 및 소비(12.8), 그리고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보호(14, 15) 등 여러 다른 영역에도 걸쳐있어 범부처간 주제로서 확장의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전통 문화 및 문화유산의 보존의 경우에도 지속가능발전교육(4.7)에 속하면서도 보존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11.4), 국제협력의 경우에도 세계시민교육(4.7)이면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도(17) 해당된다. 성 평등, 성인지 교육의 경우에도 인권 교육에 속하면서(4.7), SDG 5 성평등 분야에 걸쳐져 있다. 통일교육은 국가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의거하여 필요한 교육이라 볼 수 있으며, 평화 교육의 차원에서도 중요하다(4.7).

표 III-35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청소년 활동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1. 청소년 활동	체험활동	4.1	○
	인성교육	4.1	○
	민주시민역량 및 권리교육	4.7(16.7)	●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	4.7(12.8, 13.3, 14, 15)	●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학교 또는 청소년기관)	4.4	●
	창업/기업가 정신	4.4(8.3)	●
	성평등, 성인지 교육	4.7(5)	●
	통일교육	4.7	●
	기타 교육 (로봇창의교육,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등)	4.1	○
	청소년 희망카드	4.1	○
	활동 및 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4.1	○
	문화 예술 활동	4.1	○
	전통문화, 문화유산 보존	4.7(11.4)	●
	문화다양성 교육	4.7	●
	국제교류 활동	4.7	●
	국제협력(세계시민, 국제문제 등)	4.7(17)	●
	자원봉사 및 기부	4.1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두 번째로 교육 지원 부문은 SDG 4 청소년활동·교육지원 분야에서도 주로 취약계층 청소년의 교육기회 보장과 관련된다. 세부 영역 가운데 저소득, 농산어촌 학생, 장애학생, 북한이탈,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여러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등은 SDG 4.1.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사회 구성원 간 형평성을 강조하는 SDG 10 분야에서 연령, 성별, 장애, 민족 등에 상관없는 포용이라는 세부목표 10.2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은 학교 안팎에서의 공평한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점에서 SDG 4.1과 관련 있으며, 마지막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원의 경우 3차 교육의 기회 보장이라는 SDG 4.3과 관련이 있다.

표 III-36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교육 지원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2. 교육지원	저소득, 농산어촌 학생 교육비 지원	4.5(10)	◎
	장애학생 지원	4.5(10)	◎
	북한이탈/다문화가정 지원 (언어교육, 학교적응 등)	4.5(10)	◎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4.3	◎
	학업중단예방, 대안 교육	4.1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세 번째로 건강 부문의 경우 SDG에서는 주로 약물 오남용(3.5), 성건강(3.7), 평등한 보건 서비스(3.8) 등 기초적인 보건 수준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경우 이보다 더 나아가 정신 건강과 수면권 보장 등 청소년 삶의 질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표 III-37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건강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3. 건강	스포츠 활동	3	◎
	수면권 보장	3	◎
	흡연, 음주 예방/치료	3.4(3.5)	◎
	정신건강	3.4	◎
	정서, 행동장애 재활	3.4	◎
	식생활/영양	3	◎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자살예방 교육	3, 4	◎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3	◎
	건강 기타	3	○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	3, 4	◎
	미디어교육	3, 4	◎
	부모교육	3, 4	○
	가족상담	3, 4	○
	가족 친화/시간	3	○
	또래 활동	3, 4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네 번째 고용 부문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SDG 8과 직접 연관이 있다. 특히 NEET 비율 감소(8.6) 목표에 가장 많은 정책이 관련되고, 기업가 정신 및 창업(8.3)과 노동권 보호(8.8)와도 관련이 있다.

표 III-38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고용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4. 고용	근로보호	8, 8	◎
	고졸 취업 지원	8, 6	◎
	대학 취업 지원	8, 6	◎
	위기/비진학/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	8, 6	◎
	아르바이트 지원	8	○
	직장체험, 연수	8	○
	기업 연계/네트워크	8	○
	청년 멘토링	8, 6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다섯 번째로 안전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은 도로 안전 개선(11.2), 성범죄 예방(5.2), 아동 학대 예방(16.2) 등 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접근이 강하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단속(11.3)의 경우 폭넓게 보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이라는 SDG 11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지만, 청소년을 여전히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모습이 무엇이며, 그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청소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담겨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SDG 11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반면 청소년 행복도시 시범사업의 경우 청소년에게 행복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조건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SDG 11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III-39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안전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5. 안전	안전교육	11	○
	시설 안전	11	○
	유해환경 단속, 정비, 선도	11	○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11.2	○
	학교 폭력 예방(또래 상담)	11	○
	성범죄 감시, 예방	11(5.2)	●
	유해매체, 유해정보로부터 보호	11(3.4)	○
	CYS-Net, 청소년 동반자	11	●
	지역 안전망 구축, 아동 보호, 실종아동	11	●
	아동학대 예방, 치료	11(2.2, 16.2)	●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11	●
	행복마을	11.3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여섯 번째 취약계층 복지 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SDG 1. 빈곤, 2. 영양상태 개선 문제와 포괄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대학생 주거지원의 경우 평등한 자립의 기회(4.3)와 평등한 주거공간의 확보(11.1) 등 다른 분야에도 걸쳐져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가정,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의 경우 “빈곤층 및 취약계층의 회복력 구축 및 기후관련 재해와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 경감(1.5)” 이라면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현재의 경제적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환경 및 안전의 관점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표 III-40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취약계층복지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6. 취약계층복지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양육비 등 자립 지원	1.3	◎
	요보호 아동, 기초수급가정 아동 지원	1.3	◎
	장애아 양육비 지원 등	1.3	◎
	대학생 주거지원	1.3(11.1)	◎
	청소년 쉼터	1.3	◎
	방과후 아카데미	1.3(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11)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3	◎
	상담/멘토링/휴먼 네트워크	1.3	◎
	방과 후 돌봄서비스	1.3(4)	◎
	아동복지 기타	1.3(11.1)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1.3(11)	◎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1.3(11)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일곱 번째 참여·권리 부문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10.2)와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16.2)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표 III-41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참여·권리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7. 참여권리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16.7	◎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 운영	16.7	◎
	참여예산제	16.7	◎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10.2(4)	◎
	학교 교칙 제개정	10.2(4)	◎
	청소년 연예인/선수 기본권 보호	10.2(4)	◎
	아동권리	10.2	◎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추진 체계 부문의 경우 SDG에서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17)에 해당되지만 세부 영역 내용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부처 간 통합적인 접근과 관리, 지역사회 파트너십 활성화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표 III-42 청소년 정책 영역 분류 및 SDGs 관련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청소년정책 부문	세부 영역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관련 정도
8.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17	○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17.17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제도/재정/정책수립) 강화	17.17	

* ● 표시는 SDGs 해당 세부목표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나타냄.

물론 이러한 정책 영역 가운데 SDGs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다고 해서 해당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SDGs가 인류 모두의 보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라면, 국내 청소년 정책의 경우 청소년이 당면한 개인적,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구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을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시행계획 상의 여러 청소년 정책 영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청소년 정책의 기본 전제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청소년 정책 SDGs의 관점을 청소년 정책 전반에 포용하고, 정책 영역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중앙행정기관 청소년 시행계획 전체 현황

앞서 도출한 분류체계에 따라 2013-2016년 시행계획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사업 예산을 분석하면 <표 III-43>과 같다. 4년 간 총 예산은 약 25조 5천억에 달하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17조 가깝기가 교육지원 부문에 투입되었다. 여기에는 2014년부터 도입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이 10조 7천억으로 60% 가량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고용 부문이 약 2조 7천억원, 그리고 취약계층복지 부문이 약 2조 3천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 세 정책 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86.7%로 대부분에

해당된다. 이들 정책이 각각 교육, 복지, 고용이라는 고유한 정책 계획에 따라 집행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 정책 고유의 예산 비중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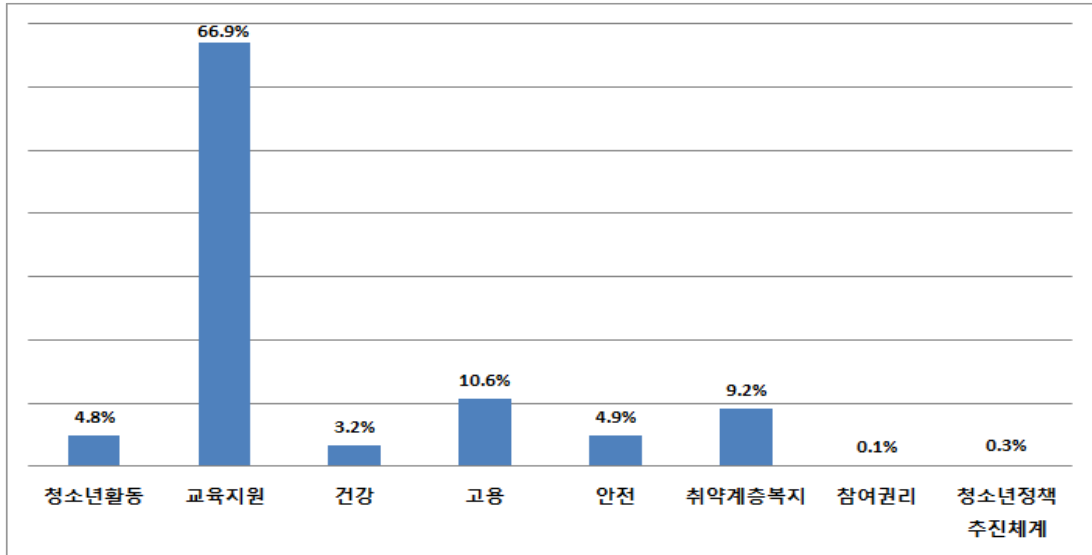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안전, 청소년 활동, 건강 부문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았다. 제5차 기본계획의 영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영역과 청소년활동 부문이 거의 일치하며,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영역에 안전과 건강 부문이 거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5차 기본계획 상의 2개 영역이라는 중요도와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상으로는 그 비중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와 참여·권리 부문은 예산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이들 부문이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각각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볼 때, 해당 부문이 독립적인 정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추진력이 높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표 Ⅲ-43 청소년 정책 부문별, 연도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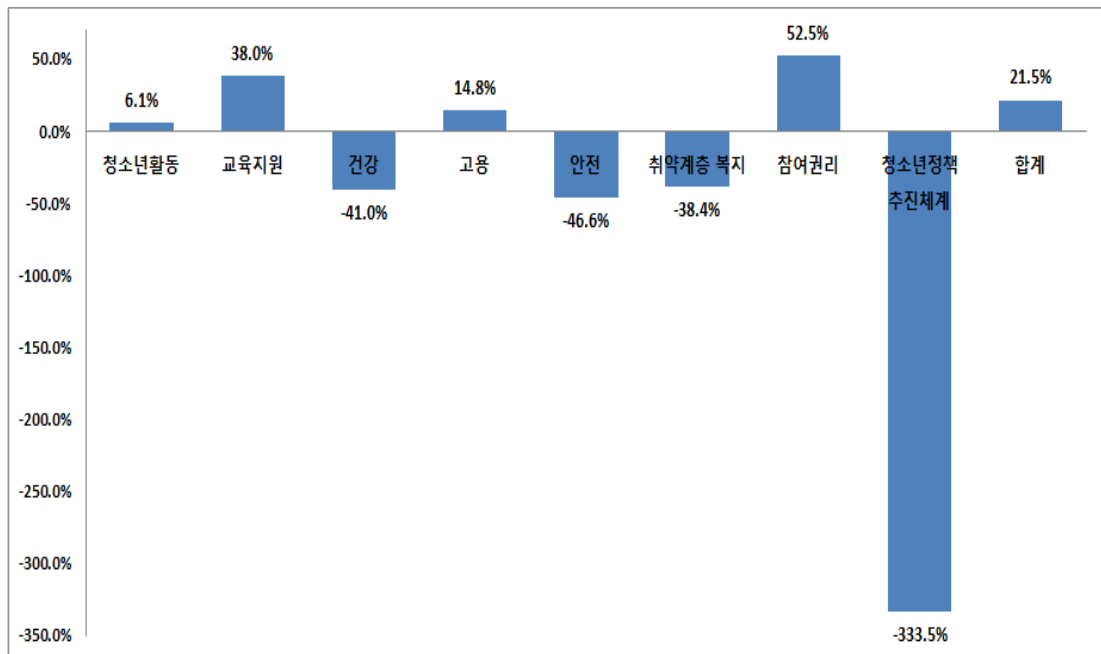
청소년정책 부문	2013	2014	2015	2016	2013-2016 합계
청소년 활동	324,113	229,382	332,735	345,135	1,231,365
교육지원	2,927,141	4,703,961	4,770,386	4,718,445	17,119,933
건강	233,093	212,564	205,301	165,350	816,308
고용	688,889	593,029	632,581	808,566	2,723,065
안전	386,068	348,489	255,996	263,403	1,253,956
취약계층 복지	813,529	404,308	539,066	587,808	2,344,711
참여·권리	2,489	2,302	7,845	5,237	17,873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42,532	8,460	10,393	9,811	71,196
합계	5,417,854	6,502,495	6,754,303	6,903,755	25,578,407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 -3】 청소년 정책 부문별 전체 예산 현황(2013-2016 통합 합계) (단위: %)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 -4】 청소년 정책 부문별 증감률 (2013년 대비 2016년) (단위: %)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 부문별로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표 -43>, [그림 -3]과 같다. 지난 4년간 전체 예산은 총 21% 가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20%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에 따라 교육지원 부문의 예산이 약 2조 9천억에서 약 4조 7천억 가량으로 약 60%이상 대폭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4]에서 보듯, 다른 부문을 보면 고용 부문에서 4년간 예산이 약 14%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건강, 안전, 취약계층 복지, 정책 추진체계 부문은 예산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안전 부문은 46%, 취약계층 복지는 38%로 예산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의 경우 2013년 첫 해에는 42억이 지출된 반면, 이후에는 해마다 10억 내외로 예산 투입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정책 부문별 SDGs 관련 현황

청소년 활동 부문

첫 번째로 청소년 활동 부문의 세부 영역별 예산 현황을 <표 -44>와 같다. 문화예술활동과 활동 및 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관련 예산이 전체의 56%로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그리고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의 예산이 높은 비중으로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4 청소년 활동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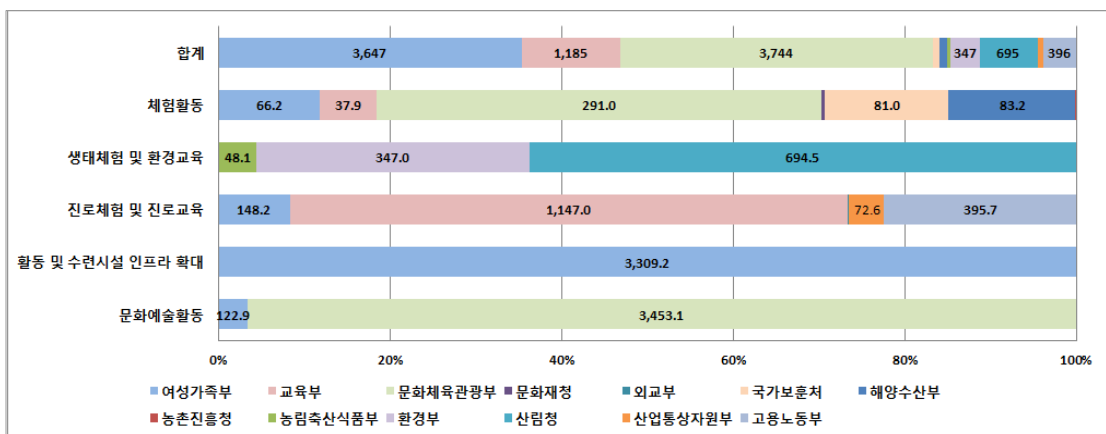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 영역	2013	2014	2015	2016	합계
문화예술활동	87,358	52,509	103,531	114,198	357,596
활동 및 수련시설 인프라확대	126,413	59,685	81,456	63,364	330,918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학교 또는 청소년 기관)	26,288	50,147	56,657	43,559	176,651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	22,167	20,392	32,485	33,915	108,959
체험활동	23,287	11,598	11,784	9,546	56,215
인성교육	6,595	3,587	11,357	32,843	54,382
기타 교육	12,294	10,962	9,713	9,118	42,087

연도 세부 영역	2013	2014	2015	2016	합계
국제교류 활동	6,342	8,202	7,639	13,143	35,326
자원봉사 및 기부	3,550	911	4,557	10,778	19,796
창업/기업가 정신	45	5,000	6,000	8,300	19,345
문화다양성 교육	3,416	2,690	2,695	2,538	11,339
전통문화, 문화유산 보존	2,370	1,471	1,659	1,808	7,308
민주시민역량 및 권리교육	2,574	1,270	1,892	483	6,219
국제협력 (세계시민, 국제문제 등)	852	646	1,010	1,286	3,794
성평등, 성인지 교육	512	312	270	256	1,350
청소년 희망카드	50	0	30	0	80
합계	324,113	229,382	332,735	345,135	1,231,365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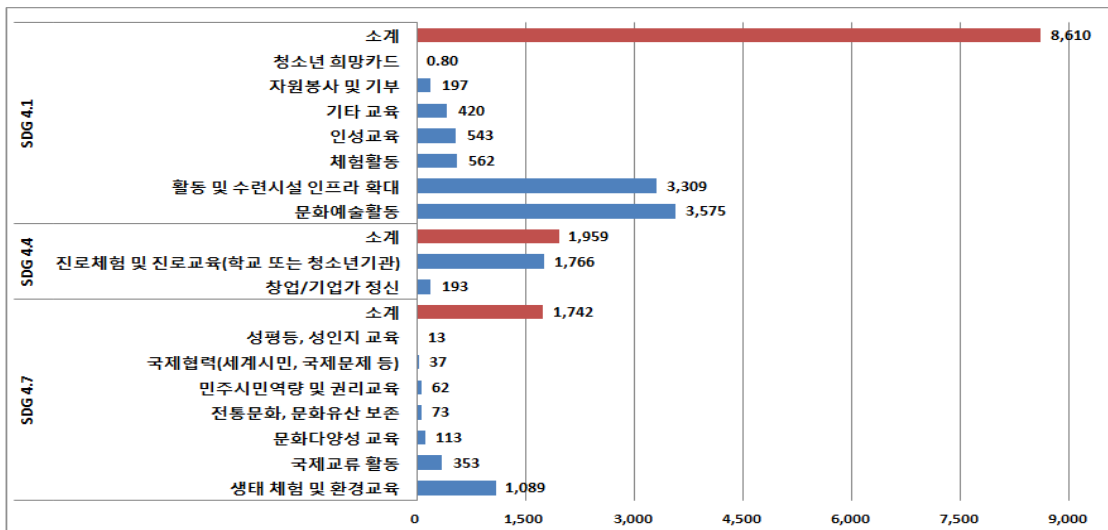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 활동 부문의 상위 예산 5개 영역의 부처별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문화예술활동 사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하고, 활동 및 수련시설 인프라 확대는 여성가족부의 고유 사업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은 교육부의 주도 하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은 산림청이 주도하며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체험활동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Ⅲ -5】 청소년 활동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이 부문에 속하는 정책 사업들은 SDGs 4 교육 부문에 직결된다. 세부 영역과 SDGs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예산 현황을 파악하면 [그림 -6]과 같다. 우선 SDG 4.1 양질의 교육에 해당하는 영역의 예산이 8,600억 가량으로 가장 예산이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부목표 4.4 (직업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에 관련된 예산이 1,900억 가량, 세부목표 4.7(인권, 성평등, 세계시민 의식,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교육 등)과 관련된 예산이 1,742억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SDG 4.7에 해당하는 세부영역에서는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에 따른 환경부의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청의 산림교육 사업 확대 등, 관련 법적 인프라 구축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국제교류 활동의 경우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서 정책적 중요도가 높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문화다양성 교육,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보존, 민주시민역량 및 권리교육, 국제협력, 성평등, 성인지 교육 등은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에서 중요한 교육 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본 절의 분석 범위에는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콘텐츠의 내용까지는 반영되지 않았고, 자원봉사 및 기부와 같이 예산을 적게 투입되더라도 참여하는 청소년의 인원을 감안하면 정책적 중요도가 적지 않은 사업도 있어 예산을 근거로 한 해석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6】 청소년 활동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SDG 4.4 및 4.7과 관련된 정책 사업에 대하여 2016년 시행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그리고 창업 및 기업가 정신 관련 사업의 경우 <표 -45>에서 보듯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학기제 시행 확대와 진로교육의 시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45 2016년 청소년 활동 부문 정책 사업 예시 (I)

SDG 4.1, 4.4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문화예술 활동	문화체육 관광부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소외계층 대상 사업 - 휴무 토요일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어울림마당	-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제공 - 청소년들이 문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 지원
활동 및 수련시설 인프라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확충	- 권역별로 특성화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확충 - 청소년들이 생활권 반경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중·소규모의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확대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 종합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를 통한 안전하고 질 높은 활동여건 조성
체험활동	해양수산부	해양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어촌 교류촉진	- 국립해양박물관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국가보훈처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실천 역량 강화
	문화체육 관광부	한옥체험 프로그램	-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전통한옥 내부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설치 지원
인성교육	교육부	어울림 프로그램	-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중심의 자율적 예방교육 강화 및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생을 위한 심화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인성교육 및 품성개발 지원체계 강화	- 저품격 방송언어에 대한 사후심의·제재 및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환경 조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지원
	문화체육	청소년 언어문화	-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연구와 청소년 언어문화 개

SDG 4.1, 4.4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관광부	개선	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 언어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래창조과학부	범국민 정보윤리교육	- 청소년 동아리를 기반으로 정보윤리 실천 운동 등 자율적 실천 활동 지원
	교육부	진로직업체험 활성화	- 중·고교 단계 진로체험 운영 - 현장직업체험, 진로캠프, 직업실무체험, 현장견학, 학과체험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운영	- 직업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청소년창의기술인재센터 지원	- 다양한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학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미래상상 기술경진대회 개최
	외교부	외교사료관 프로그램 운영	- 외교부 견학을 통해 외교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외교역사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특화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 청소년수련시설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창업/ 기업가 정신	법무부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강화	-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중소기업청	청소년 비즈쿨	-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교육을 통해 꿈, 끼, 창의성 및 도전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155-179. pp. 531-595.

다음으로 <표 -46>은 SDG 4.7에 해당하는 청소년활동부문 사업 가운데 예산 비중이 높은 세부 영역의 예시를 보여준다.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은 모두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표 Ⅲ-46 2016년 청소년 활동 부문 정책 사업 예시 (2)

SDG 4.7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산림청	청소년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 활성화	-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산림복지 공간에 배치하여 산림교육 실시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등 청소년 대상 부처 간 협업 사업 추진
	환경부	환경체험 교육 프로그램	- 학교-사회 환경교육 연계 및 청소년 환경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농림축산식품부	도농교류 협력사업	- 도시민과 청소년들의 농어촌체험 체험비 지원
국제교류 활동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지원	-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친선대사, 통역요원 등으로 활용
	외교부	재외동포청소년 교류사업	- 전 세계 재외동포청소년 초청연수 - 국내·외 청소년 간 유대감 증진을 위한 청소년 재외동포 이해연수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171-266.

반면, <표 Ⅲ-47>에서 제시된 세부 영역들의 경우 SDG 4.7의 달성과 직결되는 청소년 활동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유한 정책영역으로서 정책적으로 높은 우선순위가 부여되기보다는 부처 또는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의 일부로 시행되는 측면이 강하다. 성평등, 성인지 교육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핵심 현안과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시행계획에서는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지원체계 강화」 과제 하에 교원 성인지 인권통합 교육사업이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주민의 언어 등 문화적응 지원에 비하여(교육지원 부문에 해당) 일반 청소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또는 일반 청소년과 이주배경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의 경우 정책적 중요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주시민 역량 및 권리교육의 경우에도 교육부와 법무부, 그리고 법제처에서 일부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제협력의 경우 KOICA를 통한 지구촌체험관 운영에 그치고 있다. SDGs 논의에서 성 평등 분야는 별도의 목표(SDG 5)로서 제시될 만큼 앞으로 국내 이행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며, SDG 4.7 추진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 청소년 활동사업으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SDG 4.7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성평등, 성인지 교육	여성가족부	교원 성인지 인권통합 교육	- 유·초·중등 교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관련 교수 능력 함양 교육 실시 -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폭력예방의식 강화를 위한 교원의 원격 직무연수 및 콘텐츠 개발
문화 다양성 교육	여성가족부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운영 - 이주배경청소년 및 일반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캠프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무지개다리 사업	-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일반청소년 대상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 역량 및 권리교육	법제처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 어린이법제관: 초4-6학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과 법치 교육을 제공 - 청소년법제관: 중학생 스스로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 이를 지킴으로써 준법정신 및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학습
	교육부	학생자치법정 운영	- 법무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학생들이 조사, 변호, 판결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국제협력	외교부	지구촌체험관	- KOICA 무상원조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국가 중 한 국가(또는 다수의 국가)를 선정하여 기획 전시 - 지구촌체험관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245-323.

교육지원 부문

다음으로 교육지원 부문 예산은 국가 장학금사업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해왔다. 그러나 대학생 장학금사업 외에 다른 영역의 정책사업은 축소되거나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다문화가정 지원 예산의 경우 늘어나는 최근 다문화 학생 숫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등(교육부, 2016a), 해당 청소년 인구의 큰 증가세에 비하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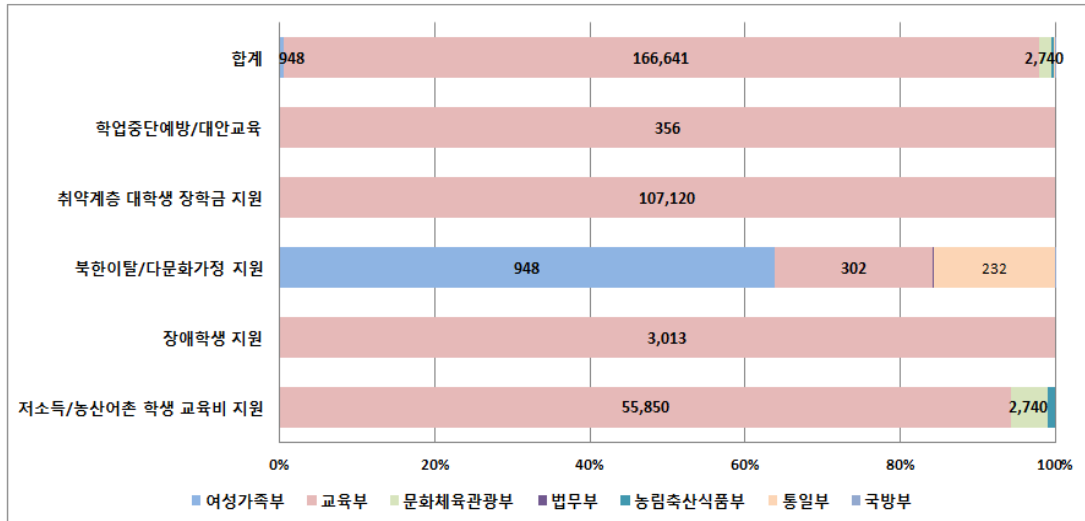
표 Ⅲ-48 교육지원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영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0	3,457,500	3,600,000	3,654,595	10,712,095
저소득, 농산어촌 학생 교육비 지원	2,801,713	1,106,750	1,073,457	940,463	5,922,383
장애학생 지원	55,785	101,443	58,698	85,401	301,327
북한이탈/다문화가정 지원(언어교육, 학교적응 등)	52,343	38,268	28,256	29,646	148,513
학업중단예방, 대안교육	17,300	0	9,975	8,340	35,615
합계	2,927,141	4,703,961	4,770,386	4,718,445	17,119,933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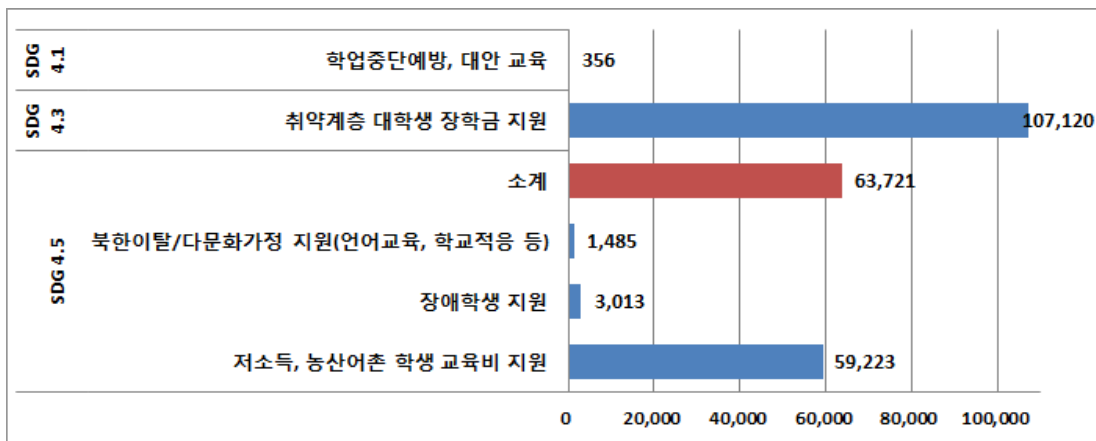
교육지원 분야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그림 Ⅲ-7]과 같이 북한이탈/다문화가정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업이 교육부의 예산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다문화가정지원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지원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부와 통일부 등의 순이며, 법무부와 국방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Ⅲ-7】 교육지원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다음으로 교육지원 분야는 전반적으로 SDG 교육 목표 중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관련된 세부 목표에 주로 해당된다. 예산 비중으로 보면 [그림 -8]과 같이 SDG 4.3, 4.5, 4.1 순으로 나타났다. SDG 4.3은 3차 교육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 SDG 4.1은 초·중등교육 기회의 제공 및 교육의 질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보다는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목표라 할 수 있다. SDGs 글로벌 지표에는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비율 자체보다는 2015년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8】 교육지원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이러한 교육지원 부문에 속하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 -49>와 같다. 북한이탈/다문화가정 지원 영역은 5개 부처에서, 저소득, 농산어촌 학생 교육비 지원 영역은 4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모두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표 III-49 2016년 교육지원 부문 정책 사업 예시

SDG 4.1, 4.3, 4.5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저소득, 농산어촌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복지급여대상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범위 내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예술프로그램, 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연간 개인당 5만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지원	- 농산어촌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동 지원 및 선발 우대
장애학생 지원	교육부	장애청소년 생애주기별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	- 특수학교(급) 과밀학급 및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급) 신·증설
북한이탈/다문화가정 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교육부	예비학교 운영	- 중도입국 학생, 외국인 학생 등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예비학교 확대·운영
	통일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법무부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
	국방부	다문화 이해교육/ 군내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 장병 대상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지식을 갖춘 군내 전문 강사 육성
학업중단 예방, 대안학교	교육부	Wee프로젝트 확대 및 운영	-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맞춤형 숙려제 프로그램 제공
취약계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부	저소득층 청소년지원 및 복지서비스(국가장학금 청소년 지원)	- 정부(재정지원)와 대학(자체노력)의 분담 구조하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 유지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428-523.

건강 부문

다음으로 건강 부문의 정책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50>과 같이 스포츠 활동사업의 비중이 약 70%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식생활/영양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친화/시간, 인터넷중독 예방/치료, 또래활동, 정서, 행동장애 자활 순으로 예산이 많았다. 반면, 흡연, 음주예방/치료, 정신건강, 미디어교육, 자살예방 교육,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 건강 기타(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보급, 청소년 체력인증개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등)의 예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수면권 보장을 위한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 지도·감독 등 관리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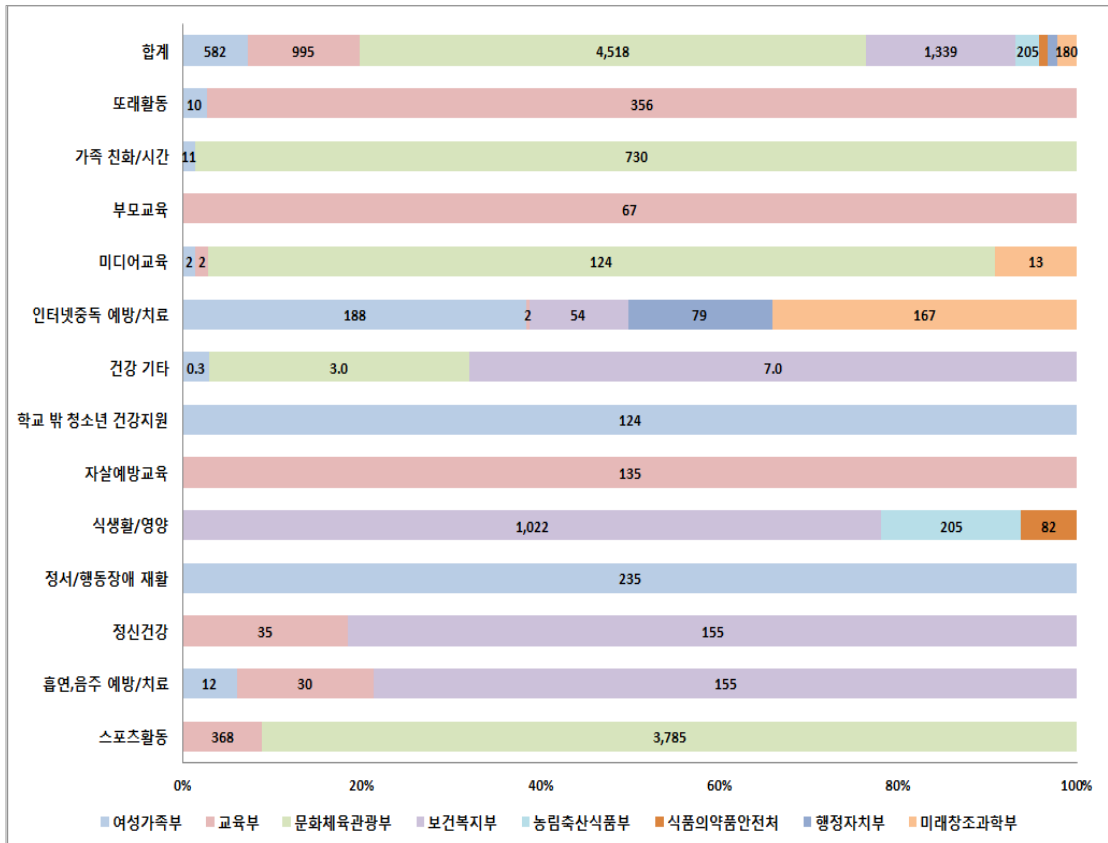
표 III-50 건강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영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스포츠 활동	162,345	53,319	101,677	97,641	414,982
식생활/영양	7,855	106,215	8,576	8,387	131,033
가족 친화/시간	19,284	14,269	30,200	10,340	74,093
인터넷중독 예방, 치료	14,742	11,523	11,796	11,236	49,297
또래 활동	5,450	2,600	18,814	9,700	36,564
정서, 행동장애 재활	5,767	5,767	6,215	5,815	23,564
흡연, 음주 예방/치료	4,925	4,736	4,993	5,180	19,834
정신건강	6,000	3,250	3,250	6,500	19,000
미디어교육	3,400	2,885	2,554	5,295	14,134
자살예방 교육	0	6,000	4,810	2,759	13,569
학교 밖 청소년 건강 지원	0	0	11,316	1,092	12,408
부모교육	2,500	2,000	1,100	1,100	6,700
건강 기타	825	0	0	305	1,130
수면권 보장	0	0	0	0	0
가족상담	0	0	0	0	0
합계	233,093	212,564	205,301	165,350	816,308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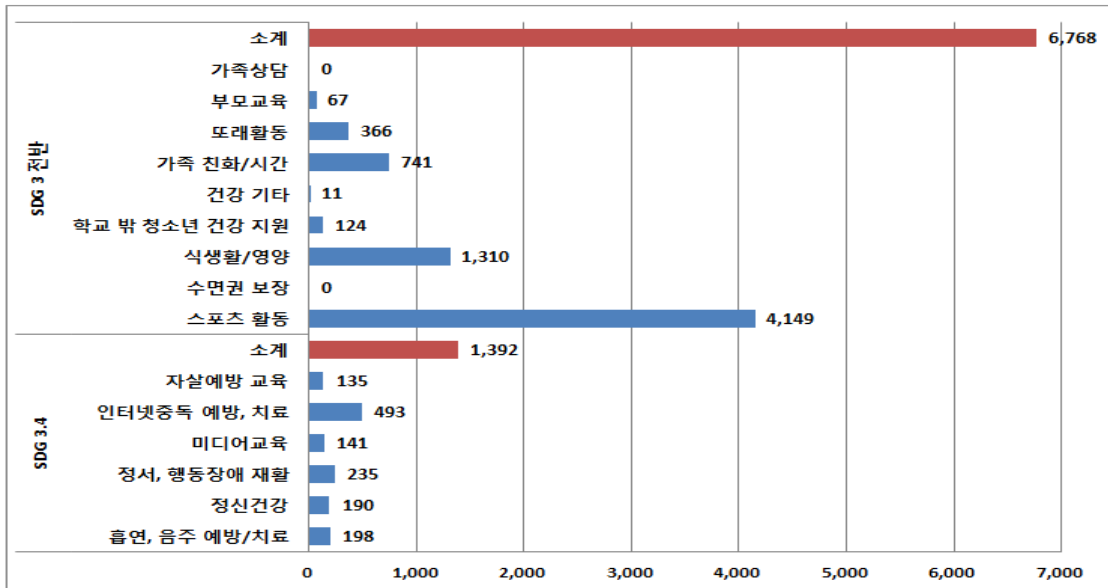
세부 영역별로 부처별 상황을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지원과 정서/행동장애 재활 분야는 여성가족부에서, 그리고 자살예방교육은 교육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예산 지원이 많은 스포츠 활동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식생활/영양, 정신건강, 흡연, 음주 예방/치료 등의 사업은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Ⅲ -9】 건강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건강 부문 정책사업들은 SDG 3 웰빙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며, 그 중에서도 흡연과 음주문제, 정신건강, 자살 문제 등은 세부목표 3.4와 관련이 깊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건강 부문 예산은 SDG 3.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에 주로 투입되고 있으며, SDG 3.4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건강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 -10】 건강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건강부문에 속하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 -51>과 같다. 가장 예산 투입이 많은 스포츠 활동의 경우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등 학교에서의 체육활동 강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식생활/영양 사업의 경우 SDG 3. 웰빙 뿐만 아니라 SDG 12. 지속가능생산과 소비, SDG 2. 지속가능농업과도 연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행계획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2013년 제정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텃밭 사업의 경우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포함하여 도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이 친환경적 먹거리 생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농촌진흥청, 2016).

표 III-51 2016년 건강 부문 정책 사업 예시 (1)

SDG 3.4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흡연, 음주 예방/치료	교육부	흡연, 음주 예방교육 실시	-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흡연·음주 예방교육 실시
	보건 복지부	음주문제 청소년 등록관리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문제음주 청소년을 등록하여 치료 및 재활관련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여성 가족부	유해약물피해 청소년 재활지원	- 청소년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 건강상담 및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정신건강	보건 복지부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 정신건강 위기에 따른 개입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구축
정서, 행동장애 재활	여성 가족부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장·단기 치유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및 전국 확대
자살예방 교육	교육부	학생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한 취약학교 집중지원을 위한 교육청 기반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운영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345-473. pp. 708-718.

표 III-52 2016년 건강 부문 정책 사업 예시 (2)

SDG 3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부모교육	교육부	학부모교육	- 학부모가 학교교육, 교육정책 수립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추진
	법무부	부모교육 확대	- 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와 연계한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감독 도모
스포츠 활동	문화체육 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 전국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스포츠 강사 배치
	교육부	교육지원청 스포츠클럽	- 교육지원청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개최
수면권 보장	교육부	심야학원 교습시간 제한지도감독 등 관리 강화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SDG 3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식생활/ 영양	농림축산 식품부	건강한 식생활 확산	-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 화 및 활성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국민영양관리기 본계획(2012~2016)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역 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 및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중요성 교육·홍보, 건강 생활실천 유도를 통한 비만예방
건강 기타	보건복지부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보급	-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청소년 건강 가이드라 인 '개발·보급
가족상담	여성가족부	가족상담	- 취약가정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또래활동	교육부	어깨동무 사업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여성가족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	- 또래상담 지도교사 및 또래상담자 양성 - 또래상담 운영학교 지원
가족 친화/시간	문화체육 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사계절 이용 가능한 숙영시설과 공공편의시설 등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법무부	소나기 가족캠프/ 소나기 법캠프	- 전국 15개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지역사회의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등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캠프 운영 - 지역사회 아동복지기관 청소년 및 시설종사자 등 이 참여하는 소나기 법캠프 운영
	인사혁신처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월례휴가제 활성화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유연근무 제의 활용 독려 - 일과 휴식, 직장가 가정의 조화를 통해 개인의 자 기계발, 건강증진 및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역중심의 자녀의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상담, 가족단위 참여 프로 그램 등 운영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324-325. pp. 602-687.

고용 부문

다음으로 고용 부문의 영역별, 연도별 예산 현황은 <표 -53>과 같다. 고용 부문에서는 위기/비진학/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 취업 지원 예산이 뒤따랐다. 그 다음으로는 고졸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도입에 따른

고졸 취업 지원, 여성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기업 연계/네트워크 사업과 근로 보호 사업이 있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화 및 청년기본법 논의 등 관련 제도·정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정책 수요는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소년 근로보호 등 청소년 연령대의 노동 문제와 관련된 정책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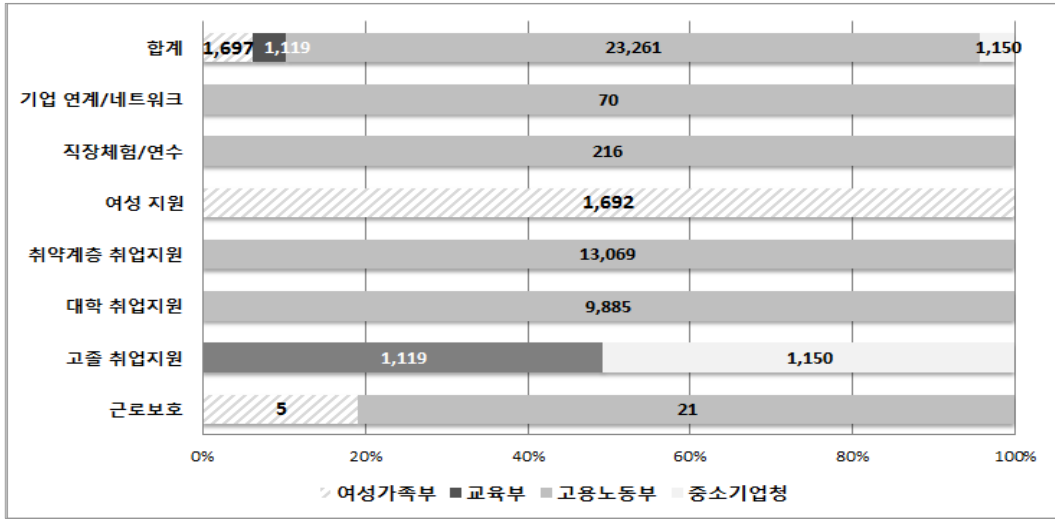
표 III-53 고용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 영역	2013	2014	2015	2016	합계
위기/비진학/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취업 지원	300,200	287,616	300,654	418,431	1,306,901
대학 취업 지원	276,205	205,078	230,206	277,077	988,566
고졸 취업 지원	67,500	48,800	51,840	58,830	226,970
여성 지원	35,481	41,837	45,435	46,478	169,231
직장체험, 연수	9,096	9,096	3,455	0	21,647
기업연계/네트워크	0	0	40	7,000	7,040
근로보호	407	602	951	750	2,710
청년 멘토링	0	0	0	0	0
합계	688,889	593,029	632,581	808,566	2,723,065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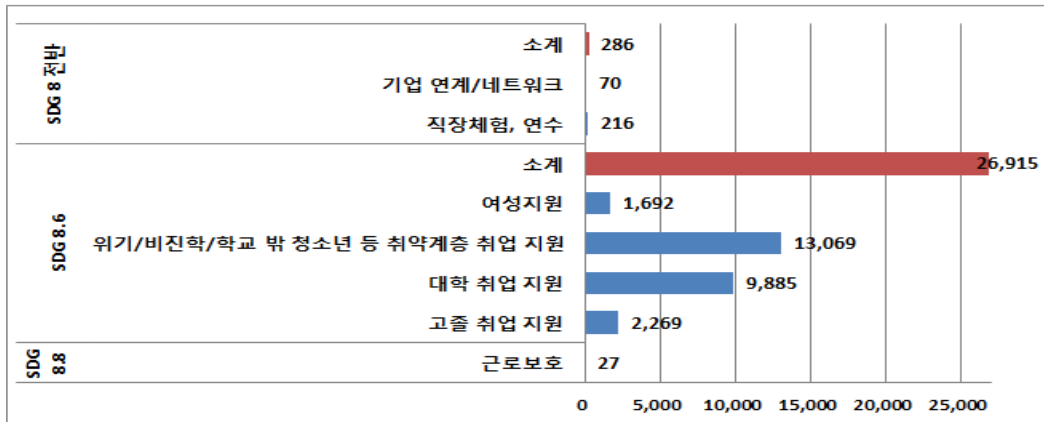
고용 부문 정책 사업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그림 -11]과 같다. 기업 연계/네트워크, 직장체험/연수, 취약계층 취업지원/ 대학 취업지원 사업은 고용부가 전적으로 시행하고 여성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등, 대체로 부처 간 정책사업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고졸 취업지원사업은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며, 근로보호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 -11】 고용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고용부문의 정책사업은 SDG 8와 깊게 관련된다. [그림 -12]에서와 같이 현재 청소년정책은 그 가운데서도 SDG 8.6 NEET 청년비율 감소와 관련성이 가장 높다. 그 외에 SDG 8.8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최근 우리사회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향후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볼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 -12】 고용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이러한 고용부문에 속하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내용은 아래 <표 -54>와 같다. 가장 예산 투입이 많은 취약계층 취업지원 영역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사업과 취업사관학교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비진학 일반고 특화과정 사업은 대학 비진학 예정인 고3 학생이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b). 취업사관학교 사업은 2011년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의 경우 8개 기관, 학교 밖 청소년 21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ibid).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대학취업지원 사업도 고용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표 III -54 2016년 고용 부문 정책 사업 예시

SDG 8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기업연계/ 네트워크	고용노동부	차세대 HRD-NET 개편	- 훈련생과 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 - 국가직문능력표준(NCS) 기반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고졸 취업 지원	교육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 취업선도 특성화고 선정·지원으로 학교단위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 중소기업 특성화고 학생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기능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학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진로지원 사업	- 청년취업진로지원: 대학청년고용센터 및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정착을 지원
취약계층 취업 지원	고용노동부	일반고 특화과정/ 취업사관학교	- 대학진학을 포기한 일반고 3학년을 대상으로 실업자계좌제훈련 및 직업훈련 실시
여성지원	여성가족부	청년여성 경력개발 지원	- 지자체(센터)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여대상커리어개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로보호	고용노동부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지도, 감독	-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댓글 상담 전국 통합 운영 - 청소년 근로조건 지키미' 활동을 통해 청소년 근로권익 홍보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보호사업	- 노동관계법령상 청소년근로자 보호조항 준수 여부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불법 고용행위 점검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398-405, pp. 497-571.

안전 부문

다음으로 안전 부문의 세부 영역별 예산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 -55>와 같다. 이 부문에서 가장 예산 비중이 높은 사업은 지역 안전망 구축, 아동보호, 실종아동, 그리고 성범죄 감시/예방과 같이 아동 및 여성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CYS-Net, 학교 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유해매체/정보로부터 보호,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설 안전, 어린이보호구역교통 안전, 유해환경 단속 등의 예산 비중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55 안전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영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지역 안전망 구축, 아동보호, 실종아동	149,581	128,871	108,903	107,513	494,868
성범죄 감시/예방	151,586	156,042	49,805	111,782	469,215
CYS-Net, 청소년 동반자	36,641	20,443	28,347	2,076	87,507
학교 폭력 예방(또래상담)	7,512	17,416	16,587	7,951	49,466
아동학대 예방/치료	1,067	1,167	25,247	18,562	46,043
유해매체/유해정보로부터 보호	5,047	15,146	14,642	10,457	45,292
비행청소년 사회복귀	17,551	3,860	9,604	3,139	34,154
안전교육	15,894	2,957	1,199	1,085	21,135
시설 안전	331	1,754	824	0	2,909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안전	560	550	550	550	2,210
유해환경 단속/정비/선도	298	283	288	288	1,157
행복마을	0	0	0	0	0
합계	386,068	348,489	255,996	263,403	1,253,956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세부 영역에 대하여 부처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3]에서와 같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의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안전교육, 시설안전, 아동학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실종아동 사업에, 행정자치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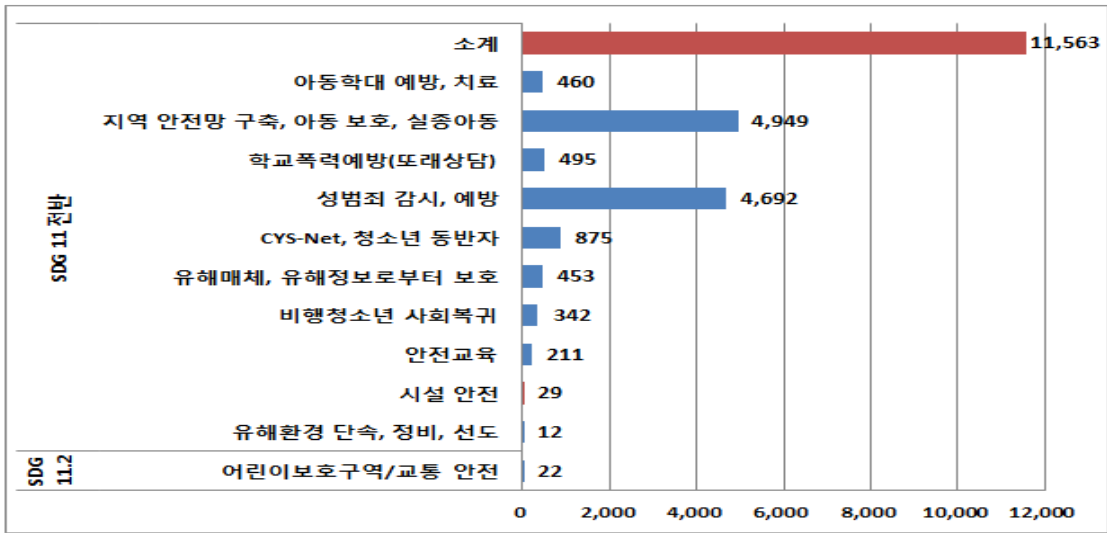
주로 성범죄 감시/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13】 안전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안전 부문의 청소년 정책은 SDG 11. 지속가능 도시 조성과 폭넓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SDG 11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inclusive) 하는 접근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안전 정책은 아직까지 범죄와 유해환경 등에 대한 대응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행복마을 시범사업의 경우 각각 청소년 참여에 기반한 도시환경 조성 and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부처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아 정책 우선순위에 밀려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정책 사업은 살펴본 대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참여적 도시계획 계획수립, 의제21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과 결합하여 추진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14】 안전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안전부문에 속하는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의 내용 가운데 물리적 환경에서의 청소년 안전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안전교육, 시설안전, 유해환경단속·정비·선도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56>과 같다. 이러한 접근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조성하기 위한 접근으로, 교육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연구원의 녹색건축인증제 등의 사업이 학교건물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다(교육부, 2013).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이 미흡한 편이며, 본 연구의 4장에서 독일 정책 사례를 통해 향후 정책 개발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표 III-56 2016년 안전 부문 정책 사업 예시

SDG 11, 11.2, 11.3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안전교육	보건복지부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아동안전 5대 의무교육 및 응급처치에 대한 아동안전 콘텐츠 개발·보급
시설 안전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 안전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보호 구역/교통안전	교육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 예방 캠페인 추진 교통안전 예방 활동 강화
유해환경 단속, 정비, 선도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문상담 및 쉼터연계 등 보호조치
	교육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국토교통부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도입	신도시 개발·실시계획 수립시 청소년 보호구역 등을 반영하여 유해업소 출입·음주 등 유해환경 접촉을 제한
	경찰청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감시 강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술·담배,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확로 학생들의 안전한 사회 조성
행복마을	여성가족부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개발 및 선정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145-146, pp. 615-698.

취약계층 복지 부문

다음으로 취약계층 복지 부문의 세부 영역별로 예산의 추이를 보면 <표 III-57>과 같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대학생 주거 지원 사업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양육비 등 자립 지원과 요보호 아동, 기초수급가정 아동 지원 순으로 예산 비중이 높았다. 반면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가출 청소년 보조지원 등 학교 밖 또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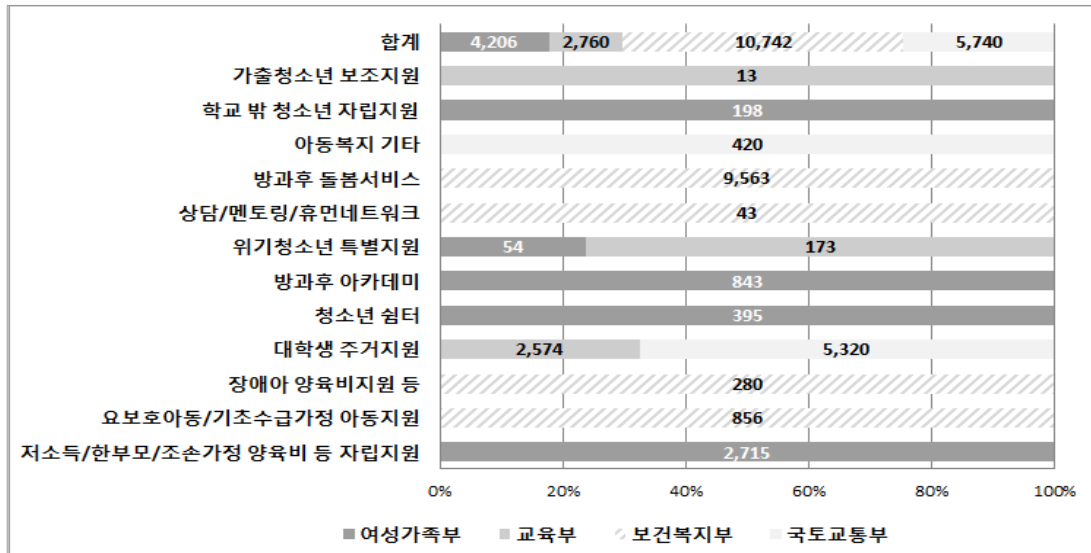
표 III-57 취약계층 복지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 영역 \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방과후 돌봄서비스	243,499	130,595	285,850	296,389	956,333
대학생 주거 지원	348,545	166,198	126,956	147,709	789,408
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 양육비 등 자립 지원	68,079	53,851	74,876	74,718	271,524
요보호 아동/기초수급가정 아동 지원	72,469	11,088	1,021	1,000	85,578
방과후 아카데미	32,970	14,446	18,356	18,508	84,280
아동복지 기타	10,710	9,860	10,710	10,710	41,990
청소년 쉼터	8,137	8,710	10,002	12,666	39,515
장애아 양육비 지원 등	4,663	7,091	8,043	8,206	28,003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8,481	1,409	1,415	1,415	22,720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4,916	0	0	14,920	19,836
상담/멘토링/휴먼 네트워크	1,060	1,060	1,067	1,067	4,254
가출 청소년 보조지원	0	0	770	500	1,270
합계	813,529	404,308	539,066	587,808	2,344,711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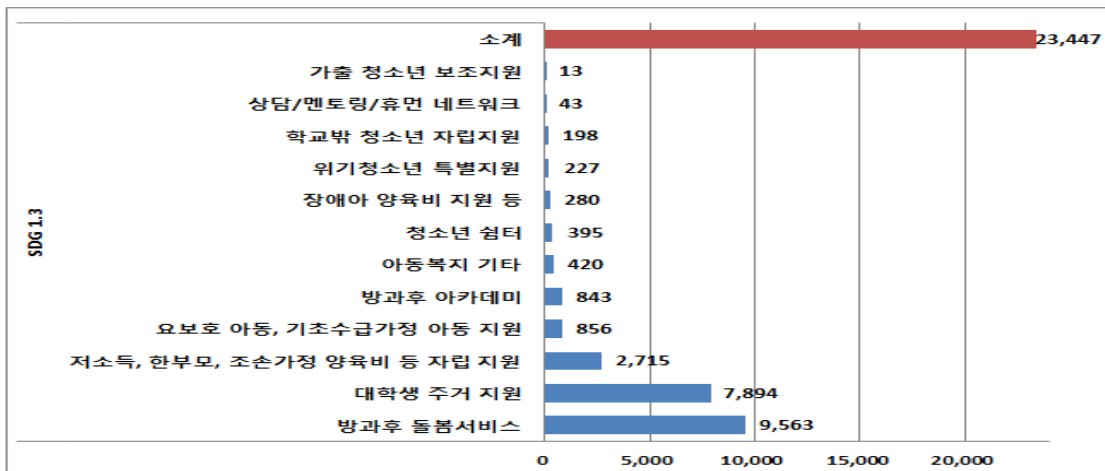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부처별 예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림 -15]에서와 같이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가장 많고 대학생 주거지원사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의 예산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 보조지원, 양육비 등 자립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쉼터 등 고유사업을 비롯하여 가장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생 주거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가출청소년 보조지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15】취약계층복지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SDGs의 관점에서 보면 취약계층 복지 부문은 세부 목표 1.3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혜택 제공에 해당하며, 방과후 돌봄서비스, 대학생 주거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등은 SDG 교육과도 관련성이 깊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16】취약계층복지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취약계층 복지의 방법에 있어 청소년 쉼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 시설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외에도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이 제공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특별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등이 있다. 2016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사업 가운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 -58>과 같다.

표 III-58 2016년 취약계층복지 부문 정책 사업 예시

SDG 1.3			
세부 영역	주관 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양육비 등 자립지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구 지원 - 미혼모부자 가정에 대한 위기 지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 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월10만원~연350만원)
아동복지 기타	국토 교통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무주택자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전세 주택 지원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486-530.

참여권리 부문

다음으로 참여권리 부문의 세부 영역별 예산 추이는 <표 -59>와 같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연예인/선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나머지 사업 가운데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을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예산제의 경우 앞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표 -15> 참고) 서울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청소년희망센터 운영과 아동권리 이행 관련 사업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아직까지 예산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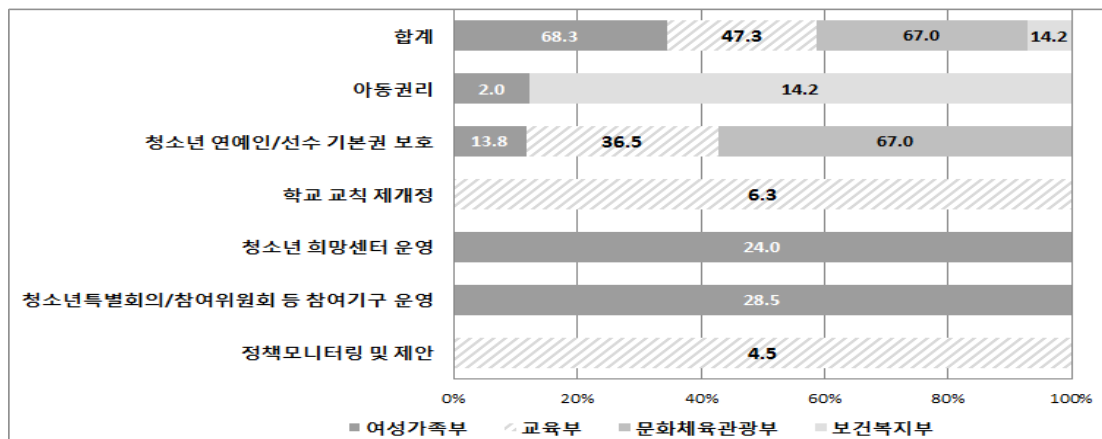
표 III-59 참여권리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 영역	2013	2014	2015	2016	합계
청소년 연예인/선수 기본권 보호	915	915	5,636	4,266	11,732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위원회 등 참여기구 운영	584	477	1,293	494	2,848
아동권리	840	310	289	177	1,616
학교 교칙 제개정	0	300	327	0	627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0	200	200	200	600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150	100	100	100	450
참여예산제	0	0	0	0	0
합계	2,489	2,302	7,845	5,237	17,873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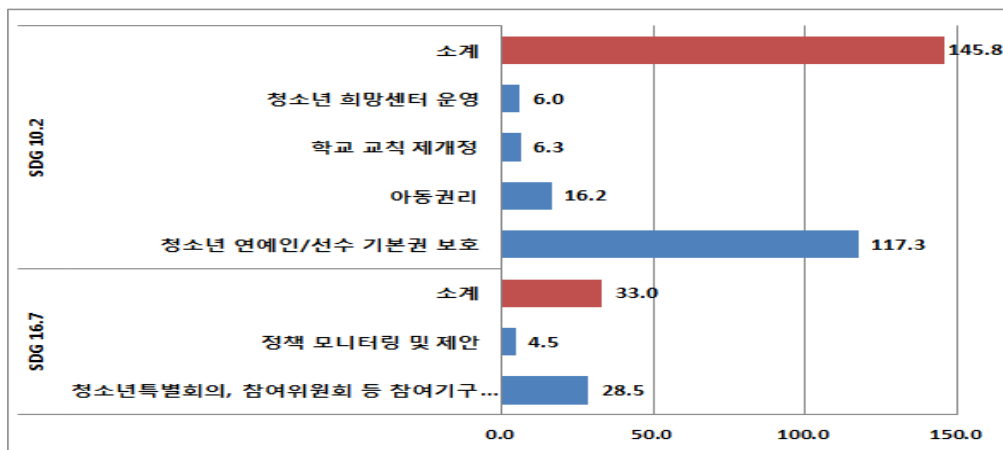
청소년 참여권리 부문의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순으로 예산이 많다. 여성가족부는 참여기구 및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연예인/선수 기본권 보호 사업을, 교육부는 청소년 연예인/선수 기본권 보호 외에 학교 교칙 제개정과 정책모니터링 및 제안(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사업을,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 분야를 각각 맡고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17】 참여권리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SDGs의 관점에서 참여권리 부문의 세부 영역을 분류하면, [그림 -18]과 같이 SDG 10.2 연령, 성별 등 지위에 따른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인권보호 차원의 정책과 SDG 16.7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산으로는 인권보호 관련 사업 예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청소년 연예인 인권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책 대응과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참여 관련 정책 사업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이 매우 낮아 정책의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 -18】 참여권리 부문의 SDGs 관련 현황 (단위: 억 원)

2016년 시행계획에서 참여권리 부문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는 <표 -60>에서와 같다. 청소년 연예인/ 선수 기본권 보호 영역에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사업의 경우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라는 세부과제에 속해 있긴 하지만 해당 영역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보다는 성폭력 예방 및 여성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본 연구의 분석틀 상으로는 안전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SDG 16.7, 10.2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사업내용
정책 모니터링 및 제안	여성가족부	온라인 활동확인서 발급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 개발·운영지원
		청소년 참여예산	- 청소년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가능한 의제를 채택해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참여기구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등 사회참여 활성화 - 전국 17개 시·도의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로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등 대상 권리교육 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권리 교재 활용 및 협약 이행 적극적 홍보
청소년 연예인/ 선수 기본권 보호	문화체육 관광부	대중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운영	- 범정부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여성가족부	아동여성 안전교육 문화사업	- 성인식 개선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폭력 예방 자료 보급 - 성인권교육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 체계 지속 유지
	방송통신 위원회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 청소년 출연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청소년 출연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방송 제작 환경 조성
	교육부	학생선수 학습권 및 인권보호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과 온라인 진로콘텐츠 개발을 통한 e-school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보충학습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아동권리	보건복지부	아동인권 증진 지원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 실태 점검 -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 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인권보호 연수	- 일선 학교현장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보편적 인권에 관한 교육 및 지속적인 연수 실시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329-421.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부문

마지막으로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부문은 SDGs의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이행체계 구축(SDG 17)과 관련이 있다. 이 부문의 영역별, 연도별 예산 현황은 <표 -61>과 같이 대부분 청소년 지원인프라 보강에 투입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에 일부 투입되고 있고,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에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정책이 여러 행정기관에서 추진되는 만큼 부처 간 총괄조정은 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이 결과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존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외에 다른 총괄 기능 강화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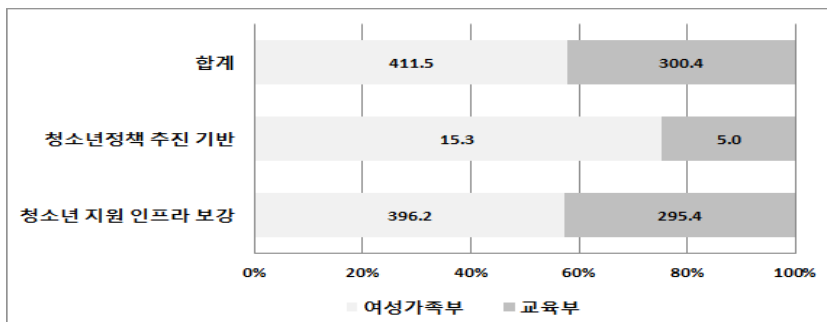
표 III-61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 연도별/영역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세부 영역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41,652	8,080	10,013	9,423	69,168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제도/재정/정책수립) 강화	880	380	380	388	2,028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0	0	0	0	0
합계	42,532	8,460	10,393	9,811	71,196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순으로 예산 투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그림 III-19】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2016년의 경우 <표 -62>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예산만으로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2013년도에 교육법률지원단 사업(전문상담사 채용)과 학생자치활동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지원 인프라보강 영역과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영역의 경우, 현재 청소년정책의 틀 안에서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SDGs의 이행에서 여러 정책 영역 간의 협조체계와 중앙 부처, 지자체, 민간 등 여러 분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비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강화 관련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2 2016년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부문 정책 사업 예시

세부 영역	주관부처	주요사업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 성과평가체계 강화(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 강화) - 지자체 청소년 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전담과 설치 및 청소년 전담공무원제 추진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여성가족부	-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 청소년지도사 양성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 -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사업 - CYS-Net 구축 운영
청소년 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영향평가제 도입 - 청소년정책재정기반 확충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운영 내실화

* 출처: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pp. 766-791.

3)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종합적 고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SDGs 관점에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및 목표 측면에서 볼 때 과거 계획보다 청소년의 상황과 요구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이 당면한 지구적 지속가능성 문제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2013-2016년 기간 동안 시행계획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사업을 분석한 결과 SDGs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0).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복지, 교육비 지원, 고용 정책 등 청소년 정책 고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해당 정책 영역에서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사업의 예산이 86.7%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정책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성장 단계별 필요한 역량 개발 및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정책에서 청년 일자리와 자립지원과 관련된 모색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을 제외하고 청소년 활동, 참여, 건강 등 청소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정책 영역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SDGs 관점에서 청소년정책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이들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청소년 정책 영역 중에서 SDGs와의 연계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부문은 청소년 활동과 참여이다. 이 가운데서도 SDG 4.7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영역인 생태 체험 및 환경교육과 국제교류 활동을 비롯하여 문화다양성, 전통문화, 문화유산 보존, 민주시민역량 및 권리교육, 국제협력, 성평등, 성인지 교육, 통일교육 등은 향후 청소년 활동 영역이 보다 다양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예산 비중이 낮은 영역들을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의 주제, 수련거리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넷째, SDGs의 여러 주제는 청소년 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예컨대 청소년 건강과 관련하여 현재는 주로 여가, 정신 건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향후에는 친환경 식생활, 학교텃밭 등 SDG 12. 지속가능생산과 소비와 SDG 2. 지속가능농업 등과 연계된 정책의 발굴 및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다른 환경 관련 SDGs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 생태계, 15. 육상 생태계) 역시 해당 정책영역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처들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 역량 강화 및 참여를 위한 청소년 대상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산림복지 관련 사업의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연계·협력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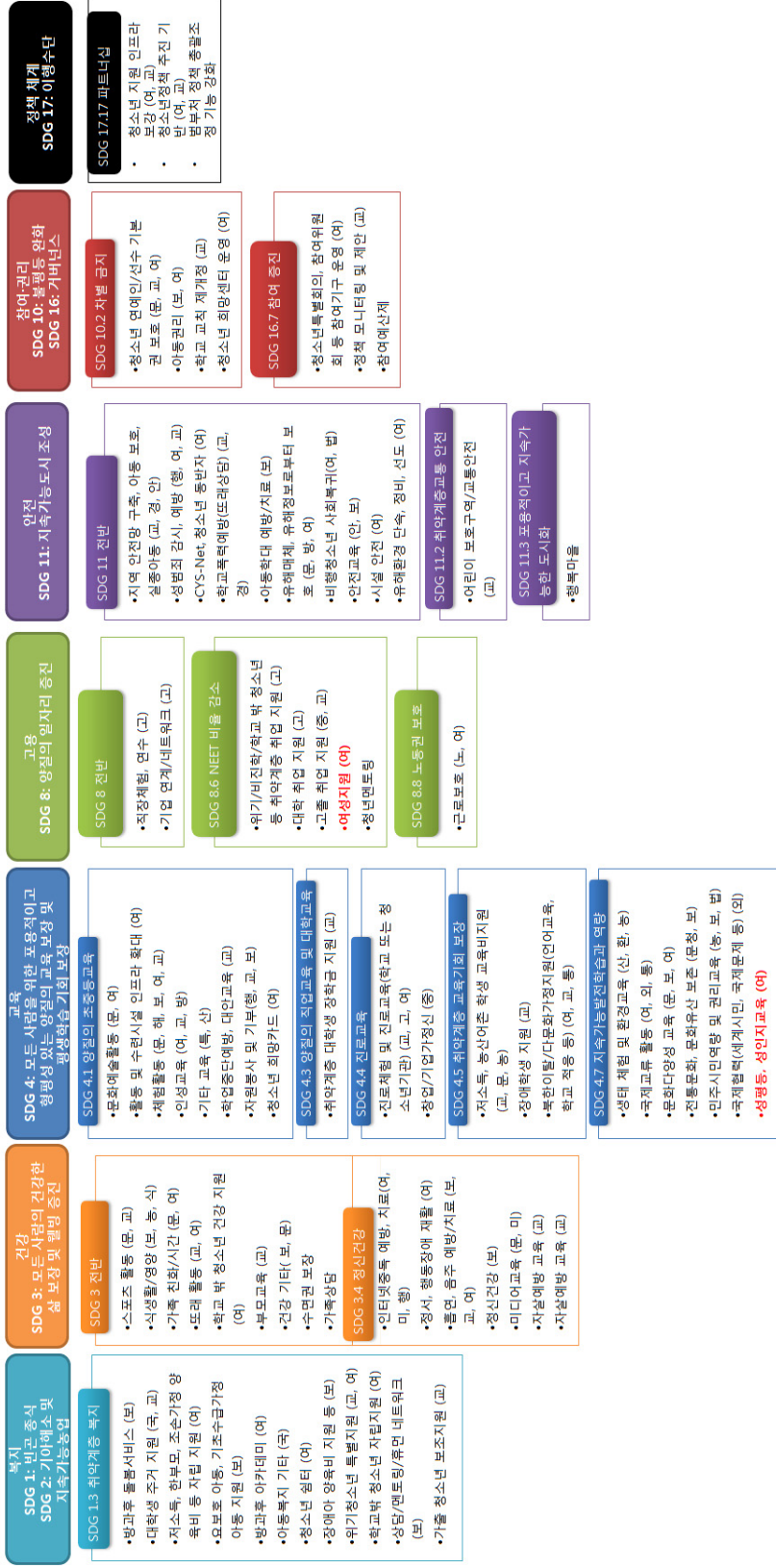
다섯째, SDGs 관점은 청소년 안전 정책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참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의 요구에 기반한 도시 계획 등은 현재 청소년 정책 영역에서는 매우 취약한 분야(weak

link)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참여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이광호, 2005; 전명기, 2016),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접근의 하나로써 다음 장을 통해 독일의 청소년 참여지향적 도시계획 정책 사례를 참고하고자 한다.

여섯째, 청소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책사업에서 SDG 5.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은 여성 고용지원과 성평등, 성인지교육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는 청소년성문화센터³⁵⁾와 같이 지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또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에 따라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양성평등한 온라인 문화조성' 등의 과제를 고려하면, SDG 5 성 평등 관련 청소년 정책이 적지 않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기존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영역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술한 내용과 같이 SDGs 여러 영역에 걸쳐 청소년 정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예컨대, SDG 11.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환경 관련 SDGs 13-15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산림청, SDG 4.7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보존과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부 등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와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당 영역에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5)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2015년 현재 전국에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성보호정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3.jsp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 주: SDG 각 세부 주제별로 정책영역 정렬은 예산 순이며 괄호 안은 주요 관련 부처, 괄호 표시 없는 것은 예산이 0인 사업.
 붉은색 표시는 SDG 5, 성평등 관련.

【그림 III -20】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른 2013-2016년 시행계획 내용의 SDGs 관련 현황

4.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분석 결과 요약

지금까지 본 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SDGs 영역별로 요약하면 <표 4-63>과 같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SDGs 이행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평가 과정에 SDG 1&2 (복지), SDG 4 (청소년 활동·교육지원), SDG 10&16 (참여·권리) 영역에서 기존 청소년기본계획 및 부처별 청소년 관련 정책의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 청소년 복지, 청소년 활동, 청소년 참여 정책과 관련성이 깊으며 청소년 정책의 주요 분야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에는 이 가운데 생태휴양 및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관련 실적만 성과지표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청소년 복지, 활동, 참여 정책 실적을 성과지표로 포함시킴으로써,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에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정도를 반영하고, 전체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청소년 정책의 영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SDGs의 국내 이행 과정에서 청소년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정책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 발굴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활동으로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과정에 청소년 활동이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 환경, 문화유산, 도시계획 등 SDGs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가운데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하여 독일의 정책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셋째, 지속가능발전법에 명시된 대로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년 삶의 질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접근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권리와 관련되는 국가 지표와 관련 이행과제를 개발하여 지속가능발전계획 및 지속가능성 평가 관리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장의 청소년 삶의 질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역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과제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SDG 1&2	SDG 3	SDG 4	SDG 5	SDG 8	SDG 11	SDG 10&16	SDG 17	주요 현황
국가 지속가능 발전계획	○	○	○	○	○			○	- 건강, 복지, 교육 분야에서 여가, 고용 분야로 확대 - 청소년에 특화된 지표와 계획 부재
중앙행정 기관	○	◎	◎	○	◎		◎	○	- 교육부: 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그린스쿨 등 - 환경부: 환경교육종합계획 - 여성가족부: 청소년 활동 및 참여 - 고용부: 청년고용 - 산림청: 산림복지 및 여가 차원의 청소년프로그램
지자체	○	○	◎		○	◎	○		- 의제21: 청소년 지표, 청소년사업, 청소년의제 - 관련 법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도시계획, 주민참여예산제, 아동·청소년의회, 청년일자리 등 여러 분야로 확대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 정책사업	◎	◎	◎		◎	○	◎	○	- SDGs 다양한 분야에 포괄 - 지속가능도시 조성 및 성 평등 분야 연계성 제고 필요

* ◎ 표시는 SDGs와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나타내고, ○ 표시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를 나타냄.

제 IV 장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1.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요
2. 국가별 정책 사례

제 IV 장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1.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개요³⁶⁾

본 장에서는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청소년 정책이 연계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3장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범위로 포괄하여 다루었던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과 SDGs 분야 가운데 청소년에 대한 관점에 취약한 도시계획 분야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아일랜드의 청소년·교육 정책의 경우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에서 모두 청소년을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 보고 이에 필요한 역량 증진을 일관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향후 청소년기본계획 설계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아일랜드의 사례는 정책 지침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기본계획에 갖는 함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도시계획 정책의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SDG 11 지속가능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요건을 모색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일부에서 도시계획에 청소년 참여를 시도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를 강조하는 접근이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 독일의 정책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현황 정보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두 사례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36)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표 IV-1 해외 청소년 관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개요

국가별 정책	청소년 정책 관련성	우리나라 관련 정책
아일랜드 「2015-2020 국가청소년전략」	청소년 및 교육 정책 전반에서 지속가능발전 관점 통합	청소년기본계획
독일 어린이-청소년지원법, 건설법 및 지자체헌법 등에 따른 다수의 정책 사례	연방 및 주정부 차원의 도시계획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명시	지자체 일부 도시계획

2. 국가별 정책 사례

1) 아일랜드의 청소년·교육 정책³⁷⁾

(1) 청소년·교육 정책 문서에서 지속가능발전 관점의 도입

아일랜드는 청소년 정책 및 교육 정책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이미 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아일랜드의 청소년 정책은 아동·청소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부는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인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미래: 아동·청년을 위한 국가 정책 기본틀(2014-2020)」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10-24세를 포괄하는 「2015-2020 국가청소년전략」을 제시하였다(DCYA, 2014). <표 -2>에서와 같이, 국가청소년전략의 틀은 크게 5대 성취 영역과 하위 목표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영역별로 주무부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5대 영역은 모두 SDGs와 청소년 삶의 질에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특히 2015-2017년 동안 달성해야 할 50가지 우선 달성과제 가운데,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향상, 국가비만정책, 전환기 지원, 청소년고용구상, 청년기업가정신구상, 아동·청소년 참여의사 결정에 관한 국가전략의 이행 등은 SDGs 가운데서도 3. 웰빙, 8. 일자리, 16. 참여에 직결된다(DCYA, 2015: 23-33).

이러한 영역 자체는 우리나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각

37)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진일보한 관점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표 -2>와 같이 예컨대, 2. 학습의 모든 영역과 발달의 잠재적 가능성의 성취 영역에서 전환기 지원은 우리나라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해당되는 정책과 유사하다. 하지만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생애주기를 언급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단계와 각 단계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아일랜드 정책에서는 전환시기를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시기(10-15세), 중등교육에서 고등(계속)교육으로의 전환시기(16-17세), 일과 교육 병행, 투표권 행사, 자립 등의 전환시기(18-24세)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차별화된 지원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DCYA, 2015: 13). 이러한 구분은 후기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위해로부터 안전과 보호 '영역에서는 “그들이 위험하거나 취약할 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회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공간을 가져야 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접근하고 있으며, 자신의 취약한 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 연대, 존중과 세계에의 기여 '영역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환경 문제를 포괄하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 주무부처를 환경지역사회행정부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나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 청소년글로벌 역량 강화를 주요과제로 다루면서 그 내용을 국제교류활동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사회 및 세계에서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와 가져야 할 책임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활동 및 참여 정책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표 IV-2 아일랜드 2015-2020 국가청소년전략의 개요

성취 영역	목표	주무부처
1. 능동적이고 건강한 신체와 웰빙	1. 청소년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해야 하며 특히 신체적, 정신적, 성적 건강과 웰빙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청소년은 청소년 활동, 예술 스포츠를 포함한 여가, 문화 활동 참여를 통해 혜택을 받아야 한다.	보건부
2. 학습의 모든 영역과 발달의 잠재적 가능성의 성취	3. 청소년의 핵심 기술, 역량, 특성(attributes)은 접근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형식, 비형식(non-formal)교육을 통해 향상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4. 청소년은 교육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전환기 지원(transition supports)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부
3. 위해로부터의 안전과 보호	5. 청소년은, 특히 취약하고 소외되는 청소년은 가정, 학교와 사회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지원받아야 하며, 그들이 위협하거나 취약할 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6. 청소년들은 사회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공간을 가져야 한다.	아동청소년부
4. 경제적 안정과 기회	7. 청소년은 공식적인 학습과 훈련 기회를 통해 고용능력을 증진시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8. 청소년의 사회통합과 빈곤 관련 정책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사회보호부
5. 연대, 존중과 세계에의 기여	9. 청소년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환경인식, 평등과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하고 능동적인 글로벌 시민으로서 권한을 가져야 한다. 10. 청소년의 자율성은 지원받고 능동적인 시민권은 진흥하여야 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정치적, 사회적, 시민 참여를 통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지역사회 행정부

* 출처: DCYA(2015), National Youth Strategy 2015-2020, pp. 23-33.

또한 5대 영역 중 다섯 번째 영역과 관련하여 우선 달성과제로 제시한 내용에는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교육, SDGs에 대한 직접적인 강조점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5.8 ESD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청소년 섹터에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을 보존, 보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5.9 유엔 SDGs(2015),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전략(2014-2020), 아일랜드 원조개발교육전략(향후)의 청소년 정책영역에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와 부처 간 협업을 구축한다(ibid: 33).

이 가운데 교육기술부가 총괄하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2014-2020)」을 통해서 지속가능발전의 이행을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DES, 2014). 우선 이행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참여증진을 다루면서 부처별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교육기술부에서 담당해야할 제안사항으로는 학교의 학생자치위원회 효과성 검토, 국가교육과정평가위원회에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 시 학생들 의견 수렴, 학부모 및 학생 현장 제정,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이슈에 있어 아동·청소년 의견 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이 언급되어 있다(DES, 2014: 26-27). 다른 한편으로 아동·청소년부에서 담당해야할 제안사항으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청소년활동(youth work)들을 지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ibid: 27). 특히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자존감, 자신감 향상,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 사회의식 및 연대감 형성, 능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갈 주체로서의 역량 증진에 필수적인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ibid: 27-28).

이러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의 실천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개발교육프로그램의 NYCI(아일랜드 국가 청소년 위원회) 지원, One World Week(OWW), ECO-UNESCO의 녹색 오솔길 프로그램, 청년 환경운동가상,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변화를 위한 글로벌 청소년 리더 '프로그램 등이 언급되고 있다(ibid: 28).

이 가운데 One World Week 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아일랜드 전역에서 있는 청소년 주간으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인식의 제고와 교육 및 실천을 이끄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이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지역과 국제 관련 정의 이슈들과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를 배우게 된다. 활동에는 공공행사, 퀴즈, 논쟁, 강연자 초청 및 문화의 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많은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이 주간을 위해 준비했던 일들을 나누고, 공공의 행동을 이끌기도 한다. 이와 같은 One World Week의 활동 목표는 아래와 같다³⁸⁾.

- 우리의 삶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사이의 탐험을 가능하게 하여 우리가 같이 정의와 평화에 대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세계에 속하는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감사한다.
- 지구를 보호하고 자원을 공정하게 공유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인식한다.
- 장벽을 온전하게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어떠한 도전이든 한다.

38) 출처: One World Week 웹사이트, <http://www.oneworldweek.ie>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 가족과 청소년 단체, 학교, 교회, 친구, 직장 및 공동체 생활의 중심으로 정의, 권리, 평등의 이슈를 다룬다.
- 아일랜드 및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와 연대하여 살아간다.

올해 11월에 열리는 One World Week 행사는 “이주 청소년 정상회담 및 SDGs”를 제목으로 개최되며 SDGs 관점에서 이주 문제와 문화다양성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17개의 SDGs 목표 각각의 관점에서 이주 문제와의 관련성을 해석해 보고, 또래 동료, 정책 입안자 및 정치인들과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³⁹⁾.

또한 청소년들이 글로벌 사회에서 문화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배워나갈 수 있도록 개발교육⁴⁾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특징이다.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부에서는 개발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청소년 참여 현황을 파악하여 자문단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제안 30. 아동청소년부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및 개발교육과 관련한 기존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속가능발전교육 자문단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반드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제안들을 포함해야 한다(ibid: 28).

(2)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교육 현황

아일랜드에서 개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해당하는 아일랜드 원조(Irish Aid)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일랜드 원조의 개발교육 예산은 최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400만 유로(약 5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10%내외의 예산을 비형식 청소년활동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9) 출처: 위와 같음.

표 IV-3 아일랜드 원조 개발교육 예산 현황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합계	5,235,000	5,456,000	4,765,000	4,385,000
초등*	9%	12%	10%	12%
중등*	30%	29%	31%	30%
대학	16%	13%	10%	11%
청소년	9%	12%	11%	9%
성인 및 지역사회	28%	25%	30%	29%
역량강화	9%	10%	8%	9%

* 출처: Irish Aid (2011), Synthesis Paper: Thematic Reviews of Development Education within primary, post-primary, higher education, youth, adult and community sectors, p.4.

* 주: * 교사 양성과정 및 대학교원 지원 포함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Irish Aid, 2011), 청소년 분야 예산 가운데 51% 가량은 NYCI(아일랜드 국가청소년위원회)와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40개가 넘는 청소년 단체에서 개발교육에 참여하거나, 기존 활동에 개발교육을 통합하도록 촉진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 청소년 위원회와 그 외 청소년 기관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기관 종사자들이 개발교육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의 청소년 관련 종사자와 개발도상국 간의 교류, 또는 포괄교육의 진행, 네트워킹과 협력 증진(이주민 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포함)등이 포함된다(ibid: 5). 또한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청소년 단체들을 통해 청소년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벤트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NYCI의 개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16만에서 20만 명에 가까운 25세 미만 청소년들이 참여하였다(ibid: 6).

이러한 아일랜드 사례는 청소년 정책 문서상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개발교육이 언급되어 있고, 특히 개발교육을 위하여 개발원조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이 크다. 예컨대 우리나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른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영역의 경우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인성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를 세부 과제로 다루고 있지만, 관련 청소년활동으로는 국제교류, 민주시민교육, 인성교육 등 다루고 있는 폭이 제한적이다. 또한 3장의 시행계획 분석 결과, 개발교육 등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중앙 부처 차원의 정책 사업은 외교부의 KOICA 지구촌체험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함양에 있어서 단기간의 국제교류 활동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개발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분야 ODA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개발협력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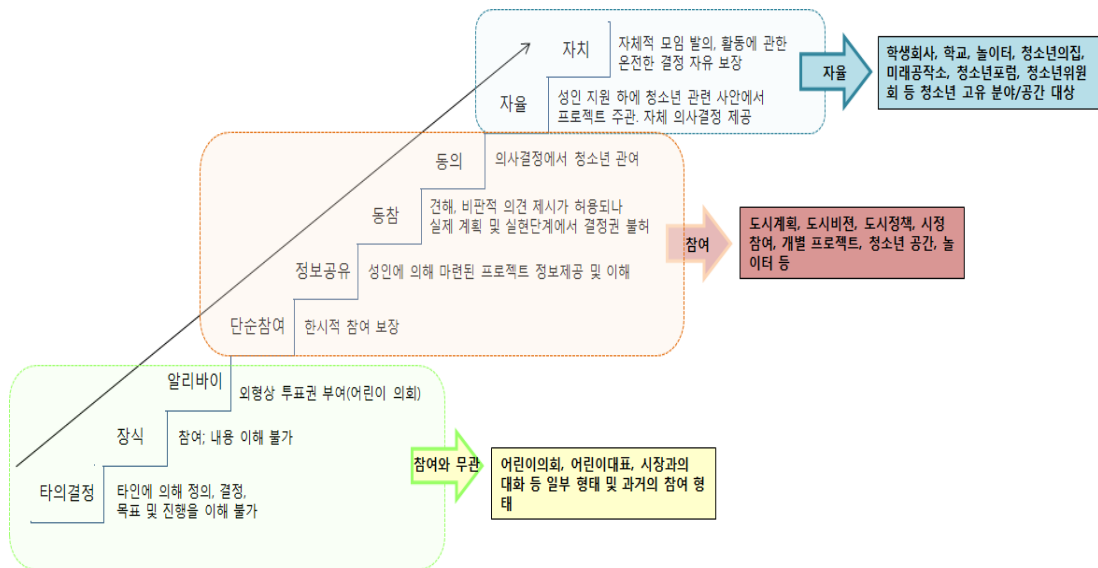
2) 독일의 도시계획 정책⁴⁰⁾

(1) 청소년 참여 기반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공간계획은 수 십 년을 내다보는 국가 및 지역의 공공과제로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연방체계의 위계에 따라 연방-주-지역-도시 및 지자체로 이어지는 계획적 수단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을 공간단위에서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간발전과 도시건설 정책 추진에 있어 미래세대이자 약자 배려의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를 계획의 목표와 대상으로 포함시켜왔다.

청소년 참여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 나타난다. 타의결정-장식-알리바이-단순참여-정보공유-동참-동의-자율-자치와 같이 참여의 수준과 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 이를 다시 비참여형 참여, 참여 그리고 자율적 참여의 세 개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분야는 대상영역, 시간적 범위(장기적, 단기성), 계획 또는 프로젝트/이벤트, 공간위계(가정-학교-지자체/도시)에 따라 재그룹이 가능하다. 독일의 경우 80년대에는 개별지자체에서 청소년포럼, 청소년의회 등 대의적 방식이 주를 이루었고, 전반적 참여로의 확산은 90년대 말에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Bruner, Winklhofer & Zinser, 2001: 52).

40) 이 절은 김연미 소장(공존연구소)이 집필하였음.



* 출처: AWO Bundesverband e. V. (2013). Partizipation von Jugendlichen – Eine Herausforderung für die Angebote der Jugendsozialarbeit/Jugendberufshilfe. http://www.awo-informationsservice.org/uploads/media/Partizipation_von_Jugendlichen.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Schröder (1995). Kinder reden mit, Weinheim, Basel. In Swiderek, Thomas (Ed.) (2004). Partizipation als angestrebtes Ziel von Kinderpolitik.
 Klein(2006). Das könnt ihr nicht alleine entscheiden! – Beteiligung von Kindern in Kindertagesstätten, Bedeutung und Umsetzung. http://diebeteiligung.de/diebeteiligung2/pdf/diplomarbeit_klein.pdf/ p. 36 에서 연구자 재구성.

【그림 IV-1】 상승 사다리 형태로 표현된 청소년 참여의 수준 및 분야

아래 <표 4>와 같이 독일에서는 지속가능발전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독일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지자체 정책 및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은 청소년 지원법(KJHG)과 주정부제정 청소년장려법으로,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긍정적 삶의 환경 조성 그리고 관련 공공 청소년 지원의 결정에 참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각 주에서 제정한 청소년장려법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자체의 계획에 자신들의 문제와 연관된 사안에 대해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IV-4 지속가능한 청소년 참여 법적 제도적 기반

위계	내용	
국제적 차원	UN 아동권리 협약	아동을 고유의 권리 행사주체로 인정
	AGENDA 21	청소년이 자신들과 연관된 위계에서 결정과정에 능동적 관여
유럽 차원	EU 기본권 헌장	어린이 나이 및 성숙도에 알맞은 관심사의 배려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유럽 헌장	지자체 및 지역행정은 청소년의 삶과 연관된 결정 및 사안에 참여를 최적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독일 연방 차원	헌법 (German Constitution Act, 20a)	“국가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모든 헌법 질서의 틀 내에서, 입법을 통해, 또한 법과 정의에 따라 행정 및 사법 행위에 의해 삶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국가의 채무 한계를 정한다.”
	어린이-청소년지원법 (KJHG)	§ 1 : 젊은 사람, 그 가족을 위한 양호한 삶의 조건 마련 및 어린이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 8(1): 어린이-청소년들은 성장수준에 따라 공공 청소년지원 결정에 참여
	건설법(Baugesetz)	§ 3(1), § 137 § 1(5)1,3, § 5(2)2,5,10, § 9(1) 9, 10,15,22, § 127(1), (2)4, § 141
주정부 차원	지자체헌법 (Gemeindeordnung, GO)	- S-H주, § 47f: “지자체는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에서 이들을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적합한 방식의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바덴뷔르템베르크주(BW)주, § 41a에서 추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구분하여, 어린이의 참여는 권장형(should)으로, 청소년의 참여의 강제성(must) 차이를 둬
지자체 차원	지자체헌법	각기 지자체 계획문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됨

* 출처: Keutz, Fahrwald, Wittmann & Dickhaut (2002). Zukunft im Quartier Perspektiven nachhaltiger Stadtentwicklung und die Rolle der Jugend. http://www.memo-consulting.de/Studie_BBR.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독일 헌법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ttps://www.bundestag.de/blob/284870/ce0d03414872b427e57fccb703634dcd/basic_law-data.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서용석, 홍정훈(201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4-09. p. 71.에서 재인용.

독일에서 청소년들이 도시에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정 도시계획은 크게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두 위계로 구분되고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 계획, 프로그램들이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이 통합된 성격으로 전체 도시지역의 주거지, 공업지, 산림, 녹지 등과 같은 토지이용을 정하는 상위도시계획이고 지구단위계획은 개별 대지에 허용가능한 건축의 종류 및 방식을 정하는 건축계획이다.

청소년은 도시계획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의식과 인지 그리고 정체성강화 및 책임의식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참여를 법으로 규정하고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저조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 기존 청소년 대표시설 및 기관들이 의견 수렴과 통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여형태가 청소년의 특성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점을 들 수 있다(BBR, 2010: 31). 그 결과 아직도 도시계획 대부분이 성인에 의해 결정되며, 참여 자체도 형식적이거나 알리바이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ibid).

다음 <표 4-5>는 연방가족부가 도시 및 지자체들이 청소년을 조기에 그리고 포괄적으로 참여 방안 중 실현가능성이 높은 7개 분야를 제시한 것이다(BMF, 2010: 12-14). 이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회(경쟁)의 경우 시흥시 천지인마을만들기에서 청소년 마을창안대회를 실시하는 등, 몇몇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다⁴¹⁾.

표 4-5 독일 지자체 및 도시에서 어린이·청소년 참여 방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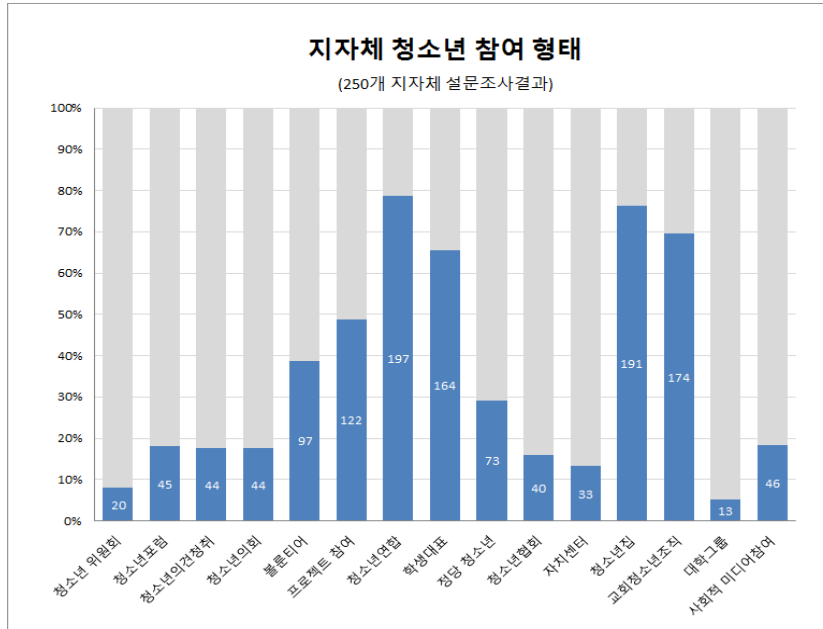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참여 방안	세부내용
건설 및 교통계획 체크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계획에서 계획내용을 검토, 평가하고 자신들의 희망사항과 의견 그리고 계획과정 및 결과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
어린이 및 청소년 컨퍼런스	공공면적(도시구역 캠프 등)의 구성과 같은 특정 주제, 특정프로젝트에 참여
놀이터지침계획	어린이와 청소년이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환경의 보호, 개선에 참여하는 독일의 대표적 절차임(아래에 상세한 설명 참조)
미래공작소	한 주제 또는 프로젝트에 해결방안 및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방안. 상상력을 위해 분석, 아이디어 및 실천,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활성화하고 종합적인 미래 비전으로 발전
대회(경쟁)	특정 프로젝트, 주제로 열리는 대회에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어른들과 함께 평가단을 구성하여 수상자 선정
어린이 청소년 의회	정기적 모임을 통해, 성인, 중견 청소년 중재로 주제 결정 및 토론

* 출처: BMF(2010), Beteiligen! Themenheft 1 für kindergerechte Kommune.

<http://www.kindergerechtes-deutschland.de/publikationen/themenheft-1-beteiligen/themenheft-beteiligen.html/> 에서 2016년 10월 9일 인출.

41) 천지인마을만들기 '사업은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흥시 정왕1동 일반 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출처: 시흥저널 (2015.10.21.)).

아래 [그림 -2]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2015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참여 및 동기부여의 형태 및 주제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가장 높게 참여하는 형태는 청소년 연합, 학교대표, 청소년의집, 교회조직 등으로 나타나 청소년 중심의 단체들의 참여가 활성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출처: Lpb (2016). Kommunale Jugendbeteiligung in Baden-Württemberg.

https://www.lpb-bw.de/fileadmin/Abteilung_III/jugend/pdf/jugendbeteiligung_2016.pdf/ p. 8. 에서 2016년 10월 9일
인출

【그림 IV-2】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지자체에서 청소년 참여유형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의 청소년 참여 방안 중 실제 사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 참여 사례⁴²⁾

봄테(Bohmte)

독일의 소도시 봄테시는 도시의 도로가 모두를 동등하게 배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도로 공간을 “공유 공간(shared space)”으로 변모시키는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이곳의 청소년들은 주민들과 함께 12,000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점유공간을 도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이끌었다. 신호등, 건널목, 교통표지판이 없어지고, 과거에 비해 어린이 및 약자를 더욱 배려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봄테시 시장은 2009년 폐부지 운동장의 용도를 둘러싸고 논의가 전개되는 시점에 청소년지원부서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참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현재 7명의 청소년들이 다세대 이용구상에 참여하고 있다(BMF 2010: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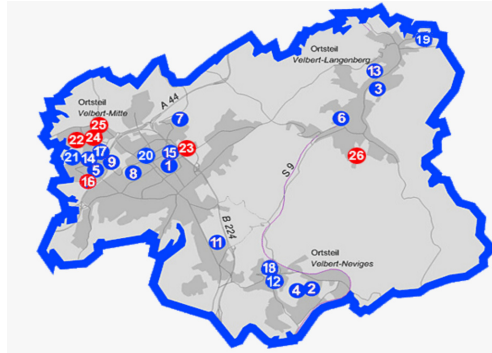
벨베르트시

벨베르트시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도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토지이용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였고, 이들의 참여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에 보고서, 반영현황, 지도와 범례 형식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어린이가 보행자전용도로를 만들다”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로 독일 놀이터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심조성, 놀이터조성, 스케이프, 소녀들을 위한 도시둘레길 및 어린이-청소년사무실 등 다양한 도시계획 구상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지원한다⁴³⁾.

42) 본 절의 사례는 Knauer(200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43) 출처: 벨베르트 시청 웹사이트 1.

<http://www.velbert.de/buergerinfo/umwelt-stadtplanung/stadtplanung/beteiligung/default.asp/>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 출처: 벨베르트 시청 웹사이트 2. <http://www.velbert.de/buergerinfo/umwelt-stadtplanung/stadtplanung/beteiligung/default.asp#Projekte/>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숫자는 청소년 제안사업으로 파란색 번호는 완성된 사업이고, 붉은색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의미함.

【그림 IV-3】 벨베르트시의 어린이·청소년참여 프로젝트들

슈트트가르트⁴⁴⁾

슈트트가르트는 별도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어린이참여 정보, 자료,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관련 일반정보와 프로젝트 소개 등을 비롯하여, 참여예측, 참여모델의 질적 수준, 프로젝트 계획 등에 대한 핸드북 형태의 실질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시회, 설문조사, 브레인스토밍, 환상여행, 사진활동,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 및 접근법을 매뉴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Stuttgart(Interessengemeinschaft (IG) Kinderbeteiligung), 2006).

슈트트가르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음 5가지를 들고 있다⁴⁵⁾.

- 프로젝트·청소년들이 직접 특정한 주제성과 시간성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학교마당 재조성 등의 선별된 프로젝트에 참여
- 개방적 형태: 어린이 청소년 포럼, 학교총회, 어린이면담시간, 원탁 토론 등
- 의회 및 대표제: 어린이 대표, 위원회 참여 등으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등
- 미디어 활용: 설문조사, 라디오, TV 프로그램, 인터넷 포럼 및 선거 등

44) 출처: 슈트트가르트시 어린이참여 웹사이트 1.

<http://www.kinderbeteiligung-stuttgart.de/files/methodenkinderbeteiligung.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45) 출처: 슈트트가르트시 어린이참여 웹사이트 1. p. 26.

<http://www.kinderbeteiligung-stuttgart.de/files/methodenkinderbeteiligung.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표 N-6 슈트트가르트 청소년 참여프로젝트 사례

어린이포럼 포이어바흐	“어린 성(das Junge Schloss)” 어린이 위원회	어린이-청소년친화 주거구 계획	어린이 회담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자전거 파코 계획		

[illegible]

어린이 인권 채택
(8-12세 1855명
참여, 11개 언어로
번역)

제 IV 장
청소년 관련 해외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소코-기후(Soko-Klima)⁴⁶⁾ 사례

청소년들이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이 소코기후 프로젝트는 기후보호라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주고자 개발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은 소코기후계획의 방법을 적용하여 집, 학교, 동네, 도시 등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미래지향적이고 기후보호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면서 지자체에서 계획에 파급효과를 줄 수 있다⁴⁷⁾. 현재 독일 전역에서 소코기후-도시를 계획으로 조성하자는 모토로 다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BMU 2013: 12)⁴⁸⁾.



* 출처: 소코 기후 웹사이트 1. <http://laloma.info/de/projects/soko-klima/>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그림 IV-4】 소코기후의 소재 및 관련 책자들

아래 <표 7>의 사례는 소코기후 프로젝트 중 베를린 판코구의 피스토리우스 광장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후친화적 광장 조성 아이디어를 설계하여 도시계획국에 제출한 내용이다.

46) 소코는 (Soko, Schultraining Soziale Kompetenzen) 사회적 능력을 위한 학교교육의 약자임.

47) 출처: 소코 기후 웹사이트 2. <http://www.soko-klima.de/ueber-soko-klima/>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48) 출처: 독일 환경부 웹사이트.

https://www.klimaschutz.de/sites/default/files/page/downloads/130513_NKI_Broschuere_100Prozent_dt_150dpi.pdf/ 에서 2016년 8월 24일 인출.

소코기후 프로젝트 사례 : 베를린 피토리우스 광장			
			
2011 광장의 모습	학생들의 광장조성 작업	광장 조성 모델 완성	구 도시계획국장에게 모델 소개
피토리우스 광장은 베를린 반제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이용된 광장으로 원래 건축주들이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음. 이 광장 인근의 프리모 레비 고등학교에서 소코기후팀을 결성하여 기후친화적 광장조성 아이디어를 설계하고 모델을 만들어 도시계획국장에게 제시함. 이 프로젝트는 2012년 9월에서 2013년 4월까지 UfU 연구소의 지원 하에 진행.			

* 출처: 소코 기후 웹사이트 3, <http://www.soko-klima.de/tag/allgemein/>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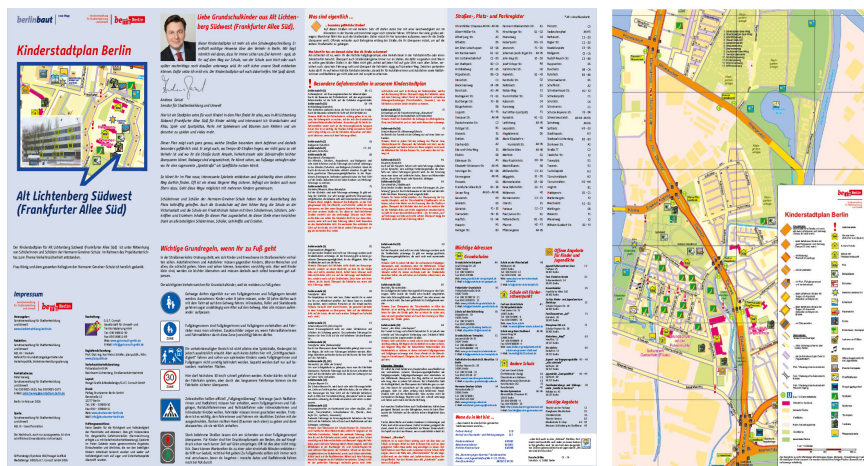
(3) 어린이도시계획(Children's Urban Plan)⁴⁹⁾

어린이도시계획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린이가 스스로 탐색한 도시환경에 기반하여 수립된 특수한 형태의 도시계획을 말한다. 1985년 “뮌헨에서 모험”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도시 책자를 만드는 교육적 활동에서 출발하여 현재 많은 도시 및 지자체들의 어린이도시계획 수립으로 발전하였다. 주체에 따라서 어른들에 의해, 어린이와 함께 또는 어린이에 의해서 구축되며, 어린이들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것, 부족한 것, 방해되는 것, 변화 상황의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 및 정보를 담는다. 계획의 발행주체는 어린이, 유치원, 협회, 학교, 도시청소년부서, 지자체 또는 기타 기관들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주제는 놀이터, 쉼터(Freizeitheim), 기타 어린이시설 등이다.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가들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정식 법정 계획으로 연계되어 반영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도시를 더 잘 알게 되고, 또한 도시구역을 탐색하는 방식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어린이들의 참여도에 따라 그 가치와 진정성이 높아진다.

어린이도시계획에는 미시적으로 뒷마당, 자신만의 비밀장소, 친구들과의 만남장소와 같은 어린이들 개개인의 사적인 장소에 대한 정보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예를 들면 공원, 산, 동물들과 관련된 자연적 공간이나 놀이터, 운동장, 도서관, 영화관 및 상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거시적으로는 어린이집, 학교, 도로 등과 같이 교통안전과

49) 출처: 위키피디아 독일 웹사이트, <https://de.wikipedia.org/wiki/Kinderstadtplan>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하여 재구성.

환경문제를 포괄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어린이도시계획의 장점은 1) 어린이들에게 주거환경을 살필 수 있는 동기의 부여, 2) 주변 환경에서 어린이친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지역과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파악 가능, 3) 주거 환경에서의 어린이 서비스시설 탐색 등을 들 수 있다⁵⁰⁾. 현재 70개 이상의 도시와 지자체에서 어린이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서도 라인란드팔츠주⁵¹⁾는 교육·여성·청소년부가 2005년부터 액션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베를린은 도시계획부의 지원으로 2008년부터 “어린이도시계획 베를린”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09년부터 2015년까지 40개의 파일럿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어린이도시계획을 수립하여왔다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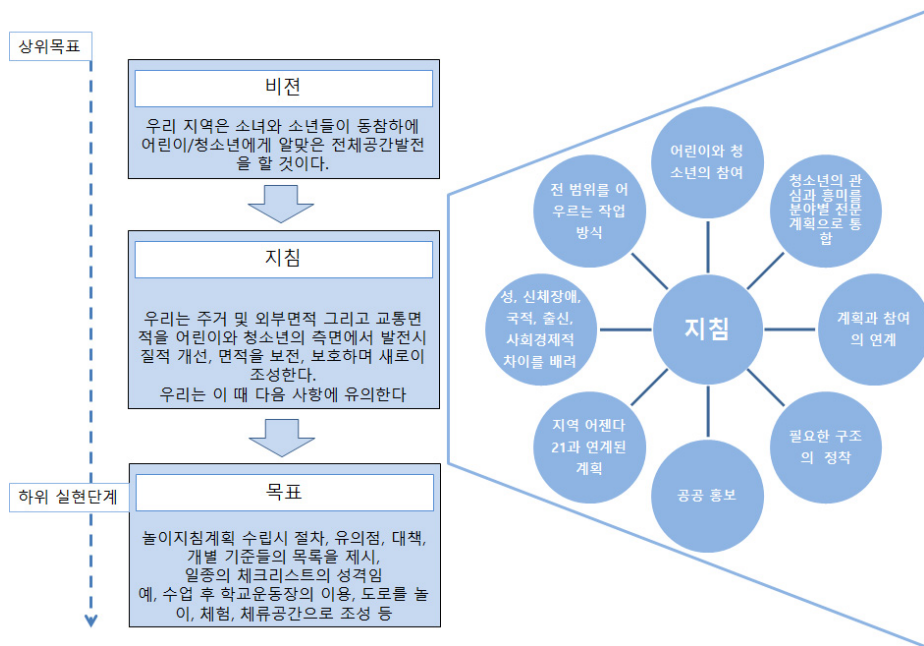
* 출처: 베를린시 도시발전부 웹사이트.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planung/erziehung/de/kinderstadtplan.shtml/ 에서 2016년 08월 28일 인출.

【그림 IV -5】 베를린시 어린이도시계획 사례

- 50) 출처: 라인란드팔츠 주 가족부 웹사이트. <https://kinderrechte.rlp.de/de/programme-und-projekte/aktionsprogramm-kinderfreundliches-rheinland-pfalz/>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 51) 출처: 라인란드팔츠 주 가족부 웹사이트. <https://mifiv.rlp.de/de/themen/kinder-und-jugend/kinderpolitik/kinderfreundliches-rheinland-pfalz/kinderstadtplaene/>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 52) 출처: 베를린시 도시발전부 웹사이트.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planung/erziehung/de/kinderstadtplan.shtml/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4) 놀이지침계획⁵³⁾

1990년 라인란트팔츠주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놀이공간의 마련을 목표로 놀이지침계획⁵⁴⁾을 도입하였다. 놀이지침계획의 핵심은 모든 계획, 결정 및 실현단계에서 소녀와 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 청소년들은 놀이 전문가로서 자신들의 요구, 필요사항을 도시공간에서 실현하고, 어른 파트너와 더불어 놀이공간 발전과 네트워크의 결정에 참여한다⁵⁴⁾.



* 출처: 베를린시 놀이지침계획 웹사이트. <http://www.kinderfreundliche-stadtgestaltung.de/> 에서 2016년 08월 24일 인출.

【그림 IV-6】 놀이지침계획 비전 및 목표

이어 베를린에서도 모델프로젝트를 통해 대도시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제시하였다 (Abt & Hillmann, 2011). 이러한 어린이/청소년 전문 놀이지침계획의 내용은 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반영되면서 행정적 효력을 취하게 된다.

53) 출처: 독일 연방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bj.s.brandenburg.de/media/bb2.a.5813.de/DOKU_Fachtag_120208.pdf%20%20http://www.kinderfreundliche-stadtgestaltung.de/downloads/Plakat2-Instrumentelleitlinien_web.pdf/ 에서 2016년 09월 20일 인출.

54) 출처: 만하임시 웹사이트. <https://www.mannheim.de/stadt-gestalten/spieleitplanung/> 에서 2016년 09월 20일 인출.



* 출처: TU Berlin(2010). Spielleitplanung für Berlin. p.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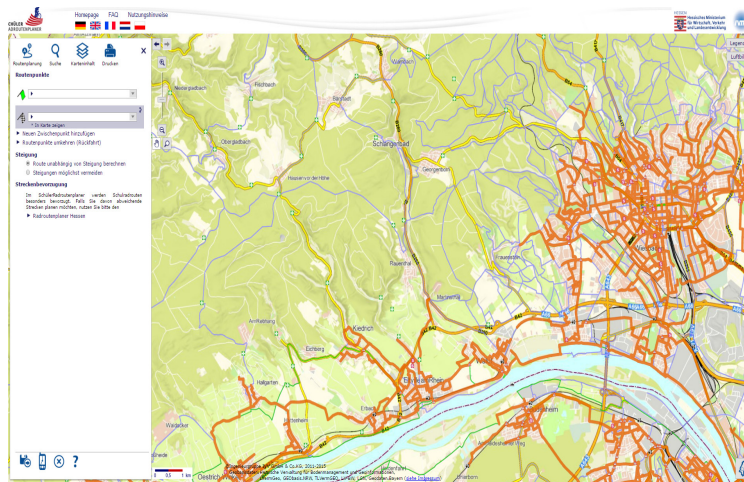
【그림 N-7】 베를린 판코구의 놀이지침계획 도면

(5) 학생주도 자전거노선 계획⁵⁵⁾

자전거 노선계획은 자전거 교통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형태의 도시계획 참여방법이다.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도시계획 중 자신들의 전문 분야라 할 수 있는 자전거노선계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참여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일찍이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는 계기가 되는 효과도 있다.

헤센주는 자전거길계획가라는 루트플래너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면, 각 학교에서 이를 이용해 통학로계획을 수립하며, 이동 동선 계획을 변경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전거노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시작된 프랑크푸르트의 Bike in Trend-mobile and safe with bike to school은 대표적인 지역발전 및 지방의제 21 실천프로젝트로, 학생들은 학교길 계획 참여와 공동 작업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조성을 함께한다. 장기적 목표는 프랑크푸르트 전체 도시에 자전거 학교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⁵⁶⁾.

55) 출처: 헤센주 자전거 노선계획들 웹사이트 2. http://www.radrounenplaner.hessen.de/rph_schulen_01.asp 에서 2016년 08 월 24일 인출.



* 출처: 헤센주 자전거 노선계획 웹사이트 1.

<http://radservice.radroutenplaner.hessen.de/rrp/hessenSchueler/cgi?lang=DE&view=416606,5507711,495044,5584102/> 에서 2016년 08월 24일 인출.

【그림 IV-8】 헤센주 인터넷

(3) 시사점

독일은 지난 수년간 많은 프로젝트와 실험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노력을 했으며, 현장에서는 실질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상기 ExWoSt 연구와 실험에서는 단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도시계획에 청소년들의 참여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참고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에 기반하여 독일 교통건설부(BMVBS)는 2013년 청소년과 도시계획 나침반 '책자를 발행하고, 크게 도시와 지역, 주거구와 이웃, 공공장소, 건물과 대지의 4개의 공간적 위계에 따라 청소년들이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에 진지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기존의 계획절차에서는 청소년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도 주도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Fatke & Schneider 2005: 44-45)⁵⁷⁾. 기존의

56) 출처: 헤센주 문화부 웹사이트.

http://www.schuleundgesundheit.hessen.de/fileadmin/content/Medien/Ordner_S_G/Bike_im_Trend.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57) Fatke & Schneider (2005). Kinder und Jugendpartizipation in Deutschland. http://www.jungbewegt.de/fileadmin/media/jungbewegt/Downloads/Beteiligung_juenger_Menschen_in_Kommunen/Kurzbericht_Druckversion_3_Auflage_heruntergezeichnet.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지루하고 긴 절차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도시계획의 참여형태나 참여방법, 그리고 주제 등은 청소년들의 열정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많은 한계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난 10-20년간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건설에 청소년들의 참여 환경과 조건은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아직까지 여전히 가정과 학교에서의 높은 참여와 달리 도시에서 이들의 도시계획에서의 참여는 점적 방식이나 프로젝트 형태로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적이며 알리바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많은 사례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Young City로 향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모범사례로 참고할 만하다.

제 V 장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 분석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분석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
3. 설문 조사 결과

제 V 장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속가능발전 인식 분석⁵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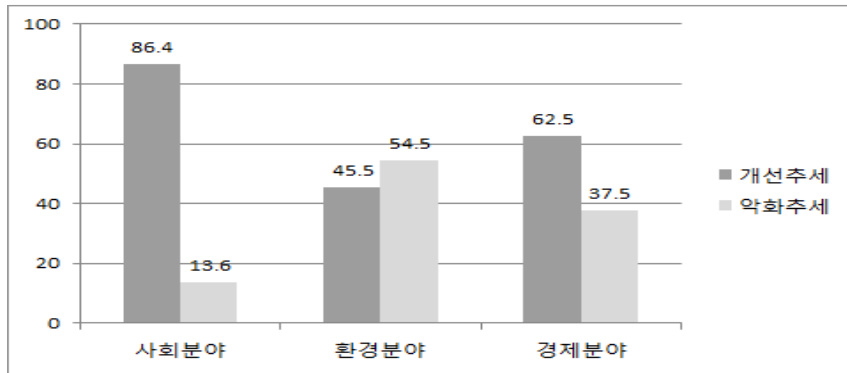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분석

1) 국가 지속가능성 실태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 삶의 질의 개념을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공동체와 전 지구적 관점의 포용,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량과 참여라는 관점에서 정립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삶의 질, 관련 청소년 통계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SDGs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SDGs 국내 이행 방안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우선 현재 청소년들이 살기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속가능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2016년 8월에 발표된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지표에 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우선 분야별로 보면 [그림 -1]과 같이 사회분야의 지표는 대부분 개선 추세에 있고, 환경분야의 지표는 개선과 악화 추세에 있는 지표의 수가 비슷했으며, 경제분야는 개선 추세의 지표가 악화 추세에 있는 지표의 숫자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8) 이 장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p. 64.

【그림 V-1】 분야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이 가운데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사회분야 지표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표 V-1>과 같다. 우선 형평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모두 개선 추세에 있고, 건강 관련 지표도 청소년 영양상태와 의료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개선 추세에 있다. 교육 지표는 공교육비 지출 비율만 악화 추세에 있고, 주택과 재해/안전은 모두 개선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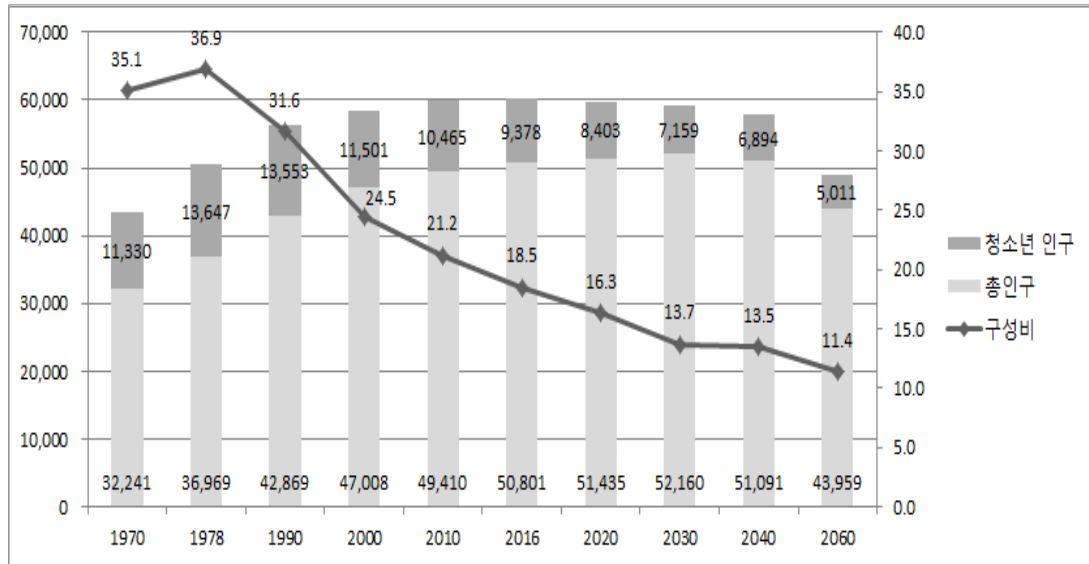
표 V-1 2012-2014년 국가 지속가능성 사회분야 지표 평가 결과

영역	항목	개선지표	악화지표
형평성	빈곤	- 빈곤인구비율(%) (도시2인이상가구기준)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사회복지지출(%) - 노동소득분배율(%)	-
	노동	- 고용율(%) (15세이상인구기준) - 근로시간(시간/월)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
	남녀평등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15세 이상 여성인구기준)	-
건강	영양상태	-	- 청소년 영양상태(%)
	사망률	- 자살사망률	-
	수명	- 기대수명(세)	-

영역	항목	개선지표	악화지표
교육	식수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면지역)	-
	건강관리	-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교육수준	- 고등학교 순졸업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명)	- 공교육비 지출(%) (GDP 대비)
주택	생활환경	- 최소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주택 수(인구1천 명당)(호/1,000명)	-
재해/안전	범죄, 재해	- 자연재해 피해(명/억 원) - 사고(성)사망만인율(‰)	-
인구	인구변화	(중립)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pp. 66~67.

그런데 인구변화는 현재 중립 지표로 간주되지만,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사안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2]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p. 11.

* 원자료 출처: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0~2040.

【그림 V-2】 청소년 인구비율

하지만 이러한 국가 수준의 거시적인 지표가 청소년 삶의 질 실태를 가늠하는데 얼마나 유용한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사회분야의 지속가능성 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청소년 실태 조사결과와 괴리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제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의 평가 결과를 선진국의 상황과 비교분석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표 V-2>에서와 같이 OECD 평균에 비추어볼 때, 사회분야의 형평성 영역에 해당하는 여러 지표가 개선이 필요한 지표로 해석되며, 환경 및 경제 분야에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지표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녹색성장지표에도 포함되어 환경 및 경제 분야의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등의 경우 최근 지표가 악화 추세에 있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산업과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

표 V-2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의 국제 수준의 분석

구분	양호	개선 노력 필요
사회분야	-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 노동소득분배율(%) - 실업률(%) - 영아사망률(‰) - 기대수명(세) - 비만율(%) - 공교육비 지출(GDP 대비)(%) - 고령인구비율(%)	- 빈곤인구비율(%) - 사회복지 지출(%) - 고용률(%) - 근로시간(시간) -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자살 사망률 -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
환경분야	- 국토면적 중 임야지역 비율(%)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tCO₂ /인) -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kg/천\$) - 광역도시권별 대기오염도 - 취수율(%)
경제분야	- 경제성장률(%) - GDP 대비 순 투자율(%) - 무역수지(억\$)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GDP 대비 R&D 지출비율(%)	- 1인당 GDP(명목, PPP)(\$) - GNI 대비 ODA 비율(%)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에너지 원단위(toe/천\$)

* 출처: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pp. 73~74.

이와 더불어 최근 SDGs의 목표별로 세계 34개국⁵⁹⁾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V-3>과 같다. 우리나라는 건강, 교육, 인프라 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표 V-3 SDGs 관련 선진국 현황 분석 결과 중 우리나라 현황

SDGs	관련 지표	현황 ⁶⁰⁾
1. 빈곤	1.1 빈곤율	☺☺
	1.2 빈곤격차	☺
2. 농업과 영양	2.1 총 농산물 영양 균형	☺
	2.2 비만율	☺☺☺☺☺
3. 건강	3.1 건강한 생활 기대	☺☺☺☺☺
	3.2 삶의 만족도	☺☺
4. 교육	4.1 고등교육 성과	☺☺☺☺
	4.2 PISA(국제학업성취도) 결과	☺☺☺☺☺
5. 성평등	5.1 여성의 국가의회 점유율	☺
	5.2 성별임금격차	☺
6. 물	6.1 Freshwater withdrawals as percent of total internal resources	☺
	6.2 폐수처리와 관련된 인구 수	☺☺☺
7. 에너지	7.1 에너지 강도	☺
	7.2 TFEC 재생에너지 활용	☺
8. 경제와 고용	8.1 인구 당 지니계수	☺☺☺
	8.2 고용 인구 비율	☺☺☺
9. 인프라 건설 및 혁신	9.1 총 고정자본 형성	☺☺☺☺☺
	9.2 연구와 발전을 위한 지출	☺☺☺☺☺
10. 불평등	10.1 팔마 비율(palma ratio)	☺☺☺
	10.2 PISA 사회정의 지표	☺☺☺☺
11. 도시	11.1 입자 물질(미세오염물질)	☺☺☺☺☺
	11.2 1인당 방	☺☺
12. 소비와 생산	12.1 폐기물 발생	☺☺☺☺
	12.2 국내 생산물 소비	☺☺☺

59)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슬로베니아, 영국,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호주, 스페인,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한국, 체코, 포르투갈,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미국, 그리스, 칠레, 헝가리, 터키, 멕시코 등 34개국(Kroll, 2016).

60) ☺☺☺☺☺(1-5위), ☺☺☺☺(6-13위), ☺☺☺(14-20위), ☺☺(21-27위), ☺(28-34위)

SDGs	관련 지표	현황 ⁶⁰⁾
13. 기후	13.1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기초 에너지 생산	☺
	13.2 GDP당 온실 가스 배출량	☺
14. 해양	14.1 해양 건강 지수	☺☺☺☺
	14.2 어류자원의 과도한 개발	☺☺☺☺☺
15. 생물 다양성	15.1 지구상의 보호된 구역	☺
	15.2 조류의 Red List 지표	☺☺☺☺☺
16. 제도	16.1 살인	☺☺☺☺
	16.2 투명성 부패 인식 지수	☺☺
17. 범지구적 협력	17.1 정부 개발 원조	☺☺
	17.2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모니터링하는 능력	☺☺☺☺

* 출처: Kroll, C.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rich countries ready? Bertelsmann-Stiftung, p. 36.

그렇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순위가 낮은 것으로는 빈곤, 삶의 만족도, 성평등, 에너지, 기후변화, 부패인식, 공적원조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빈곤, 성평등, 에너지, 기후변화 등은 위의 국가 지속성 보고서에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임을 알 수 있다.

2)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삶의 질이 어떠한지를 다양한 통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3장에서 정책 영역의 구분 기준으로 삼았던 8개 영역 가운데 정책 체계를 제외하고 환경 영역을 추가하였다.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 정책에서 환경관련 정책은 별도의 정책 영역이라기보다는 청소년의 삶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 영역 안에 포함되었지만, 삶의 질에서 환경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 외에 주관적 만족도도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과 교육 지원은 교육 영역으로 묶어 살펴보았다. 이들 7개 영역에 대하여 해당 주제를 포괄하는 전국적인 통계조사 결과가 있는 것을 중심으로 청소년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였다. 통계 자료의 선택 기준은 우선 SDGs의 지표와 유사한 자료를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며, SDGs 지표의 경우 해당 항목에서 괄호 안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각 영역에 대하여 3장에서 분석된 정책 내용과 관련성 있는 통계 결과를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자료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2장 <표 -4>부터 <표 -7>에 제시)와의 관련성은 <표 -4>에서와 같다. 우선 교육 영역에는 학업중단율과 장애학생 현황 외에도 사교육비 지출액, 공교육비 지출 등 교육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및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등 학업중단율을 청소년 특성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 역량지수와 활동 참여율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교육 이외의 청소년 삶의 질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건강 영역에서는 SDGs와 관련한 기본적인 자료 외에도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피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와의 대화시간 등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참여·권리 영역에서는 SDGs 지표인 성적 피해 경험을 외에도, 청소년 참여활동, 투표율, 인권의식을 비롯하여, 양성평등, 전통적인 성역할, 여성취업 등 성평등 관련 인식 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참여·권리에 대해 지니는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복지 영역은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 통계 외에도 영양상태와 복지와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어린이식생활영양지수를 포함하였다. 고용 영역에서는 기본적인 고용률, 실업률, 청년 니트족 비율 외에도, 청소년 노동권과 관련하여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안전 영역은 모두 SDGs와 관련된 자료로서, 아동학대, 체벌 경험, 거주 지역 안전수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역은 객관 지표인 녹지접근성 외에도 환경 체감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등 주관적인 인식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V-4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영역 및 관련 통계 항목

영역	관련 통계 자료	원자료 출처
교육 (청소년 활동· 교육지원)	SDG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2015) 사교육비조사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6)
	학업중단율(다문화, 탈북학생 포함)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수]	교육부(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및 자료가 있는 학교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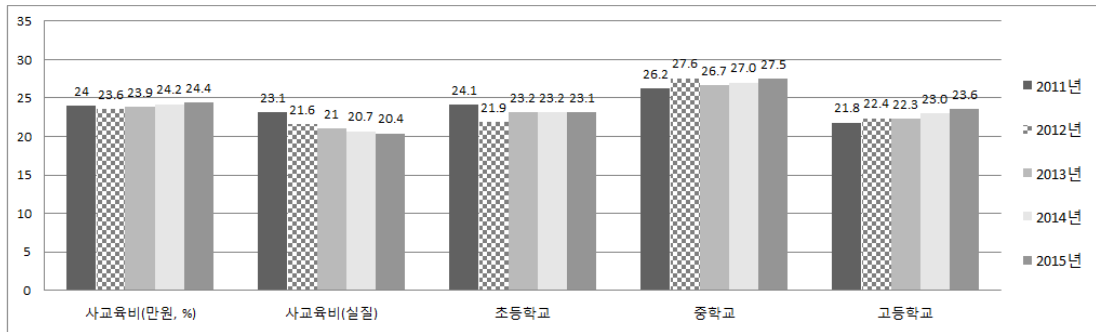
영역	관련 통계 자료	원자료 출처
	청소년 역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청소년활동 참여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건강	SDG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청소년 자살률 [자살 사망자 비율]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흡연율 [담배물질 최근 사용 여부]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음주율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운동실천율 [불충분한 신체활동의 만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어린이식생활영양지수	식약처(2014)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학교 폭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부모와의 대화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참여· 권리	SDG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종교, 경제적 혹은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 SDG 16.7. 모든 차원에서 여론에 응답성이 제고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의적인 의사결정 보장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투표율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인권인식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SDG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양성평등인식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통계청(2014) 2014 사회조사

영역	관련 통계 자료	원자료 출처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인구비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 학대를 경험한 18-24세의 젊은 여성/남성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복지	SDG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 [성별, 연령, 장애여부에 따라 분류된 중간소득 50% 이하로 살아가는 인구의 비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SDG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고용률 [공식적/비공식적 부문에서의 청소년 고용율]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고용	실업률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통계
	청년 니트족 비중 [청년 니트족 비중]	현대경제연구원(2015)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최저임금 이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안전	SDG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SDG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아동학대 신고 현황 [최근 1년 사이 신체/심리/성적 학대를 경험한 인구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학교선생님 및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 경험 [최근 몇 달 동안 양육자로부터 체벌 또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1-17세 아동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거주지역 안전수준(범죄) [살고 있는 지역을 혼자 다니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부모 및 교사 체벌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SDGs 환경 관련 목표(13, 14, 15) 녹지접근성 [녹지와 공공공간의 접근이 0.5km 이내에서 가능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환경	1년 전과 비교한 환경 체감도	통계청(2014) 사회조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통계청(2015) 사회조사

* 주: []표시는 SDGs 지표에 해당(표 II-4)부터 (표 II-7) 참고, pp. 25-29)

먼저 교육(청소년활동·교육비 지원)과 관련된 청소년 삶의 질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과 관련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졸업률 등 학교교육의 양적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와 공교육비 지출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 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지나친 사교육 의존 현상은 국민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국가 주요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⁶¹⁾.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실질 사교육비는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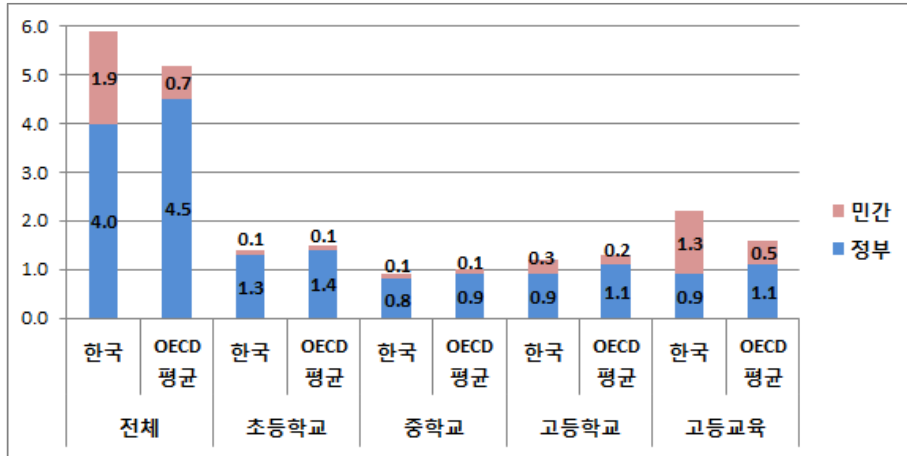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2015). 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l3/ 에서 2016년 9월 8일 인출.

【그림 V-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을 보면 민간 부담 비율이 OECD 평균 0.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9%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히 고등교육 수준에서 민간 부담이 GDP 대비 1.3%로 OECD 평균인 0.5%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지표는 앞서 <표 V-1>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는 향후 고등교육 수준에서 민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 장학금 제도보다 더욱 효과성 높은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61) 출처: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38/ 에서 2016년 9월 12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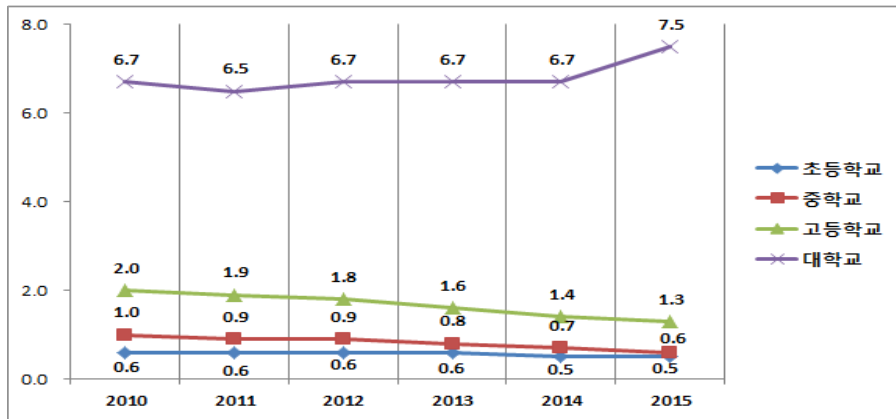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16.09.19.),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p. 12.

* 원출처: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그림 V-4】 2013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SDG 교육 지표에도 제시되어 있다. 올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자는 4만 7천여명에 이른다. 그래프에서와 같이 초등학교는 학업중단율이 전년과 동일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0.1%p씩 감소하였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은 7.5%로 전년대비 0.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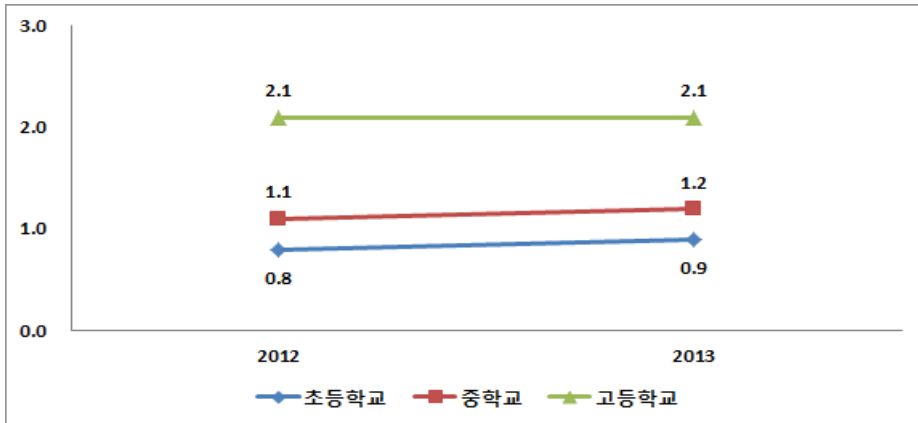


* 출처: 교육부(2016a), 2016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 23, p.40.

* 주: 대학교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대학,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되며, 대학원은 제외됨

【그림 V-5】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또한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일반 청소년보다 2배 이상 높아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p. 427-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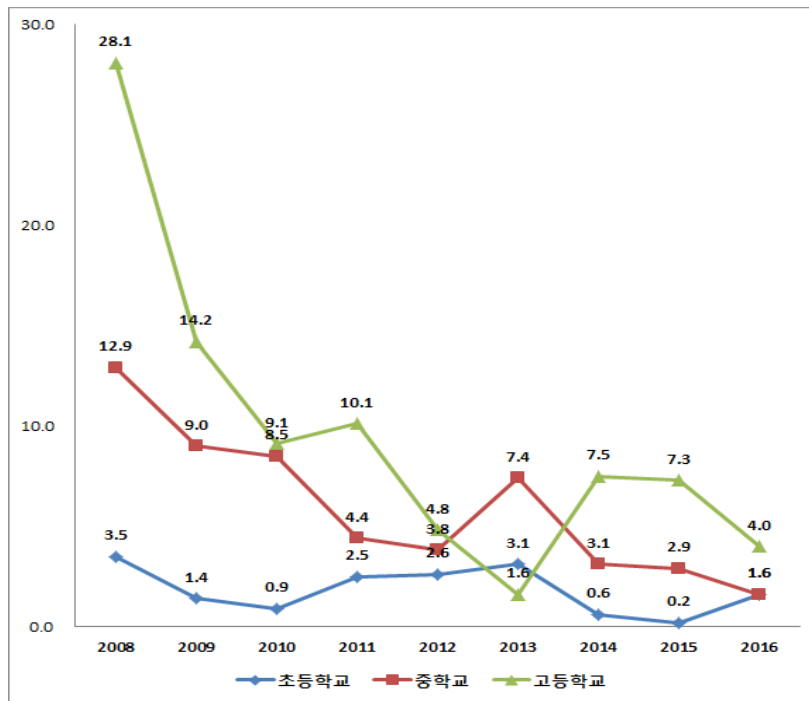
* 원출처: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 565에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 5

* 주: 1) 재학생수는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자수는 해당 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2)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그림 V-6】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

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이보다 심각하여 모든 학교급에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율보다 높았다. 다만 최근에는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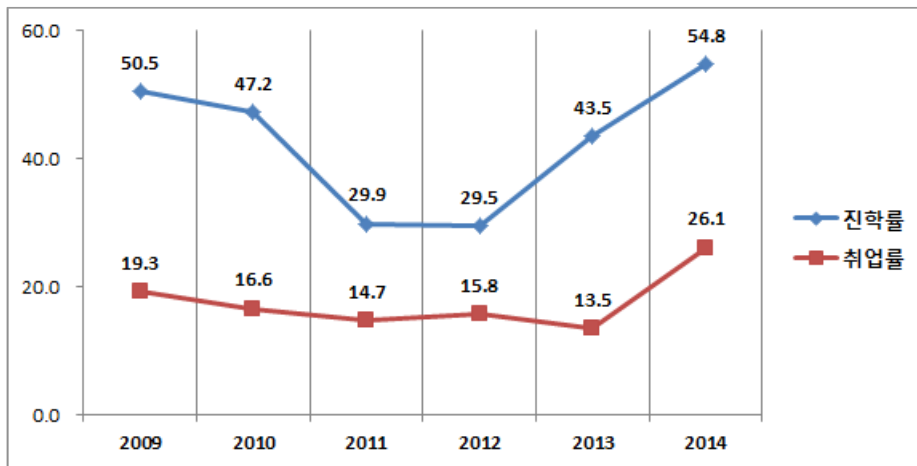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p. 427-428.

* 원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2013년도 자료는 교육부 요청자료(2014.7.22.)를 토대로 재구성
교육부(2015.03.05),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p. 9, 교육부 웹 사이트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33&encodeYn=Y&boardSeq=58634&mode=view/> 에서 2015년 5월 인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6), 2016년 탈북학생 주요통계자료,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에서 2016년 9월 12일 인출.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그림 V-7】 탈북청소년 학업중단율(%)

다음으로 SDG 4 교육목표에서 교육기회의 형평성 차원에서 장애아를 위한 교육 시설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자료로는 장애 청소년의 진학률과 취업률에 대한 것이 있다. [그림 -8]에서와 같이 장애 청소년의 경우 최근 진학률과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장애인의 대학 진학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조병모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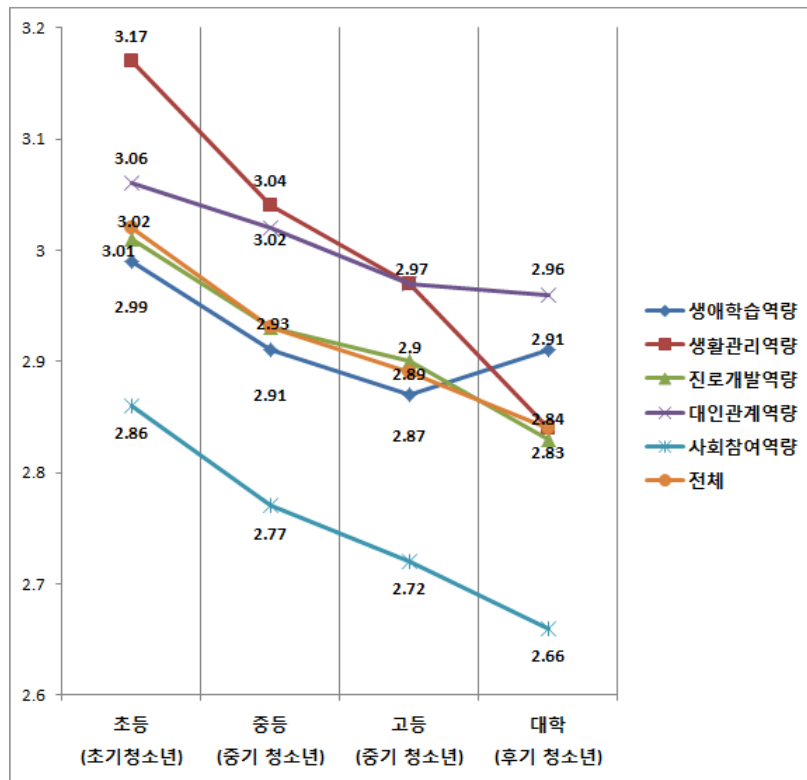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 총괄보고서. p. 284.

* 원출처: 김경준·김희진 외(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p. 402.
 교육부(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 91-94.
 교육부(2015).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 81-82.

* 주: 진학률은 특수학교 내 전공과 및 일반대학 진학을 포함.

【그림 V-8】 장애청소년 대학 진학률 및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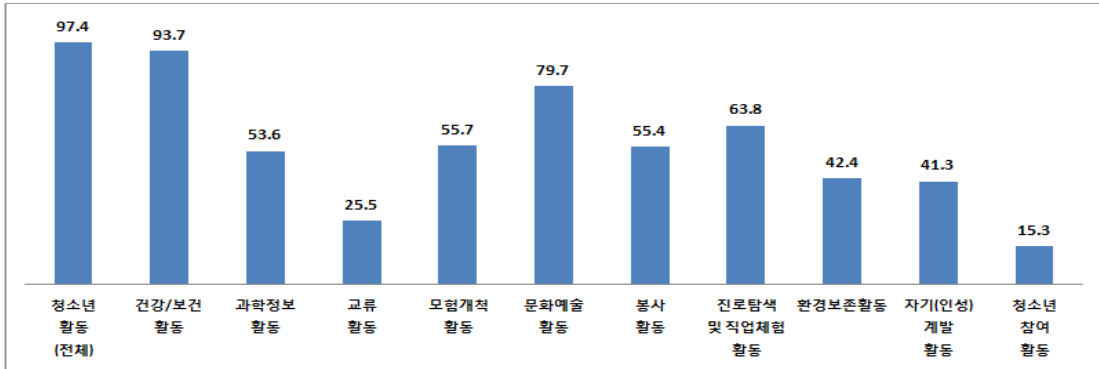
SDG 4.7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개념과 지표는 명확하지 않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청소년의 역량을 접근한 개념으로는 청소년 역량지수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역량 지수를 살펴보면, [그림 -9]와 같이 생애학습역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영역에서 학령이 높아질수록 역량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과 대비되며, 학교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근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질문을 제기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 출처: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외(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pp. 95-99.

【그림 V-9】 생애주기별 청소년 역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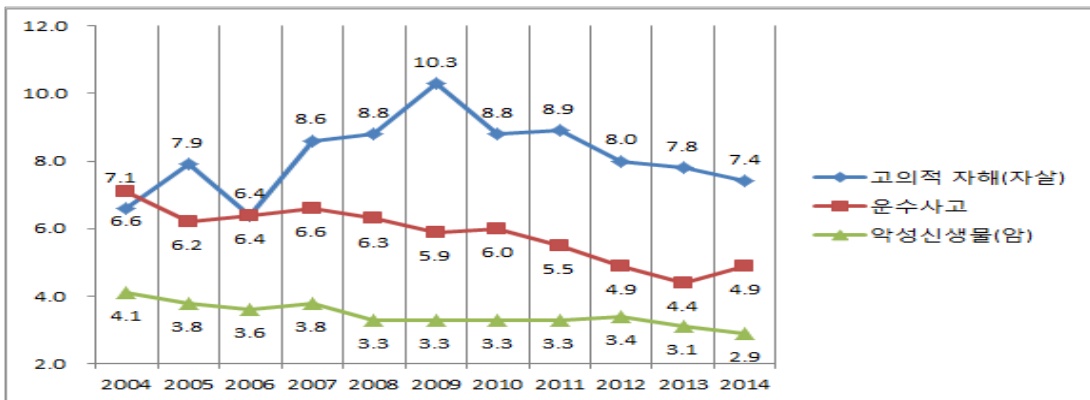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업 외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97.4%로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로는 건강·보건 활동, 문화예술활동, 진로 활동 순으로 참여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SDG 4.7과 관련하여 세계시민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청소년의 인식 및 역량에 대한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측정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다(박수연 외, 2015). 또한 기존의 청소년 활동 분류 체계로는 4.7과 관련된 청소년 활동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출처: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p. 68.

【그림 V-10】 2015년 청소년활동 참여율(%)

다음으로 건강 문제는 SDG 3 웰빙과 직결된다. 우선 청소년 사망원인 가운데 고의적 자해(자살)에 의한 사망 건수는 2009년 인구 10만 명당 10.3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청소년통계 2016,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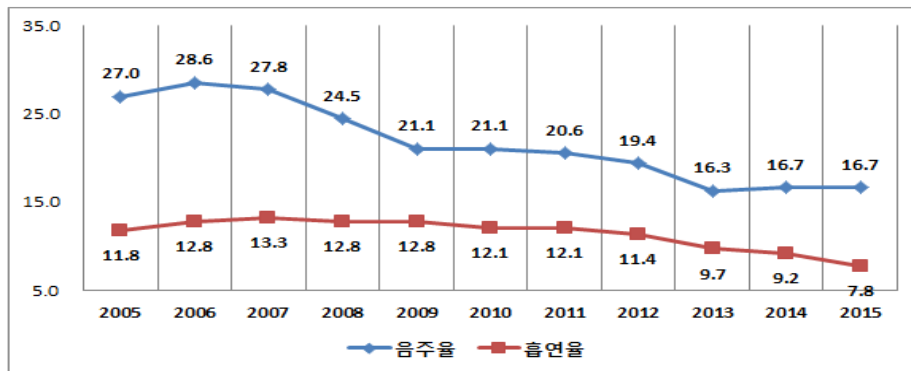
* 원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4-2014) 각년도.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양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그림 V-11】 청소년 사망원인(%)

다음으로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음주율의 경우 2013년 이후 약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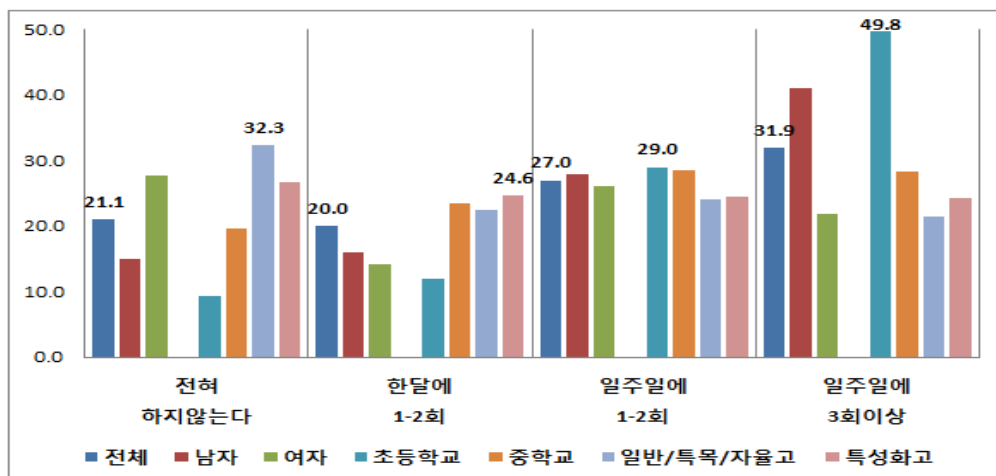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여성가족부(2016). 청소년통계 2016, p. 16.

* 원자료: 질병관리본부·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05~2015) 각년도.

【그림 V-12】 흡연 및 음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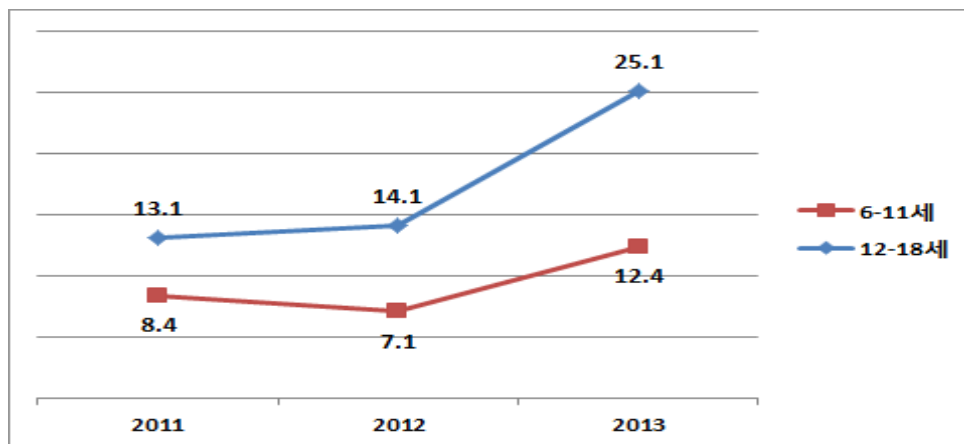
SDG 3 관련 지표로 제시된 불충분한 신체활동의 만연과 관련된 자료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조사에서 조사한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한 청소년의 운동실천율 결과를 활용하였다. 2015년 기준 일주일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21.1%로, 남자(14.9%)보다 여자(27.8%)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운동실천율이 낮게 나타났다.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총괄보고서, p. 310.

【그림 V-13】 운동 실천율(%)

SDG 2에서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농업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식생활 안전문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지수를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조사 항목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급식 관리 수준), 어린이 식생활영양(결식, 비만, 기호식품 관리 수준), 어린이 식생활인지·실천 수준 등이 포함된다. 201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67.54점으로 2013년도에 비해 3.85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 2015). 하지만 다음 [그림 -14]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12-18세에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도 청소년 영양 상태 지표가 2010년 이후 악화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어 향후 영양상태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66).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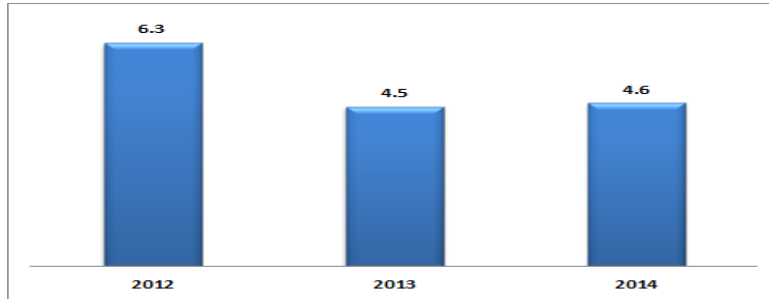
* 원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p. 50., p. 566.

* 주: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그림 V-14】연도별 소아청소년 비만율(%)

다음으로 학교폭력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000명 당 가해 건수는 4.6으로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3년 1만 7천여 건에서 2014년에는 1만 9천 5백여 건, 그리고 2015년에는 1만 9천 9백여 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제로 학교폭력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⁶²⁾.

62) 출처: 노컷뉴스(2016.09.24). <http://www.nocutnews.co.kr/news/4658663/> 에서 2016년 10월 4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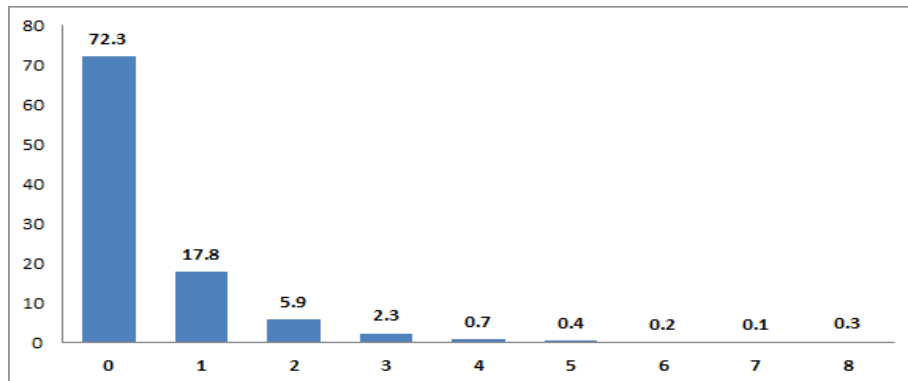


* 출처: 성운숙, 홍성호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pp. 415-416.

* 원출처: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2013년 주민등록연양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2013년 주민등록연양인구. <http://kosis.kr>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그림 V-15】 학교폭력 연도별 현황

또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 불링 피해 경험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 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7.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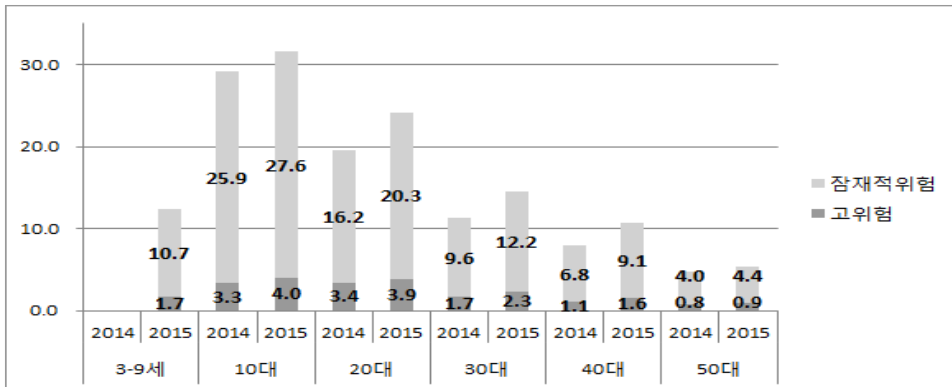


* 출처: 이창호, 신나민 외(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p. 75.

【그림 V-16】 사이버불링 피해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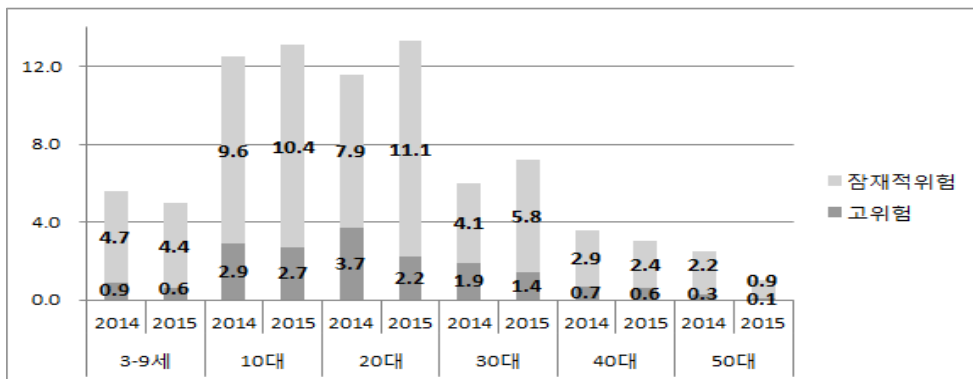
청소년의 여가 생활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도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률의 경우 정보화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국제 청소년 삶의 질 조사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과도한 사용에 대한 부작용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17]과 [그림 -18]에서와 같이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⁶³⁾을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과의존 현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30% 내외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www.iapc.or.kr/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pp. 27-29.

【그림 V-17】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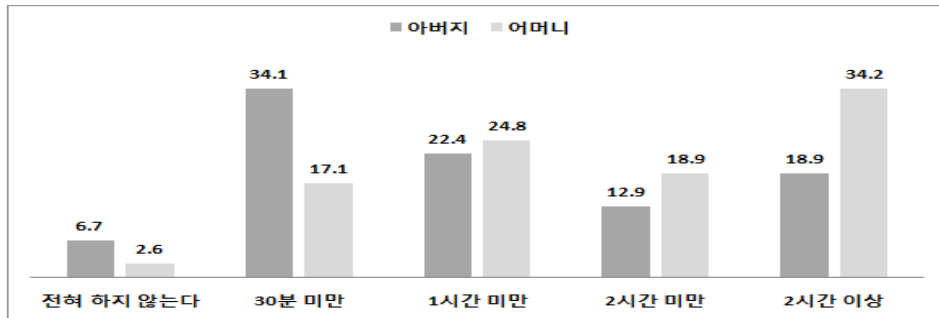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www.iapc.or.kr/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pp. 67-71.

【그림 V-18】 인터넷 과의존위험군 비율(%)

63)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8)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 가운데 부모님과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V-19]와 같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비중이 아버지의 경우 60%를 상회하고, 하루 30분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보다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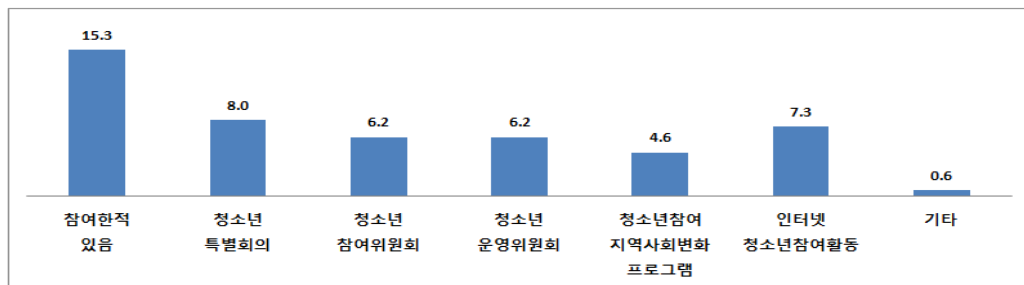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총괄보고서. p. 249.

* 원출처: 여성가족부(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4a).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 68. 표 재구성.

【그림 V-19】 2014년 아버지/어머니와 대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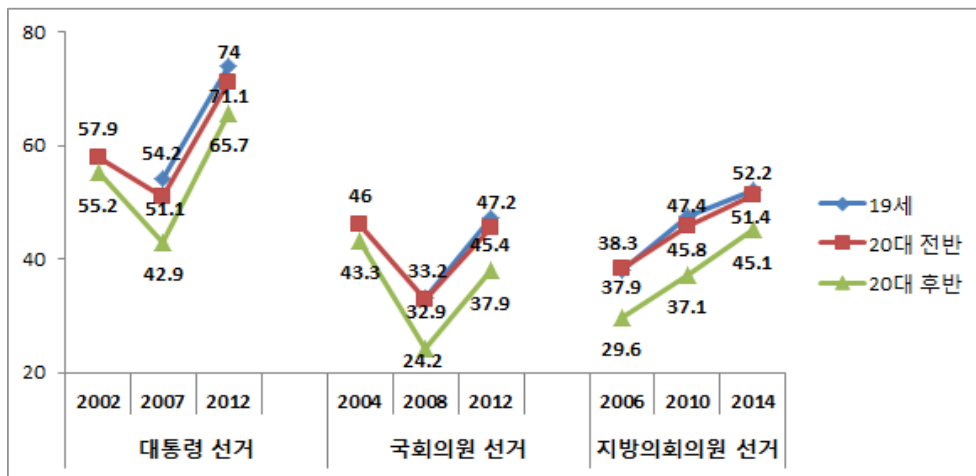
다음으로 청소년의 참여와 관련된 실태 조사 자료로는 우선 다양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참여율을 살펴볼 수 있다. 전체 응답 청소년 중 참여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중은 15.3%로 나타났다.



* 출처: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외(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 p. 127.

【그림 V-20】 청소년참여기구 참여율(%)

다음으로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공식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있다. [그림 V-21]과 같이, 청소년의 투표율은 선거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연령별로는 19세에 비교적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투표율은 전체 투표율보다는 낮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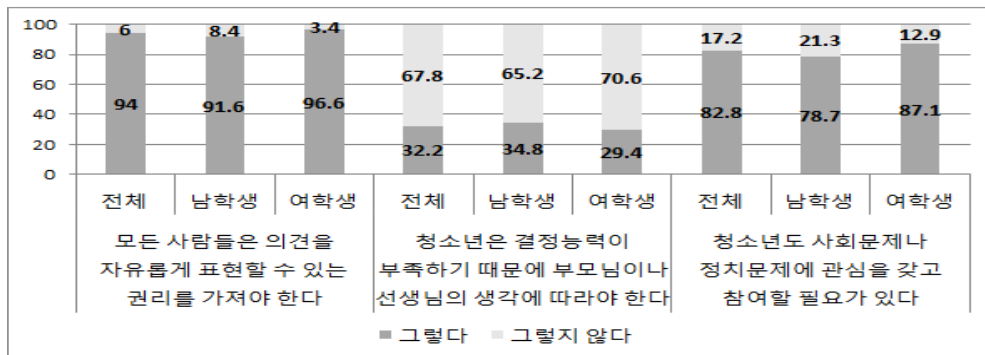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통계, p. 37.

* 원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총람」, 「국회의원 선거총람」, 「지방의회의원 선거총람」 (2002, 2007, 2012) 각년도.

【그림 V-21】 청소년 투표율(%)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살펴보면 [그림 V-22]와 같다. 청소년의 94%는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청소년의 32.2%는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고 답하여 청소년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기보다는 어른들의 생각에 의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회문제 또는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세 문항 모두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인식이 더 열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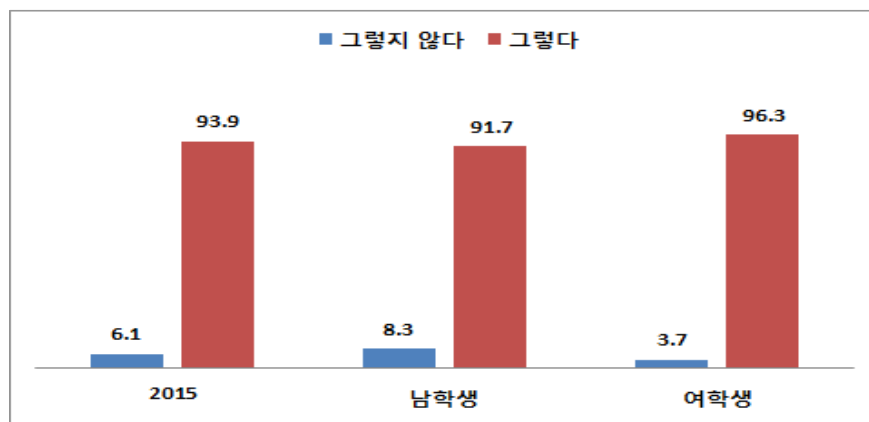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통계, p. 36.

* 원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V-22】 청소년 인권의식(%)

다음으로 SDG 5 성평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양성 평등에 대한 의식,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의식,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등을 살펴보았다. 양성평등, 성 역할 관련 자료는 2016년 청소년통계에서 발췌하였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93.3%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양성평등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고, 남학생의 양성평등 의식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b: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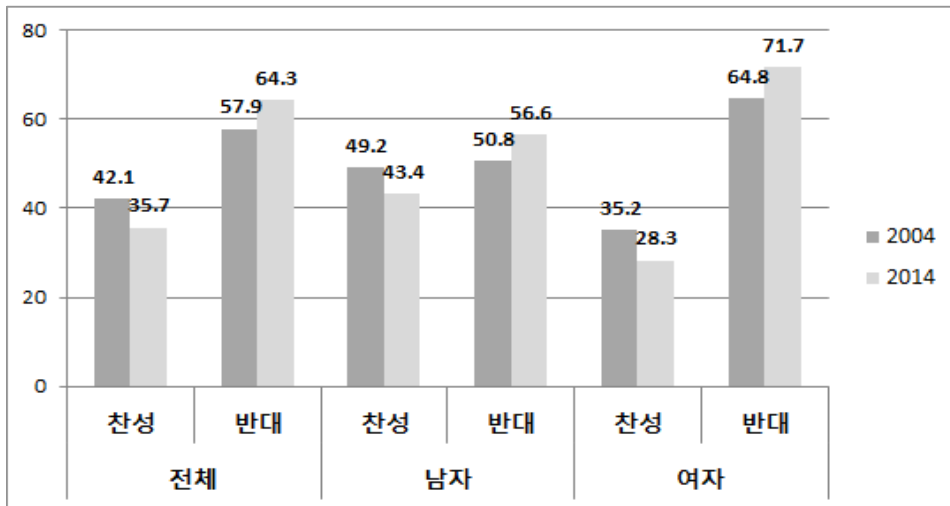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통계, p. 35.

* 원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V-23】 청소년의 양성평등 의식(%)

다음으로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하여 2014년 조사 결과 청소년의 64.3%(남자: 56.6%, 여자: 71.7%)가 반대하였고, 2004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통적인 성역할에 반대하는 남자의 비율은 5.8%p 증가한 반면, 여자의 경우 6.9%p 증가하여 남녀 간의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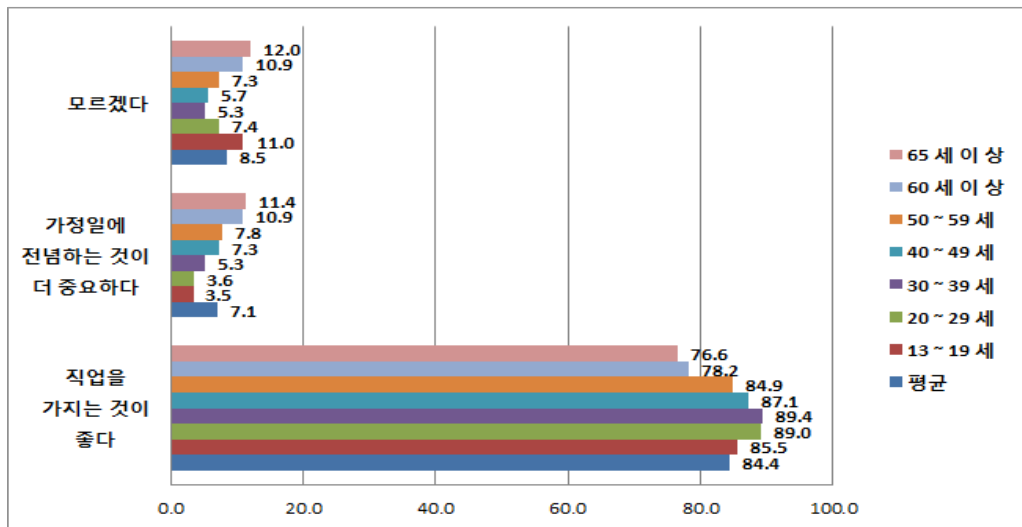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통계. p. 8.

* 원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V-24】 청소년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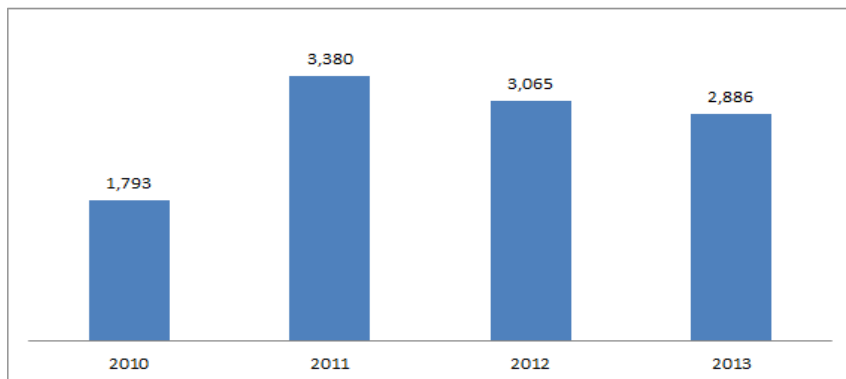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성취업에 대한 인식 자료는 통계청의 2015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변한 10대와 20대의 비율은 50대 이상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30-40대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나타났다. 다만 10대와 20대에서 가정 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전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대의 경우 모르겠다 라고 답한 비율이 11%로 높아, 여성 취업에 대한 10대와 20대의 부정적인 인식 자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그림 V-25】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다음으로 청소년의 빈곤 및 복지와 관련된 기초자료로는 국민기초생활 수혜를 입는 아동·청소년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V-26]에서와 같이 2011년 이후 수혜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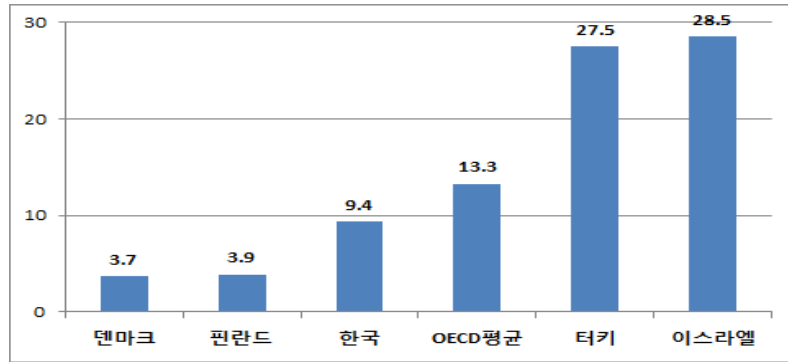


* 출처: 성운숙, 홍성호 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p. 468.

* 원출처: 보건복지부(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32.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그림 V-26】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혜비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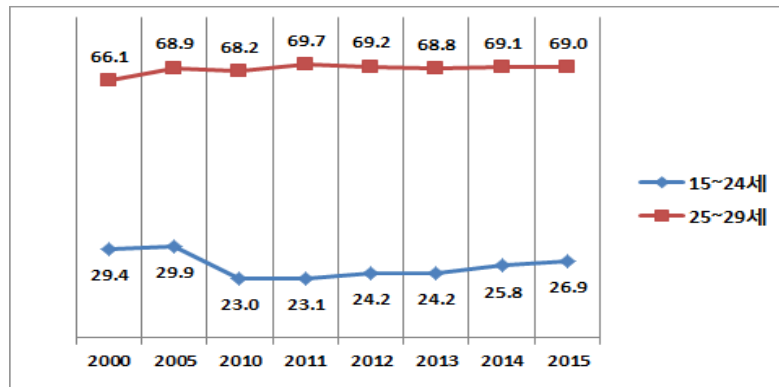
또한 18세 이하 아동빈곤율에 대한 국제비교 결과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북유럽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350.
 * 원출처: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_Jan2014.pdf/
 김경준, 김희진 외(2014).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 464. 재인용.

【그림 V-27】 18세 이하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10년, 중위소득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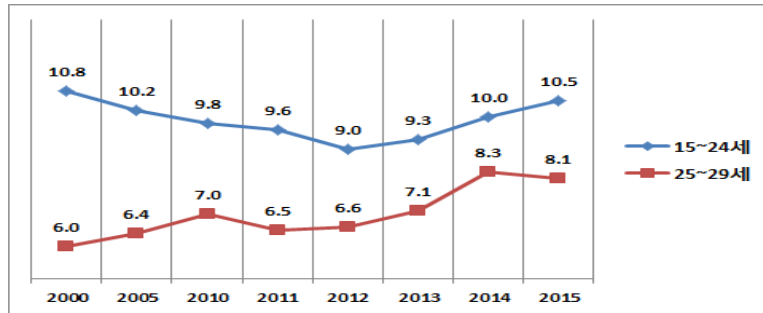
다음으로 고용 분야와 관련하여 SDGs 8에서는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청년 니트 비율 등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용률은 15-24세의 경우 2010년 이후 다소 낮아졌다가 점차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며, 25-29세의 경우에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통계, p. 19.
 * 원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2015) 각년도

【그림 V-28】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

실업률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5-29세 연령층의 경우 2014년과 2015년 사이에만 0.2%p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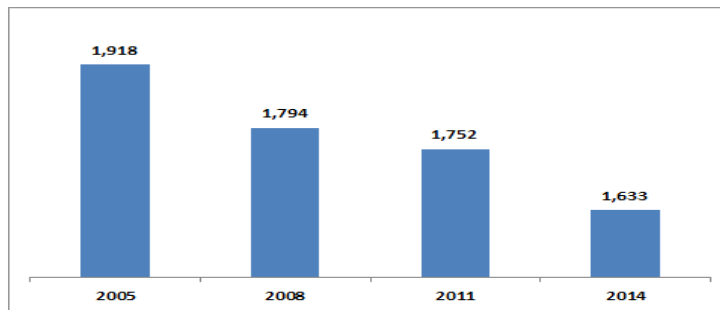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 통계. p. 20.

* 원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0-2015) 각년도

【그림 V-29】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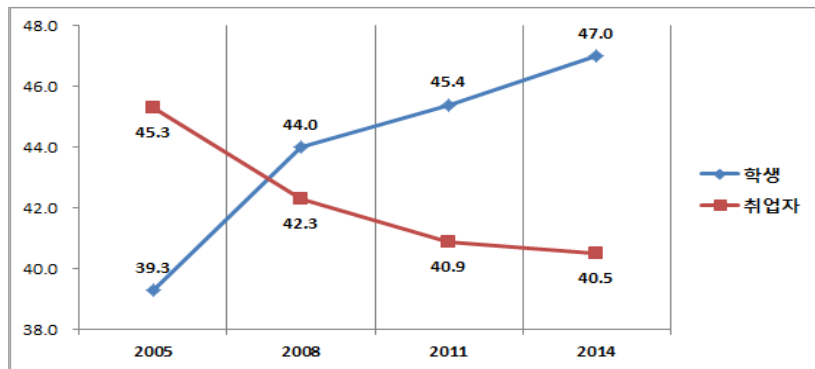
한편 15-29세 청년층 가운데 니트족의 숫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조금씩 감소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5). 현안과 과제. p. 3.

【그림 V-30】 청년 니트족 추계(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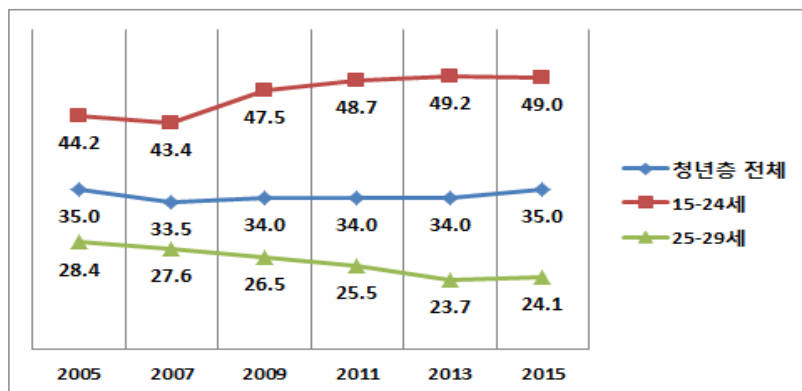
그러나 니트족이 아닌 청년층 가운데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비중을 앞질러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고용 상황 악화로 인해 취업보다 학업을 택한 청년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청년 니트족 숫자로는 청년 실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5). 현안과 과제. p. 3.

【그림 V-31】 청년 非니트족 구성 비중 추이(%)

또한 청년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보면, 비정규직의 비율이 35%로 청년 취업자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비정규직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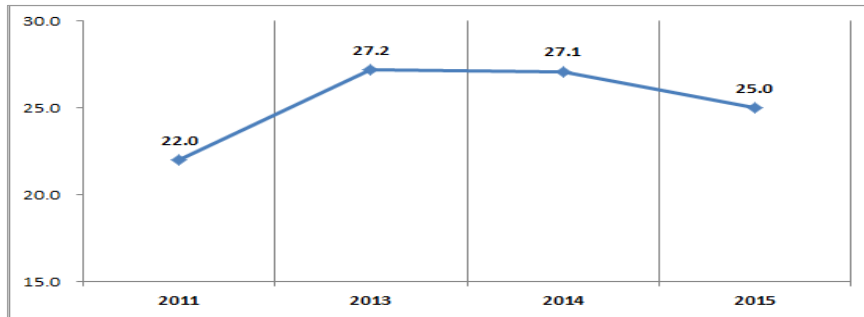


* 출처: 김복순, 정현상(2016).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p. 102.

* 원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2015) 각년도. 8월 기준 자료.

【그림 V-32】 연도별 청년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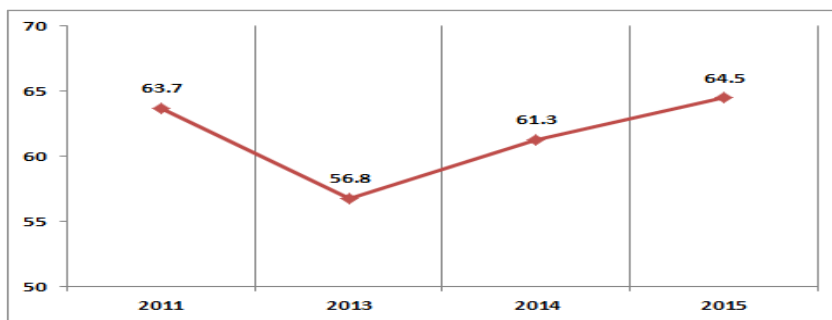
다음으로 SDG 8에서는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림 V-33]과 같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20%를 상회하고 있다.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458.

【그림 V-33】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율(최저임금 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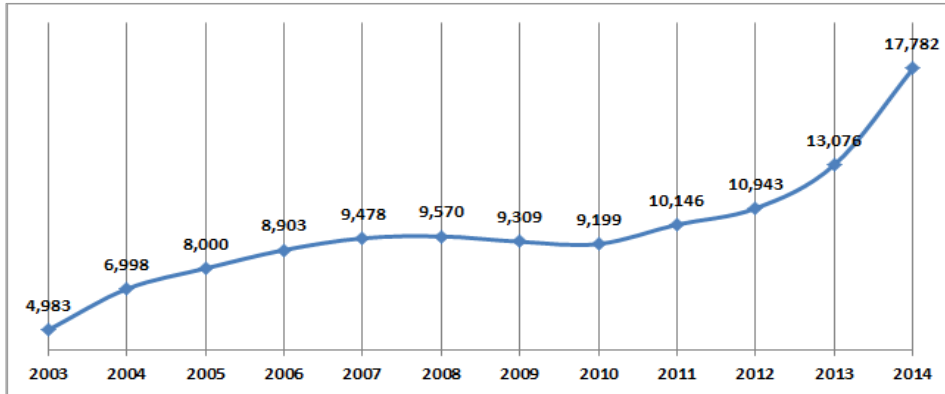
청소년의 주거·환경 관련 실태는 SDG 11, 13, 14, 15에 걸쳐있는 주제이다. 우선 녹지접근성의 경우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도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녹지접근성은 청소년을 포함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에서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으로 정의되며, 서울, 경기, 제주, 광역시의 녹지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김영지 외, 2015: 291).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291.

【그림 V-34】 거주지역의 안전수준(범죄) (연도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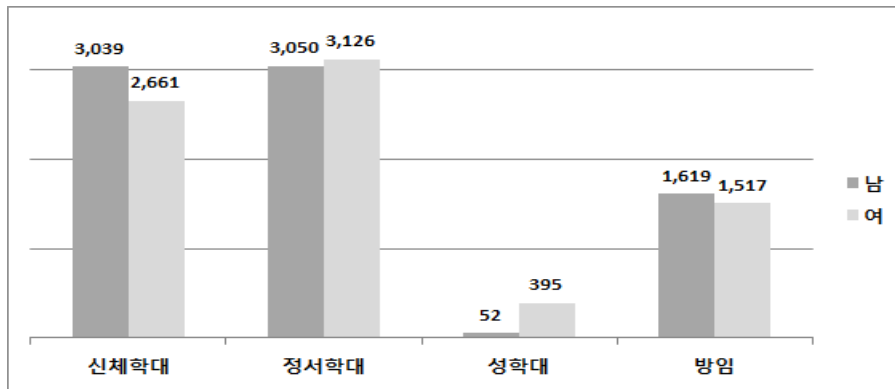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보다는 2014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5: 229).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229.

* 원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52. 관련 내용 재구성

【그림 V-35】연도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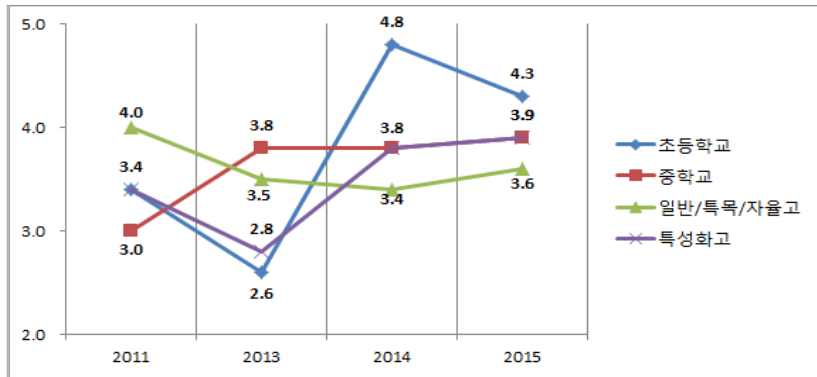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231.

* 원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128-129. 관련 내용 재구성

【그림 V-36】2014년 아동학대 신고 현황(건)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적인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연도별, 학교급 별 차이는 있지만 그 비율은 대체로 4% 내외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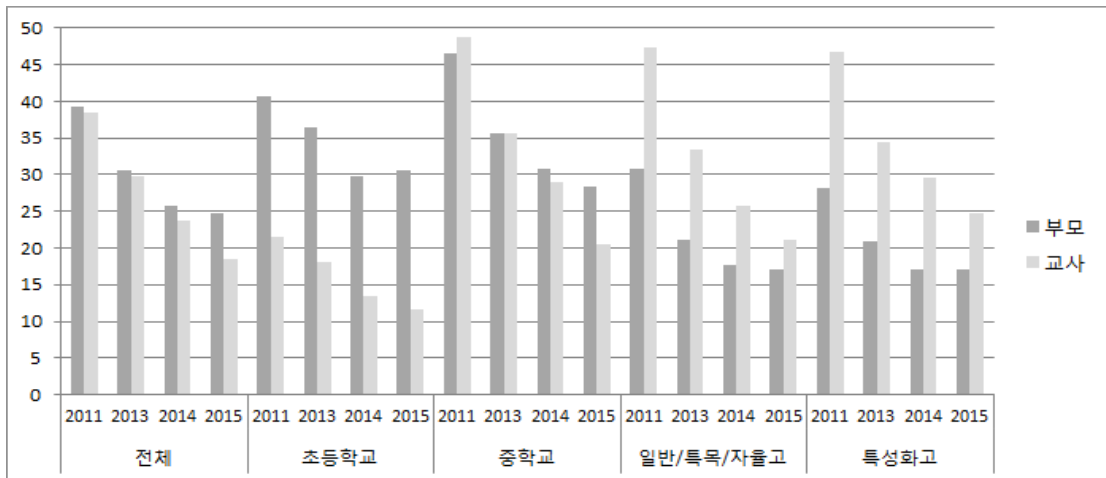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 465.

* 원자료 출처: 여성가족부(2014b).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 4.
여성가족부(2016a). 201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 5.

【그림 V-37】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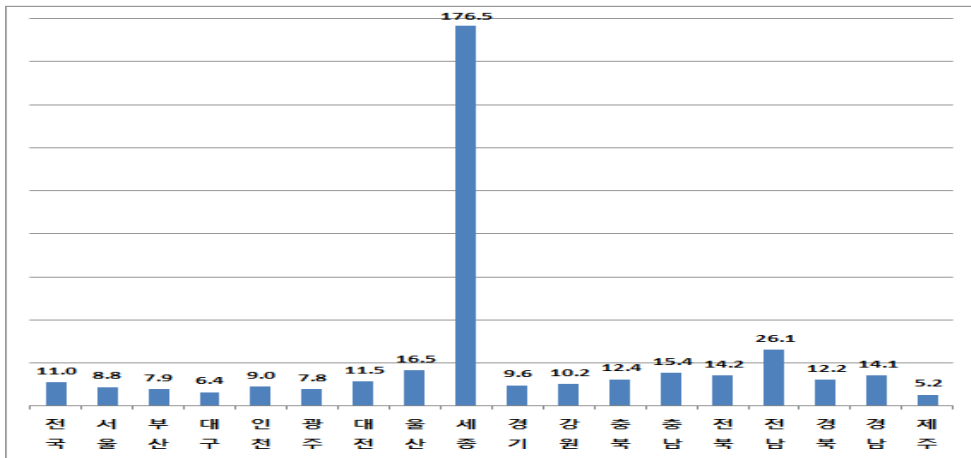
다음으로 학교선생님 또는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체벌 경험을 살펴보면 2011-2015년 사이에 상당한 폭으로 체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초등학생이 부모로부터 받은 체벌 경험이 2015년 기준 약 25%로, 같은 기간 학교 선생으로부터 받은 체벌 경험 11.5%보다 2배 이상 높게 조사되어 가정에서의 체벌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외(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총괄보고서, pp. 224-228.

【그림 V-38】 부모와 교사로부터 받은 신체적 체벌 경험(%)

청소년의 환경 관련 실태는 SDG 11, 13, 14, 15에 걸쳐있는 주제이다. 우선 녹지접근성의 경우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도 포함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녹지접근성은 청소년을 포함 “인구 1인당 도시지역 안에서 시민의 건강·휴양을 위한 휴식공간과 녹지면적” 으로 정의되며, 서울, 경기, 제주, 광역시의 녹지접근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성윤숙 외, 2015: 4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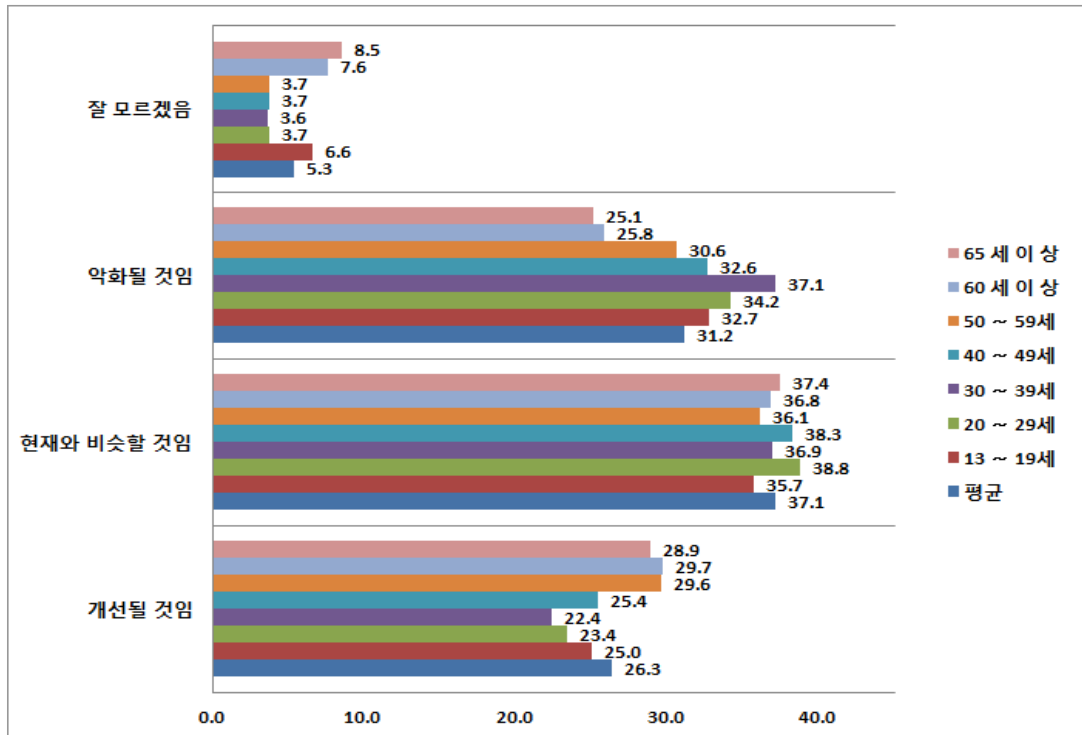
* 출처: 성윤숙, 홍성호 외(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p. 458.

* 원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2014년말 도시공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에서 2015년 8월 15일 인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그림 V-39】 녹지접근성(m²)

그런데 이러한 녹지접근성은 객관 지표로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미래 전망 자료를 살펴보았다.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층의 환경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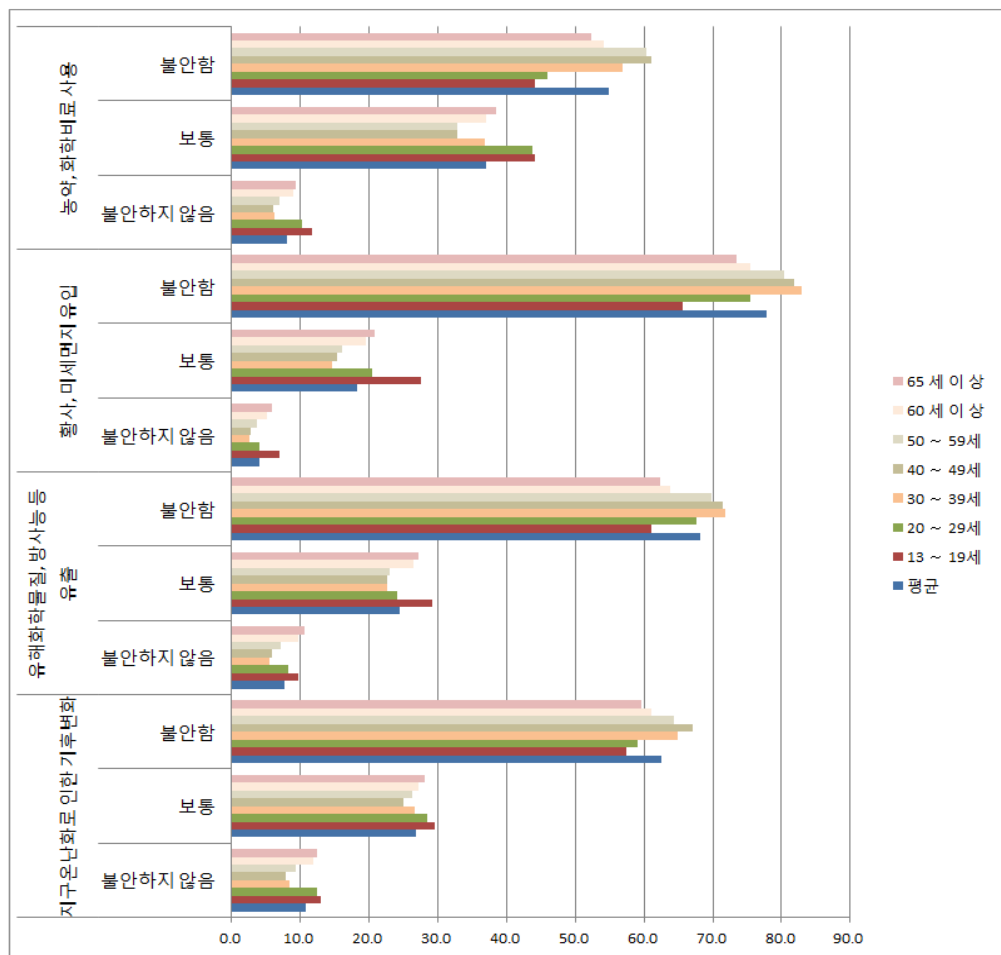
우선 201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대별 데이터가 공개되어있지 않다. 향후 환경 상황 전망에 대하여, 10대는 긍정적인 인식이 25%, 부정적인 인식이 32.7%였고, 20대는 긍정적인 인식이 23.4%, 부정적인 인식이 34.2%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26.2%, 부정적인 인식이 31.9%임을 고려할 때, 10대와 20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 출처: 통계청,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그림 V-40】향후 환경상황 전망(%)

다음으로 여러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황사, 미세먼지 유입에 대한 불안도가 가장 높았고(77.9%),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등 유출(68.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62.5%), 농약, 화학비료 사용(54.8%) 순으로 불안도가 낮게 나타났다. 10대와 20대의 경우 모든 환경문제에 대하여 불안하다는 응답 비중은 다른 연령대별로 낮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높아, 전반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불안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통계청,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그림 V-41】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연령대별)

3) 소결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성 및 청소년 삶의 질 실태를 문제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5>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사교육비 의존을 포함하여 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은 청소년 및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로, 향후에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 교육 영역의 핵심지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율을 청소년 특성별로 관리하고,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율 비율 감소를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청년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역량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 활동이 단지 학교교육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여가활동이 아니라 청소년 역량 함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SDG 4.7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역량 증진을 포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건강 영역에서는 우선 여성 청소년 운동 실천율 저조와 비만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영양상태 개선 및 체육활동 증가 등 신체 건강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인터넷·스마트폰 의존 및 가족 관계 부족 등 청소년의 정서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 등에 대한 적극적이 대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 관련 정책이 문제 해결 중심의 단편적인 접근에서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까지 청소년 건강 영역은 주요 성과 지표로 포함되어 왔지만, 현재 3차 계획에서는 어린이 건강 관련 영역으로 축소됐음을 3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접근이 부재함을 의미한다.

참여·권리 영역의 대부분의 지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소년 권리 및 성 평등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도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참여기구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방식 자체를 참여지향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청소년 참여가 일부 청소년에 의한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복지 영역에서 우리나라 아동 빈곤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다소 높은 편으로, 청소년 정책에서는 교육지원, 건강, 활동 및 참여, 고용, 안전 등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고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조하는 등,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 영역 관련 실태 자료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그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닌 세대 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영역	국가 지속가능성 및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청소년활동·교육지원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사교육비 의존 심각. - 고등교육 민간부담률 및 학업중단을 증가. - 일반 청소년보다 다문화·탈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높음. - 장애인의 대학 진학 요구 증가. - 청소년 역량 낮음, 기존 청소년 활동 분류체계로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역량(SDG 4.7) 개념 포괄하지 못함.
건강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웰빙 증진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 여자 청소년 운동 실천율 저조. - 비만 증가. - 학교 폭력 심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위험 비율 높음. - 부모(특히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부족.
참여·권리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종교, 경제적 혹은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회·경제·정치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 16.7. 모든 차원에서 여론에 응답성이 제고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의적인 의사결정 보장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율 낮음. -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투표율 낮음. - 인권·성평등 관련 인식에 남녀 차이 존재함. - 성평등 문제 개선 필요함.
복지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아동 빈곤율 높음(국제비교).
고용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청년 실업률 증가. - 청년 비니트족 중 학생 비중 커짐. - 청년 취업자 중 1/3은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 여전히 높음.
안전	11.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 조성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 책무성 있는 포용적인 제도 구축 - 거주지 안전에 대한 인식 가정·경제여건에 따라 상이함. -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 가정에서의 체벌문제 여전함.
환경	SDGs 환경 관련 목표(13, 14, 15) - 청소년의 환경문제 민감도 낮음. - 우리나라 에너지, 기후변화 문제 개선 필요.

다음으로 청소년 안전 문제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상황 및 거주 지역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가정-지역사회-학교-청소년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하에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청소년 안전 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경 영역에 대하여 국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사안에 대한 심각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인식 수준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괴리가 크다. 이는 환경문제가 청소년들에게 당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청소년 자신의 역량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 볼 것이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⁶⁴⁾

1) 표본 설계

본 연구에서는 향후 SDGs의 국내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역량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이루어졌으며, 2016년 6월-8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5-24세 청소년 및 청년이다. 조사대상의 범위를 만 15-24세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가치관, 사회 현안, 역량, 참여 의향 등 본 조사의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만15-18세)과 청년(만19-24세) 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조사의 주된 목적이 청소년 활동·참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데 있었으므로, 전기 청소년(아동)보다는 중기 및 후기 청소년 연령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적합하였다.

64) 본 절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구분은 설문조사 연령층 구분에 따른 만 15-18세, 만 19-24세로서, 이는 법적 연령범위보다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본 절에서 실시한 설문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보고서 전반에서 청소년 정책은 만9-24세를 대상으로 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청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예: 청년 일자리).

본 조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모집단 자료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2016년 4월)를 사용하였고, 표본추출틀은 통계청 집계구를 활용하였다. 표본 설계는 1차적으로 17개 시/도, 2차적으로 성별, 3차적으로 연령대에 따른 층화비례배분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가구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도별, 주택유형별 집계구의 모집단 분포에 따라 표본을 배분하였다. 전국적으로 모집단 인구 및 집계구 분포는 <표 V-6>과 같다.

표 V-6 시/도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인구 분포

구분		모집단 인구 분포		
		15-18세	19-24세	전체(15-39세)
서울	남	227,284	417,531	1,842,612
	여	210,957	409,053	1,818,834
부산	남	81,811	153,163	595,755
	여	73,385	134,342	548,913
대구	남	69,101	118,649	438,460
	여	61,108	98,419	393,364
인천	남	74,380	132,166	537,713
	여	69,111	119,861	500,872
광주	남	46,092	71,448	271,793
	여	42,657	64,535	257,997
대전	남	42,673	71,593	280,435
	여	39,141	64,219	260,739
울산	남	33,381	57,505	225,851
	여	29,669	45,123	191,904
세종	남	4,834	7,463	39,281
	여	4,595	6,684	39,569
경기	남	336,925	548,014	2,282,920
	여	313,788	498,723	2,149,462
강원	남	40,320	69,615	251,745
	여	36,401	54,556	216,106

구분		모집단 인구 분포		
		15-18세	19-24세	전체(15-39세)
충북	남	41,687	70,541	272,196
	여	38,477	58,546	240,036
충남	남	52,870	82,437	355,467
	여	48,301	71,684	309,826
전북	남	50,614	79,610	299,037
	여	46,894	69,892	271,028
전남	남	49,930	77,149	291,285
	여	45,646	65,509	256,493
경북	남	66,463	111,016	436,712
	여	58,462	90,170	374,297
경남	남	90,185	145,784	577,646
	여	81,031	117,709	505,322
제주	남	17,701	27,049	105,386
	여	16,276	23,991	97,956
전국	남	1,326,251	2,240,733	9,104,294
	여	1,215,899	1,993,016	8,432,718
	합계	2,542,150	4,233,749	17,537,012

만15-39세 대상 설문조사의 전체 표본은 조사예산을 고려하여 2,500명으로 산정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1.96\%P$ 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만15-24세 표본은 약 973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집계구 당 15명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시/도별로 배분된 표본을 15명으로 나누어 <표 -7>과 같이 표본 집계구 수를 산정하였다. 1차 표본추출 단위는 집계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다. 2차 표본추출 단위는 집계구 내 가구로서, 집계구 내 15가구를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3차 추출단위는 가구 내 개인으로서, 만 15-39세의 모든 가구원을 조사하였다.

표 V-7

시/도별, 성별, 연령별, 집계구 표본 배분 결과

구분		표본 배분 결과		집계구 배분 표본인원 (15-39세)	집계구 배분
		15-18세	19-24세		
서울	남	30	53	469	31
	여	28	52		
부산	남	12	21	161	11
	여	11	18		
대구	남	11	17	124	8
	여	10	14		
인천	남	11	18	148	10
	여	11	17		
광주	남	8	11	84	6
	여	7	10		
대전	남	7	11	87	6
	여	7	10		
울산	남	6	9	72	5
	여	6	8		
세종	남	3	3	30	2
	여	3	3		
경기	남	43	69	564	38
	여	41	63		
강원	남	7	11	78	5
	여	6	9		
충북	남	7	11	84	6
	여	7	9		
충남	남	9	12	103	7
	여	8	11		
전북	남	8	12	90	6
	여	8	11		
전남	남	8	12	89	6
	여	8	10		
경북	남	10	16	120	8
	여	9	13		
경남	남	13	20	153	10
	여	12	16		
제주	남	4	5	44	3
	여	4	5		
전국	남	197	311	2,500	168
	여	186	279		
	합계	383	590		

2) 조사 대상

본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986명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여자는 47.6%, 남자는 52.4%였고, 청소년은 39.5%, 청년은 60.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의 77%가 현재 학생이었고, 23%는 학생이 아니었다. 학생이 아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155명은 고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참여자 중 다문화 가정 및 탈북 배경을 지닌 응답자는 1명에 불과하여 본 조사에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표 V-8 조사 참여자 기본사항

구분	사례수(%)					
성별	여학생	469(47.6)	남학생	517(52.4)		
연령	만 15-18세	389(39.5)	만 19-24세	597(60.5)		
현재 학생	합계	750(77.0)				
	중학생	67(6.8)	고등학생	275(28.2)		
	대학생	403(41.4)	대학원생	5(0.6)		
현재 학생 아님	합계	224(23.0)				
	중졸 이하	4(0.5)	고졸 이하	151(15.5)		
	대졸 이하	68(6.9)	대학원 졸업 이상	1(0.1)		
지역	특별시	165(16.7)	광역시	274(27.8)	도	547(55.6)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	상위 (8-10)	130(13.2)	중위 (4-7)	801(81.2)	하위 (1-3)	55(5.6)
아버지의 최종학력	부모님 안 계심	22(2.2)	초등학교 졸업	10(1.0)		
	중학교 졸업	29(2.9)	고등학교 졸업	435(44.1)		
	2-3년제 대학 졸업	145(14.8)	4년제 대학 졸업	299(30.4)		
	대학원 졸업	21(2.1)	잘 모르겠음	25(2.5)		
어머니의 최종학력	부모님 안 계심	6(0.6)	초등학교 졸업	10(1.0)		
	중학교 졸업	37(3.8)	고등학교 졸업	560(56.8)		
	2-3년제 대학 졸업	148(15.0)	4년제 대학 졸업	182(18.5)		
	대학원 졸업	10(1.0)	잘 모르겠음	33(3.3)		
다문화 및 북한이탈 가정 여부	일반 가정	985(99.9)	다문화 가정	1(0.1)	북한이탈 가정	0(0.0)

- * 주: 1) 중학생: 중학교 재학/휴학
 2) 고등학생: 고등학교 재학/휴학
 3) 대학생: 2-3년제, 4년제 대학교 재학/휴학
 4) 대학원생: 대학원 재학/휴학
 5) 중졸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6) 고졸이하: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중퇴/수로
 7) 대졸이상: 2-3년제 및 4년제 대학교 졸업
 8) 대학원 졸업 이상: 대학원 졸업

3) 설문지 개발 및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앞에서 문헌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은 목표들을 추출하고, 이러한 목표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적절하고 중요한가를 묻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 주체로서 어떠한 인식과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묻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개발된 설문지 초안에 대하여 청소년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 전문가 7인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 각 전문가의 활동 분야 및 전문 분야는 <표 V-9>와 같다. 설문 초안에 대하여 해당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문항에서 제시된 표현에 대한 이해도 및 문항의 적절성을 점검하였다. 설문 조사지는 만 15-18세용과 만 19-24세용으로 구분하였고, 전자 집단은 해당 세대를 지칭하는 표현을 “청소년”으로, 후자 집단은 “청년”으로 제시하였다.

표 V-9 설문지 조사문항 전문가 검토 현황

구분	활동 분야	전문 분야
청소년	학계	청소년정책
	현장	청소년활동
	현장	청소년활동
지속가능발전	현장	지속가능발전 교육
	학계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학계	지속가능발전 지표
	학계	지속가능한 미래변화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을 통하여 개발된 설문 조사 항목은 <표 V-10>과 같다. 본 조사의 문항 수는 총 64개이며,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V-10 청소년 지속가능발전 인식 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 항	
		문항 수	문항번호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1	문47
	삶의 질과 환경	1	문57
지속가능발전 인식	환경/경제/사회 영역 간 관계	5	문58 (1), (2), (3), (6), (7)
	미래 예측	2	문58 (4), (5)
	환경문제 인식	2	문58 (8), (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지속가능발전 목표별 현 상황 인식	19	문59 (1)~(19)
사회이슈 관심 및 또래 영향력	지속가능발전 관련 관심이슈	11	문61 (1)~(10), 문62
	청소년 사회문제 관심 및 영향력	2	문63, 문63-1, 문64
지속가능발전 참여·역량	개인 역량	6	문60 (1)~(6)
	활동 참여의향	8	문65 (1)~(8)
기본 사항	인적 사항	3	배경문항 1-3
	가정 배경	4	배경문항 4-7
총 문항 수		64	

첫 번째 영역인 삶의 만족도는 현재의 만족도, 삶의 질과 환경과의 관련성 등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환경, 경제, 사회 영역 간 우선순위와 형평성, 미래에 대한 예측,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등 9개 문항을 개발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SDGs와 직접 관련된 19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청년 세대 또래의 영향력에 대한 문항 13개로 구성되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지속가능발전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을 진단하기 위하여 개인 역량, 사회문제 관심사, 관련 활동 참여 의향 등을 묻는 문항 14개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영역은 설문 조사자의 기본 인적 사항 및 사회·문화적 배경을 묻는 문항 7개로 구성되어 있다.

(1) 삶의 만족도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한 개인이 삶의 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물음으로써 환경문제와 더 나아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정도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기존 청소년 삶의 질 조사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조사에서는 삶의 질의 개념을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사회발전의 차원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삶 '또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환경 문제(쾌적한 환경 유지, 자연 보호, 오염 예방, 기후변화 대처 등)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련이 없다 ② 별로 관련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련이 있다 ⑤ 매우 관련이 있다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세 영역인 환경, 경제, 사회 간의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도, 형평성 문제, 미래 전망,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등과 관련된 문항을 개발하였다.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 경제성장, 사회적 형평성 등 여러 사안들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통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들 중 어디에 가치를 더 주느냐에 따라 사회발전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불가피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사회는 약한 지속가능성 (weak sustainability)을 추구할 것이며, 반대로 자원의 보존이 경제활동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 지배적인 사회는 강한 지속가능성 (strong sustainability)을 추구할 것이다(Pearce, 1993). 따라서 본

조사 영역에서는 청소년이 지니는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를 확인해 봄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의 방향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기본적인 입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문항 (1)은 국가의 경제 성장이 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환경부(2007) 조사에서도 포함된 바 있다. 문항 (2)와 (3)은 각각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경제 성장과 환경문제 중 우선하는 가치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 (4)와 (5)는 미래에 환경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전망하는데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여기는 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항 (6)과 (7)은 형평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주형선·이선경(2013)의 설문 조사 문항을 수정한 것이다. 문항 (6)에서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문항 (7)에서는 국가 간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1)에서 (7)까지의 문항이 개인의 가치 (value)를 묻는다면, 마지막 문항 (8)과 (9)는 실제 환경문제에 대한 사실적인(factual) 영역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 문항에 해당된다.

표 V-11 지속가능발전 인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는 SDGs의 세부 목표 가운데 개발도상국에 보다 적합한 내용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추진하기에 적합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19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에게 <표 V-12>에 제시된 대로 19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 V-1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①	②	③	④	⑤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양질의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①	②	③	④	⑤
(9) 청년 실업을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①	②	③	④	⑤
(10)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①	②	③	④	⑤
(1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①	②	③	④	⑤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①	②	③	④	⑤
(1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①	②	③	④	⑤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①	②	③	④	⑤
(16)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①	②	③	④	⑤
(1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①	②	③	④	⑤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⑤
(19)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이슈 관심 및 또래 영향력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지속가능발전의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한 역량 및 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여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래 표에서 제시된 문항들은 모두 SDGs 목표와 관련성이 깊다. 우선 문항 (1)은 SDG 5(성 평등), (2)와 (4)는 SDG 10(불평등), (3)는 SDG 15(생태계 보호), (10)은 SDG 13(기후변화), (5)는 SDG 8(일자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나머지 문항은 SDGs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국가 지속가능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속가능성에 저해가 되는 요인에 해당된다. 문항 (6)은 고용과 복지 정책에 있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를 다루며, (7)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안전성의 문제를 다루며, SDG 7(에너지)과 16(참여적 거버넌스)과도 관련된다. 문항 (8)과 (9)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전반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배경적 요인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관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V-13 지속가능발전 관련 관심이슈

문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 계층 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3)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①	②	③	④	⑤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연금 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 퇴직,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	①	②	③	④	⑤
(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①	②	③	④	⑤

또한 이들 사회 문제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 세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귀하의 또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 ② 계층 간 불평등
- ③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 ④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⑤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 ⑥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⑦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 ⑧ 남한과 북한의 갈등
- 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⑩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다음으로는 해당 세대의 일반적인 사회문제 관심도와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지속가능발전 참여 의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 귀하는 귀하의 또래가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 ④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 (위 문항에서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응답자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② 취미, 연애 등 개인주의 라이프 스타일
- ③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 ④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 ⑤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 ⑥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⑦ 기타:

㉔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귀하 또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영향력이 없다 ② 별로 영향력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영향력이 있다 ⑤ 매우 영향력이 있다

지속가능발전 참여·역량

다음으로 청소년 스스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문항 (1)은 SDGs의 교육 목표와 전반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항 (2)는 SDGs 교육 목표 가운데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역량으로, 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포함하였다. 문항 (3)은 SDGs의 환경 관련 목표 가운데 기후변화(SDG 13)와 환경오염(SDG 15)를 하나로 아울러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문항 (4)와 (5)는 경제 영역(SDG 8, 9)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제적 자립 역량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에 영향을 주는 여러 현안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항 (6)은 SDGs의 이행 기제인 거버넌스(SDG 16)와 관련이 깊으며,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과정에서 정책 의사결정 참여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V-14 지속가능발전관련 개인역량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①	②	③	④	⑤

마지막으로, 다음 <표 V-15>에서와 같이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분야들을 제시하고, 각 사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문항 (1), (2), (3)은 이미 수원 의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문항 (4)는 친환경적 소비양식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1) - (4) 문항은 지속가능발전 및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정보 획득이라는 SDG 12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문항 (5), (6)은 SDGs와 관련된 교육 세부 목표 가운데 문화보존 및 문화다양성 증진과 같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의향을 묻는다. 문항 (7), (8)은 SDG 16과 17과 관련되며, 사회 발전에 필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의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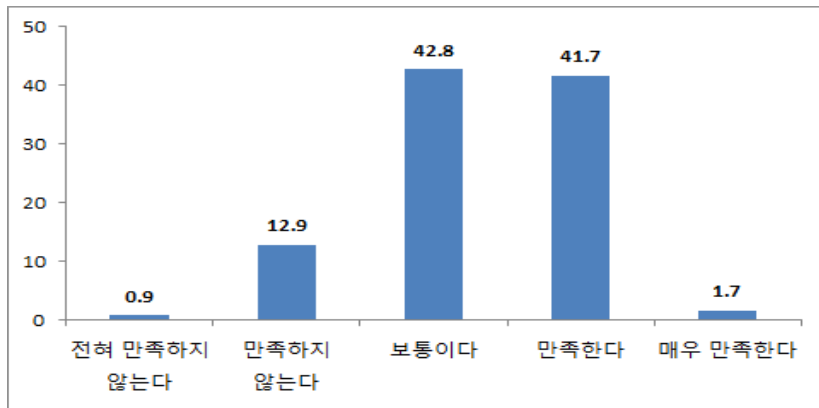
표 V-15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문항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3. 설문 조사 결과

1) 삶의 질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먼저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보통 이 42.8%, 만족 이 43.4%로 보통 이상의 답변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래 <표 V-16>에서와 같이 남녀 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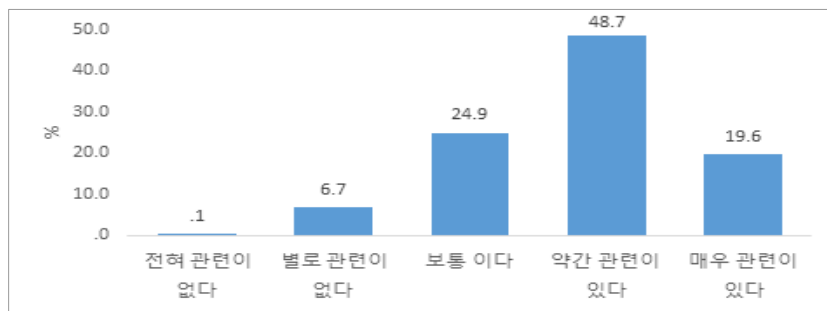


【그림 V-42】 삶의 만족도(%)

표 V-16 삶의 만족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75	3.30	.748	
성별	남자	513	3.31	.763	-.491
	여자	469	3.29	.748	
연령	만15~18세	363	3.29	.725	.572
	만19~24세	613	3.31	.761	

다음으로 좋은 삶 또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데 환경 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68.3%가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고,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6.8%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삶의 질의 개념에 좋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림 V-43】 좋은 삶, 양질의 삶 유지에 있어 환경 문제 관련 정도(%)

이를 성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별로는 청소년 집단보다 청년 집단에서 관련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낳은 이유로는 청년 집단이 청소년 집단에 비하여 삶의 질의 개념에 대해 평소 생각해볼 기회가 더 있었거나, 혹은 삶의 질을 고민함에 있어서 개인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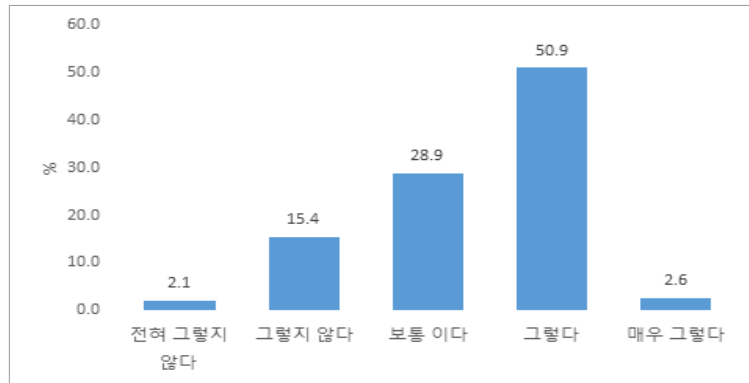
표 V-17 좋은 삶, 양질의 삶 유지에 있어 환경 문제 관련 정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81	.83	
성별	남자	517	3.80	.82	-.34
	여자	469	3.82	.84	
연령	만15~18세	389	3.73	.88	-2.38*
	만19~24세	597	3.86	.79	

주) *p<.05 **p<.01 ***p<.001

2)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세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응답자의 53.5%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인식도 17.5% 정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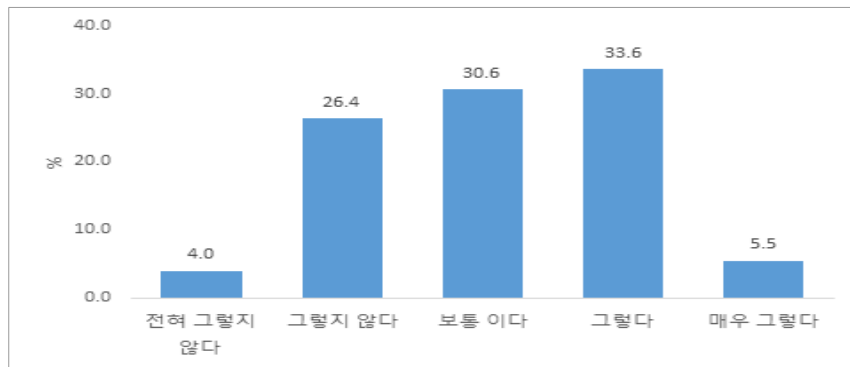


【그림 V-44】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표 V-18 지속가능발전 인식(1)-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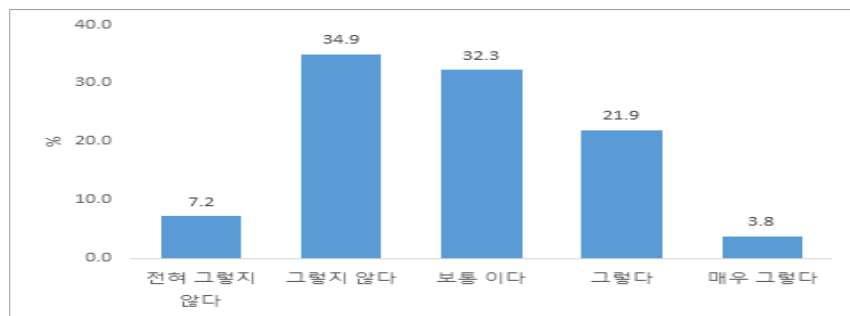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7	.85	-1.13
성별	남자	517	3.36	.83	
	여자	469	3.37	.87	
연령	만15~18세	389	3.40	.82	1.07
	만19~24세	597	3.34	.87	

그러나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감소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1%만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인식도 30.4%로 높았다. 따라서 두 문항 결과를 종합해보면, 응답자는 국민소득 증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국민소득 증가가 반드시 소득 재분배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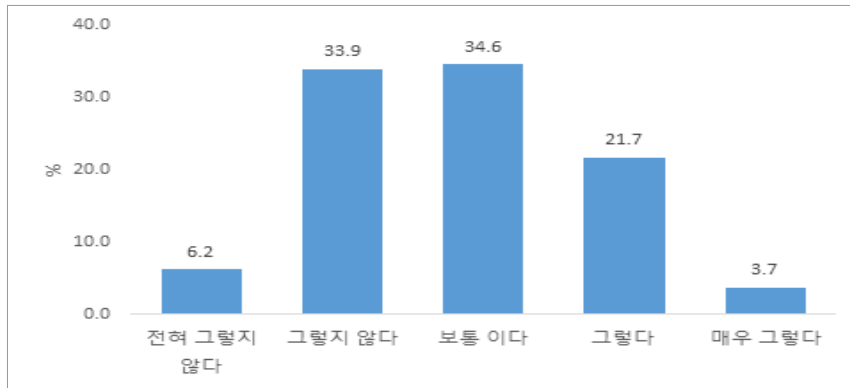
【그림 V-45】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 파괴는 어쩔 수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은 25.7%에 머물렀으나, 부정적인 답변은 42.1%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지속가능발전의 세 축인 경제, 사회, 환경 간의 관계로 해석해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청년들은 경제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거나 이 둘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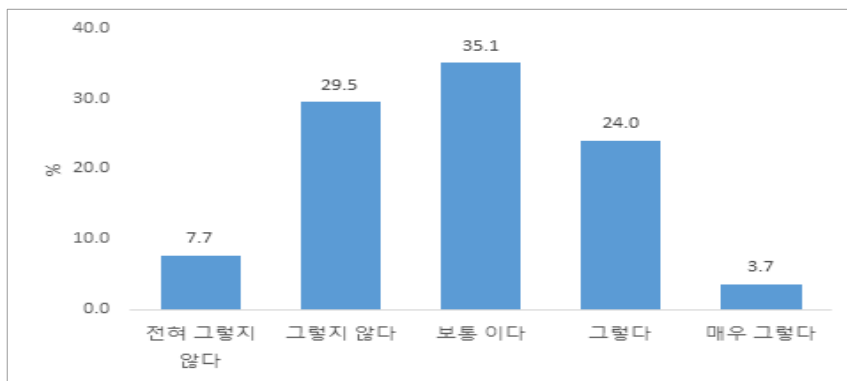
【그림 V-46】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으로 환경문제를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25.4%)보다는 부정적인 답변(40.1%)의 비율이 높았고, 보통이라는 답변도 34.6%로 나타나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는 볼 수 없었다. 다만 성별로는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림 V-47】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다음으로 노년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은 27.7%인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37.2%로 부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해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위 문항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청년들 사이에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의 비율이 높지 않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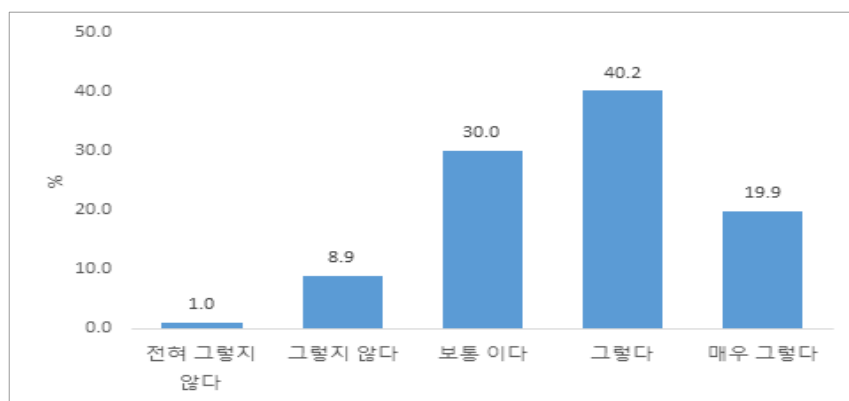
【그림 V-48】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표 V-19 지속가능발전 인식(5)-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6	.99	
성별	남자	517	2.93	.99	2.25*
	여자	469	2.79	.98	
연령	만15~18세	389	2.92	.98	1.51
	만19~24세	597	2.83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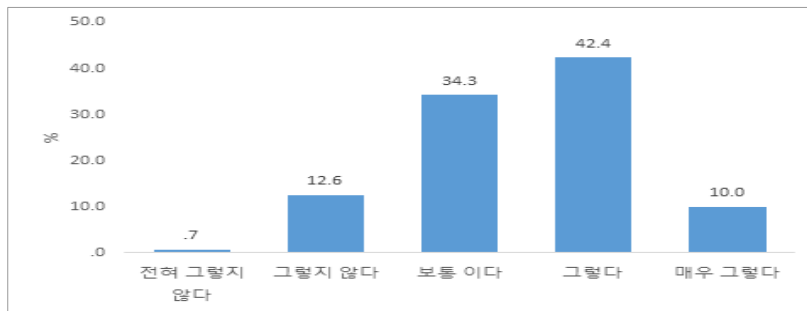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국가 발전 계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60.1%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 9.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기본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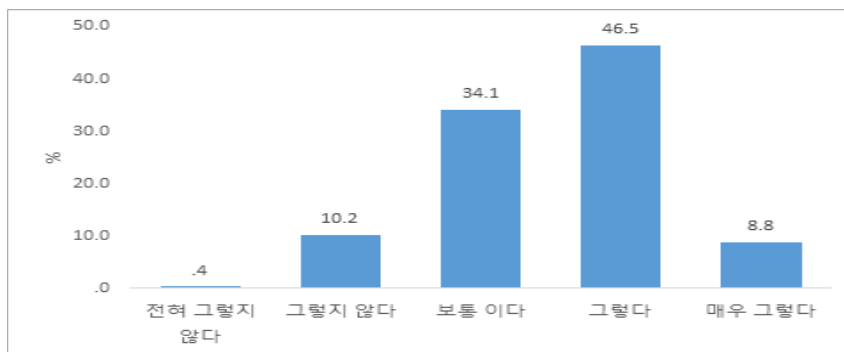
【그림 V-49】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오염물질 배출공장을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은 안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52.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3.3%로 높지 않았다. 다만 위 문항의 결과와 비교하면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인식의 정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50】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 인지를 묻는 두 문항을 살펴보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중국이라는 답변이 55.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10.6%에 비해 훨씬 높았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중국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며 계절별로 중국 요인의 비중이 높거나 낮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외의 미세먼지 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30-50%에 이른다.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청년들이 민감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사회와 미디어에서 유통되는 부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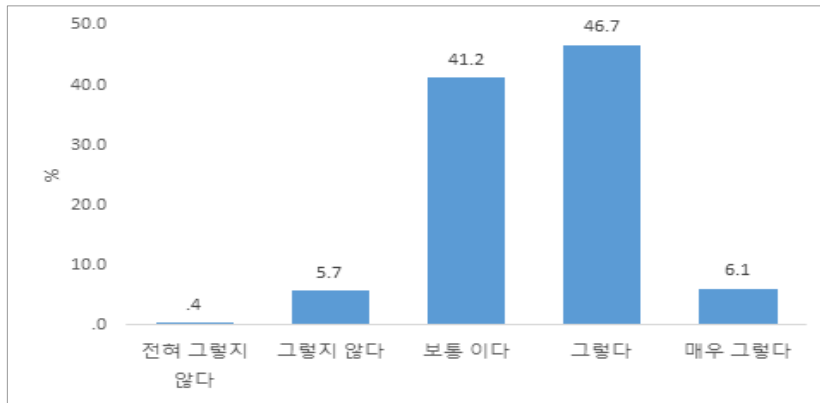


【그림 V-51】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라는 비율도 41.2%로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6.1%로 매우 낮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50년간 누적 배출 세계 11위이고, 2011년 기준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30년까지

65)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미세먼지의 모든 것. <http://www.me.go.kr/issue/finedust/>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⁶⁶⁾. 청소년·청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5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리나라 청소년·청년의 인식을 종합한 결과는 아래 <표 -20>과 같다. 우선 (6), (7) 문항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서 각각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3.69점), 국가 간(3.48점) 형평성에 관련되며, 우리나라 청소년·청년들이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형평성에 비해 국가 간 형평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약간 낮았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 미치는 영향(1번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 3.37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경제성장의 중요성(2, 3번 문항)에 대해서는 이보다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낮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청년들이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빈부격차 및 환경파괴 문제보다 반드시 우선사항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표 -21>에서와 같이 문항 (1)과 (2)은 $r=0.456$ 으로 상관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과 개인의 삶의 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경제성장이 빈부격차 문제에 우선한다는 입장이 서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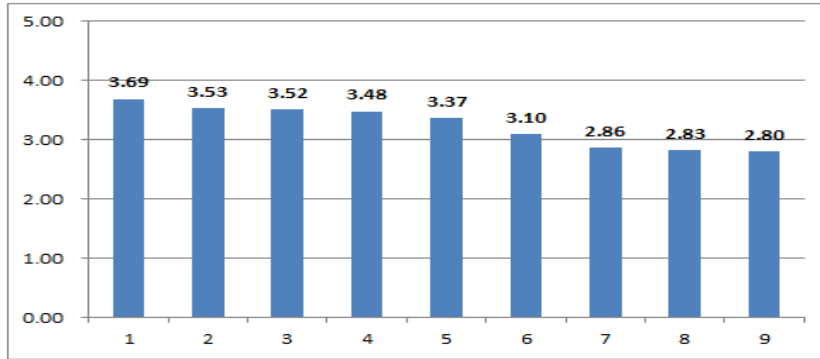
66) 출처: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2>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표 V-20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체)

문항		평균
(1)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3.37
(2)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3.10
(3)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2.80
(4)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2.83
(5)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2.86
(6)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3.69
(7)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3.48
(8)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3.53
(9)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3.52

다음으로 환경문제와 관련된 (3), (4), (5)번 문항의 결과를 보면,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미래 환경에 대한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표-21>에서와 같이 문항 간 상관분석 결과를 볼 때, (3), (4), (5) 간의 상관관계가 $r=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경제성장 우위, 과학기술 낙관론, 미래 환경 질 예측 간의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실관계 인식 수준을 알아보는 (8), (9)번 문항을 살펴보면,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사안에 따라 부정확한 정보를 수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인식과 관련된 9개 문항과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에서 환경의 중요성 등 2개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문항 모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과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와 사회 차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개인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다소 관념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림 V-53】 지속가능발전 인식 (전체)

표 V-21 지속가능발전 인식 (상관계수)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053	.051	.022	.036	.051	.012	-.027	-.059	-.081
삶의 질과 환경관계	-.016	-.047	-.225	-.185	-.129	.265	.187	.123	.108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1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202	1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456	.335	1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304	.519	.322	1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317	.408	.341	.541	1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036	-.093	.043	-.125	-.016	1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114	-.051	.118	.004	.004	.343	1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083	.130	.058	.107	.113	.233	.227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13	.103	.133	.059	.067	.330	.293	.36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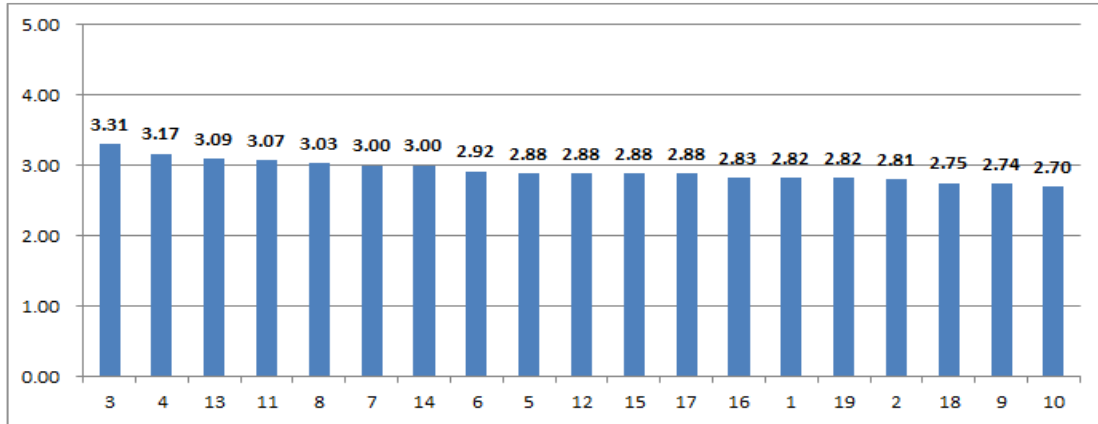
주) *p<.05 **p<.01 ***p<.001

3) SDGs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SDGs의 주요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V-22>와 같다. 19개 문항 중 평균 3점(보통) 이상은 문항은 7개로 많지 않다. 상위 점수 항목으로는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3.31점), (4) 양질의 학교교육(3.17점),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3.09점),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3.07점),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3.03점) 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 (3), (4), (13)은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이 깊은 요소이다. 하위 점수 항목으로는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9)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10)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표 V-2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문항		평균
(1)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2.82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2.81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3.31
(4)	양질의 학교교육	3.17
(5)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2.88
(6)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2.92
(7)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3.00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3.03
(9)	청년 실업률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2.74
(10)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2.70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3.07
(1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2.88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3.09
(1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3.00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2.88
(16)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2.83
(1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2.88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2.75
(19)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2.82



【그림 V-5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전체)

SDGs 관련 항목들 간에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V-23>과 같이, (19) 아동·여성 폭력과 (20) 시민 참여의 상관성이 가장 높고($r=0.658$), (9) 청년 일자리와 (10) 노동자 권리 간의 상관성도 그 다음으로 높았다($r=0.635$). (9)와 (10) 문항은 (1), (19) 문항과의 상관성도 높게 나타나 일자리와 노동권을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참여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14-17번 문항 간의 상관성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V-2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상관계수)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2	.640	1																	
3	.331	.298	1																
4	.379	.304	.532	1															
5	.505	.472	.348	.470	1														
6	.457	.502	.288	.355	.556	1													
7	.427	.447	.327	.335	.417	.548	1												
8	.364	.376	.316	.278	.321	.355	.457	1											
9	.571	.527	.300	.375	.483	.439	.424	.480	1										
10	.541	.529	.283	.360	.469	.454	.442	.367	.635	1									
11	.350	.390	.325	.362	.358	.392	.377	.352	.371	.460	1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477	.453	.290	.345	.431	.483	.457	.360	.448	.523	.467	1							
13	.376	.355	.385	.363	.390	.336	.396	.377	.416	.402	.383	.481	1						
14	.426	.421	.293	.347	.445	.463	.422	.407	.485	.484	.427	.403	.571	1					
15	.454	.475	.287	.265	.421	.464	.460	.425	.503	.500	.432	.466	.443	.571	1				
16	.464	.497	.233	.260	.433	.448	.408	.410	.497	.496	.395	.469	.426	.474	.621	1			
17	.463	.470	.248	.329	.428	.455	.411	.439	.465	.498	.441	.473	.461	.509	.515	.626	1		
18	.478	.485	.276	.293	.428	.458	.485	.354	.493	.538	.368	.530	.431	.458	.511	.520	.526	1	
19	.532	.534	.309	.305	.442	.512	.491	.408	.559	.562	.443	.535	.444	.486	.533	.534	.495	.658	1

SDGs 관련 항목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성별, 연령층별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대기오염 등 오염문제에 대한 평균값은 남자는 2.78점, 여자는 2.89점으로 여자가 남자가 유의미하게 높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에 대한 평균값은 남자가 2.84점, 여자가 2.66점으로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연령층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2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인식

문항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전체		986	2.82	.96	t=.75	연령 (세)	만 15-18	389	2.85	.95	t=.90
	성별	남	517	2.84	.96			만 19-24	597	2.80	.97	
		여	469	2.80	.97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전체		986	2.81	.96	t=.24	연령 (세)	만 15-18	389	2.84	.97	t=.82
	성별	남	517	2.82	.95			만 19-24	597	2.79	.96	
		여	469	2.80	.98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전체		986	3.31	.87	t=-.33	연령 (세)	만 15-18	389	3.35	.84	t=1.03
	성별	남	517	3.31	.88			만 19-24	597	3.29	.89	
		여	469	3.32	.86							
양질의 학교교육	전체		986	3.17	.90	t=-.07	연령 (세)	만 15-18	389	3.15	.91	t=-.40
	성별	남	517	3.17	.90			만 19-24	597	3.18	.89	
		여	469	3.17	.89							

문항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전체		986	2.88	.92	t=.21	연령 (세)	만 15-18	389	2.86	.90	t=-.34
	성별	남	517	2.88	.91			만 19-24	597	2.88	.93	
		여	469	2.87	.93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전체		986	2.92	.93	t=1.68	연령 (세)	만 15-18	389	2.95	.91	t=.91
	성별	남	517	2.97	.92			만 19-24	597	2.90	.95	
		여	469	2.87	.94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전체		986	3.00	.90	t=1.74	연령 (세)	만 15-18	389	3.03	.85	t=.99
	성별	남	517	3.05	.88			만 19-24	597	2.98	.93	
		여	469	2.95	.92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전체		986	3.03	.84	t=.62	연령 (세)	만 15-18	389	3.08	.84	t=1.44
	성별	남	517	3.05	.84			만 19-24	597	3.00	.85	
		여	469	3.02	.85							
청년 실업을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전체		986	2.74	.97	t=.06	연령 (세)	만 15-18	389	2.75	.93	t=.47
	성별	남	517	2.74	.97			만 19-24	597	2.72	.99	
		여	469	2.73	.97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전체		986	2.70	.94	t=.72	연령 (세)	만 15-18	389	2.74	.91	t=.82
	성별	남	517	2.73	.92			만 19-24	597	2.69	.95	
		여	469	2.68	.95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전체		986	3.07	.89	t=-1.16	연령 (세)	만 15-18	389	3.09	.89	t=.70
	성별	남	517	3.04	.90			만 19-24	597	3.05	.89	
		여	469	3.10	.88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전체		986	2.88	.93	t=.81	연령 (세)	만 15-18	389	2.93	.94	t=1.31
	성별	남	517	2.91	.93			만 19-24	597	2.85	.93	
		여	469	2.86	.94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전체		986	3.09	.87	t=-.23	연령 (세)	만 15-18	389	3.08	.89	t=-.13
	성별	남	517	3.08	.87			만 19-24	597	3.09	.86	
		여	469	3.10	.87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전체		986	3.00	.85	t=-.57	연령 (세)	만 15-18	389	2.98	.82	t=-.55
	성별	남	517	2.99	.86			만 19-24	597	3.02	.87	
		여	469	3.02	.84							

문항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구분		사례수 (명)	평균	표준 편차	t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전체		986	2.88	.87	t=-.12	연령 (세)	만 15-18	389	2.88	.88	t=-.06
	성별	남	517	2.88	.85			만 19-24	597	2.88	.86	
		여	469	2.88	.88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전체		986	2.83	.87	t=-2.08*	연령 (세)	만 15-18	389	2.83	.87	t=-.01
	성별	남	517	2.78	.87			만 19-24	597	2.87	.87	
		여	469	2.89	.8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전체		986	2.88	.87	t=-.58	연령 (세)	만 15-18	389	2.89	.85	t=.38
	성별	남	517	2.86	.85			만 19-24	597	2.87	.83	
		여	469	2.90	.83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전체		986	2.75	.96	t=3.04***	연령 (세)	만 15-18	389	2.82	.94	t=1.77
	성별	남	517	2.84	.96			만 19-24	597	2.71	.96	
		여	469	2.66	.94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전체		986	2.82	.89	t=1.52	연령 (세)	만 15-18	389	2.88	.86	t=1.51
	성별	남	517	2.86	.89			만 19-24	597	2.79	.90	
		여	469	2.78	.88							

주) *p<.05 **p<.01 ***p<.001

4)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이슈 관심 및 또래 영향력

다음으로 사회문제 관심 관련 10개 항목 중 먼저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에 대한 관심도는 평균 3.35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가 3.49점으로 남자 3.22점보다 높았고, 청년층이 3.39점으로 청소년층 3.2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서 우리 사회 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V-25 사회이슈 관심(1)-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5	.80	t= -5.47***
성별	남자	517	3.22	.79	
	여자	469	3.49	.79	
연령	만15~18세	389	3.29	.87	t= -1.94*
	만19~24세	597	3.39	.75	

주) *p<.05 **p<.01 ***p<.001

두 번째 계층 간 불평등 '항목에 대하여 전체 평균 3.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남녀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 청년층이 청소년층보다 계층 간 불평등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26 사회이슈 관심(2)-계층 간 불평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6	.83	t= -1.59
성별	남자	517	3.32	.83	
	여자	469	3.41	.83	
연령	만15~18세	389	3.29	.88	t= -2.14*
	만19~24세	597	3.41	.79	

주) *p<.05 **p<.01 ***p<.001

세 번째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 점수는 평균 3.23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고, 청년층이 청소년층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27 사회이슈 관심(3)-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23	.82	t= -1.88
성별	남자	517	3.18	.81	
	여자	469	3.28	.83	
연령	만15~18세	389	3.14	.83	t= -2.77**
	만19~24세	597	3.29	.81	

주) *p<.05 **p<.01 ***p<.001

네 번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항목은 평균 2.89점으로 다른 이슈에 비해 관심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자가 2.99점으로 남자 2.79점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여자가 남자보다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V-28 사회이슈 관심(4)-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9	.94	
성별	남자	517	2.79	.96	t= -3.22***
	여자	469	2.99	.91	
연령	만15~18세	389	2.83	.96	t= -1.51
	만19~24세	597	2.92	.93	

주) *p<.05 **p<.01 ***p<.001

다음은 다섯 번째 항목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은 평균 3.55점으로 9개 사회문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청년층의 점수가 3.68점으로, 청소년층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아 해당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표 V-29 사회이슈 관심(5)-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55	.91	
성별	남자	517	3.56	.94	t= .26
	여자	469	3.55	.87	
연령	만15~18세	389	3.36	.97	t= -5.25***
	만19~24세	597	3.68	.85	

주) *p<.05 **p<.01 ***p<.001

여섯 번째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항목에 대해서도 평균 3.38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관심을 나타냈다. 청년층이 3.51점으로 청소년층 3.18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문항에서와 같이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30 사회이슈 관심(6)-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8	.85	
성별	남자	517	3.36	.91	t= -.57
	여자	469	3.39	.78	
연령	만15~18세	389	3.18	.90	t= -5.93***
	만19~24세	597	3.51	.80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일곱 번째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항목의 전체 평균 점수는 3.08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년층이 평균 3.14점으로 청소년 3.0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 사회이슈 관심(7)-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8	.86	
성별	남자	517	3.12	.87	t= 1.27
	여자	469	3.05	.84	
연령	만15~18세	389	3.00	.89	t= -2.55**
	만19~24세	597	3.14	.83	

주) *p<.05 **p<.01 ***p<.001

여덟 번째 남한과 북한의 갈등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 3.09점으로 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남자가 평균 3.14점으로 여자 3.0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V-32 사회이슈 관심(8)-남한과 북한의 갈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9	.89	
성별	남자	517	3.14	.91	t= 1.93*
	여자	469	3.03	.86	
연령	만15~18세	389	3.08	.91	t= -.14
	만19~24세	597	3.09	.88	

주) *p<.05 **p<.01 ***p<.001

아홉 번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 평균 3.02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여자가 3.11점으로 남자 2.95점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점수가 높았다. 연령층별 관심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3 사회이슈 관심(9)-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2	.83	
성별	남자	517	2.95	.87	t= -3.04***
	여자	469	3.11	.77	
연령	만15~18세	389	2.98	.85	t= -1.27
	만19~24세	597	3.05	.81	

주)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평균 3.14점으로 보통 수준의 관심도를 나타냈다. 성별,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34 사회이슈 관심(10)-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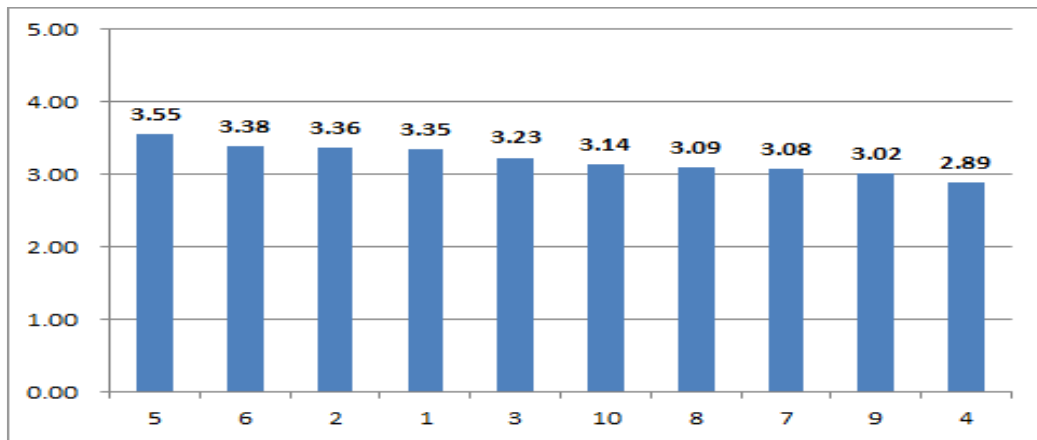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14	.81	
성별	남자	517	3.09	.84	t= -1.85
	여자	469	3.19	.76	
연령	만15~18세	389	3.12	.85	t= -.52
	만19~24세	597	3.15	.78	

주) *p<.05 **p<.01 ***p<.001

사회문제 관련 10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를 비교해 보면 <표 -35>, [그림 -55]와 같다. 평균 점수는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2) 계층 간 불평등,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등의 순으로 높아 주로 경제·사회적 형평성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표 -36>에서와 같이 이들 네 문항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이들 문제를 각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문제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V-35 사회이슈 관심 (전체)

문항		평균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3.35
(2)	계층 간 불평등	3.36
(3)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3.23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2.89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3.55
(6)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연금 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 퇴직,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	3.38
(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3.08
(8)	남한과 북한의 갈등	3.09
(9)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3.02
(10)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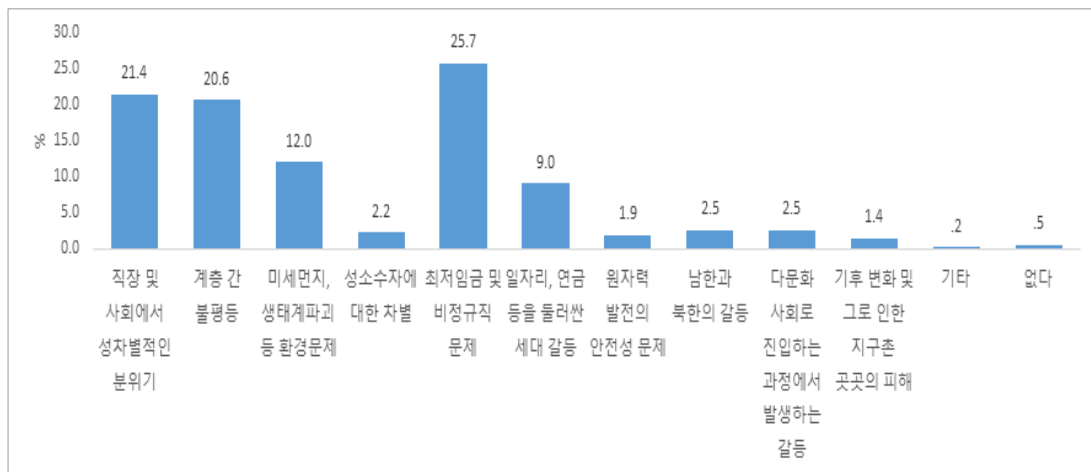


【그림 V-55】 사회이슈 관심 (전체)

표 V-36 사회이슈 관심 (상관계수)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1									
계층 간 불평등	.488	1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294	.389	1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385	.281	.307	1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401	.437	.309	.266	1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393	.422	.324	.269	.558	1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222	.276	.395	.306	.239	.365	1			
남한과 북한의 갈등	.184	.324	.339	.275	.263	.310	.503	1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274	.297	.333	.396	.238	.277	.410	.553	1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269	.318	.442	.332	.312	.345	.487	.502	.530	1

다음으로 이들 10개 사회문제에 대해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가 무엇인지 1-3순위로 표시한 결과를 1순위 비율을 중심으로 나타내면 [그림 V-56]과 같다. 우선 전체 집단으로 볼 때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가 2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차별 문제 21.4%, 계층 간 불평등 문제 20.6%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 관련 사안 중에서는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가 12%로 가장 높았다.



【그림 V-56】 또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다음으로 이 결과를 성별,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37>과 같다. 남자는 사회문제 가운데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6.9%), 계층 간 불평등(20.7%), 성차별(19.1%) 등의 순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였다. 반면 여자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4.3%), 성차별(23.9%), 계층 간 불평등(20.5%)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층 간 불평등보다 남녀 간의 불평등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우선 청소년층에서는 성차별(20.6%), 계층 간 불평등(19.1%),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17.2%) 순으로 나타난 반면, 청년층에서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31.2%), 성차별(21.9%), 계층 간 불평등(21.6%) 순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또한 청소년층은 적극 해결해야 할 문제 1순위로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16.7%)를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꼽아, 청년층 8.9%와 큰 대조를 이루었다.

표 V-37 도래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1순위)

구분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 (명)	계층 간 불평등 % (명)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 (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명)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 (명)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명)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 (명)	남한과 북한의 갈등 % (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명)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 (명)	기타 % (명)	없다 % (명)	chi-square
전체		21.4 (211)	20.6 (203)	12.0 (118)	2.2 (22)	25.7 (253)	9.0 (89)	1.9 (19)	2.5 (25)	2.5 (25)	1.4 (14)	0.2 (2)	0.5 (5)	
성별	남자	19.1 (99)	20.7 (107)	11.8 (61)	2.1 (11)	26.9 (139)	9.7 (50)	2.3 (12)	3.3 (17)	2.3 (12)	1.0 (5)	0.0 (0)	0.8 (4)	12.59
	여자	23.9 (112)	20.5 (96)	12.2 (57)	2.3 (11)	24.3 (114)	8.3 (39)	1.5 (7)	1.7 (8)	2.8 (13)	1.9 (9)	0.4 (2)	0.2 (1)	
연령대(세)	만 15 18	20.6 (80)	19.1 (74)	16.7 (65)	2.1 (8)	17.2 (67)	10.8 (42)	2.1 (8)	4.4 (17)	3.6 (14)	2.3 (9)	0.0 (0)	1.3 (5)	57.22***
	만 19 24	21.9 (131)	21.6 (129)	8.9 (53)	2.3 (14)	31.2 (186)	7.9 (47)	1.8 (11)	1.3 (8)	1.8 (11)	0.8 (5)	0.3 (2)	0.0 (0)	

주) *p<.05 **p<.01 ***p<.001

또한 이번에는 1, 2, 3순위를 합하여 사안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0.4%), 계층 간 불평등(18.1%), 성차별(15.5%), 세대갈등(15.5%),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1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세대 갈등 문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세대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할 1순위로 꼽지는 않았지만 2, 3순위로는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0.3%), 계층 간 불평등(18.8%), 세대갈등(16.5%), 성차별(14.2%)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는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0.4%), 계층 간 불평등(17.3%), 성차별(16.8%), 세대갈등(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의 성차별과 세대갈등의 순위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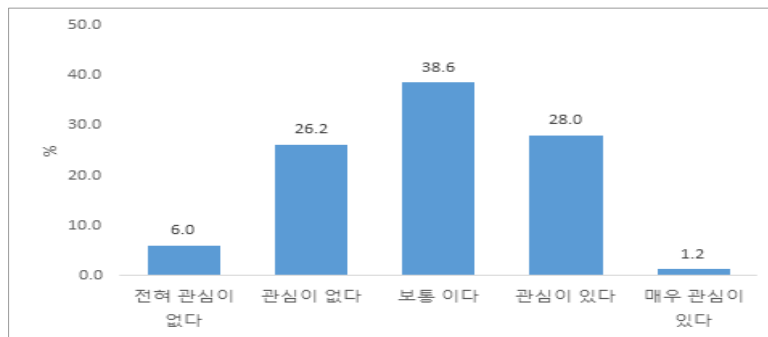
표 V-38 포레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1+2+3순위)

구분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 (명)	계층 간 불평등 % (명)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 (명)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 (명)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 (명)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 (명)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 (명)	남한과 북한의 갈등 % (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 (명)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 (명)	기타 % (명)	없다 % (명)	chi-square
전체		15.5 (454)	18.1 (532)	10.7 (315)	3.9 (116)	20.4 (598)	15.5 (454)	3.4 (99)	4.5 (133)	3.8 (113)	3.9 (114)	0.1 (4)	0.2 (5)	
성별	남자	14.2 (218)	18.8 (289)	11.0 (169)	3.5 (54)	20.3 (312)	16.5 (254)	3.8 (58)	4.8 (73)	2.9 (45)	3.8 (59)	0.1 (1)	0.3 (4)	20.12*
	여자	16.8 (236)	17.3 (243)	10.4 (146)	4.4 (62)	20.4 (286)	14.3 (200)	2.9 (41)	4.3 (60)	4.9 (68)	3.9 (55)	0.2 (3)	0.1 (1)	
연령	만 15 18	15.0 (173)	16.8 (194)	13.0 (150)	3.6 (42)	17.3 (199)	13.0 (150)	4.7 (54)	6.1 (70)	5.1 (59)	4.9 (57)	0.0 (0)	0.4 (5)	71.48***
	만 19 24	15.8 (281)	18.9 (338)	9.2 (165)	4.1 (74)	22.4 (399)	17.0 (304)	2.5 (45)	3.5 (63)	3.0 (54)	3.2 (57)	0.2 (4)	0.0 (0)	

주) *p<.05 **p<.01 ***p<.001

연령층별로 비교하면, 청소년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문제(17.3%), 계층 간 불평등(16.8%), 성차별(15%), 미세먼지,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와 세대갈등(각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청년층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2.4%), 계층 간 불평등(18.9%), 세대갈등(17%), 성차별(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은 성차별과 환경문제를 더 우선사항으로 인식한 반면 청년들은 계층 간 불평등과 세대갈등을 더 우선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남녀간, 청소년·청년층 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청소년·청년 세대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2.92점으로 보통(3점) 수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였다. 관심이 있다 는 응답은 전체의 29.2%이고, 관심이 없다 는 32.2%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그리고 청소년이 청년보다 또래의 관심도가 낮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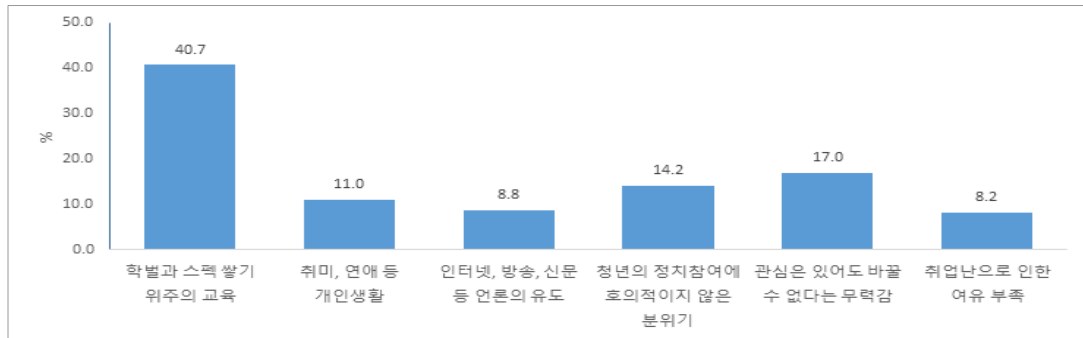
【그림 V-57】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표 V-39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2	.91	
성별	남자	517	2.87	.90	t= -2.05*
	여자	469	2.99	.91	
연령	만15~18세	389	2.66	.95	t= -7.48***
	만19~24세	597	3.10	.84	

주) *p<.05 **p<.01 ***p<.001

위 문항에 관심이 없다 (32.2%) 라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벌과 스펙쌓기 위주의 교육 (40.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17%), 청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14.2%),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8.8%),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8.2%)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표 V-40>에서와 같이, 해당 항목에 대하여 청소년층과 청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두 연령층 모두 1위는 같았으나, 청소년층에서는 청년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19.8%)가 2위, 개인생활과 무력감이 공동 3위(13.2%)로 나타난 반면, 청년층에서는 무력감 (22.2%)이 2위, 취업난(15.6%)이 3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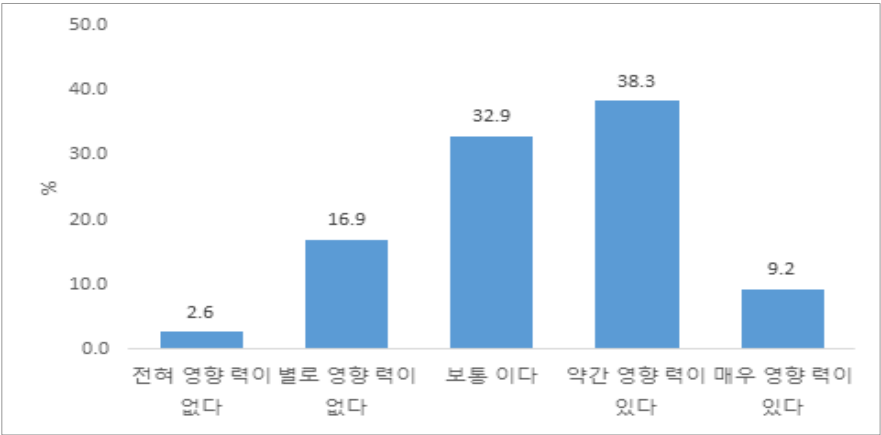
【그림 V-58】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

표 V-40 또래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주된 이유

구분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명)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명)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명)	청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명)	관심은 있어도 바꿀수 없다는 무력감 %(명)	취업난 으로 인한 여유 부족 %(명)	chi- square
전체		40.7(129)	11.0(35)	8.8(28)	14.2(45)	17.0(54)	8.2(26)	
성 별	남자	43.5(77)	11.3(20)	9.6(17)	11.3(20)	17.5(31)	6.8(12)	4.48
	여자	37.1(52)	10.7(15)	7.9(11)	17.9(25)	16.4(23)	10.0(14)	
연 령	만15~18세	42.3(77)	13.2(24)	8.8(16)	19.8(36)	13.2(24)	2.7(5)	30.66***
	만19~24세	38.5(52)	8.1(11)	8.9(12)	6.7(9)	22.2(30)	15.6(21)	

주) *p<.05 **p<.01 ***p<.001

인식 조사 관련 마지막 항목으로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을 조사한 결과 평균 3.3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47.5%가 긍정적으로, 19.5%가 부정적으로 답하여 긍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더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청년층이 청소년층보다 또래의 영향력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V-59】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표 V-41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또래의 영향력 정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5	.95	t= -2.06*
성별	남자	517	3.29	.99	
	여자	469	3.41	.91	
연령	만15~18세	389	3.14	1.06	t= -5.35***
	만19~24세	597	3.48	.85	

주) *p<.05 **p<.01 ***p<.001

5) 지속가능발전 관련 역량 및 참여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해 가기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져야 할 개인 및 사회적 차원의 역량에 대하여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개인 역량과 관련하여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에 대한 5점 척도 문항에서 평균 점수 3.38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개인 역량 관련 문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이다.

표 V-42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1)-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8	.80	
성별	남자	517	3.37	.76	t= -.52
	여자	469	3.39	.83	
연령	만15~18세	389	3.37	.77	t= -.26
	만19~24세	597	3.38	.81	

다음으로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에 대한 문항에서도 평균 3.36점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여성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V-43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2)-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36	.80	
성별	남자	517	3.33	.81	t= -.96
	여자	469	3.38	.79	
연령	만15~18세	389	3.31	.81	t= -1.42
	만19~24세	597	3.39	.79	

다음으로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관련 문항에 대해 평균 점수는 3.14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4 지속가능발전 개인역량(3)-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14	.81	
성별	남자	517	3.11	.83	t= -1.13
	여자	469	3.17	.79	
연령	만15~18세	389	3.12	.84	t= -0.82
	만19~24세	597	3.16	.80	

다음으로 경제적 자립 과 관련해서는 평균 2.87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개인 역량 관련 문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다. 다만 청소년층은 평균 2.72점, 청년층은 2.97점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립에 대한 자기 역량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5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4)-경제적 자립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7	.99	
성별	남자	517	2.87	1.00	t= .01
	여자	469	2.87	.97	
연령	만15~18세	389	2.72	1.04	t= -3.82***
	만19~24세	597	2.97	.94	

주) *p<.05 **p<.01 ***p<.001

다음으로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3.02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위 경제적 자립 항목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층과 청년층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V-46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5)-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2	.82	
성별	남자	517	3.05	.83	t= 1.45
	여자	469	2.98	.80	
연령	만15~18세	389	2.88	.86	t= -4.18***
	만19~24세	597	3.11	.78	

주) *p<.05 **p<.01 ***p<.001

개인 역량과 관련 마지막 항목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에 대하여 전체 평균 3.04점으로 보통 수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청소년층과 청년층의 차이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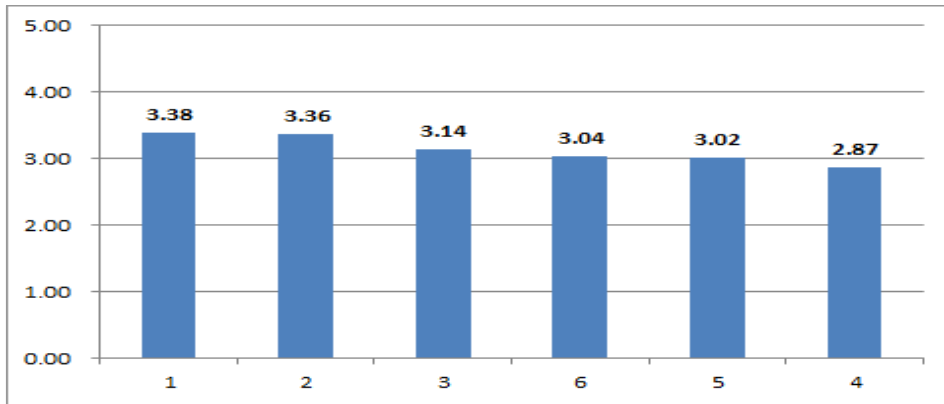
표 V-47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6)-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3.04	.79	
성별	남자	517	3.08	.80	t= 1.54
	여자	469	3.00	.78	
연령	만15~18세	389	3.04	.78	t= -.15
	만19~24세	597	3.04	.80	

개인 역량관련 6개 항목의 평균 점수를 비교하면 <표 -48>, [그림 -60]과 같다. 항목별로 (1) 진로, (2) 사회 포용, (3) 환경문제 이해 순으로 점수가 높았고, (6) 청년 정책, (5) 경제사안 이해, (4) 자립 순으로 점수가 낮았다. 위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 스스로 역량을 갖춘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항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문항 (5), (6) 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r=0.651$)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제안 능력에 대한 인식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48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문항		평균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3.37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3.36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3.14
(4)	경제적 자립	2.87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3.02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04



【그림 V-60】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전체)

표 V-49 지속가능발전 개인 역량 (상관계수)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1	2	3	4	5	6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1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354	1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268	.320	1			
4. 경제적 자립	.383	.191	.378	1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364	.269	.394	.532	1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407	.296	.388	.452	.651	1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에 대한 평균 점수는 2.73점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고, 연령층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표 V-50 참여의향(1)-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73	1.03	
성별	남자	517	2.63	1.03	t= -3.25***
	여자	469	2.84	1.02	
연령	만15~18세	389	2.75	1.06	t= .49
	만19~24세	597	2.72	1.01	

주) *p<.05 **p<.01 ***p<.001

두 번째 에너지 문제 관련 항목 역시 평균 2.74점으로 참여 의향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고, 연령층 간 차이는 없었다.

표 V-51 참여의향(2)-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74	.96	
성별	남자	517	2.68	.98	t= -1.97*
	여자	469	2.81	.94	
연령	만15~18세	389	2.73	.96	t= -0.26
	만19~24세	597	2.75	.97	

주) *p<.05 **p<.01 ***p<.001

세 번째 생태 서식지 보존 활동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 2.80점으로 참여 의향이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참여 의향이 높았고, 연령층 간 차이는 없었다.

표 V-52 참여의향(3)-지역의 생태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0	.97	t= -2.01*
성별	남자	517	2.74	.99	
	여자	469	2.86	.96	
연령	만15~18세	389	2.84	1.01	t= 1.14
	만19~24세	597	2.77	.95	

주) *p<.05 **p<.01 ***p<.001

네 번째, 청년 권익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평균 2.93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까웠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없었다.

표 V-53 참여의향(4)-청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3	.97	t= -.09
성별	남자	517	2.93	.99	
	여자	469	2.94	.95	
연령	만15~18세	389	2.95	1.00	t= .47
	만19~24세	597	2.92	.95	

다섯 번째 지속가능 소비 관련 참여 의향 역시 전체 평균 2.96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청년층의 참여 의향이 청소년층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V-54 참여의향(5)-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6	.96	t= -1.80
성별	남자	517	2.91	.97	
	여자	469	3.02	.95	
연령	만15~18세	389	2.88	.98	t= -2.11*
	만19~24세	597	3.01	.94	

주) *p<.05 **p<.01 ***p<.001

여섯 번째, 청년대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은 평균 2.78점으로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55 참여의향(6)-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년 대표로 참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78	.96	
성별	남자	517	2.75	.97	t= -.85
	여자	469	2.81	.94	
연령	만15~18세	389	2.78	.97	t= -.07
	만19~24세	597	2.78	.95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화재 보존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은 평균 2.99점으로 보통 수준에 가깝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56 참여의향(7)-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99	.95	
성별	남자	517	2.94	.97	t= -1.60
	여자	469	3.04	.91	
연령	만15~18세	389	2.99	.98	t= .12
	만19~24세	597	2.98	.92	

마지막으로 탈북민,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에 참여 의향은 평균 2.82점으로 보통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성별, 연령층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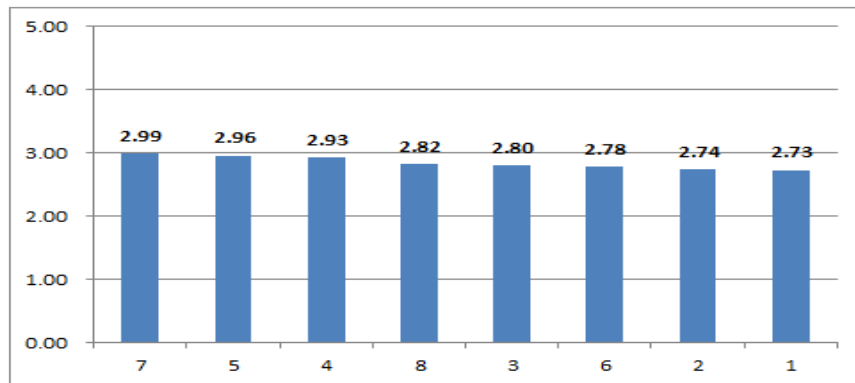
표 V-57 참여의향(8)-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구분		사례수(명)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986	2.82	.90	
성별	남자	517	2.79	.92	t= -1.33
	여자	469	2.86	.88	
연령	만15~18세	389	2.85	.903	t= .75
	만19~24세	597	2.80	.901	

이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8개 항목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표 V-58>, [그림 V-61]과 같다.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가 나타나 해당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V-58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문항		평균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2.73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2.74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2.80
(4)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2.93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2.96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2.78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2.99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2.82



【그림 V-61】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전체)

또한 9개 항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문항 (1), (2), (3) 등 환경 관련 항목 들 간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고, 청년 활동에 대한 항목인 (4)와 (6)번 문항의 상관성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5) 소비, (7) 문화 (8) 사회포용 간의 상관성도 높게 나타났다.

표 V-59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의향 (상관관계)

구분	문항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1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618	1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526	.583	1					
4.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354	.419	.493	1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387	.466	.465	.468	1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326	.450	.445	.561	.504	1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451	.522	.512	.482	.509	.487	1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463	.490	.453	.436	.536	.476	.633	1

6) 소결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청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표 -60>에 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회적, 환경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환경에 대한 균형적 시각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SDGs 이행 방안 마련에 있어서 경제 성장 일변도의 시각보다는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현안별로는 관심 사안에 있어 차이가 있어 정책 우선순위 결정시 이러한 청소년·청년들의 인식이 제대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SDGs 관련 국가적 과제와 사회 이슈에 대하여 청년 일자리, 노동권, 세대갈등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현재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환경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형평성 이슈만큼 관심도가 높지는 않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경제, 불평등 이슈에 비해 환경 사안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V-60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청년 인식 조사 결과 요약

영역	국가 지속가능성 및 청소년 삶의 질 실태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중간 수준 - 삶의 질에 환경의 질 고려 정도 높음(청년)청소년 - 삶의 만족도, 삶의 질에 환경 고려 정도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없음
지속가능발전 인식	- 경제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에 반드시 우선하지 않음 - 환경문제 중요성 인식, 미래 환경 전망 긍정적이지 않음 - 남자가 여자보다 과학기술에 낙관적, 미래 환경에 긍정적임 - 현세대와 미래세대 간, 국가 간 형평성 고려 정도 높음 - 미세먼지 원인 부정확한 정보 수용 가능성 있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에 대한 인식	- 아동·여성상대 폭력, 청년 일자리, 노동자 권리 보호 등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평가 - 아동·여성상대 폭력은 여자가, 환경문제는 남자가 더 부정적으로 평가 - 일자리, 노동권문제와 취약계층 보호 및 시민참여 간 상관성 높음
사회이슈 관심 및 토래 영향력	○ 사회이슈 관심 -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연금 관련 세대갈등, 계층 간 불평등, 성차별 순으로 관심 높음 - 청년·청소년: 성차별, 계층 간 불평등, 환경문제, 노동, 세대갈등, 원자력 안전성 - 남자(여자: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 다문화사회 갈등 - 남자)여자: 남북갈등 ○ 토래의 관심 및 영향력 - 해결해야할 사회문제: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성차별, 계층 간 불평등, 환경문제 등 순 - 남자는 계층 간 불평등을, 여자는 성차별 문제를 더 우선순위로 인식 - 청년은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차별을 가장 우선, 청소년은 계층 간 불평등과 성차별을 우선순위로 인식 - 청소년·청년: 환경문제, 청소년(청년: 세대갈등 - 사회문제에 토래 관심 낮다고 인식(남자, 청소년) 여자, 청년) - 관심없는 이유 1순위: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공통) - 청소년 2, 3순위: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개인 생활과 무력감 순 - 청년 2, 3순위: 무력감과 취업난 순 - 사회변화에 토래 영향력 크다고 인식(여성, 청년) 남성, 청소년)
지속가능발전 참여·역량	- 진로, 사회문화 포용, 환경문제 이해, 정책 의견개진, 경제사안 이해, 경제적 자립 순으로 역량이 있다고 인식 - 경제적 자립 및 경제 이해에 있어 청소년보다 청년이 역량이 있다고 인식 -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 참여 의향 보통 수준 이하 - 생태농업, 에너지감축, 생태계보전에 대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적극적 -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에 대해 청년이 청소년보다 적극적

한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및 사회이슈에 대한 관심 등 여러 사안에 있어 집단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전반적으로는 청년이 청소년보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고, 또래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활동 참여의향으로는 여성이 대체로 참여의향이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포용(성 차별, 성 소수자, 다문화사회 갈등) 관련 사안에도 관심이 더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에 대한 참여의향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청소년·청년 활동 기획시 성별, 연령별 관심사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참여방안을 모색하는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주요 영역이 아니었던 청년 활동의 방향성을 수립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VI 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분석

1. 사례 조사 개요
2.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제 VI 장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분석

1. 사례 조사 개요⁶⁷⁾

본 장에서는 SDGs 달성에 청소년 정책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청소년 활동·참여 영역과 관련된 사례 조사를 통하여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삶의 질 이슈의 관련성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활동·참여 영역 영역을 질적 조사의 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3장의 정책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 활동·참여 정책의 관련성과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언급해 왔다. <표 -1>에서와 같이 청소년 활동·참여는 SDGs 4.7과 16.7에 직결되며,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중점 과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에서 이러한 정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계획 및 관련 정책에 일부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분석 결과 SDGs 4.7과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청소년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의 경우 중앙부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부, 교육부, 산림청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산림휴양 등의 정책과 연계하여 청소년 활동의 주제와 영역을 새롭게 넓혀 가는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 역량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청소년정책을 연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활동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노원청소년사회참여

67)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활동 시작된 변화 토, 지속가능발전 을 명시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보호, 교육 문제, 건강, 사회복지, 문화 전승, 이웃관계 개선 등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활동을 통해 기여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례로 선정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 사례로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청년 참여가 갖는 의미와 활동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원의제는 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표에서 청소년의 역량과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수원의제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의제21 내 청소년 및 청년 참여기구로서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드물며 현재 의제21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청소년·청년의 참여의 의미와 한계를 가늠할 수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VI-1 사례 조사의 범위 및 정책 관련성

조사 주제	SDGs 관련 내용	제5차 기본계획 관련 내용	조사 대상 및 분석 초점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4.7.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역량 함양 16.7. 참여적 의사결정 보장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1) 노원구 청소년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 지역의 지속가능성 개선, 참여 활성화 방안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 청년 참여의 의미, 참여 활성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청소년·청년 활동 사례

1) 노원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⁶⁸⁾

(1) 사례 개요

시작된 변화는 첫째, 다른 사회 주체가 아니라 청소년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68) 이 절은 주형선 박사(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가 집필하였음.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둘째, 활동의 주제를 청소년 스스로 선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사회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셋째, 지역의 청소년 기관과 자치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관계를 통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보았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가 되었지만 청소년을 그 주체로 보는 사례는 드물었다.

마지막으로, 시작된 변화를 통해 활동의 주제와 방식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조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역의 여러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사례 또한 드물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작된 변화를 2011년 처음 기획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및 2012년부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각각 1회씩 실시하였다. 면담은 2016년 9월 1일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 9월 23일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에서 각각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전화를 통해 연구 목적 및 면담 취지를 설명하였고 담당자가 면담에 동의한 다음 이메일로 질문지를 송부하였다. 면담을 마친 다음에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된 활동보고서 또한 중요한 분석 자료였다. 시작된 변화에 대한 신문기사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활동 과정을 기록한 단행본(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6)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례조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시작된 변화의 활동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어떠한 문제의식 하에 시작된 변화가 시작되었는지, 지역 내 다른 기관으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청소년들의 활동 과정은 어떠한지, 시작된 변화가 참여한 청소년, 주관 기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지 등이 주요한 연구 질문이었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변화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으로서 시작된 변화가 갖는 의미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례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2) 활동 내용

시작된 변화는 2011년부터 서울시 노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자 자원봉사활동이다.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시작된 변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학교,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이다. 또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활동이자 자원봉사활동이다.

시작된 변화는 2011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개관과 함께 시작되었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공공도서관이 결합된 시설로 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 지식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청소년, 살맛나는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 시작된 변화는 이러한 센터의 운영철학 아래 시간 채우기로 진행되어 온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과 다른 활동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 중요하게 간주된 것은 첫째, 청소년들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 주제 선정하기, 둘째, 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애착심 기르기, 셋째, 미래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 기르기 등이다. 시작된 변화를 개인이 아니라 팀을 이루어 진행하도록 한 것은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면서도 협업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은 그 중요성 때문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는 학년에 따라 연간 5-10시간 이상, 중학교는 연간 18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연간 20시간 이상 등으로 권장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서울시교육청, 2016). 시작된 변화는 연간 활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채우던 자원봉사활동에 익숙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낯선 시도였고 초기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는 참여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재미있는 '활동으로' 입소문이 나고 참가자들 스스로 기획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이승훈·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6). 평소 좀 더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던 청소년들의 요구가 반영된 측면도 있었다. 한 해의 활동의 마무리하면서 소년들이 작성한 소감문에는 이러한 요구가 드러나 있다.

이왕 봉사를 할 거면 단지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아무 의미 없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나도 그로 인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봉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던 참에 시작된 변화라는 활동을 알게 되었다. 남들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보고서. p. 45.)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봉사활동을 해 왔고 그것들은 모두 후에 나에게 큰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수단적 의미의 것들이 아닌 정말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라는 꼬리표가 우리를 묶어냈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의 시작된 변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으로서 할 수 있었던 재능기부였고, 곧 6명이 한 팀이 되어 복저복적이라는 영어 스토리텔링 팀을 만들었다. (2013년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p. 82.)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시작된 변화 라는 새로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관내 다른 기관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하였고, 2012년에는 노원구 청소년수련관에 제안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노원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시작된 변화가 포함되어 자치구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에는 문화공동체 쉬는 시간 과 노원도봉교육공동체라는 지역 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표 VI-2>).

표 VI-2 시작된 변화 '참여 기관 현황

연도	참여기관	비고
2011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프로그램 최초 기획 및 운영
2012-2013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노원교육복지재단	기관별 프로그램운영, 발표회 공동 개최, 노원구 재정 및 행정 지원
2014-2015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2016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문화공동체 쉬는 시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노원구청	

노원구 내에서 시작된 변화 '활동이 지속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활동보고서에 나타난 현황을 보면, 2011년은 8모둠, 2012년은 16모둠, 2013년은 21모둠, 2014년은 20모둠, 2015년은 37모둠이 연말에 개최되는 발표회에 참여하였다. 2016년에는 약 40개 모둠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시작된 변화가 의미 있고 재미있는 활동이라는 인식이 지역 내에 확산되었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청소년들의 활동 분야는 첫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함께 놀이나 운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과학실험이나 영어 활동하기 등과 같은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보면, 부모님이나 학원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목적 의식을 세우도록 도와주기(2011), '이론 위주의 과학 수업 대신 재미있는 실험하기(2011-2015), '사교육

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초등학생에게 다른 나라(프랑스)의 문화를 접할 기회 제공하기(2012); 조기교육이 아니라 친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유아들을 위한 활동하기(2012-2013); 주입식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영어활동 하기(2013); 게임 말고 재미있는 운동 함께 하기(2015) '등이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유아 때부터 조기교육에 시달리고 지식 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또 다른 활동 영역은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어둡고 음침한 굴다리에 벽화 그리기(2011); 전봇대에 있는 전단지 치우기(2012); 동네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주민들 인식 조사하고 개선점 구청에 건의하기(2012); 케릴라 가드닝으로 빈 공터에 식물 심기(2014); 어린이 공원에 쓰레기통 설치하고 낙서 지우기(2015) '등이 그 예이다.

재활용과 쓰레기 문제처럼 환경문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많았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래시몹 캠페인(2013); 종이 사용현황 조사 및 이면지 노트 만들기(2013); 안 입는 옷 리폼하기(2014); 쓰레기로 생활용품 만들기(2015) '등이 그 예이다.

또 다른 활동 영역으로는 외로운 어르신과 같은 다른 마을 주민, 다른 나라, 유기동물 등 주변의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차와 쿠키를 만들어 마을 어르신 찾아가기(2012); 주변 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담은 엽서 전달하기(2014);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 활동하기(2013-2014) '등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놀 거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거나(2012) 청소년 화장품 사용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하는(2013) 활동, 노원구에서 청소년이 가볼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 만들기(2015) 등도 지속적으로 수행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3>은 시작된 변화에서 수행된 활동의 사례를 분야별로 간략히 소개한 것이다.

표 VI-3 시작된 변화 '활동 사례

분야	활동 사례(연도)
교육	- 이론 위주의 과학 수업 대신 재미있는 실험하기(2011-2015) - 이론 위주의 과학 수업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어려운 실험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판단 아래, 초등학생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실험을 함께 하기. 마지막 시간에는 참여자들이 앞에 나가 직접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함 - 조기교육이 아니라 친구들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유아들을 위한 활동하기(2012-2013) - 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이 시행됨으로서 부담 없이 또래를 만날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미술활동과 놀이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하기 - 주입식이 아니라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영어활동 하기(2013) - 오랫동안 공부해야 하는 영어의 경우 주입식 학습은 금세 흥미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영화를 활용하거나 스스로 영어책을 만들어 활동을 함. 마지막에는 참가자들이 앞에 나가 영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함 - 게임 말고 재미있는 운동 함께 하기(2015) - 초등학생들이 휴식 시간에 나가 놀기보다 게임에만 몰두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자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운동을 동생들과 함께 함. 동생들의 희망에 따라 운동 규칙을 배우지 않고 함께 즐겁게 놀기도 함
환경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플래시몹 캠페인(2013) -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원구의 정책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플래시몹 캠페인을 진행함 - 안 입는 옷 활용하여 생활용품 만들기(2014) - 안 입는 옷을 모아 팔찌 등과 같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활동하기 - 쓰레기로 생활용품 만들기(2015) -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장식품을 만들고 전시함
마을환경 개선	- 어둡고 음침한 굴다리에 벽화 그리기(2011) ' - 어둡고 침침하여 다니기 무서운 굴다리를 바꾸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과 동네 주민들과 함께 벽화를 그림 - 동네 가로등 설치 현황 및 주민들 인식 조사하고 개선점 구청에 건의하기(2012) - 공릉동 주변의 가로등 설치 실태 및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후 개선 방향을 구청에 건의함. 구청에서 답변서를 보내옴 - 게릴라 가드닝으로 빈 공터에 식물 심기(2014) - 쓰레기가 텅구는 공터에 식물 심기, 여럿이 함께 게릴라 가드닝 하기 등으로 주변을 녹색으로 만드는 활동을 함.
관계 개선 및 공존 모색	- 차와 쿠키를 만들어 마을 어른신 찾아가기(2012) - 차와 쿠키를 만들어 적절한 동네 어른신을 찾아가고 말벗이 되어주기 -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2013-2014) - 동물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돌볼 것을 알리는 활동하기, 유기동물을 만났을 때 대처 방법 등을 길거리 라디오, 피케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는 활동 - 주변 사람에게 평소에 하지 못한 말을 담은 엽서 전달하기(2014) -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써서 모둠이 만든 우체통에 넣으면 대신 전달해주는 활동

분야	활동 사례(연도)
청소년	■ 청소년 놀 거리에 대한 인식 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하기(2012) - 청소년의 놀 거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여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함 ■ 청소년 화장품 사용현황 및 문제점 조사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하기(2013) - 청소년 화장품 사용 현황 및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을 조사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 화장품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함 ■ 노원구에서 청소년이 가볼만한 장소를 소개하는 영상 만들기(2015) - 노원구에서 청소년이 가볼만한 장소를 정하고 이를 영상 자료로 만들. 영상은 학교 축제에서 상영함

* 출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2011년 제1회 노원지역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발표대회, 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2). 2012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보고서,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2013). 2013년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4). 제4회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5). 제5회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시작된 변화 '활동은 수행 기관별로 진행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같다. 연초에 참여할 팀을 모집하고 기본교육을 실시한 다음 팀별로 활동을 수행한다. 기본교육에서는 시작된 변화의 취지를 소개하고 팀별로 활동할 주제를 선정한다. 청소년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멘토를 처음 만나는 것도 기본교육 때이다. 지원서를 낼 때부터 하고 싶은 활동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기본교육 때 팀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주제를 정하기도 한다. 주제를 바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주제가 계속 바뀌어 주제를 정하는 데만 몇 달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주제를 정할 때 멘토나 기관 담당자의 일차적인 역할은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활동 주제가 환경 '등 특정 영역으로 몰릴 때 다른 쪽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주제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율 할 때도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만들어 센터나 수련관에 붙이기고 하고 친구나 동생 등 아는 사람을 활용하기도 한다. 활동을 할 때마다 일정한 양식의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활동이 마무리 되면 팀별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발표회는 관련된 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표 -4>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예로 하여 시작된 변화의 연간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연초에 실시하는 기본교육 때,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과 오감으로 마을 만나기' 등을 통해 익숙한 자기 동네를 낯설게 보는 활동을 매년 포함한다. 활동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점에는 3주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팀원들이 함께 보고서를 쓴다. 활동할 때마다 일지를 쓰지만 그동안 해 온 활동을 떠올려서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담을지 함께 얘기를 나누고 글도 같이 쓴다. 초고가 완성되면 멘토와 센터의 담당자가 활동 중 빠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주고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다듬는다. 활동 소감은 모두가 작성한다. 연말에는 시작된 변화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한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는 발표회에 참석하고 활동을 마무리 한다.

표 VI-4 시작된 변화 '연간 활동(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기	주요 활동
1월-2월	◦ 참여할 청소년 모집 ·지원서 받고 청소년 면담
3월	◦ 기본 교육 워크샵 ·3시간씩 2주 동안 진행 ·프로그램: 다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듣기, 마을 낯설게 보기 ·멘토의 자기 브리핑 후 팀별로 매칭하기 ·활동주제 선정: 팀별로 주제 정한 후 발표하기, 다른 참가자로부터 의견 듣기
4월-10월	◦ 팀별 활동 ·활동 참가자 모집: 포스터, 주변의 아는 사람 참가 권유 ·활동일지 작성 및 제출
10월	◦ 팀별 활동 보고서 작성 ·1주일씩 한번씩 3주 동안 ·그동안 한 일 회상하기 ·시작한 계기, 활동 내용에 대해 팀별로 함께 얘기 나눈 후 글쓰기 ·초고에 대한 멘토와 센터 담당자 피드백 듣고 얘기 나눈 후 수정하기 ·각자 소감 쓰기
11월	◦ 공동 발표회

* 출처: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2011년 제1회 노원지역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발표대회.
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2). 2012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보고서.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2013). 2013년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4). 제4회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5). 제5회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3) 분석 결과

시작된 변화의 의미와 과제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이나 동네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지 스스로 찾고 해결방안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자원봉사활동과 구별된다. 미리 정해진 활동이 아니라 청소년 자신의 문제의식으로 활동의 주제와 수행 방법을 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참여의 폭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작된 변화를 통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 청소년들은 어떤 경험을 할까? 10여 개월 동안 시간을 쪼개서 팀 구성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직접 기획하는 즐거움과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하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함께 느낀다. 또한 활동 하나를 하기 위해서도 여러 번 고민하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활동이 잘 마무리 되면 스스로 해냈다는 보람 또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과 버려진 공터가 게릴라 가드닝으로 예쁘게 변하는 모습 등 활동의 성과를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나는 태강릉을 갔다 와서 많은 것을 느꼈다.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힘들었다는 생각보다 보람을 더 느낀 하루였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 모든 것을 우리가 했기에 더욱 그랬는지 모른다. 좀 더 많은 외국인 아이들과 가고 싶었기 때문에 실망도 있었지만, 뿌듯했고 다음을 기약했다. (2011년 제1회 노원지역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발표대회, p. 16.)

시작된 변화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경우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장점을 발견하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앞으로 관련된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또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유기동물과 같은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시작된 변화와 같은 작은 활동이

마을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겨울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등에 상처가 있는 한 슈나우저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고 있었다. 하지만 난 '태 알 일 아니지'라고 생각하며 애써 눈길을 피했었다. 그리고 이번 년도 초 유기동물 인식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10월 26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개 “풍산이”를 보고 나는 스스로 변화를 느꼈다. 예전의 도움을 구하던 동물들의 눈길을 말없이 피하기만 했던 내가 로드 킬 당할 뻔했던 개를 구하고, 노끈을 구해와 목에 묶어주면서, 주인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관리사무소에도 찾아다니며 노력했던 나를 되돌아보면서 사람의 인식 변화라 이런 것이구나 라고 실감했다.

… 더불어 나는 씨앗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나의 적성에 관해서이다. 두 개의 UCC를 전부 내가 편집하였는데 만드는 과정이 흥미롭고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영상에 맞는 노래를 정하고, 문구를 넣고, 내용을 구성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다. 또한 내가 커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 마지막으로 나의 인식이 씨앗활동을 통해 달라진 것처럼 나로 인해 내 주변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며, 친구들의 생각 또한 변화한다면, 언젠가 유기동물이 사람들의 편견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그 날을 기대한다. 이런 변화가 진정한 시작된 변화 아닐까 (2013년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p. 58.)

시작된 변화라는 계기를 통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해 본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기관 관계자의 설명은 참여의 기회가 청소년의 삶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다. 참여의 과정에서 스스로 활동을 시작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감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성(Bruner, 1996)을 얻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이후 삶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때 활동했던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때 활동했던 애들이 대학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뭐가 바뀌었을까 하면 좀 주체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어디서나 조금 더 일 많이 하고, 좀 더 주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다양한 곳에 시선이 열려있고 이것저것 관심이 많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담당자 면담녹취록 중에서)

나아가 시작된 변화는 기관 내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의 사회참여의 의미와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하고 시작된 변화라는 새로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고민할 때, 정해진 것 없이 아이들의 결정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기관 내에서 많이 진행되었다. 이후 시작된 변화의 수행 기관이 노원청소년수련관과 문화공동체 쉬는 시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등으로 확대되었는데, 참여의 의미와 범위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시작된 변화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의제화 되고 이러한 문제 의식을 기관 나름대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것이다. 시작된 변화가 진행되어 온 지난 6년은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각 기관의 맥락에서, 노원구라는 지역사회 맥락에서 정의되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시작된 변화는 어느 사업에서와 같이 담당자가 매년 바뀌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든지 업무 과중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라는 맥락에서, 기관 관계자들은 청소년들이 마을 안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시도를 할 때 좀 더 환대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학 입시에도 사회참여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막상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여기에 관심을 갖거나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우리 사회의 한 주체로 바라보고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지역사회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수용하는 마음가짐과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본 시작된 변화의 의미

유네스코는 사무총장이 회원국에 보내는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청소년에게 권한 부여하기(UNESCO, 2012)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소년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 그리고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을 정책의 수혜자(youth as beneficiaries)이자 행동의 주체(youth as actors), 협력의 파트너(youth as partners)로서 참여시키기 위해 그리고 청소년이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변화의 주체(youth as

change-makers)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작된 변화는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틀에서 청소년이 정책의 수혜자만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의식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조직할 수 있다는 즐거움과 함께 일련의 활동을 스스로 기획할 때의 어려움, 활동을 완수했을 때 맞볼 수 있는 보람을 함께 느꼈다.

나아가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이 변화의 주체로서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시작된 변화를 통해 자신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변화가 주위사람과 우리 사회에서도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자신의 참여로 지역사회와 우리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작된 변화는 청소년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청소년들은 참여의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낼 때의 어려움과 보람을 함께 느꼈다. 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관련된 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시작된 변화를 통해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기획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작은 성공을 경험한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진행되어 온 시작된 변화의 운영방식은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이자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청소년이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행동의 주체이자 협력의 파트너, 나아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어떻게 가능할까? 시작된 변화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기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들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온 사회 참여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시작된 변화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가이드라인 하에 활동의 주제와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때, 어려워하면서도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의미의 청소년 사회 참여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사업을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재정향(reorientation)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례의 공유와 확산은 시작된 변화와 같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사업에서 참여의 수준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어떠한 변화가 가능할지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어야 하는지를 개별 청소년 기관 내에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 사이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사업이 모색될 때, 지역주민과 우리 사회의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사회를 만나는 지역사회라는 일상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확산될 때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앞서 제기된 노력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행동의 주체이자 협력의 파트너, 나아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험을 도모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중·고등학생이라면 일정 시간을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의식을 발휘해서 창의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참여형 자원봉사활동의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⁶⁹⁾

(1) 사례 개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의제21 추진기구 중에 드물게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의 도모해 가는 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의 역할과

69) 이 절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목소리를 공식적인 기구 안에서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제21 사업 중 상당 부분이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지만, 대다수가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의제21의 거버넌스 안에 청소년과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을 본 연구의 사례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의 미래세대행동위원회 간사와의 면담 1회(2016년 5월 13일), 위원회 청년들과의 면담 2회(2016년 6월 2일, 9월 9일)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한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진단과 모색’ 세미나(환경교육학회 특별세션, 2016년 6월 11일)에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가 “청년, 지속가능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위원회의 활동과 그 의미에 대한 발표한 자료와 그 외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서 등을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면담 내용 및 발표 자료 등이 본 연구의 보고서에 활용될 것임을 참여자들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사례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 활동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면담 참가자들은 모두 대학생으로서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지만, 의제21이라는 추진기구 조직 안에서 청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 분석의 초점은 청년들이 수원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점검하고 실천방향을 모색해 보는 과정에서 청년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청년 참여를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2) 활동 내용⁷⁰⁾

미래세대행동위원회가 추구하는 비전은 “청소년, 청년, 청소년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미래세대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습을 꿈꾸며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70) 해당 내용은 본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한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진단과 모색’ 세미나(환경교육학회 특별세션, 2016년 6월 11일)에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발표 “청년, 지속가능성을 말하다”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 2016).

계획을 만든다"로 설정되어 있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 위원회로서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수원시의 발전에 있어 청년들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수원시의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한다. 청년들의 입장에서 위원회활동은 수원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며, 청년활동을 통하여 청년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표 -5>에서와 같이 2011년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6년째 활동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왔다. 위원회는 2년마다 구성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위원과 이들의 활동을 도와줄 멘토들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위원구성에 있어 청소년관련단체 대표나 동아리 대표 등이 주로 참여하였고, 수원의제 사무국 관련자이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숫자가 더 많기도 하였다. 2013년도부터 두 번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러한 구성 방식에 큰 변화를 주어, 청소년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며, 청소년단체 소속자 외에도 자발적인 참가자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016년도에는 학교 수업과 입시준비로 인하여 참여가 어려운 고등학생 위원들이 빠지고, 대학생 위원 6명을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이끌어 가고 있다.

표 VI-5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구성

연도	위원구성	청소년(명)	어른(명)
2011년 (수원의제 8기위원)	청소년관련단체 대표(실무자), 고교 동아리 대표	4	9
2012년 (수원의제 8기위원)	청소년관련단체 대표(실무자), 고등/대학생 동아리 대표	6	14
2013년 (수원의제 9기위원)	청소년관련단체 대표(실무자) 빠지고 중등/고등/대학생들로만 구성, 대표성+일반(개인)모집	14	0
2014년 (수원의제 9기위원)	고등/대학생,청년 동아리대표 또는 개인 / 멘토제실시	13	2
2015년 (수원의제 10기위원)	중등/고등/대학생+청년멘토(2)	18	2
2016년 (수원의제 10기위원)	대학생+청년멘토(2)	6	2

*출처: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2016). 청년,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진단과 모색 " 세미나.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속한 위원회의 하나로서 해마다 연간 단위의 사업을 계획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VI-6>과 같다. 초기에는 청소년 환경동아리와 인문학 강좌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거나, 수원의 8대 갯대종⁷¹⁾에 속하는 맹꽂이 및 반딧불이 모니터링에 참가하는 등, 수원의제 21의 주요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내고, 미래세대행동위원회 위원들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관심 주제로 선정된 텃밭가꾸기를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 자신의 눈높이”에서 출발하여 활동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 2014).

표 VI-6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주요사업

연도	주요사업
2011년	- 미래세대행동위원회 구성 - 수원시 청소년 환경동아리 대표 워크숍(8.13) - 수원시 청소년 환경동아리 한마당(12.23)
2012년	-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 강좌(7/26, 7/27, 8/02, 8/03, 8/09, 8/10)
2013년	- 맹꽂이 및 반딧불이 모니터링(7.12) - 화성성곽길 모니터링/걷기 좋은 길 탐방(11.09) - 새집 만들기 및 새집 달아주기(12.21) - 청소년 문화공간 모니터링
2014년	- 청년인터뷰(3월~5월)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수다마당 수원시, 이리이러했으면 좋겠다!~ (8.25) - 도시농업 상자텃밭 가꾸기 - 도시농업(상자텃밭)교육 참여(3.16) - 자전거와 생태교통 교육 참여(4.05) - 에너지교육 참여(5.18) - 활동보고회 및 송년파티(12.21)
2015년	- 1박2일 신농활캠프(7.13~7.14) - 미래세대 작당워크숍(7.18~7.19) - 미래세대행동위원회 명함제작 - 수원시 청소년 환경포럼 공동 주최(12.19.)
2016년	- 수원시 대학생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 청년이 바라는 수원 토론회 개최 - 페이스북 페이지 말하대로 '운영

*출처: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2016). 청년,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진단과 모색” 세미나.

71) 지역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 동식물로 수원의 8대 갯대종에는 수원청개구리, 애반딧불이, 백로, 수원땅거미, 얼룩등사리, 철보치마, 맹꽂이, 곤줄박이가 있으며,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8대 갯대종 보호를 10대 행동의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출처: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위원회, 2012).

이후 지금까지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소속 위원들 스스로의 동기부여와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수원시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수원미래충전소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이 구상되고, 위원회 구성원이 모두 대학생으로 이루어지는 등 청년을 주제로 하는 활동을 다채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현재 위원회는 수원시 소재 대학 5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대 초반 청년의 삶과 지역사회에 대한 요구 등을 분석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청년이 바라는 수원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3) 분석 결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과 삶의 질의 의미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협의회라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에 속해 있지만 수원의제에서 상정하는 지속가능발전 지표나 10대 행동의제<표 -22>, p. 87.)에 반드시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자신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았다. 2014년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미래세대의 눈높이로 수원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미래세대 참여를 높여 변화를 이끌자 라는 비전을 수립하게 된다(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 2014). 따라서 2016년에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 설문조사와 청년 토론회 역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상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해 가는 수단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청년이 원하는 사회발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공유하는 그 자체로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고정되고 확립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요구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원 각각이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점 역시 달랐다. 아래와 같이 B는 수업에서 배운 대로 현 세대와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이라는 원칙 차원에서 접근하였지만, C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위한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딜레마를 언급하였으며, A는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B: 제가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를 밖에서 가장 최근에 들었던 경험은 환경관련 수업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후대에, 후손들도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 같아요. 자원을 다 쓰던가, 착취하던가 하면 후대에게 무언가를 쓰고 발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좀 더 넓은 정의는 후손이나 젊은이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것 같아요.

C: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가능성이 지금 세상에서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나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용품 쓰는 거는 지속가능하지 못하지만 편리해서 쓰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불편하게 머그컵 써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이 어려운 것 같아요. [...]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나의 영리가 나의 이익이 제일 우선하잖아요. 내가 돈 벌어야 하고, 내가 잘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가 만족하면서 지속가능한 행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 빠져있는 어려운 딜레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A: 지속가능발전이라고 했을 때 그 가치에 있어서는 정말 괜찮은 단어라는데 동의해요. 그런데 너무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더 예민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치나 사회 분야에도 이 개념이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좀 더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처럼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한 합의와 이에 기반한 위원회 활동의 뚜렷한 목표가 정립되지 않고, 위원회 내부의 토론을 통해 활동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위원들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D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학습이 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A는 그러한 학습이 토론의 과정이기보다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정된 지식을 주입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의 활동이 초기에는 텃밭가꾸기, 모니터링 등 환경을 위한 행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 온 것을 볼 때, 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어떤 행동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D: 저는 이 지속가능하다는 말이 의제 활동을 몇 년을 했는데도 올해 들어서 제대로 이런 단어가 지속가능이라는 거구나 하고 알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의제를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A: 여기 위원회에 들어온다고 해서 막상 지속가능 관련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지는 않아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시도를 해본 적은 있죠. 근데 그 때 막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일종의 그런 교육활동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지루해지고, 딱딱해졌어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먼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발전이란 단어는 낯설고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는 것을 같이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오는 애들이 물어본다고 해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A: 여기 위원회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구잖아요. 그럼 수원에서 중요한 인구, 청년들이 자주 서울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이런 건 그만큼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민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20대 초반의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이리이러해야 이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지속가능발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특히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처음 제시된 유엔 문서의 제목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UN CSD, 2012)라는 사실은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인류가 공동의 노력으로 도달해야 할 성취 목표이기도 하지만, 반면 특정 역사와 맥락에서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지속가능발전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성찰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원들 자신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확고한 정의나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래세대행동위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이 원하는 수원의 모습을 찾는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의 본질적인 원리를 관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체 구조에서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은 하나의 분과 위원회 활동으로 간주되고, 위원회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수원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거나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청년 세대가 원하는 수원의 지속가능발전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생 설문조사와 청년 토론회를 통하여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면담 과정에서 청년들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세대 간의 갈등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 사회적 갈등 현상을 꼽기도 하였다. 다음 대화는 C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곳에서 기성세대와 노동관에 대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언급하자, 다른 청년들도 이에 동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 C: 왜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의 노동력을 요구하지 나에게?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돈을 더 주면 모를까.
- A: 저는 이게 좀 차이라고 느꼈던 거는 이게 일종의 (기성세대의) 문화였던 것.
- B: 사표 쓰고 나와야겠네.
- C: 그 대표님을 대할 때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 B: 사실 그렇게 해야 편하긴 하지.

이처럼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해 청년들은 주로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고, 더 나아가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역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5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청년들은 취업과 자립 등 자신이 당면한 삶의 질과 직접 관련성이 큰 일자리, 세대 갈등, 계층 간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청년들 사이에서도 현재 삶의 질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인가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B는 명문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물질적인 풍요가 충족된 현재가 과거보다 자아실현의 기회가 넓다는 점에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인식한 반면, A는 정신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는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B: 저는 예전보다는 삶의 질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진짜 먹고 살게 없으니까 다른 문제가 있어도 먹고사는 문제에 가려졌다고 생각해요. 그 때는 자아실현의 기회가 훨씬 적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좋은 기회를 최대한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 A: 삶의 질이란 게 정신적인 풍요에 더 가까운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과거랑 지금이랑 비슷하고, 오히려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처럼 청년들마다 처한 상황과 개성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었다. A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B는 적성을 살리는 것과 안정적인 직장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으며, C와 D는 각각 아름다움의 추구하고 취미생활이라는 개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삶의 질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A: 저는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도 높은 편이라...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도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 욕구를 실현할 수 있으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한 일일까? 쉽게 얘기 못하겠어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B: 저는 청소년 때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랬던 것 같은데. 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악으로 강으로 버티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최근 대학교 들어와서 다시 물어보니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D: 저는 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이 좋을 것 같아요.

C: 저는 항상 우선순위는 아름다움이에요.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나의 아름다움 욕구를 좀 채우면서 살고 싶어요.

청년들의 목소리 틀 찾고자 하는 위원회 활동의 지향을 고려하면 이처럼 청년들의 개인적인 삶에서 체화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 등에 대한 토론은 향후 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기여와 한계

이와 같이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활동과 청년 위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수원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기여하는 바와 한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여하는 점으로, 첫째, 지역 사회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위원회의 노력은 기존 정책 입안자 및 의제21 참여 그룹 안에서 누구를 위하는 지속가능발전 인지에 대한 도전을 던짐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담론 장에서 주체로서 발언할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장에서 지자체 의제21의 정책사업 현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이 주체가 되거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주도적인 관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의제21 안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것은 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민주적으로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위원회의 활동은 지자체에서 청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 위원회가 직접 청년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청년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위원회 스스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 A: 제가 18살 때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지금 하고 있는 청년정책 자리에 나갔을 때 내 또래가 한 명
이라도 더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그런 자리에 나가면 막내였고, 제 또래는 없
고 10년 아니 20년은 차이나는 분들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어쩌면 나로 인
해 누군가의 새로운 참여가 생기지 않을까?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고, 그게 장기
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C: 저는 대학생들한테는 저희 활동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가 있는) 활동이 아닌
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너희가(설문조사 해 준 것이) 도움이 됐다라
고 하는 것 자체로 지속가능발전이 홍보가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은 알게 되면
쓰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면 좀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 B: 저는 작년에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것이 많지는 않지만, 활동하면서 좋은 점은 제가
수원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정책들을 그냥 냅 놓고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
요. 제가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이게 활동하면서 얻은 가장 큰 거
예요. 싫은 점도 관련이 있는데, 해도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계획은 잘 세워놓
은 거 같은데 막상 실행시켜 보니까 제대로 안된단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좀 컸어요.

B가 말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기여하는 바에 대하여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 인식해오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반면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상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은 미래세대행동위원회가 의제21 안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위원회로서 존재하는 점은 청년들의 활동에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반면 전체 의제21의 추진체계 안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기보다는 주변화 된 존재로 머물게 되는 구조적인 제약이 되기도 한다. A는

위원장으로서는 청년들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지만 운영위원회가 토론의 장이 되기보다는 각 위원회마다 사업을 보고하는 형식적인 자리에 그치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A: 간사님이 유일하게 사무국과의 중간매체가 되어 주세요. 해주고 싶어 하시고 도와주시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모이게 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걸아니까 그런 것에서는 만족하고 있어요.

A: 리더들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는 정신없이 빨리 끝내야지 하는 분위기에요. 예전보다 지금은 교류가 적고 서로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러한 구조상의 제약은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위원회 담당 간사는 위원회의 활동이 동아리 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학생들끼리의 친목과 교류를 바탕으로 한 동아리는 활동의 과정에서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반면, 위원회 활동은 활동의 성과를 의제21의 기존 사업 처럼 보여주어야 하는 책무성을 전제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은 동아리와 사업추진 조직 사이에서 아직까지 위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혼란을 겪고 있었다.

A: 의제 라는 성격을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저는 거버넌스가 뭔지도 모르고 중간지원 이런 말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일단 여기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눈이 몇 개예요, 그러다보니 성과를 내줘야 해요. 사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어느 정도 허울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독립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우리끼리 모여서 했더라면 이게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그냥 우리가 좋고 그 과정이 괜찮았으면 되는 건데. 여기는 사람들 눈이 워낙에 많으니까 내가 실패하면 진짜 그건 실패인 것이 되는 것,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아요. 뭔가 계속 언제나 성급하고, 그런 점에서 더 지치는 것도 있고,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속될 수 있을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위원회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일정을 조직하고 성과물을 내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이 되었지만, 이러한 책무성과 성과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위원회 자체적인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구조적으로 볼 때 문제는 청년들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지원해주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A: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흔한 성격을 가진 곳도 아니고,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이런저런 일들을 1-2년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 졸업을 해서... 나는 수원에서 일하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저도 답을 못해요. 저는 나름 수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위원회도 지속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C: 우리의 역할은 되게 커, 어깨도 무거워. 역할이 큰데 우리의 역량이 되나? 이거지. 우리는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데, 역할은 큰데 능력이 안 되는 거지.

더 나아가 청년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데는 대학 졸업 후 진로의 문제, 지역 거취의 문제 등 개인적인 상황의 변수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 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것 외에도, 의제21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행동위원회가 원래 포괄하고자 했던 청소년·청년의 범위에서 청소년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A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유일한 구성원이다. A는 자신이 특별한 '경우임'을 인식하면서, 위원회에 청소년의 참여 자체가 어렵고, 참여를 하더라도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관심사와 생활환경의 차이로 인해 함께 활동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역설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청년들로만 이루어진 지금이 청소년 동아리 교류를 중심으로 했던 초기보다 자율적으로 활동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위원회 참여 연령대를 얼마나 다양하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청소년의 참여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제21 차원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본 사례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21 추진기구 소속의 청년 조직으로서 미래세대행동위원회 활동 사례에 대한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지방의제 21의 추진 역사 기간 동안 청소년 의제를 작성하는 등 일부 청소년·청년 중심 활동이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은 주류 그룹으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미래세대행동위원회가 6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 정책 거버넌스에 청년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겪은 실행 경험은 하나의 사례로서 가치가 있으며, 다른 의제21 추진기구와 공유되고 확산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지자체 의제21 추진기구에서 미래세대 담론은 현재의 당사자이자 주도적인 참여라기보다는 캠페인이나 교육의 대상이라는 시각에 머물러있다는 점에서 수원의제 21 미래세대행동위원회는 이러한 관점을 전환시키는데 큰 의미를 지닌다. 더 나아가 위원회 활동의 의미와 한계를 의제21의 거버넌스라는 구조적인 렌즈를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청년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유와 확산을 통한 학습은 지자체 의제21 추진기구의 연합체인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제21 내에서 청년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내는 것 외에도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의제21의 거버넌스 구조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청년활동을 기획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다. 청년들의 동기 부여와 실질적인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훈련 방식과 같이 의제21의 목표와 계획을 그대로 전달하고 답습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는 과정 그 자체를 적극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의사소통 구조를 탈피하고 청년들이 의제21의 다른 위원들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유연하고 열린 소통 구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제21 거버넌스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지적한대로 지자체 의제21 거버넌스 전반에 청소년과 청소년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층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과 의제21 추진기구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 VII 장



정 책 제 언

1.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비전
2. 정책 제언

제 VII 장

정 책 제 언⁷²⁾

1.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방향 및 비전

1)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방향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SDGs의 관점에서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삶의 질 지원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 및 청소년의 인식을 점검해 보았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청년 활동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SDGs의 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청소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서는 미래세대의 역량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2차 계획에서 제3차 계획으로 넘어오는 동안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내용은 증가하였지만, 3차 계획에서는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 '과제가 삭제되는 등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 연관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자체의 경우 의제21추진기구들에서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청소년을 여전히 교육과 육성의 대상으로 보는 접근이 지배적이고, 청소년 주도적인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서는 이전보다 통합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와 세계시민으로서 청소년이 지니는 책임과 권리에 대한 관점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SDGs 관점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청소년 활동과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활동·참여 영역을 기존보다 확대해 갈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많은 예산이 교육비지원과 복지 영역에 편중되어 있어 제5차 청소년

72) 이 장은 황세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세부과제를 모두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 비중이 낮고 정책 총괄 기능이 미흡한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 지자체 수준, 각 부처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청소년기본계획 시행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국가 전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의 재정립과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 활동 및 교육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조체계가 공고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 전략 필요

-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은 증가하나 비전 및 전략이 명확하지 않음
- 지자체 의제21 사업에 청소년사업 비중 높으나 청소년 주도성 부족함

청소년 활동·참여 영역의 확대 필요

-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의 다양한 세부과제를 이행하기에는 영역 간 예산 편중이 심함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예산 비중이 낮고 정책 총괄기능 미흡함
-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역량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청소년·청년활동 콘텐츠 발굴 필요

관련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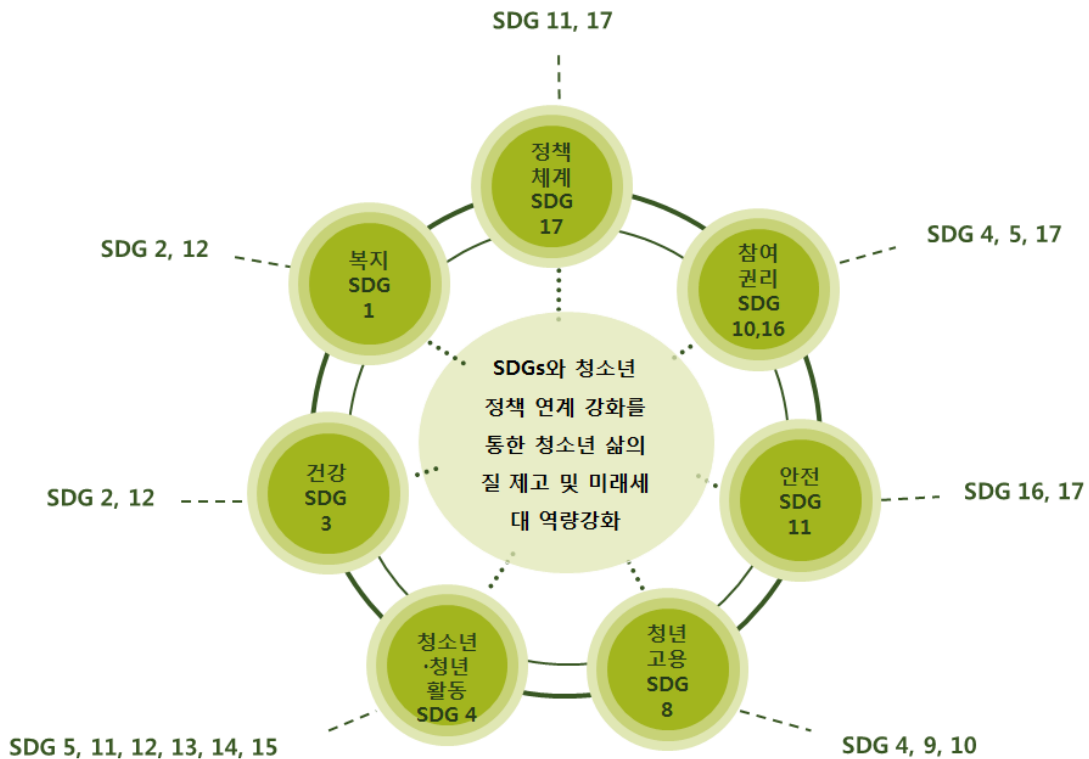
- 국가 지속가능발전 계획과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간 연계 미흡함
- 지속가능발전 관련 청소년 활동·교육 사업에 부처 간 연계성 부족함

【그림 VII-1】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의 방향

2)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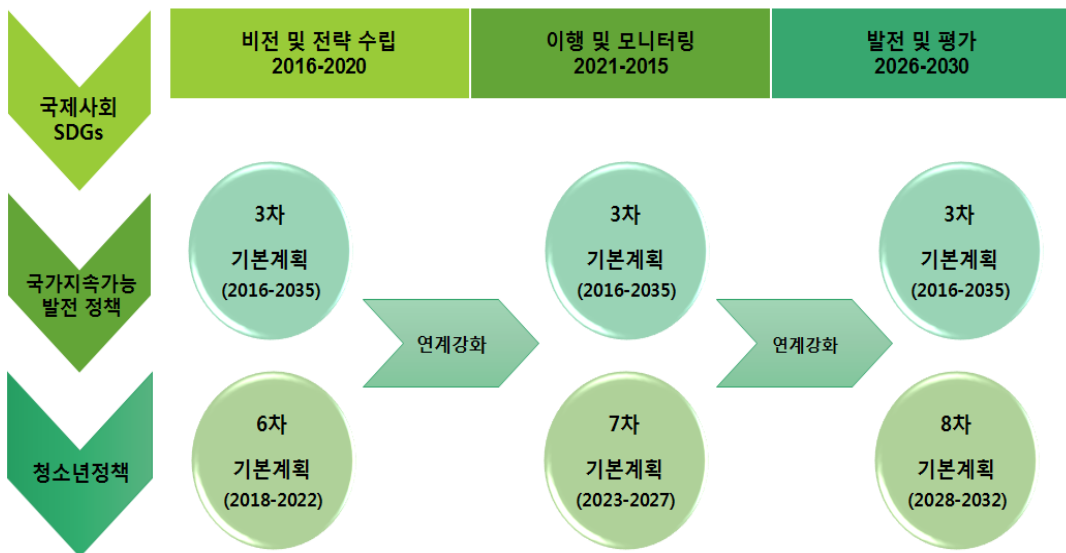
이러한 결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SDGs와 청소년 정책 연계 강화를 통한 청소년 삶의 질 제고 및 미래세대 역량강화”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정책의 여러 영역에 걸쳐 SDGs 목표 및 주제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아래 [그림 VII-2]는 이러한 정책 영역 간 연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은 청소년·청년 활동 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역량 개발이다. 이 영역은 현재는 주로 SDG 4. 교육과 관련되지만, 향후 SDG 5. 성평등, SDG 7. 에너지, SDG 11. 지속가능도시, SDG 12. 지속가능생산과 소비, SDG 13-15 기후변화 대처 및 생태계 보호 등과 관련된 정책 추진 시 해당 정책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활동, 서비스지원 등에 대한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SDG 11. 지속가능도시조성은 청소년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에 대해 보호적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 친화적이고 청소년 참여지향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며,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SDGs 이행과정에서 수립되는 다양한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그림 VII-2】 SDGs 시대 청소년정책의 비전 및 전략

다음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은 국제사회 SDGs 이행상황 점검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계획은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달성하는데 있어 청소년 정책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다 큰 틀에서 구상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보다 청소년정책이 국가 지속가능발전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이행상황 점검 과정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이행노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바를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I-3】 S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국가정책-청소년정책의 추진

2. 정책 제언

이 절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SDGs 시대 청소년 정책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 <표 VII-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2.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3. 청소년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7개 정책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일정은 단기, 중기, 중장기로 구분하였으며, 청소년 관련법 상으로 추진될 수 있는 7개 과제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시행될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의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표 VII-1 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제언

영역	정책 과제	세부 과제	행정기관	비고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미래세대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가칭) '국가 미래세대정보지원센터' 추진	국무조정실, 각부처	중장기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에 미래세대위원회 설치·확산	각 지자체	중장기
		청소년 헌장 개정	여성가족부	단기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청소년정책 영향력 제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청소년 관련 내용 확대 반영	환경부, 통계청, 여성가족부	중장기
		청소년 정책 성과지표 확대 반영	여성가족부, 환경부	단기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미래세대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범부처 (가칭) '미래세대 구상' 추진	여성가족부, 각부처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활동 모형 발굴 및 공유·확산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다양한 청소년 활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청년 활동 기반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지역 기반 청소년 활동 통합정보 구축	여성가족부, 환경부, 지자체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증진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청소년 지표 추가 반영	국토교통부	중장기
		청소년 친화적 도시계획시범사업 실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중장기
청소년 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SDGs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제고	청소년 관련 매체를 통한 홍보 확산	여성가족부	지속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 운영	여성가족부	지속
	청소년 국제협력 활성화	청소년 ODA를 통한 개도국 지속가능발전에 기여	여성가족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 국제협력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① 미래세대 권리·역할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1) 미래세대 권리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1) (가칭) 국가 미래세대정보지원센터 '추진'

배경 및 근거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와 세대 간 형평성 관점을 반영해야 하여,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미래세대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는 의회 소속의 미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참고 자료).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속가능발전법 [시행 2015.12.1.] [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 제18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의 제·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3장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 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관으로 관련 부처 간 협조체계가 미약하며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가능발전을 국가적인 정책 방향의 틀로 삼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법 및 그 상위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³⁾.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흐름 속에 미래세대의 권리 증진과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총괄 기구로서 (가칭)국가미래세대정보지원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73) 예컨대 2016년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엔 SDGs이행과 국제개발협력, 그리고 입법과제」세미나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참 고 자 료

■ 핀란드: 미래위원회

핀란드 미래위원회는 1990년대에 의회 내 임시 위원회로 설치되었다가 200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상임위원회로 승격되었다. 위원회를 현재의 형태로 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래와 미래세대와 관련한 사안들이 특정 정부나 의제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다루어져야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회는 현역 의원들로 이루어져 예산을 제외한 모든 법안과 관련하여 제언할 수 있다.

미래위원회는 미래와 미래세대와 관련한 사안과 관련되어 있는 한 어떤 사안이든 검토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지니고 있다. 위원회가 미래와 미래세대에 관한 환경 문제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이에 기반 한 입법 활동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로 미래위원회는 환경, 경제, 고용,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일련의 연구보고서들을 발표해 왔다. 위원회는 미래와 미래세대에 관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의회가 발의한 사안에 제언함으로써 행정부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에너지나 보건 같은 사안 등에 집중적으로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이스라엘: 국가 미래세대 위원회

2001년 3월 이스라엘 의회는 미래세대 위원회의 설립을 공식 선언하는 헌장을 국회법에 포함시켰다. 위원회의 역할은 국회 기관으로서 미래세대의 필요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본 및 보조 법안에 포함될 미래 이스라엘 창조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5년의 활동기간 동안(2001-06년) 환경 및 이와 관련된 사회 문제들, 예를 들어 천연자원, 교육, 보건, 기술, 법, 개발, 인구 및 기타 이스라엘 헌법·법률정의 위원회가 규정하는 미래세대와 연관된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위원회는 ① 미래세대를 위해 법안, 보조 법률, 이해관계 규제 등에 관한 의견 제시, ② 국회에 미래세대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모든 사안에 대한 제안서 제출, ③ 감사원의 심사를 조건으로 모든 기관(정부부처, 국영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정보 요청 ④ 국회 위원회에 미래세대와 관련성이 있는 기초 및 보조 법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요청의 권한을 가졌다.

* 출처: 서용석·홍정훈(2014). pp. 74-78.

추진 방안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기능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상시적인 조사업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 목적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을 수집 및 조사하여 정책이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 및 세대 간 형평성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전반에 걸쳐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다. 센터의 기능은 기본적인 정보수집 및 연구조사 기능을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정책에서 지속가능발전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거나 주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부처 전반의 정책을 다루는 센터 업무의 특성상 부처보다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하

는 것이 적절하다. 우선 한 가지 방안은 현행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센터를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안이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속가능발전법 및 위원회 업무가 환경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상위법 개정 논의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센터의 주업무는 우선 국내외 미래세대 관련 정책 분석 및 정보수집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정책 전반에 대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역량 개발 진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장치로서 청소년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정책을 범위로 하는 청소년특별회의보다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경제·사회 전 영역에 걸쳐 청소년의 권리와 삶의 질의 보장, 그리고 미래세대로서의 역량 개발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의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등 포괄적인 정책 토론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자문단의 활동 결과는 매해 (가칭) ‘대한민국미래세대보고서’ 등으로 출간될 수 있다.

표 VII-2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	기존	개정(안)
제4장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제1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4.7.>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7.>	(상동) (신설) 제20조(미래세대정보지원센터) ① 법 제18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한 조사·협의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미래세대정보지원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에서 미래세대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한 검토 2. 국내외 미래세대 지원 관련 조사·연구 3. 지속가능발전 정책 청소년자문단 운영 4. 미래세대 지원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③ 국무조정실장은 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33호, 2015.6.22.,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2)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에 미래세대위원회 설치·확산

배경 및 근거

본 연구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은 전국적으로 142개의 의제 21 추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및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6장에서 분석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경우 6년간의 활동 역사를 통해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처럼 청소년·청년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의제21 정책 추진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활동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미래세대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추진 방안

지역의 의제21추진기구 소속 미래세대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청년의 참여 확산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권리를 정책 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다. 6장 사례분석 결과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의 경우 하나의 분과 위원회로서 청년들에게 책무성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는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미래세대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처럼 전문 분야에 대한 사업 이행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다른 위원회와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은 현행 지자체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 조례를 통하여 위원 구성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서울시 조례의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청년”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표 Ⅶ-3 지자체 조례 제·개정(안)(서울시 조례 예시)

조항	기존	개정(안)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 푸른도시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자발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청소년·청년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3) 청소년 현장 개정

배경 및 근거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현장은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1998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을 주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오늘의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청소년 현장을 선포하였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미래는 어떠한지 등, 청소년이 원하는 미래(The future youth want) 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SDGs 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미래세대로서 지속가능발

전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헌장을 통해 그 의미를 선언하고, 널리 공유할 필요가 있다. EU 청소년 참여 헌장⁷⁴⁾에서는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세대 권리라는 관점에서 청소년·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관련 제도 및 정책 전반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추진 방안

청소년 헌장은 청소년 스스로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헌장 작성 과정에는 현재 청소년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체로서 어떤 권리와 역할을 지니는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청소년 헌장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헌장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정의 필요성 및 작성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청소년 헌장의 개정 작업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보다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전문가 자문, 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청소년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참가자 신청을 접수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의제21추진기구 등 다양한 지속가능발전 관련 단체 등에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와 지구 공동체에 닥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사이트와 SNS를 통한 공유 및 참여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74)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2003), Revised European 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Local and Regional Life, https://www.coe.int/t/dg4/youth/Source/Coe_youth/Participation/COE_charter_participation_en.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참고자료

청소년헌장 (1998.10.22 개정)⁷⁵⁾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주거·의료·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성별·종교·학력·연령·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의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의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75) 출처: 여성가족 부 홈페이지, 청소년헌장.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tPage=6&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564/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2)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이행과정에 청소년 정책 영향력 제고

(1)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 청소년 관련 내용 확대 반영

배경 및 근거

2016년은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 발표되고, SDGs의 국내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정 작업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이다.

현재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총 84개로 이 가운데 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는 건강 관련 3개(13. 유소년 영양상태, 19. 유소년전염병 예방주사, 20. 비만율)와 교육 관련 3개(21. 고등학교 순졸업율, 22.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3. 공교육비 지출)이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을 고려하는 추세이며,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경우 이미 미래세대 영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장 청소년 삶의 질 실태를 SDGs 관점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 살펴보았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현안 및 SDGs 글로벌 지표를 고려하여 몇 가지 지표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수정 작업은 환경부와 통계청,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 시행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SDGs 글로벌 지표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해당 통계자료가 존재하는지 혹은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 검토 중에 있으며, 이후 국가 지표에 대한 개발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SDGs 국가 지표는 SDGs를 국가마다 상황에 맞게 이행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이다. 이에 기존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SDGs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우리나라가 향후 SDGs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관련 지표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SDGs 국가 지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와 연동되어 관리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정책에서 미래세대에 대한 형평성과 청소년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가 지표는 세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삶의 질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과제와 관련된 수치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국가 지속가능성 관리에 미래세대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규 영역으로 미래세대 '영역'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지표로는 사교육비 지출액, 학업중단을, 청년 니트족 비중, 아동학대 건수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사교육비 지출액은 통계청 삶의 질 지표로 이미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청년과 관련된 현안인 동시에 SDGs 글로벌 지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표 VII-4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추가(안)

영역	지표	비고
미래세대	사교육비 지출액	통계청 삶의 질 조사 지표
	학업중단을	SDGs 글로벌지표
	청년 니트족 비중	SDGs 글로벌지표
	아동학대 건수	SDGs 글로벌지표

(2) 청소년 정책 성과지표 확대 반영

배경 및 근거

국가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청소년 정책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청소년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청소년 관련 정책 내용을 충실히 담을 필요가 있다. 3장에서 지적하였듯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 건강관리 증진'과제에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성과를 담고 있었으나, 성과 지표로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만이 제시되었을 뿐 다른 정책 실적 지표는 관리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과제가 어린이 건강증진으로 축소되어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행과제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행과제에서 관련된 청소년 정책 사업의 내용 및 실적을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진 방안

올해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체계는 목표-전략-이행과제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청소년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로는 목표 2. 통합된 안심사회와 목표, 5.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반 강화 등이 있다. 현재 기본계획 문서에는 청소년 관련 성과지표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2년마다 작성되는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6년 예상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청소년 정책 사업 가운데 성과지표가 관리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향후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5c). 물론 이러한 성과지표는 임의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며, 성과지표 관리만으로는 청소년정책 전반에 걸쳐 어떤 정책이 국가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는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성과가 축적된 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해보는 것은 향후 청소년정책에서 어떤 지표가 새롭게 구축되거나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이행과제와 관련하여 CYS-Net 사업, 청소년쉼터와 관련된 성과지표가 있으며, 해당 사업은 청소년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지표로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강화는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가속화에 따라 국가 구성원 간의 통합을 위해 이번 3차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에서도 다문화 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의 다문화역량 개발 등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의 관련 사업으로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사업이 있으나, 사업지원비 실적 외에 별도의 성과지표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건강과 관련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등에 대한 성과지표가 관리되고 있다. 휴양·치유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이 해당하는데, 시설 건립은 단기간의 실적으로 부적절하므로 대신 수련프로그램 실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활성화에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및 참여 관련 사업 등이 성과지표로서 관리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참여지역사회프로그램이 가장 직결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참여기구 가운데는 청소년특별회의 참가자 만족도가 성과로서 관리되고 있다.

표 VII-5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따른 청소년 정책 성과지표(안)

목표	전략	이행과제	성과지표(안)	주요 내용(안)	소관 부처
2. 통합된 안심 사회	2-1 사회 계층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2-1-① 사회적 안전망 강화	CYS-Net 수혜자 변화정도(%)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 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가정복귀 및 자립율(%)	가출청소년 보호, 생활지원,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여 가정·사회로의 복귀 도모	
		2-1-③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현재 없음	이주배경 청소년 사회적응 및 지원	여성 가족부
	2-3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	2-3-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수(명)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활용 촉진 및 정신건강 증진	여성 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자 수(명)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	
		2-3-⑤ 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수(건)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여성 가족부
5.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1 지속가능 발전 이행기반 강화	② 지속가능발전 교육 활성화	청소년참여지역 사회 프로그램 지원 팀 수(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제고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여성 가족부
			청소년특별회의 참여자 만족도(점)	청소년의 정부 청소년정책 참여를 통한 역량 개발	여성 가족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지표는 현재 청소년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므로, 앞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청소년 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활동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거둔 성과를 향후 지표로서 적극 관리 및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청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미래세대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1) 범부처 (가칭) “미래세대 구상 ” 추진

배경 및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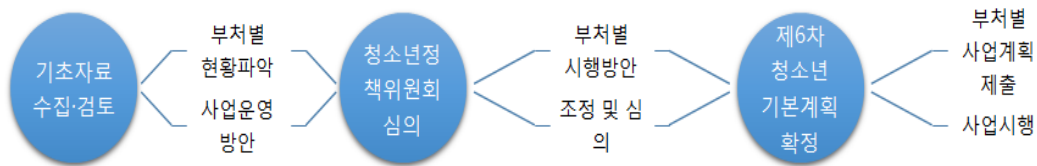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SDGs의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분야 역시 SDGs의 방대하고 포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정책 구상과 실행 기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 6장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환경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에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모든 정책에서 지금보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 청소년기 본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정책 컨트롤타워 기구로서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기존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에 비해 심의·조정 기능이 강화되어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정책과 현안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안건으로 범부처 사업인 (가칭) “미래세대 구상(Future Generation Initiative)”을 제안하고, 추진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6차 기본계획에서 해당 과제를 세부과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추진방안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은 부처별 정책 현안에 대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진 절차로는 우선 SDGs 세부 내용에 대한 부처별 현황 파악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올해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에 제출된 부처별 이행방안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부처별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청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정책사업을 통해 이를 실제로 이행해 가는 것이 미래세대 구상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년과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부처별로 사업운영 방안을 도출하면, 이후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 및 심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중복 사업 조정 및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여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이후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 '과제' 안에 해당 정책 사업들을 제출하고,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 시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유관 부처들의 청소년 사업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청소년기본계획 하에 체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다.



【그림 VII-4】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 추진 절차(안)

부처별로 미래세대 구상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정책사업(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이 안에서는 먼저 2016년 수립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세부과제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의 활동 참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제5차 청소년 기본계획의 정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시된 안 가운데 에너지자립학교와 개도국 청소년 ODA 사업의 경우 각각 시행 계획에 있거나 검토 중인 사안으로, 미래세대 구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처별로 청소년·청년 관련 정책 실행역량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6차 기본계획 시행 기간 중에 점차적으로 미래세대 구상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VII-6 범부처 미래세대 구상의 내용(안)

SDGs 영역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세부과제	정책사업(안)	부처
건강과 웰빙 SDG 2, 3, 15	영양섭취의 균형성 제고	위기청소년 식생활관리 강화	식약처, 여성가족부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소년 도시농업 참여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휴양·치유 인프라 확충 및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청소년지도자 대상 산림치유 교육과정개발	산림청
세계시민의식 SDG 4.7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강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청소년 어울림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 SDG 8	생태관광 저변 확대 및 다변화	지역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환경부, 문화체육부
안전 SDG 11, 13	녹색건축 인증제도 내실화	청소년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강화	여성가족부
참여·권리 SDG 16.7, 17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의제21을 통한 청소년·청년 활동 지원	환경부
환경 SDG 3, 4, 13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환경부
	도심속 자연생태공간 확대	어린이·청소년 참여형 생태 놀이터 조성	환경부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립학교(추진예정) ⁷⁶⁾	교육부
국제개발협력 SDG 17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	개발도상국 청소년 ODA사업(검토중)	여성가족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2)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활동 모형 발굴 및 공유·확산

배경 및 근거

SDGs 4.7에서는 지속가능사회를 이끌어갈 주체로서 청소년에게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세계시민의식,

76)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공공기관에 제로에너지 빌딩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의무화할 계획이고 이에 교육부는 선제 조치로서 2020년부터 초·중등 및 대학 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자립학교를 추진할 계획이다(교육부, 2016b).

문화다양성 및 문화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여에 공감"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SDG 13.3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인식 제고와 교육을 강조하는 등, 미래세대로서 청소년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미 관련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6장에서 살펴보았던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역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청소년 활동 사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발굴하고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청소년 주도의 사회참여 활동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 활동 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추진방안

우선 지역사회 참여 중심의 청소년 활동은 기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프로그램,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 방식에서 적용될 수 있다. 앞으로의 지원방향은 청소년이 스스로 참여 활동에 대하여 가치롭게 여길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는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사례에서 보았듯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을 확대 해 주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되는 여러 이슈(전통문화, 문화유산보존, 성평등, 문화다양성, 세대통합, 도시농업, 에너지감축, 친환경 주거,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제, 지역사회 갈등 등)를 중심으로 관련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활동 운영 단체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집단 등과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위하여 방문이나 인터뷰를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간담회 등, 청소년들이 활동 결과 제시한 문제해결 방안 또는 제안 등에 대하여 관련 정책 실무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활동 결과물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에 도움을 주는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가칭) 청소년참여자문단 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필요시 회의비 수준의 사례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어른들도 청소년의 참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른들 자신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여겨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청소년어울림마당과 같은 지역사회 청소년 교류의 장을 통해 활동 결과물에 대한 공유 및 확산 노력이 필요하다.

표 VII-7 지역사회 참여형 청소년 활동 모형 예시

활동 목표	적용 가능 프로그램	운영 방안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문제 발굴, 조사, 해결방안 모색	•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 자기주도형 청소년 자원봉사 • 청소년 동아리활동	• 전통문화, 문화유산보존, 성평등, 문화다양성, 세대통합, 도시농업, 에너지감축, 친환경 주거, 기후변화, 지속가능경제, 지역사회 갈등 등 신규 주제에 대한 지원 강화 • 자료조사를 위한 방문, 인터뷰 등 수행 시 해당기관 협조체계 구축 • 지역사회 문제해결방안의 정책 반영 효과제고를 위한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 • (가칭) 청소년참여자문단 '운영 • 청소년어울림마당 등을 통한 공유·확산

(3) 다양한 청소년 활동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배경 및 근거

위에서 제시한 과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둔다면, 보다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활동 콘텐츠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실행 사례 가운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콘텐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먼저 청소년 활동 콘텐츠 유형을 제시하면 아래 <표 VII-8>과 같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비롯한 자연권 수련시설에서는 환경보호 및 체험활동과 공동체 수련활동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다. 국립평창수련원(2015)의 프로그램 개발 사례로는 학교단체 기본형, 자율참가형, 자유학기연계형 프로그램이 있으며,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연수과정도 개발된 바 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활동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은 주로 생활 관리나 진로탐색 초점을 두거나, 특정분야의 직업체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기초소양교육의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미래계획과 삶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에서 개발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목적 하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래, 자립, 공존의 가치를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편 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에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운영해 온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턴십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참여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출 및 빈곤 청소년으로서 심리정서, 직업진로, 검정고시, 자립역량 등 총괄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는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 단계별로 인턴활동을 수행하여 청소년들이 책임감과 소속감을 지니면서 공동체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공예, 텃밭활동 등 작지만 의미있는 경제활동을 해보면서 자립 역량을 쌓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청소년기본계획 등 청소년정책에서 가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이 맞벌이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방과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면, 참여 청소년들이 복지의 수혜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주체로서 활동할 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상자 텃밭 가꾸기나 근교 도시 농업에 참여 등 보다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해 영양과 건강에 대한 관심 및 좋은 습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에서 2013년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텃밭디자인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4회차로 구성되었고 실무자들이 생태교육의 관점에서 텃밭가꾸기의 의미에 대해 학습하고 실습해 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실무자 교육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기관에서 텃밭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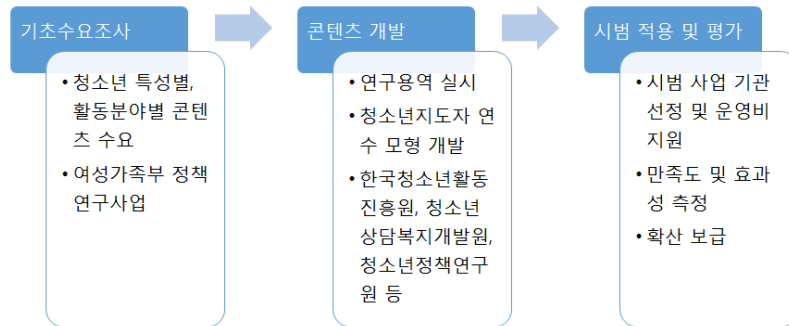
표 VII-8 청소년 활동 콘텐츠 예시

활동 목표	적용 가능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방향	참고 사례 ⁷⁷⁾
환경보호·체험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 수련활동	-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적 감수성 증진 활동 - 청소년 문화·문제에 대한 탐구 활동	국립평창수련원(2015).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계 청소년수련활동 자연생태환경 프로그램.
자기계발 및 자립역량 강화	학교 밖 청소년 두드림, 특성화 프로그램	청소년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출발하여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미래지향적 사고의 훈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 행복과 성공 등 삶에 대한 다양한 기준과 가치 정립 - 수공예, 텃밭활동 등 참여에 대한 인턴제 실시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2013-2015)
건강 및 생활관리 역량 강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 상자 텃밭, 텃밭가꾸기 등 도시농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업의 가치 이해 -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2013). 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디자인.

이러한 콘텐츠 안을 비롯하여 청소년 활동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먼저 수요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의 목적은 다양한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활동, 복지, 자립지원 등 다양한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활동 콘텐츠의 주제와 영역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 활동의 미래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여성가족부의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주제에 대하여 콘텐츠 개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용역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용역의 범위에는 청소년 특성별, 시기별, 활동유형별 콘텐츠 개발뿐만 아니라, 이 활동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모형 개발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국의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기관을

77) 출처: 이재영·정수정·곽정난 (201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 청소년수련활동 자연생태환경 프로그램 연구.
 황세영·조성화 (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실무교육: 지역아동센터 생태텃밭디자인. www.icareinfo.info.
 에서 2016년 7월 20일 인출.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2015).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 결과보고서(2013-2015).

모집하고, 선발된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활동 콘텐츠의 운영 및 평가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참여 청소년들의 만족도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활동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기관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안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Ⅶ-5】 청소년 활동 콘텐츠 다각화 사업 추진 절차(안)

2)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청년 활동 기반 구축

(1)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배경 및 근거

청소년과 청년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5장에서 보았듯이 청소년과 청년층은 우리사회가 성장일변도의 정책보다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인식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년층은 청소년층에 비해 사회문제 및 관련 활동 참여의향에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청소년과 청년층은 각각 사회발전에 대한 관심사와 참여의향 정도가 다른 만큼 기존 청소년 활동과는 다른 방식과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6장의 사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문제를

탐색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해 가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실행체계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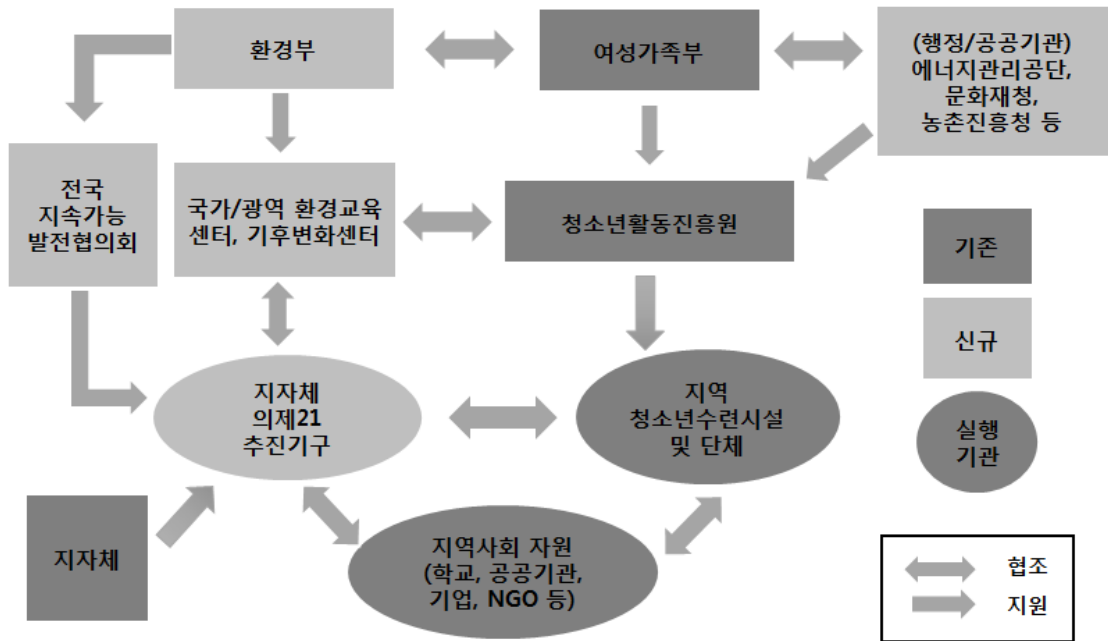
현재 청소년 활동정책 추진체계는 정책부서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주도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들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환경부는 환경교육종합계획을 통해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기후변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에서도 청소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정책 추진체계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일부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킹과 사업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⁷⁸⁾.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 사업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및 관련 당사자의 참여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은 이러한 협조체계의 부재를 드러낸다. 따라서 기존 청소년활동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환경부 산하 기관, 지자체 의제21추진기구, 기타 지속가능발전 관련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폭넓은 네트워킹과 협조체계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 VII-6]에서와 같이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는 환경 관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에서의 청소년·청년활동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등 역시 에너지교육, 문화재보호활동, 도시농업 관련 교육·사업을 다수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동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협조아래 청소년 자원봉사, 지역사회참여프로그램, 청소년 동아리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활동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를 통하여 보급할 수 있다.

지자체 의제21 추진기구에서는 다수의 청소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 주도의 활동보다는 홍보 및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소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의제21 추진기구에서는 활동의 콘텐츠와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실제 활동을 기획하고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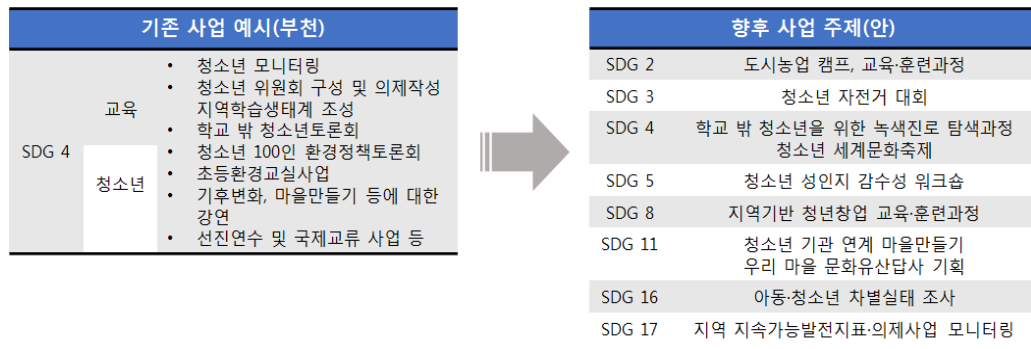
78) 예컨대 올해 10월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경기도 환경교육한마당 행사를 공동 개최 예정이다(출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https://www.ggyc.kr:56591/main/main.html>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끄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지원예산에서 청소년 및 청년 비중을 할당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VII-6】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 지원체계(안)

활동 콘텐츠로는 청소년의제 또는 청년의제 작성,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표 검토 및 모니터링, 지자체 청소년 및 청년 정책 제안 등이 가능하다. 또한 아래 [그림 VII-7]과 같이, 기존 지자체21 추진기구의 청소년사업이 주로 SDG 4에 포함되어있었다면, 도시농업, 진로탐색, 세계문화축제, 성인지 감수성 워크숍, 청년창업, 문화유산답사, 아동·청소년 차별 등 보다 다양한 영역에 걸쳐 청소년·청년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VII-7】 지역사회 청소년·청년활동의 다각화⁷⁹⁾

이처럼 지역사회 청소년·청년 활동 체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와 환경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의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에 환경교육법 상의 사회환경교육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통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의 지정을 유도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경비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표 VII-9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	기존	개정(안)
제17조(청소년 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상동) (신설) 8. 「환경교육진흥법」 제 2조 및 제 10조의 사회환경교육기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69호, 2016.8.29.,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마찬가지로 기존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비롯하여 환경교육 사업에서 청소년활동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교육진흥위

79) 출처: 오수길 외(2016b). 한국 지속가능발전 현황 보고서: 지역보고서. p. 17.

위원회에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부처 협조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VII-10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조항	기존	개정(안)
제5조 (환경교육진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2.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9%98%EA%B2%BD%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2) 지역기반 청소년활동 통합정보망 구축·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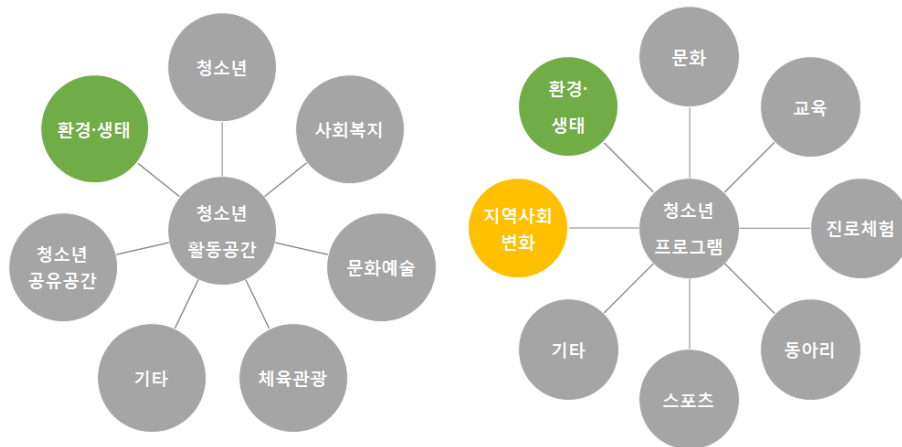
배경 및 근거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다각화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정보에 대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 5장에서 설문조사 결과 도시농업, 문화보존, 친환경소비, 생태모니터링 등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의향은 높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관심도를 높이고, 활동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기반 청소년활동에 대한 검색, 홍보, 참여신청 등을 포괄하는 통합정보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기관, 민간시설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참가대상, 지역, 연령, 활동시기, 키워드검색, 기관유형, 활동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검색하고, 해당 활동에 대한 소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활동은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앞에서 제안하였듯이 지역기반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자원과 콘텐츠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포털 다잇다 사이트를 참고할 만하다. 아래 [그림 VII-8]과 같이 다잇다 사이트의 경우 청소년활동공간별, 프로그램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청소년 행사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기능에 환경·생태 분야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지역사회변화 프로그램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통합적인 정보망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



【그림 VII-8】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통합정보망(안)⁸⁰⁾

80) 출처: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포털 다잇다 사이트. <http://daitda.or.kr/> 에서 2016년 10월 20일 인출.

3) 지속가능도시 조성을 통한 청소년 삶의 질 증진

(1) 청소년 친화적 도시계획 시범사업 실시

배경 및 근거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 도시 조성(SDGs 11)을 위하여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청소년 참여에 의한 도시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의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미래세대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직까지 청소년 참여는 매우 일부 지자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아이디어 제안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행복도시조성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청소년의 삶의 터전인 물리적인 환경(즉, 도시 공간)에 대한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아 추진력이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큰 틀에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도시 계획 차원에서의 청소년 친화적 접근을 고안하기 위한 R&D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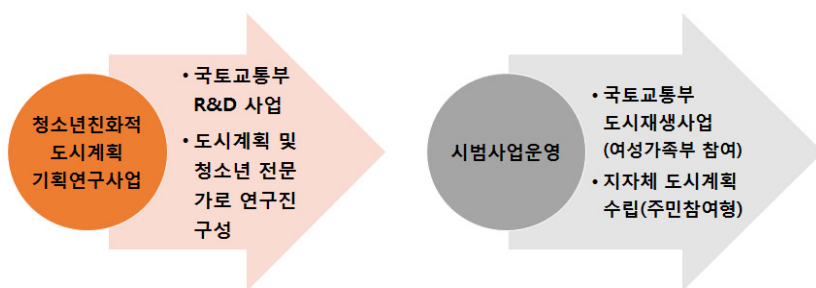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국토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소관으로,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11-2020)의 수정을 추진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삼고 있으며 이는 SDG 11과 매우 관련성이 높은 주제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토 계획은 아직까지는 건설과 교통 등 물리적인 환경의 측면에서 국토 공간을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점이 포함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청소년 참여를 고려한다는 것은 결국 국토계획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역으로 접근하면, 혁신적인 사례를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정책의 전환을 촉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처 R&D 사업을 통한 이론적 근거 마련 및 모델 발굴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의 R&D 사업은 산하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제안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연구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의 참여에 의해 기존 도시계획과 차별성이 있는 접근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기획연구 기간이 보통 2년 내외임을 감안하여, 연구내용으로는 청소년친화적 도시계획을 위한 문헌 조사, 해외사례 조사, 국내 적용 가능 사례조사 등으로 구성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운영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시범사업운영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에 여성가족부가 참여하는 방안과 주민참여형 지자체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가능한 부처협업사업리스트를 확정하고 지자체가 연계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처 간 실질적인 협업을 위해 MOU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여성가족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MOU체결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범사업의 구상은 독일의 청소년 친화적 도시계획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친화적 도시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시범사업 운영단계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역할은 청소년 친화적 공간 조성, 지역의 청소년 문제 진단, 청소년 참여방안 고안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탐구하고, 청소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탈바꿈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



【그림 Ⅶ-9】 청소년친화적 도시계획 R&D 및 시범사업(안)

참 고 자 료

▪ 독일의 청소년 도시계획 참여 R&D 사례(BBR, 2010)

독일 교통부의 실험적 주거 및 도시건설 대형 R&D ExWoSt 중 한 프로젝트로 청소년들이 형식상 참여가 아닌 직접, 주체적 실험 프로젝트로 ‘도시주거구의 청소년(Youth in the quartier)’이라는 프로그램을 출발시켰다. 이에 220개의 단체가 지원하여 이중 32개의 모델사업이 선정되어,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2개의 모델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투입된 재정은 총 2.5백만 유로(한화 약 32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토론과 협의 그리고 계획을 통해 직접 실천에 옮기는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시도를 통해 주민과 행정기관에서는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더욱 진지하게 다루게 되었고, 열린 시각과 방법론, 내용적 접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목표달성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BBR 2010: 12). 다음은 엑스포스트에서 선정된 32개의 모델사업 중 일부 사업의 개요이다.

도시	내 용
뮌헨 (2009)	“모듈 7” 뮌헨 개발지역인 Ackermannsbogen에서 청소년들의 공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해 지역계획에 참여. 동영상, 레포트, 코믹을 제작, 지역 삶을 주제로 한 놀이도 개발.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청소년 소통의 장을 마련해 그들의 관심사를 성인 관련자들에게 홍보, 전달함⁸¹⁾. 
프랑크푸르트 (2009)	“Game Labor” 컴퓨터 게임의 VR상의 도시의 특정 장소, 도로 또는 주거블록을 게임방식으로 청소년의 시각, 주제 및 도시계획 이슈를 가지고 가상의 공간에서 실습하는 놀이하는 방식임⁸²⁾. 

81) 출처: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웹사이트 1.

함부르크 (2009)	“Street Life ” 빌레지역 과거 건축협동조합 사무실에 이웃센터 및 다세대하우스 건축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개별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여 도시 주거 구에 실현됨⁸³⁾. 
-------------------------------	---

(2) 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청소년 지표 추가 반영

배경 및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4년 국토교통부 훈령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해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속가능도시 조성과 청소년 참여는 SDGs 달성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평가 지표에 청소년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도시정책 입안에 있어 청소년 삶의 질 및 청소년 참여 방안을 중요하게 다루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한다.

추진 방안

<표 VII-11>에서와 같이 평가지표는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지표와도 유사하면서도 도시계획 정책 분야 지표 숫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그 속에

http://www.bbr.bund.de/BBSR/DE/FP/ExWoSt/Forschungsfelder/2009/JugendlichemStadtquartier/Modellvorhaben/MuenchenAckermannbogen_aufstockung.html?nn=425678/

민헌 미디어 센터 웹사이트, Medienzentrum Muenchen(JFF).

<http://www.medienzentrum-muc.de/angebolevent/modul-7/>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82) 출처: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웹사이트 2.

http://www.bbsr.bund.de/BBSR/DE/FP/ExWoSt/Forschungsfelder/2009/JugendlichemStadtquartier/Jugendbeteiligung/04_Modellvorhaben_B.html?nn=430172

게임랩 웹사이트, Gamelabor, <http://gamelabor.blogspot.kr/>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83) 출처: 함부르크 톨러오르트(Tollerort) 웹사이트, <http://tollerort-hamburg.de/projekt/elbschloss-bille/>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생활 인프라 개념을 적용하였다. 생활 인프라는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로 정의되며, 현재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된 지표는 아직까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에서와 같이 청소년 천 명당 청소년여가 시설 수(생활 인프라), 청소년 도시계획 제안실적을 지표로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청소년여가시설은 기본적인 청소년 복지 인프라에 해당하며, 청소년 도시계획 제안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계획 조성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평가 지표의 개정은 위에서 제시한 국토교통부 R&D 사업의 결과물로도 제시될 수 있으며, 개정 작업에 앞서 여러 전문 영역에서 자문을 거칠 필요가 있다.

구분		지표
도시사회 부문	방재안전	- 인구 천명당 풍수해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 - 인구 천명당 화재발생 건수 - 인구 천명당 경찰관수+소방관수
	사회복지	-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유치원수, 유치원 원아 수*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 - 노인(60세이상)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 수* 청소년 천명당 청소년여가 시설 수*
	문화	- 인구 천명당 문화시설 연면적* - 인구대비 공공도서관 장서 수 - 인구 천명당 체육시설 대지면적* - 도시인구 대비 도시지역 공원녹지면적*
도시경제 부문	인구	- 인구증가율 향상도 - 인구대비 신생아수 - 경제활동 인구 비율 - 인구대비 순인구유입
	경제	- 경제활동 참가율 -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 재정자립도 1인당 예산규모 1인당 GRDP - 부채비율 저감도
도시환경 부문	정주	- 전체 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비율 - 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RIR) - 소득 대비 주택가격 수준 (PIR) - 노후 건축물수 대비 증축, 개축, 대수선 건축물 수
	환경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비율* - 도시지역 면적비율 대비 상하수도 보급률* - 임야면적 감소비율
	교통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 자동차수 대비 주차면수 - 인구 천인당 대중교통 운행결손금 지원액
지원체계 부문	토지이용관리	- 시가화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면적의 비율 - 시가화구역 내 미이용 토지면적 비율 - 도시계획 대비 실제인구 도달률 - 비시가화구역 면적 대비 형질변경(대지전환) 면적
	조직역량 및 계획집행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전문분야 위원 참여비율 -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계획 및 조직 여부 - 미집행시설 면적 감소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정보공개 청구실적 - 주민제안건수 - 주민참여 관련 예산의 증가율 청소년 도시계획 제안건수

* 출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기본지표(국토교통부 훈령 제537호)

* 주: * 표시는 생활인프라 평가대상(10개 지표)

③ 청소년 정책의 SDGs 기여도 제고

1) SDGs에 대한 청소년 인식 제고

(1) 청소년 관련 매체를 통한 SDGs에 대한 인식 확산

배경 및 근거

올해는 SDGs의 첫 해로서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SDGs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및 행사를 통해 SDGs의 취지를 알리고 향후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UN지원 SDGs한국협회에서 대학생 UN SDGs 홍보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 대학생들은 SDGs 관련 개별 목표 또는 주제에 대해 학습하고, 관련 기관 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블로그에 올리는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⁸⁴⁾. 하지만 홍보대사의 경우 소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까지 온라인 참여 등, 다수의 대중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SDGs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고,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SDGs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SDGs 각 목표에 대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전달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관련된 이슈를 탐색해 볼 수 있는 정보 제공의 기능도 추가되어야 한다. 또한 SDGs와 관련된 청소년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벤트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벤트의 내용은 단순히 특정 지식에 대한 정답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SDGs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련 이슈를 찾는 방식 등, 청소년 스스로가 SDGs의 의미를 탐색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84) 참고: 대학생 UN SDGs 홍보대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unsdgs> 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이러한 콘텐츠는 청소년활동진흥원 웹사이트, 청소년참여포털(www.youth.go.kr) 홈페이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의 메뉴로서 탑재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e랑, 부처 및 산하기관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

(2)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 운영

배경 및 근거

온라인 홍보활동 외에도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SDGs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DGs에 대한 청소년 체험·행사 활동으로 아일랜드의 One World Week을 벤치마킹하여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 사례로는 환경부의 '기후변화 주간' 등이 있으나, 청소년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추진 방안

SDGs와 청소년 주간의 구성(안)을 제시하면 아래 <표 VII-12>와 같다. 주간은 7일 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수 있다. 일부 일정은 청소년 박람회의 일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주간의 내용은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퍼포먼스 등 홍보활동과 발표회, 토론회, 포럼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학술, 민간 행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청소년활동진흥원을 비롯하여 청소년 단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공공·민간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공동 주최함으로써 행사 참여도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다.

표 VII-12 (가칭) SDGs와 청소년 주간 구성(안)

차수	행사	주요내용
1일차	SDGs와 청소년 주간 개막식	청소년 홍보대사 위촉, 퍼포먼스 등
2일차	지속가능발전과 미래세대 한마당	청소년 활동 사례보고회, 청소년동아리 발표회 등
3일차	청소년이 원하는 미래(The Future Youth Want)	SDGs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과제에 대한 청소년 100인 토론회
4일차	SDGs 분야별 청소년포럼 (1)	지역사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5일차	SDGs 분야별 청소년포럼 (2)	지속가능도시조성과 청소년 참여
6일차	미래세대 토크콘서트	다가올 미래변화에 대한 전문가 강연 등
7일차	세계 유스리더 포럼	SDGs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는 각 국의 청소년·청년들 간의 회담, 유스 선언문 작성 등

2) 청소년 국제협력 활성화

(1) 청소년 ODA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배경 및 근거

우리나라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통하여 개도국 SDGs 이행지원 전략 마련을 이행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SDG 17.2에서도 개도국 ODA사업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ODA사업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2016년 발표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교육전략(2016-2020)은 SDGs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양질의 교육을 통한 개도국의 포용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6). 또한 SDGs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학교 밖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삼고 있어, 청소년분야 ODA사업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분야나 여성분야와 달리 아직까지 청소년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ODA사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여성가족부 중심의 청소년 ODA 중장기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⁸⁵⁾

우선 청소년분야 ODA사업의 영역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의 추진협의체(working group)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에는 ODA 전문가와 청소년전문가를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 청소년활동진흥원 관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청소년 ODA사업의 기획, 실행 체계, 성과관리 방법, 모니터링, 평가 등 전 과정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추진 기획과 동시에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분야 ODA사업으로는 헤브론시 청소년센터 건립사업(KOICA, 2009-2011), 베트남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KOICA, 2015)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 ODA사업은 그동안 기초교육 지원에 집중되었던 ODA접근 방향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 향상과 청소년 삶의 질 중심의 질적 접근으로 전환하는 기점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한도희·최창욱, 2015). 따라서 이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향후 발전방안의 도출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국가에 ODA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별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KOICA에 제안된 사업으로는 2015년 캄보디아 청소년커뮤니티건립, 2016년 필리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구축 및 운영지원, 라오스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이 있으며,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사업은 필리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정도이다. 이러한 제안들이 보다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부처 차원의 기초 수요조사 및 해당 국가의 협력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실제로 몇 가지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책무성 있게 ODA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성가족 부 내 전담조직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기획조정실 하에 국제협력담당 부서를 두고 있는데, 청소년 분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구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분야 ODA 전담 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

85) 이 내용은 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함 (출처: 황세영(2016). 청소년분야 ODA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26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VII-10】 청소년 ODA 중장기 추진 절차(안)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에서 청소년분야를 주류화하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의 경우 ODA정책에서 청소년을 수혜자이자 파트너로 상정하고 이들을 위한 전략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 단위의 계획 수립과 추진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고유의 전략과 접근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ODA의 개념과 위상이 정립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것이다.

청소년 분야 ODA사업에서 추진할 만한 사업 아이템을 제시하면 아래 <표 VII-13>과 같다. 이 제안은 KOICA의 사업 전략 및 기존 사업현황 검토, 그리고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수원국별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수원국 선정 및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표 VII-13 청소년분야 ODA사업 아이템(안)

프로젝트 명	내 용
학교 밖·빈곤 청소년의 자립지원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 청소년 진로상담지도 전문가 양성,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등.
여성청소년 교육·보건·자립 지원	성생식·보건·인권 분야 여성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 방과 후 문화예술, 스포츠 등 여가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를 위한 비형식 교육과정 개발, 공무원, 부모 등 인식개선 교육 등

프로젝트 명	내 용
개도국 청소년정책 인프라 구축 지원	• 청소년정책 분야 공무원 및 청소년지도자 연수, 청소년지도자 교육과정개발, 지역사회 거점공간으로서 청소년센터 건립, 수원국 청소년 이슈 현안 대응을 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심리상담·문화예술·스포츠·세계시민교육) 개발, 수원국의 해당 전문가 양성
개도국 청소년지도자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사업	•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육과정 개발, 다년간 국별 초청연수 실시⁸⁶⁾, 사후 현지 사업 실시(수원국 주도), 성과 관리 및 모니터링

* 출처: 황세영(2016). 청소년분야 ODA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26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p. 20-23.

(2) 청소년 국제협력활동 활성화

배경 및 근거

SDGs 시대 청소년의 역량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기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의식 함양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국제협력활동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추진 방안

우선 기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활동 등에서 다양한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 간의 어울림 활동을 통한 문화다양성 이해와 공동체 의식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시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배경 청소년이 함께 구성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 활동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활동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는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해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SDGs에 대한 국내외 청소년의 인식 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청소년리더 프로그램 사업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SDGs 기간 동안 각 국가의

86) 다국가 단기연수와 달리, 특정수원기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기관차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조을생 외, 2013: 31).

정책과 이슈에 대해 분야별로 청소년리더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책제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은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사업을 진행해 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표 VII-14 청소년 국제협력활동 활성화 방안

분야	내용	추진 방안
다양한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활동 지원	-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의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어울림 활동 개발·운영 - 일반·다문화 배경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신규 청소년 활동 발굴 및 운영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청소년 리더 프로그램 운영	- 각 국 청소년 리더 초청 포럼 및 프로젝트 진행 - 도시, 문화유산, 과학기술, 사회참여 등 SDGs 분야별 국가 상황 보고 및 정책 제안 발표	여성가족부 국가 간 청소년국제교류 추진체계 활용
청소년 지도자 국제개발협력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현황 및 이슈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현황과 윤리	- KOICA ODA교육원과 협조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사업 참가단체 지도자의 연수 참가 의무화

마지막으로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연수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현재 청소년 분야 국제개발협력은 개발 NGOs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기관 및 단체의 참여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KOICA의 ODA교육원과의 협조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연수 참여 대상은 우선 해외 청소년자원봉사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단체의 지도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동할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확대·시행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재경 (2011). 2011 경기도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개발보고서. 경기: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 고재경, 김동영, 이정임, 이양주, 송미영, 김희연 외 (2013). 경기도 생활환경복지 지표개발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2011년 제1회 노원지역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발표대회. 서울: 공통청소년문화정보센터.
- 관계부처합동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교육부 (2013). 2014년도 국가 안전과리 집행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4). 2014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a). 2016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 교육부 (2016b). 에너지 자립학교(eS 스쿨) 시범사업 추진. 보도자료(2016. 5. 12).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2016).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브로슈어.
- 권을, 이상미, 송지혜, 유애라 (2015).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27).
-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강경균, 김정숙, 문호영, 윤민중, 좌동훈 외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8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병완, 김항집, 이수열, 안병철, 홍성운, 이종택 외 (2016).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 김복순, 정현상 (2016).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를 이용하여. **월간 노동리뷰 이슈분석**.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박선영, 전선영, 김평화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종호 (201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속가능발전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미발간자료.
- 김재현, 정수정, 정용숙, 손정아, 신혜영, 김재형 외 (2015). **산림복지시설 운영방안과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산림청·(사)생명의숲.
- 김지경, 하헌주, 김옥태 (2014).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I: 지역사회 진단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희, 최정윤, 박환보, 안해정, 서기준 (2014).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균, 이성훈, 허태욱, 황원규 (2015). **유엔의 Post-2015 개발의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주요내용과 의의**. 서울: action/2015 Korea.
- 노원교육복지재단,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2013). **2013년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보고서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 노원교육복지재단·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노원교육복지재단, 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2). **2012년 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보고서**. 서울: 노원교육복지재단·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농촌진흥청 (2016.07.20). **애들이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시농업, 학교텃밭**. 농촌진흥청, 176.
- 대한민국 (20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보고서**.
- 박수연, 양혜경, 장은정 (2015).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Goal 4: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한기혜 (2011). 도시와 농촌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질: 지역, 부모의 기대, 부모자녀갈등,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5-41.
- 박종일, 박찬웅, 서효정, 염유식 (2010).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한국사회학**, 4(2), 121-154.
- 보건복지부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 부산광역시 (2015). **시민계획단 구성운영 계획**. 부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 산림청 (2016). **2016년도 산림교육문화분야 사업계획**.
-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 **새날에오면 인턴십센터 결과보고서(2013-2015)**. 미발간자료.
- 서용석, 홍정훈 (201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미래세대의 정치적 대표성 제도화 방안. **KIPA 연구보고서 2014-09**.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서울시교육청 (2016). **2016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서울: 서울시교육청.
-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4). **제4회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5). **제5회 노원청소년사회참여활동 시작된 변화: 마을을 위해, 사람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 서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 성북구 교육문화복지국 교육청소년과 (2015). **2015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
- 성운숙, 홍성호 (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성은모, 김균희 (2013).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간의 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4), 177-202.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 (2014). **미래세대들의 도시 텃밭 체험기**. 내부자료.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미래세대행동위원회 (2016). **“청년, 지속가능성을 말하다. SDGs 관점에서 청소년 정책의 진단과 모색 ” 세미나 자료집 (2016. 6. 11)**.
-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위원회 (2012). **2012 수원시 지속가능보고서**. 수원: 수원지

- 속가능발전협의회추진위원회.
-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 (2013-2017) 각년도.
- 여성가족부 (2012).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a). 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4b).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a).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b).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5c).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 설명자료(요약).
- 여성가족부 (2016a). 2015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오수길, 윤경호 (2016a).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2011-2015. 서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오수길, 윤경호 (2016b).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현황 보고서: 지역보고서(부천). 서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 유네스코 SDG 국제교육협력 포럼: 아시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윤철경, 박병식, 김진호, 강현주 (2012).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이광호 (2005). 새로운 통합적 청소년정책의 전망과 추진과제: 청소년 '육성과 보호' 패러다임에서 '성장'과 '참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청소년행동연구, 10, 1-22.
- 이선경, 김남수, 김찬국, 주형선, 황세영, 김이성 외 (2014). 한국의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6). 우리가 사는 마을: 공릉동 꿈마을에서 함께 놀고, 일하고, 가르치고, 배우다. 서울: 학교도서관저널.
- 이윤, 이정석, 정우현, 오일찬, 강택구 (2013). Post Rio+20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방안 연구. 세종: 환경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이재영, 정수정, 박정난 (2015).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연계 청소년수련활동 자연생태 환경 프로그램 연구. 서울: 한국환경교육연구소.

- 이창언(2002). **지방의제21과 청소년**. 청소년의제.
- 이창호, 신나민, 하은빈 (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이용해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 IEA ICCS 2016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근영, 이해연, 배상률, 성은모, 이용교, 홍승애 외 (2013).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4).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정 방안**.
- 전명기 (2016). **청소년활동 정책의 방향과 과제**. 미발간자료.
- 정수정, 심숙경, 곽정난, 김남수, 한상희 (2016). **생물권보전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방안 연구**. 서울: 국립공원관리공단.
- 정정화, 김찬동, 이수미 (2015). **주민참여제도 현황 및 활성화방안 연구**. 한국정책학회.
- 조병모, 정소영, 김영석, 양종국, 안수경 (2015).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준비과정 분석**. 충남: 국립특수교육원.
- 조성연, 김혜원, 김민 (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을생, 심창섭, 권태현, 박태운 (2013). **개도국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사업의 발전방향: 연수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주형선, 이선경 (2013). 지속가능성 및 형평성 개념으로 살펴본 초등예비교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 **환경교육**, 26(3), 397-4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총람**. (2002, 2007, 2012) 각년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선거총람**. (2002, 2007, 2012) 각년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선거총람**. (2002, 2007, 2012) 각년도.
- 지역과발전 (2014). **수원, 대한민국 표준을 만든다**. 경기도: 수원.
-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05-2015) 각년도.
- 최창욱, 전명기 (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3-R09). 서울: 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이효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0-2015) 각년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2015) 각년도.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4-2014) 각년도.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0-2040**.
- 통계청 (2016). **SDGs 국가지표 작성계획(안)**. 대전: 통계청.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6). **2016 청소년 통계**.
- 하정화, 김정란, 이해주 (2011). **부산 아동청소년 행복지표 개발 연구** .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16). **KOICA 교육전략(2016-2020)**. 경기: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모음집: 청소년특별회의가 걸어온 10년**. 서울: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청소년 균형성장 플랫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브로슈어**.
- 한도희, 최창욱 (2015).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22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준, 강석훈, 김석호, 서은국, 홍종호, 이희길 외 (2011). **국민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 행정자치부 (2016a).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2호(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세종: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 (2016b).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6-33호(국립청소년산림생태체험센터 건설공사기본계획)**. 세종: 행정자치부.
- 현대경제연구원 (2015). **현안과 과제: 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환경부 (2014). **14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환경부 (2015a). **제2차 환경교육종합계획(안)(2016-2020)**. 세종: 환경부.
- 환경부 (2015b). **함께 잘 사는 길 환경교육**. 세종: 환경부.
- 환경부 (2016). **UN SDGs 국내 이행체계 구축방향(안)**. 세종: 환경부.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6).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12- 14)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점검 및 지표 평가 결과]**. 세종: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황세영, 조성화 (2015).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세영 (2016). 청소년분야 ODA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제26호**.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국문헌]

- Bruner, J. (1996). *The culture of educa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uner, C., Winklhofer, U., & Zinser, C. (2001). *Partizipation-ein Kinderspiel? Modelle gesellschaftlicher Beteiligung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DCYA) (2014). *Better outcomes, brighter futures: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children & young people, 2014-2020*.
- 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DCYA) (2015). *National youth strategy 2015-2020*.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DES) (2014).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 The national strategy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Ireland, 2014-2020*.
- DESA (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 (Third edition). UN.
- Goldin, N., Patel, P. & Perry, K. (2014). *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CSIS·International Youth Forum.
- Hesselink, F., van Kempen, P. P. & Wals, A. (Eds.) (2000). *ESDebate: international debat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land, Switzerland: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ICSU & ISSC (2015). *Review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cience Perspective*. Paris: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 iERG (2014). *Every woman, every child: A post-2015 vision. The third report of the independent expert review group on information and accountability for women's and children's health*. World Health Organization.
- Irish Aid (2011). *Synthesis paper: Thematic reviews of development education within*

- primary, post-primary, higher education, youth, adult and community sectors.*
- Kroll, C. (2016).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re the rich countries ready?* Bertelsmann-Stiftung.
- Osborn, D., Cutter, A. & Ullah, F. (2015). *Universal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derstanding the transformational challenge for developed countries.* Stakeholder Forum.
- Pearce, D. (ed.) (1993). *Blueprint 3: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London: Earthscan.
- Pisano, U., Lange, L., Berger, G. & Hametner, M. (2015, Winter, 1).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ir impact on the European SD governance framework: Preparing for the post-2015 agenda. *ESDN Quarterly Report 35*, 3-66.
- Pissourios, I. A. (2013). An interdisciplinary study on indicators: A comparative review of quality-of-life, macroeconomic, environmental, welfare and sustainability indicators, *Ecological Indicators*, 34, 420-427.
- Shafer, C. S., Koo Lee, B. & Turner, S. (2000). A tale of three greenway trails: user perceptions related to quality of life. *Landscape Urban Plan*, 49, 163-178.
- Stiglitz, J., Sen, A. &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 Sustainable Seattle (2004). *Indicators of sustainable community.*
- UNDP (2016). *Fast facts: Youth as partner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UNDP.
- UNESCO (2005).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Draft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cheme.* Paris: UNESCO.
- UNESCO (2011). *DESD global monitoring and evaluation: Phase - Assessing ESD experience during the DESD: An expert review on process and learning for ESD.* Paris: UNESCO.
- UNESCO (2012). *Empowering youth for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What role for UNESCO in 2014-2021?.* Paris: UNESCO.
- UNESCO (2015). *UNESCO's participation in the preparations for a post-2015 development agenda. 197 EX/7.* Paris: UNESCO.
- UNICEF (2014). *A post-2015 world fit for children: A review of the open working group report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om a child rights perspective.* UNICEF.

Wals, A. E. J. (2009).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view of contexts and structures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is: UNESCO.

[국내 인터넷 검색자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https://www.ggyc.kr:56591/main/main.html>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경상일보 (2015.07.30). 시민들이 계획하는 울산의 미래.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0101>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경실련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SDGs의 국내 목표 수립을 위한 방향 논의. 간담회 자료집(2015. 9. 3).

http://kicsd.re.kr/bbs/view.php?id=dataroom0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desc&no=13&PHPSESSID=db7effe31759f6b68e1857132bee68e7/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관계부처합동 (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http://ncsd.go.kr> 에서 2016년 2월 12일 인출.

광주드림 (2015.12.28). 광주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 '기대'.

<http://www.gjdream.com/v2/column/view.html?uid=470151>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광주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포탈 다잇다 사이트. <http://daitda.or.kr> 에서 2016년 10월 20일 인출.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웹 사이트.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교육부(2015.03.05). 2015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발표.

<http://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33&encodeYn=Y&boardSeq=58634&mode=view> 에서 2015년 5월 인출.

교육부(2016.09.19).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boardSeq=64298&mode=view> 에서 2016년 9월 12일 인출.
- 교육부. **2016 교육부 업무계획**. <http://www.moe.go.kr/2016happymoe/sub01.jsp/> 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내부자료. **2013년 주민등록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2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13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 <http://kosis.kr> 에서 2015년 7월 30일 인출.
-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gir.go.kr/home/index.do?menuId=22>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사이트. 지속가능발전목표.
http://www.kofid.org/ko/post2015_goal.php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국제뉴스 (2016.08.23). 인천시 남구, 청소년에 참여예산제 체험기회 제공.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9988>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 국제뉴스 (2016.10.15).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행사 열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744>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 국제청소년웰빙지수(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http://www.youthindex.org>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e-나라지표 2014년말 도시공원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05 에서 2015년 8월 15일 인출.
- 노컷뉴스(2016.09.24). 단체로 우르르 '못 믿을(?) 학교폭력 실태조사'.
<http://www.nocutnews.co.kr/news/4658663/> 에서 2016년 10월 4일 인출.
- 뉴시스 (2015.07.21). 광주시민이 도시기본계획 직접 짠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21_0013805107&cID

- = 10809&pID=10800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2007).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일반국민 인식 조사. pcsd.pa.go.kr/board/download.php?db=bbs42&uid=40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대학생 UN SDGs 홍보대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unsdgs> 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 대한민국헌법 [시행 2015.12.1.]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 매일신문 (2015.09.15). 대구의 미래 2030 대구도시기본계획 <1>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2038&yy=2015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5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www.iapc.or.kr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http://www.law.go.kr/lsOrdinAstSc.do?schtType=0&menuId=9&dataCls=lsAstSc&query=%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20%EC%A1%B0%EB%A1%80&cptOfiCd=&tabNo=10#> 에서 2016년 10월 24일 인출.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864호, 2015.5.14., 타법개정)
<http://www.law.go.kr/ordinSc.do?menuId=2&pl=&subMenu=1&nwYn=1§ion=&tabNo=&query=%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20%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20%EC%A1%B0%EB%A1%80>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지속가능발전법(법률 제13532호, 2015.12.1., 일부개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B%B2%95> 에서 2016년 8월 5일 인출.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333호, 2015.6.22.,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7%80%EC%86%8D%EA%B0%80%EB%8A%A5%EB%B0%9C%EC%A0%84%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469호, 2016.8.29.,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B2%AD%EC%86%8C%EB%85%84%ED%99%9C%EB%8F%99%20%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13173호, 2015.2.3.,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9%98%EA%B2%BD%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undefined> 에서 2016년 4월 25일 인출.

환경교육진흥법(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D%99%98%EA%B2%BD%EA%B5%90%EC%9C%A1%EC%A7%84%ED%9D%A5%EB%B2%95%20%EC%8B%9C%ED%96%89%EB%A0%B9#undefined>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서울의 기본계획.**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57478>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시흥저널 (2015.10.21). 2015 천지인마을 만들기 청소년 마을창안대회 '입상작 발표.

<http://www.siheu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1>에서 2016년 6월 10일 인출.

식약처 (2015). 보도자료(2015.03.26.). 어린이 식생활 안전과 영양수준 전반적으로 향상.

<http://www.mfds.go.kr/index.do?mid=675&pageNo=64&seq=26976&cmd=v>

아주경제 (2016.08.09). 안양시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 발표회 열어.

<http://www.ajunews.com/view/20160809104714835>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성보호정책.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3.jsp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청소년 현장.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policy02_02a.jsp?func=view¤tPage=6&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4564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연합뉴스 (2014.09.04). 한국 자살 증가율 12년간 109.4%... 세계 2위.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9/04/0601140000AKR20140904172051088.HTML>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 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

http://www.unesco.or.kr/business/sub_01_02_ESD01.asp 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http://www.unicef.or.kr/education/korea/choice_city.asp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1.elis.go.kr> 에서 2016년 11월 21일 인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5). 2015년 지속가능발전 정책포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방의제 21의 역할. 포럼 자료집(2015. 9.9 - 9.10).

<http://kicsd.re.kr>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sdkorea.org> 에서 2016년 2월 16일 인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지속가능발전대상 공모전. <http://www.sdkorea.org>
에서 2016년 10월 5일 인출.

주간경향 (2014.04.08). 주민 참여 빠진 무늬만 참여예산제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404011055571&code=113>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보도자료(2016.07.04.).

<http://www.nec.go.kr/portal/bbs/list/B0000342.do?menuNo=200035>

지속가능발전포털. 위원회운영 규칙. <http://ncsd.go.kr/app/sub01/22.do>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지속가능발전포털 (2015).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http://ncsd.go.kr/app/sub02/20.do>

-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실무교육: 지역아동센터 생애태발디자인. www.icareinfo.info.에서 2016년 7월 20일 인출.
- 청소년참여포탈. 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 <http://www.youth.go.kr/ywith/activity/commission/local.do>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 충청남도 공식 홈페이지. 충청남도청 지속가능발전 지표. <http://www.chungnam.net>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16). 2016년 탈북학생 주요통계자료.
- <http://www.hub4u.or.kr/hub/data/selectDataForm.do> 에서 2016년 9월 12일 인출.
-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 통계청. 통계청 2014년 사회조사. <http://kostat.go.kr/survey/society/index.action> 에서 2016년 9월 19일 인출.
- 통계청.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938 에서 2016년 9월 12일 인출.
- 통계청 (2014).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실시. 보도자료 (2014.06.30.). 통계청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 에서 2016년 1월 20일 인출.
- 통계청(2015). 사교육비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105&conn_path=I3 에서 2016년 9월 8일 인출.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http://grasslog.net/archive/12264/> 에서 2016년 8월 16일 인출.
- 한겨레신문(2014.05.30).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 '6년째 OECD 꼴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9987.html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5). 2015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사례집.
- <http://ycon.mogef.go.kr/hs/notice/pr/prView.do> 에서 2016년 5월 16일 인출.
- 한재광 (2015). SDGs 이행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 **2030 개발의제 시대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행 전략 세미나 자료집**. <http://kicsd.re.kr>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환경부 홈페이지. 의제 21의 구성과 내용. <http://www.me.go.kr/home/file/readHtml.do?fileId=1709&fileSeq=2> 에서 2016년 2월 16일 인출.

환경부 홈페이지. 미세먼지의 모든 것. <http://www.me.go.kr/issue/finedust>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Action/2015 Korea (2015.12.16). <https://www.facebook.com/actionkorea2015>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MAB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unescomab.or.kr/main.php/> 에서 2016년 8월 10일 인출.
UNCED(1992). 의제 21 전문(국문 번역본).

http://unep.or.kr/sub/sub05_02.php?mNum=5&sNum=2&boardid=data2&mode=view&idx=8 에서 2016년 5월 11일 인출.

[외국 인터넷 검색자료]

Adelle, C. & Pallemarts. M. (2009). *IEEP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 overview of relevant Framework Programme funded research and identification of further needs in view of EU and international activities*. European Communities.
http://www.ieep.eu/assets/443/sdi_review.pdf/ 에서 2016년 2월 15일 인출.

Citiscopes (2015.05.18). How will the SDGs impact on developed countries?
<http://citiscopes.org/habitatIII/news/2015/05/how-will-sdgs-impact-developed-countries/> 에서 2016년 2월 15일 인출.

Congress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of Europe (2003). *Revised European Charter on the 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in Local and Regional Life*.
https://www.coe.int/t/dg4/youth/Source/Coe_youth/Participation/COE_charter_participation_en.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CUHK (2015). *Youth Quality of Life Index Report: Quality of Life of youth in Hong Kong Slightly Declines in 2014/15*. http://www.cuhk.edu.hk/hkiaps/qol/sources/YQOL/PR_YQOL_2015_Eng.pdf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DEFRA) (2013). *Sustainable Development*

- Indicators*.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s-for-environment-food-rural-affairs/series/sustainable-development-indicators>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Eurostat.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15 monitoring report of the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Quality_of_life_indicators_-_measuring_quality_of_life/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ESDN). NSDS: Perspectives for Germany (2002). <http://www.sd-network.eu/?k=country%20profiles&s=single%20country%20profile&country=Germany/>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Kutesa, S. (2015a). *Conceptnote of High-Level Ev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PAY) and to highlight Youth Prioritie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2015. 3. 9).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3/090315_20th-anniversary-wpay.pdf/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 Kutesa, S. (2015b). *Report of High-Level Event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WPAY) and to highlight Youth Priorities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5. 5. 29). http://www.un.org/pga/wp-content/uploads/sites/3/2015/08/240615_Summary-of-key-messages-for-High-Level-Event-to-mark-the-20th-Anniversary-of-the-World-Programme-of-Action-for-Youth.pdf/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 NEF (2012). *The Happy Planet Index 2012 Report: A Global Index of Sustainable Wellbeing*. http://s.bsd.net/nefoundation/default/page/file/1c5606c88532a0033d_hpm6vi4wp.pdf/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http://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doing-better-for-children_9789264059344-en;jsessionid=1d9489c0oenha.x-oecd-live-03.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 OECD (2016).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http://www.oecd.org/edu/education-at-a-glance-19991487.htm/>에서 2016년 2월

- 15일 인출.
- OECD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에서 2016년 5월 24일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soc/CO2_2_ChildPoverty_Jan2014.pdf 에서 2016년 5월 20일 인출.
- One World Week 웹사이트. <http://www.oneworldweek.ie> 에서 2016년 10월 25일 인출.
- Quora (2014).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and quality of life?* <https://www.quora.com/What-is-the-relationship-between-sustainability-and-quality-of-life/> 에서 2016년 5월 25일 인출.
- The Commonwealth. 청소년개발지수(Youth Development Index: YDI). <http://youthdevelopmentindex.org/views/faq.php>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 The Economist (2012). The lottery of life methodology(2012. 11. 21). <http://www.economist.com/news/21567049-how-we-calculated-life-satisfaction-lottery-life-methodology/> 에서 2016년 3월 15일 인출.
- The Global Youth Wellbeing Index. <http://www.youthindex.org/>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 The Guardian (2015.09.25).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re all developing countries now. <http://www.theguardian.com/sustainable-business/2015/sep/25/sustainable-development-goals-sdgs-inequality-developing-countries/> 에서 2016년 2월 15일 인출.
- UN (2007).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uidelines and Methodologies*(3rd ed.). <http://www.un.org/esa/sustdev/natlinfo/indicators/guidelines.pdf>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 UN (2010). *World Programmes of Action for Youth*. <http://www.un.org/pg/youth-wpay> 에서 2016년 8월 22일 인출.
- UN CS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2012). *The Future We Want*. Outcome document adopted at Rio+20. <http://www.un.org/en/sustainablefuture/>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4). *UNDP Youth Strategy 2014-2017 : Empowered Youth, Sustainable Futur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youthstrategy.html> 에서 2016년 2월 12일 인출.

- UNDP. Youth Global Programm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eace.
<http://www.undp.org/content/undp/en/home/librarypage/democratic-governance/Youth-GPS.html> 에서 2016년 10월 20일 인출.
- UNEP (2005) *Ecosystems and Human Well-being: A Framework for Assessment*. Island Press. <http://www.millenniumassessment.org/en/Framework.html/> 에서 2월 15일 인출.
- UN MGCY (2015). *UN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s vision & priorities for delivery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childrenyouth.org/category/post-2015-sustainable-development-policy/>
 에서 2016년 5월 23일 인출.
- UN OWG (Open Working Group)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focussdgs.html> 에서 2월 5일 인출.
- UN SG (2013).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DGs and Advancing the UN Development Agenda beyond 15*.
[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A%20Life%20of%20Dignity%20for%20All.p](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A%20Life%20of%20Dignity%20for%20All.pdf)
[df](http://www.un.org/millenniumgoals/pdf/A%20Life%20of%20Dignity%20for%20All.pdf)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UN SG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http://www.un.org/disabilities/documents/reports/SG_Synthesis_Report_Road_to_Dignity_by_2030.pdf 에서 2016년 2월 5일 인출.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http://www.un-documents.net/wced-ocf.htm> 에서 2016년 2월 11일 인출.
- World Future Council (2010). *Intergenerational Justice Initiative; Laying the Foundations for Long-Term Wellbeing*. http://www.worldfuturecouncil.org/fileadmin/user_upload/PDF/IntergenerationalJusticeInitiative_4__2__3_.pdf/에서 2016년 4월 25일 인출.

[독일어 인터넷 검색자료]

- 게임랩 웹사이트. Gamelabor. <http://gamelabor.blogspot.kr> 에서 2016년 09월 18일 인출.
- 독일 연방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bj.s.brandenburg.de/media/bb2.a.5813.de/DOKU_Fachtag_120208.pdf%20;http://www.kinderfreundliche-stadtgestaltung.de/downloads/Plakat2-InstrumenteLeitlinien_web.pdf 에서 2016년 09월 20일 인출.
- 독일 환경부 웹사이트. https://www.klimaschutz.de/sites/default/files/page/downloads/130513_NKI_Broschuere_100Prozent_dt_150dpi.pdf 에서 2016년 8월 24일 인출.
- 독일 헌법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https://www.bundestag.de/blob/284870/ce0d03414872b427e57fccb703634dcd/basic_law-data.pdf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라인란드팔츠 주 가족부 웹사이트 1. <https://kinderrechte.rlp.de/de/programme-und-projekte/aktionsprogramm-kinderfreundliches-rheinland-pfalz>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 라인란드팔츠 주 가족부 웹사이트 2. <https://mffjiv.rlp.de/de/themen/kinder-und-jugend/kinderpolitik/kinderfreundliches-rheinland-pfalz/kinderstadtplaene>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 만하임시 웹사이트. <https://www.mannheim.de/stadt-gestalten/spielleitplanung> 에서 2016년 09월 20일 인출.
- 뮌헨 미디어 센터 웹사이트. Medienzentrum Munchen(JFF). <http://www.medienzentrum-muc.de/angebotevent/modul-7> 에서 2016년 09월 18일 인출.
- 베를린시 놀이지침계획 웹사이트. <http://www.kinderfreundliche-stadtgestaltung.de> 에서 2016년 08월 24일 인출.
- 베를린시 도시발전부 웹사이트.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verkehr/politik_planung/erziehung/de/kinderstadtplan.shtml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 벨베르트 시청 웹사이트 1. <http://www.velbert.de/buergerinfo/umwelt-stadtplanung/stadtplanung/beteiligung/default.asp> 에서 2016년 9월 22일 인출.
- 벨베르트 시청 웹사이트 2. <http://www.velbert.de/buergerinfo/umwelt-stadtplanung/stadtplanung/beteiligung/default.asp#Projekte>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소코 기후 웹사이트 1. <http://laloma.info/de/projects/soko-klima>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소코 기후 웹사이트 2. <http://www.soko-klima.de/ueber-soko-klima>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소코 기후 웹사이트 3. <http://www.soko-klima.de/tag/allgemein/>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슈트트가르트시 어린이참여 웹사이트 1. <http://www.kinderbeteiligung-stuttgart.de/files/methodenkinderbeteiligung.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슈트트가르트시 어린이참여 웹사이트 2. www.kinderbeteiligung-stuttgart.de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웹사이트 1. http://www.bbr.bund.de/BBSR/DE/FP/ExWoSt/Forschungsfelder/2009/JugendlicheImStadtquartier/Modellvorhaben/MuenchenAckermannbogen_aufstockung.html?nn=425678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 웹사이트 2. http://www.bbsr.bund.de/BBSR/DE/FP/ExWoSt/Forschungsfelder/2009/JugendlicheImStadtquartier/Jugendbeteiligung/04_Modellvorhaben_B.html?nn=430172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위키피디아 독일 웹사이트. <https://de.wikipedia.org/wiki/Kinderstadtplan> 에서 2016년 8월 28일 인출.

함부르크 Tollerort 웹사이트. <http://tollerort-hamburg.de/projekt/elbschloss-bille> 에서 2016년 09월 22일 인출.

헤센주 문화부 웹사이트. http://www.schuleundgesundheit.hessen.de/fileadmin/content/Medien/Ordner_S_G/Bike_im_Trend.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헤센주 자전거 노선계획틀 웹사이트 1. <http://radservice.radroutenplaner.hessen.de/rmp/hessenSchueler/cgi?lang=DE&view=416606,5507711,495044,5584102> 에서 2016년 08월 24일 인출.

헤센주 자전거 노선계획틀 웹사이트 2. http://www.radroutenplaner.hessen.de/rph_schulen_01.asp 에서 2016년 08월 24일 인출.

Abt, J & Hillmann, C.(Eds.) (2011). *Kinder- und Jugendinteressen in der raumlichen Planung. Das neue Planungsinstrument „Spilleitplanung“ am Beispiel von Berlin.* https://depositonce.tu-berlin.de/bitstream/11303/3141/1/Dokument_5.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AWO Bundesverband e.V. (2013). *Partizipation von Jugendlichen – Eine Herausforderung*

- für die Angebote der Jugendsozialarbeit/Jugendberufshilfe.*
http://www.awo-informationsservice.org/uploads/media/Partizipation_von_Jugendlichen.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BBR(Bundesamtes für Bauwesen und Raumordnung) (2010). *Jugend macht Stadt.*
http://www.bbr.bund.de/BBSR/DE/FP/ExWoSt/Forschungsfelder/2009/JugendlicheImStadtquartier/Modellvorhaben/MuenchenAckermannbogen_aufstockung.html?nn=425678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BMF(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 *Beteiligen! Themenheft 1 für kindergerechte Kommune.*
<http://www.kindergerechtes-deutschland.de/publikationen/themenheft-1-beteiligen/themenheft-beteiligen.html>. 에서 2016년 10월 9일 인출.
- BMU(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2013). 100 Prozent Klimaschutz. Die Nationale Klimaschutzinitiative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https://www.klimaschutz.de/sites/default/files/page/downloads/130513_NKI_Broschue_100Prozent_dt_150dpi.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Fatke, R. & Schneider, H. (2005). *Kinder- und Jugendpartizipation in Deutschland.*
http://www.jungbewegt.de/fileadmin/media/jungbewegt/Downloads/Beteiligung_junger_Menschen_in_Kommunen/Kurzbericht_Druckversion_3._Auflage_heruntergerechnet.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Keutz, J., Fahrwald, J., Wittmann, D., & Dickhaut, W. (2002). *Zukunft im Quartier Perspektiven nachhaltiger Stadtentwicklung und die Rolle der Jugend.* 메모 컨설팅사 웹 사이트 http://www.memo-consulting.de/Studie_BBR.pdf 에서 2016년 10월 10일 인출.
- Klein, M. (2006). *Das könnt ihr nicht alleine entscheiden! – Beteiligung von Kindern in Kindertagesstätten* Bedeutung und Umsetzung. http://diebeteiligung.de/diebeteiligung2/pdf/diplomarbeit_klein.pdf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Knauer, Z. (2001). *Partizipation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in der Kommune.* In Oerter, R./Höfling (Eds.), *Mitwirkung und Teilhabe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https://www.ijab.de/fileadmin/user_upload/documents/PDFs/Dokumentationen_Konzepte/Dt-Ung-Fachprogramm_Fachartikel.pdf. (pp. 145-165.)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Lpb(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aden-Württemberg) (2016). *Kommunale Jugendbeteiligung in Baden-Württemberg*. https://www.lpb-bw.de/fileadmin/Abteilung_III/jugend/pdf/jugendbeteiligung_2016.pdf 에서 2016년 10월 9일 인출.
- Schröder, R. (1995). Kinder reden mit, Weinheim, Basel. In Swiderek,Thomas (Ed.) (2004). *Partizipation als angestrebtes Ziel von Kinderpolitik. Neue Praxis*, 5/2004, 34. Jahrgang, S. (pp. 455-470.) 에서 2016년 10월 13일 인출.
- Stuttgart(Interessengemeinschaft (IG) Kinderbeteiligung) (2006). Kinder sind Experten – Kinder machen mit! Handbuch für die Beteiligung der Kinder in Stuttgart. <http://www.kinderbeteiligung-stuttgart.de/files/handbuchkinderbeteiligung.pdf> 에서 2016년 10월 9일 인출.
- TU Berlin (2010). *Spielleitplanung für Berlin*. <http://www.spielleitplanung-berlin.de/wp-content/downloads/Spielleitplanung-Pankow-Spielleitplan.pdf>. 에서 2016년 10월 9일 인출.

.....

부부

부 록

1. 조사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 ID 81
--	-----------------

Gallup 2016-163-006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만15-18세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년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됩니다. 또한,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에 따라 응답 내용은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은 절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설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각각의 조사문항에 대해 귀하의 생활실태나 의견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사문항에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만 15세에서 만 18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중·고등학생이 아닌 경우(대학(교)에 입학하신 분 또는 현재 취업 중이신 분 등)에는 만 19세 ~ 만 39세용 설문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은 한국갤럽 조사가원이 기입합니다.

집계구/가구/가구원 번호	집계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원 번호
집계구 주소(구/동)	/		
상세 주소			
가구당 조사표 부수	총 ()부 중 ()부		
주택 유형	1. 단독 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주택 4. 기타(적을 것 :)		

구 분	남 성	여 성	합 계
총 가구원 수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가구원 수			

미진행 가구원 사유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조 사 기 관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이성화 차장 || ☎ 02-3702-2198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귀하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귀하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면접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하는 방법1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표로 구성된 질문은 ①에서 ⑤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렇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표시하는 방법2

숫자를 기입해야 할 때는 박스 안에 한 자리씩 기입해 주세요.

<보기2>

문A.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책(e-book 포함)을 읽으셨습니까?

① 읽지 않음

② 읽음 : 권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3>과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수정액 등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4>

문B.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문 B-1로 이동**

② 없다 ➡ **문 C로 이동**

☞ 나는 해외이주를 고려해 본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설명문 반드시 참고

질문 아래 설명문(응답 기준, 용어 설명 등)이 있는 경우, 설명문을 읽고 응답해 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기5>

문C.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 **문 C-1로 이동**

② 없다 ➡ **문 D로 이동**

I. 먼저「인구와 가족」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 동 : 만 세 ~ 만 세
- 청소년 : 만 세 ~ 만 세
- 청 년 : 만 세 ~ 만 세

문2) 귀하는 몇 세부터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 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독립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가정으로부터 분가해 독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3) 귀하는 몇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결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4) 귀하는 몇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만 세에 첫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자녀를 가질 수도 있고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5) 귀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다
- ② 출산율이 유지될 것이다
- ③ 출산율이 내려갈 것이다

문6)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교육」영역(문7)으로 이동

문6-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
|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 ⑦ 빈부격차가 커서 |
|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
|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 ⑨ 안보가 불안해서 |
| ⑤ 취업이 어려워서 |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II. 다음은「교육」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7) 귀하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잘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8) 귀하는 대학교육이 졸업 후 직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9) 귀하는 우리나라 입시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약화될 것이다
② 유지될 것이다
③ 강화될 것이다

문10) 다음은 우리 사회의 교육관행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현재 학생이신 분은 현재 학력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재 학	휴 학	중 퇴	졸 업
(1) 중학교	①	②	③	④
(2) 고등학교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 ③ 자율고 ④ 특수목적고 ⑤ 기타 (구 실업/ (외고, (_____ 전문계고) 과학고 등)	①	②	③	④

문12) 귀하는 추후 대학에 진학할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III. 다음은「경제」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분위기 좋은 회사 | ⑤ 퇴근이 빠른 회사 |
| ② 급여가 높은 회사 | 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
| ③ 유명한 회사 | ⑦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
| ④ 안정적인 회사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 귀하는 취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전공 | ⑦ 외모 |
| ② 학벌(출신학교의 명성) | ⑧ 개인 능력 |
| ③ 어학점수 | ⑨ 인턴(아르바이트) 경험 |
| ④ 수상경력 | ⑩ 가족 배경 |
| ⑤ 자격증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인성 | |

문15) 귀하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경쟁이 2025년에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약화될 것이다
② 유지될 것이다
③ 강화될 것이다

문16) 귀하는 2017년도 최저 임금으로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입니다.

시간급

--	--	--	--	--

 원

문17) 취업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이나 배당,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문18) 귀하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중 지출이 가장 큰 항목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식료품비 | ⑦ 보건의료비 |
| ② 외식비 |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
| ③ 의류비 | ⑨ 경조사비 |
| ④ 교육비 | ⑩ 주거비 |
| ⑤ 교통·통신비(차량유지비 포함)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문화여가비 | |

문19) 만약 귀하의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진다면, 어떤 항목의 지출을 가장 먼저 늘리시겠습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식료품비 | ⑦ 보건의료비 |
| ② 외식비 | ⑧ 연료비(전기·가스 등) |
| ③ 의류비 | ⑨ 경조사비 |
| ④ 교육비 | ⑩ 주거비 |
| ⑤ 교통·통신비(차량유지비 포함)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문화여가비 | |

문20) 만약 집과 관련된 비용(집 임대/매매 등)을 쓰는 것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 중에서 같은 금액으로 한 가지를 지불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집
② 자동차
③ 잘 모르겠다

문21) 소득 및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22) 귀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 23으로 이동** ② 아니오

문22-1)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대기업보다 낮은 성취감 | ⑤ 낮은 급여 수준 |
| ② 관련된 여러 업무 경험이 부재 | ⑥ 대기업으로의 이직이 불가능 |
| ③ 고용 불안정 | ⑦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없음 |
| ④ 사회적으로 낮은 인지도 |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문23) 창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문 24로 이동**

문23-1) 창업하자는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②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③ 나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④ 나의 전문영역을 키우기 위해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해
⑦ 지인이 함께 창업하자고 권유해서
⑧ 나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23-2) 현재 창업 중이거나 창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24) 귀하는 현재까지 공무원 또는 공단(공사), 교원 임용 시험,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주거」영역(문25)으로 이동

문24-1) 준비하거나 하셨던 주된 시험 종류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고시(행정, 사법, 외무, 기술 등)
- ② 공무원 시험(7급, 9급 등)
- ③ 교원임용고시
- ④ 공단, 공사 시험
- ⑤ 국가전문자격시험(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공인중개사 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24-2) 준비하거나 하셨던 주된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① 예

② 아니오

IV. 다음은「주거」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는 본인 명의의 집을 언제쯤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 ① 이미 소유하고 있다
- ② 향후 1년 이내
- ③ 향후 1년-3년 이내
- ④ 향후 3년-5년 이내
- ⑤ 향후 5년-7년 이내

- ⑥ 향후 7년-10년 이내
- ⑦ 향후 10년-20년 이내
- ⑧ 향후 20년 이후
- ⑨ 마련할 수 없을 것 같다

문26) 귀하는 공동주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동 주거란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방은 따로 쓰고 거실과 욕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를 의미함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하는 공동주거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8) 다음은 평소 집에 대해 귀하가 갖고 계신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의 집 값 수준은 적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37)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업, 학업, 집안일, 봉사활동, 학교 체육수업 등과 관련한 신체활동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문 38로 이동

문37-1) 귀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① 일주일에 1번

⑤ 일주일에 5번

② 일주일에 2번

⑥ 일주일에 6번

③ 일주일에 3번

⑦ 매일

④ 일주일에 4번

문38) 귀하는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문39) 귀하는 성형 수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목적과 미용(보톡스 등) 목적을 모두 포함)

① 있다

② 없다 → 「문화와 가치관」영역(문40)으로 이동

문39-1) 귀하가 하신 성형수술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의료(화상치료, 안검하수 등) → 「문화와 가치관」영역(문40)으로 이동

② 미용(쌍꺼풀, 보톡스, 지방제거 등) → 문 39-2로 이동

문39-2)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②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③ 취직에 도움이 되므로

④ 결혼이나 연애에 도움이 되므로

⑤ 기타(적을 것 : _____)

VI. 다음은「문화와 가치관」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40) 귀하는 평소 문화예술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매우 관심 없음

② 관심 없음

③ 보통

④ 관심 있음

⑤ 매우 관심 있음

문4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책(e-book 포함)을 읽으셨습니까? (강의교재, 수험서, 교과서, 만화책, 잡지 제외)

① 읽지 않음

② 읽음 : 권

문42) 귀하는 여가활동을 주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① 혼자
② 배우자/자녀
③ 그 외 가족/친지
④ 친구
⑤ 연인(교제하는 이성친구)
⑥ 직장동료
⑦ 동호회 회원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43) 귀하는 여가활동을 위한 동호회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44)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가장 자주 접한 뉴스매체 2가지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종이신문
② 인터넷신문 또는 포털
③ 텔레비전
④ 라디오
⑤ SNS 등 소셜미디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45) 다음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양 쪽의 표현을 보고, 귀하가 더 선호하는 정도를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항 목	← 선호 정도 →							항 목
(1) 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여가 중시
(2) 현실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상 중시
(3) 결과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과정 중시
(4) 개인 중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집단 중시

문46) 다음은 지난 한 달 동안 귀하가 경험한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한 후에 다음에 제시되는 감정들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전혀 느끼지 않았다(1점)'에서부터 '항상 느꼈다(7점)'까지의 보기 중에서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내가 느낀 기분	전혀 느끼지 않았다	거의 느끼지 않았다	별로 느끼지 않았다	보통이다	가끔 느꼈다	자주 느꼈다	항상 느꼈다
(1) 즐거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행복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짜증나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무기력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47)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4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재산 · 경제력 | ⑦ 직업 · 직장 |
| ② 화목한 가정 | ⑧ 연인(이성관계 등) |
| ③ 자아성취 | ⑨ 친구 · 대인관계 |
| ④ 건강 | ⑩ 꿈 · 목표의식 |
| ⑤ 감사 · 긍정적 태도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⑥ 종교생활 | |

문4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50) 전반적인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 ④ 삶의 주관적 만족감 |
|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 ⑤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
| ③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문51)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① 타고난 자질 · 끼 | ⑥ 인맥(학연 · 지연 · 혈연 등) |
| ② 학벌 · 학력 | ⑦ 외모 |
| ③ 집안 배경 | ⑧ 운 |
| ④ 재력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 ⑤ 노력 · 성실성 | |

문52) 귀하가 답한 '성공의 평가기준'과 '성공의 조건'을 고려하여, 귀하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1(전혀 없다)부터 10(매우 많다)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전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매우 많다

VII. 다음은「관계와 참여」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3) 친구들과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54) 다음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세대는 40대, 50대 / 노인은 70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기성 세대 (40,50대)	(1)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대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노인 (70세 이상)	(4) 다른 세대보다 경험도 많고 지혜롭다	①	②	③	④	⑤
	(5) 현재 존경받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세대보다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	①	②	③	④	⑤

문55) 시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의견 항목에 대해 귀하가 앞으로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항목	절대로 참여하지 않음	아마도 참여하지 않음	보통이다	아마도 참여함	확실히 참여함
(1)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답변하기	①	②	③	④	⑤
(2) 개인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뱃지, 팔찌, 리본, 스티커 등을 착용/부착	①	②	③	④	⑤
(3) 서명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문56) 귀하는 전반적인 '한국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공정 ② 불공정 ③ 보통 ④ 공정 ⑤ 매우 공정

VIII. 다음은「지속 가능한 발전」영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57) 귀하가 생각하는 '좋은 삶' 또는 '양질의 삶'을 유지하는 데 환경 문제(폐적한 환경 유지, 자연 보호, 오염 예방, 기후변화 대처 등)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련이 없다
② 별로 관련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련이 있다
⑤ 매우 관련이 있다

문58) 다음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내 삶도 나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제성장이 먼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제가 성장하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지금 발생하는 환경문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면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에서 발전 계획을 세울 때 현 세대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끼칠 이익과 손해도 고려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나라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라면 다른 나라에 세우는 것도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 문제는 주로 중국의 대기오염으로 발생한 결과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59)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음 보기에 제시된 문항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빈민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호	①	②	③	④	⑤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처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건강 보험 및 의료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4) 양질의 학교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술, 직업교육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과 관련된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정치, 경제,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	①	②	③	④	⑤
(8) 태양, 풍력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	①	②	③	④	⑤
(9) 청년 실업을 감소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①	②	③	④	⑤
(10) 최저임금보장, 인권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호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과학기술 혁신에 투자	①	②	③	④	⑤
(12) 연령, 성별, 장애, 민족, 출신 등에 따른 차별 해소	①	②	③	④	⑤
(13)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도시 환경	①	②	③	④	⑤
(14)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	①	②	③	④	⑤
(1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①	②	③	④	⑤
(16)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각종 오염 예방과 처리	①	②	③	④	⑤
(17) 산림, 해양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존	①	②	③	④	⑤
(18) 아동, 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	①	②	③	④	⑤
(19)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 보장	①	②	③	④	⑤

문60) 다음에 제시된 문항에 대하여 귀하 스스로 얼마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	①	②	③	④	⑤
(2) 나와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포용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자립	①	②	③	④	⑤
(5) 노동 문제와 시장 등 경제 사안에 대한 이해	①	②	③	④	⑤
(6)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	①	②	③	④	⑤

문61) 다음의 각 사회 문제에 대하여 평소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문항	전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보통 이다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1)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①	②	③	④	⑤
(2) 계층 간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3)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①	②	③	④	⑤
(4)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①	②	③	④	⑤
(5)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6) * '연금 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소정의 기여금이나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 퇴직, 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는 급여	①	②	③	④	⑤
(7)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①	②	③	④	⑤
(8)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①	②	③	④	⑤
(10)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①	②	③	④	⑤

문62) 귀하의 토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직장 및 사회에서 성차별적인 분위기
 ② 계층 간 불평등
 ③ 미세먼지, 생태계파괴 등 환경문제
 ④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⑤ 최저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
 ⑥ 일자리, 연금 등을 둘러싼 세대 갈등
 ⑦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
 ⑧ 남한과 북한의 갈등
 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⑩ 기후 변화 및 그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피해
 ⑪ 기타(적을 것 : _____)

문63) 귀하는 귀하의 또래가 사회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있다

문63-1) (문63에서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관심이 없다 응답자만)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벌과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
② 취미, 연애 등 개인생활
③ 인터넷, 방송, 신문 등 언론의 유도
④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⑤ 관심은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
⑥ 취업난으로 인한 여유 부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64) 사회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 귀하 또래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영향력이 없다
② 별로 영향력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영향력이 있다
⑤ 매우 영향력이 있다

문65) 다음 각 문항에 대해 참여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 항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참여하고 싶다	매우 참여하고 싶다
(1) 도시 생태농업 또는 텃밭 가꾸기	①	②	③	④	⑤
(2) 아파트, 마을, 학교 등에서 에너지 감축 계획 수립 및 이행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의 생태 서식지 보전을 위한 동·식물 관측 및 모니터링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①	②	③	④	⑤
(5) 공정무역, 지역 농산물, 협동조합 생산 제품 소비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의 정책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에 청소년 대표로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①	②	③	④	⑤

IX. 다음은 귀하의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경문항 1) [성별]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배경문항 2) [연령] 귀하의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일
--	--	--	--	---	--	--	---	--	--	---

배경문항 3) [지역] 귀하의 현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_____ 특별시/광역시/도 _____ 구/시/군

배경문항4) [가족배경] 부모님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최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최상

배경문항5) [가족배경]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 이 아닙니다)

구분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 - 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 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경문항6) 부모님 중 외국 출신인 분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배경문항7) 북한에서 이탈한 이주민 혹은 이주민의 자녀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기본 정보	전화번호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 - () - ()
		※ 전화번호는 추후 자료 확인을 위한 목적이며, 절대로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유출되지 않습니다.
응답 날짜		2016년 ()월 ()일
응답 시간		① 오전 ② 오후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총()분간 응답

에디팅(editing) 기록표

조 사 원	성 명					
	I D					
	1차(현장) 에 디 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실사 감독원	성 명					
	2차 에디팅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 명					
	I D					
	검 증 여 부	① 완료	② 미완료	(서명)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youth policy in ways which regard the youth as a leading agent for achieving the new global agenda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roposed by the UN between 2016-2030. The SDGs were aimed at not only the developing countries but also the developed countries encompassing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etal pillars, thus could be utilized as a framework for examin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youth in a holistic way, contributing to the extended approach to the youth policy by considering the youth as a future generation of the society. I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licited the idea of the quality of youth's life from the SDGs perspective and then examined critically the current youth policy in South Korea by focusing on its link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the study used the SDGs angle to analyze the 5th Youth Basic Plan and the policies under this plan during 2013-2016 and by doing so, pursued future policy directions towards aligning SDGs policy and the youth policy. Furthermore, the cases in other countries which deepened the alignment between the SD policy and the youth policy were explored in order to fill the gap between the SDGs and the current Korean youth policy: for example, an integration of the SD perspective to the youth policy in Ireland, and promotion of youth participation into the urban planning in Germany,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reality of the quality of the youth's life in South Korea through the SDGs lenses by using the secondary analysis of the existing empirical data. Also, a survey of the 986 Korean youth aged 15-24 years was conducted including the questionnaires of their perception on the SDGs, related social issues and participation into SD related action.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youth participation into the SD action was also conducted in order to find an insight into the policy means to promote youth participation. Based on the study's results,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rawn up in seven policy tasks and related sixteen projects under three policy areas: establishing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youth right and role as the future generation of the society, capacity building of the youth for leading the SDGs, and finally, aligning the youth policy with the SDGs framework.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youth capacity-building, quality of life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II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 IV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V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III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 - 재중 · 재미동포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경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VII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16-R17-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이장주·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박인영·이호경·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직립금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최정원·강지명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최정원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정은진·정건희

수 시 과 제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정의철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좌동훈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강경균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김기현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정은진·조혜영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 정은진·김기현

수탁과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유한구·채창균·오승근·김윤나·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김경준·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황여정·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모상현·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성은모·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오해섭·윤철경·김경준·최용환·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모상현·이윤주·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모상현·유성렬·김진석·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최창욱·좌동훈·문호영·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김지경·이윤주·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박선영·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성은모·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장근영·김지경·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Ⅶ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고 재 경 (경기연구원·연구위원)
김 중 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
김 찬 국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교수)
김 희 경 (경기도 환경교육센터·과장)
박 성 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서 용 석 (한국행정연구원·연구위원)
양 수 길 (한국 SDSN·상임대표)
이 상 현 (한신대학교·교수)
이 재 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교수)
이 중 훈 (녹색창원21실천협의회·사무처장)
전 명 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본부장)
전 성 민 (고양청소년재단·이사장)
조 선 하 (여성가족부·전문위원)
하 시 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임업연구사)
김정희 · 박준례 · 유한봄 · 장혜주 (수원의제21·미래세대행동위원)

연구보고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4(학술·정보팀)

ISBN 979-11-5654-106-6 93330



연구보고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ISBN 979-11-5654-106-6